

연구보고 17-R04



20대 청년들의 사회활동 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

책임연구원 김정숙

공동연구원 강영배

RESEARCH REPORT 2017

NYPI

20대 청년들의 사회활동 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

- ▶ 책임연구원 : 김정숙(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부연구위원)
- ▶ 공동연구원 : 강영배(대구한의대·교수)

발 간 사 ■ ■ ■

현재 한국 청년들이 당면한 문제는 교육, 일자리, 주거, 결혼, 출산, 부채 등 다양합니다. 청년 세대를 지칭하는 용어도 88만원 세대, N포 세대, 달관 세대 등으로 변화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의 청년정책은 일자리, 고용문제에 초점을 맞추어 왔던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청년 삶의 전반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종합적인 지원정책이 필요하다는 문제제기가 이루어지면서, 일자리 중심의 청년정책은 다양한 삶의 이슈를 포괄하는 정책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 연구는 청년 사회활동이 청년들의 성장과 발달에 긍정적인 의미와 가치를 지닐 수 있다는 점에 근거하여, 2010년 이후 다양해지고 있는 청년 사회활동의 유형과 실태를 파악하고 청년들의 사회활동 활성화 방안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최근 청년들 중 '나홀로족'이 증가하고 있는 현실은 청년들의 경제적 어려움이 관계 형성의 단절로 이어질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노동시장 이행 지연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청년들을 지원해야 한다는 논의와 별개로, 그들은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일상생활 영역뿐만 아니라 공적 영역 전반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활동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하고, 그 활동을 통해 시민성을 실현할 수 있는 권리를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사회에서 청년들은 노동시장 이행을 위한 준비활동 외에 다양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에 놓여있지 못한 상태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청년들의 다양한 사회활동은 청년들에게 진로를 모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면서도, 사회참여 및 타인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역량을 키울 수 있는 의미 있는 장(場)을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청년정책 분야에서 청년 활동에 관한 논의가 제한적으로 이루어져 왔다는 점에서, 이 연구가 지닌 의의와 시의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 연구에서 제안하고 있는 청년 사회활동 활성화 방안이 청년들의 사회활동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제고하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바라며, 이 연구를 계기로 청년 사회활동 참여 활성화에 대한 논의가 진전되기를 기대합니다.

2017년 12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원장 송 병 국

국 문 초 록

이 연구는 그간 청년정책이 주로 취업과 창업 등 일자리에 초점이 맞추어져 왔다는 점에 문제의식을 가지고, 변화된 사회문화적 환경과 그에 따른 청년 사회활동의 변화에 주목하여 청년들의 사회활동 실태를 파악하고, 청년 사회활동 활성화 방안을 도출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 같은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우선 청년 사회활동 관련 법령과 정책을 분석하고, 해외 정책 사례를 살펴보았다. 또한 20대 청년들을 대상으로 사회활동 실태를 파악하였다. 아울러 사회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청년집단을 유형별로 구분하여 면담조사를 실시하고 그들의 사회활동 경험을 심층적으로 분석하였으며, 지자체별 청년정책 담당자를 대상으로 청년 사회활동 지원사업의 실태, 청년 사회활동 지원에 대한 지자체의 입장, 향후 사회활동 활성화를 위한 개선점 도출을 위해 FGI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와 면담조사, FGI 분석결과, 청년들은 사회활동에 대한 참여 욕구가 강한 반면,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지원이 충분하지 않다고 인식했으며, 사회활동 참여 유형에 따른 청년들의 정책 욕구가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자체 담당자들은 청년 사회활동 활성화를 위해 중앙정부 수준에서의 「청년기본법」이 시급히 제정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청년 사회활동 참여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안으로 4가지 범주를 설정하고 세부과제를 제시하였다. 첫째, 청년 사회활동 관련 법령 및 정책 분야와 관련하여 「청년기본법」 제정 및 청년 사회활동 관련 내용 추가, 「지자체 청년기본조례 및 청년정책기본계획에 청년 사회활동 참여 관련 내용 추가」를 세부과제로 제안하였다. 둘째, 청년 사회활동 활성화를 위한 공통 지원 방안으로 「청년 개인에 대한 지원으로 활동비 지원」을 「청년 사회활동 인프라 지원」과 관련하여 프로그램 지원, 공간지원, 인력지원, 행정지원을 제안하였다. 셋째, 청년 사회활동 활성화를 위한 유형별 맞춤 지원 방안으로 「비참여자 및 비진학자를 위한 맞춤형 지원」, 「공공기관 대외활동 내용 재편」, 「정책참여 활동 활성화 방안 마련」, 「청년 사회활동 지역격차 해소를 위한 지역 청년단체 지원사업 확대」를 제안하였다. 넷째, 청년 사회활동 활성화 지원 시스템 구축과 관련된 정책과제로 「청년 사회활동 활성화를 위한 사회적 시스템 구축」, 「청년 사회활동 활성화를 위한 지원 프로그램 제공」, 「청소년 활동지원사업과의 연계 시스템 구축」 방안을 제안하였다.

핵심어: 청년, 사회활동, 청년 커뮤니티 활동, 대외활동, 정책참여 활동, 청년정책네트워크

연구 요약

1. 연구목적

- 이 연구는 그간 청년정책이 주로 취업과 창업 등 일자리에 초점이 맞추어져 왔다는 점에 문제의식을 가지고, 변화된 사회문화적 환경과 그로 인한 청년활동의 변화에 주목하여 청년들의 사회활동 실태를 다양한 유형으로 구분하여 분석하고, 분석 결과를 토대로 청년들의 사회활동을 활성화할 수 있는 정책 방안을 도출하는 데 목적이 있음.

2.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

1) 연구내용

- 청년 사회활동 관련 선행연구 고찰
 - 청년 사회활동을 시민성 실현 및 사회적 자본의 맥락에서 그 의미와 중요성을 고찰하였으며, 최근 청년 사회활동을 5가지 유형(비참여 집단 포함)으로 구분하여 정리하고, 2차 자료를 통해 청년들의 사회활동 현황 정리
- 청년활동 관련 법령 및 정책 분석
 - 청년 사회활동 관련 법령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정한 청년기본조례 및 20대 국회에서 발의한 「청년기본법」, 「청소년활동진흥법」을 중심으로 분석
 - 또한 특별시와 광역시, 경기도를 중심으로 청년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한 사례를 정리하고 청년 사회활동 관련 내용 분석
- 해외 청년활동 지원정책 분석
 - EU와 일본의 정책 지원 사례를 중심으로 분석
- 20대 청년들의 사회활동 실태 설문조사 및 분석

- 청년들의 사회활동 실태를 분석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설문조사에서는 사회활동 여부, 사회활동 유형, 활동 기간, 활동 목적, 활동 효과, 사회활동 비참여 이유, 사회활동 참여 욕구, 사회활동 정책 욕구 관련 내용 반영
- 사회활동 참여 청년 대상 면담조사 및 청년정책 담당자 FGI 분석
 - 사회활동에 참여하지 않은 ① 비참여 집단과 ② 청년 커뮤니티 활동 집단, ③ 지역사회 기반 청년단체 및 청년 당사자조직 활동 집단, ④ 소규모 목적지향적 활동(대외활동) 집단, ⑤ 정책참여활동 집단으로 구분하여 청년 사회활동 경험 심층 분석
 - 지자체 청년정책 담당자를 대상으로 청년 사회활동 활성화 방안 조사
- 정책과제 개발 및 제안
 - 상술한 연구내용을 토대로, 20대 청년들의 사회활동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안을 모색하고, 이를 위한 세부과제 도출

2) 연구방법

- 상술한 연구내용 분석을 위해, 문헌연구, 양적연구(실태조사), 면담조사 및 FGI 분석, 전문가 자문 및 정책연구실무협의회 방법 등 활용

3. 주요결과

1) 청년 사회활동 관련 법령, 정책 분석 및 해외 청년활동 지원 정책 분석

- 지자체별 ‘청년기본조례’ 및 20대 국회에서 발의한 「청년기본법안」
 - 현재 중앙정부의 「청년기본법」이 제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자체에서는 ‘청년기본조례’ 제정을 통해 청년들을 위한 지원 정책 및 사업을 운영 중에 있음. 이 때문에 지자체별로 ‘청년기본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연령 규정이 상이하여 지원 대상에서 차이가 발생하고 있음.

- 20대 국회에서 발의된 「청년기본법안」에는 청년단체 활동에 대한 지원 및 청년시설 설치·운영에 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으며 청년들의 정책참여를 보장할 수 있는 기구나 위원회 설치에 대한 내용도 명시하고 있어, 향후 청년당사자 조직에 대한 지원, 청년들을 위한 공간 보장, 청년들의 정책참여 활성화를 위한 근거로 작용할 수 있음.

○ 지자체별 ‘청년정책기본계획’

- 지자체마다 청년정책기본계획이 담고 있는 내용은 대체로 유사하면서도 차이점이 나타남.
- 주로 청년들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들, 예컨대 일자리와 고용, 주거,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과 관련된 정책을 포함하는 공통점이 있는 반면, 일부 지자체에서는 활동 전반을 위한 생태계 조성이나 토대(예컨대 공간 지원)를 구축하고 정책참여 활동 기회를 제공하는 데 주력하고 있으며, 또 다른 일부 지자체에서는 청년활동이 문화와 여가활동에 국한되어 있음.

○ 해외 청년활동 지원 정책

- EU는 ‘청년활동’(Youth in action) 프로그램을 통해 유럽 청년들의 교류, 민주주의 참여활동을 촉진하고, 자원봉사 활동을 장려하며, 세계 청년들과 협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 또한 청년단체들 간의 교육 및 네트워킹과 청년 및 청년정책 활동가들의 활동을 지원함.
- 또한 ‘구조화된 대화’(Structured dialogue)를 통해 유럽 청년들의 목소리가 정책 결정 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청년 국제활동 교부금’ 제도를 통해 EU 내 일부 지역, 국가 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활동들도 지원하고 있음.
- EU의 청년활동 지원 정책은 궁극적으로 청년 활동에 대한 지원을 통해 청년들이 시민 의식을 배우고,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도록 하는 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음.
- 일본의 청년활동 지원정책은 주로 은둔형외톨이, NEET(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 등과 같은 사회적 약자들을 주요 대상으로 하는 지원사업과 지역사회 개선과 변화를 위한 활동에 청년들의 주도적인 참여를 보장하는 지원사업으로 크게 구별해 볼 수 있음.
- 은둔형외톨이와 NEET를 위한 지원사업은 이들을 위한 전문상담원 제도와 직접 찾아가는 방문상담 및 외출동반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등 NEET와 은둔형외톨이 집단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또한 청년의 정책참여와 지역사회 개선활동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청년들의 ‘참여’와 ‘기획’ 역량을 제고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음.

2) 20대 청년들의 사회활동 실태 설문조사 분석

- 실태조사에 참여한 20대 청년 1,200명 중 사회활동 참여자 비율은 78.1%였으며, 비참여자는 21.9%로 나타났다. 사회활동 참여자(n=937) 중, 현재 동시에 참여하고 있는 사회활동 참여 개수를 살펴본 결과 1개인 경우 33.7%로 가장 많았고, 2개(29.8%), 3개(18.7%), 4개 이상은 17.8%로 파악되었음.
- 사회활동 참여 실태
 - 20대 청년들이 주로 참여하고 있는 사회활동 유형은 취미>온라인게시판>친목친교>진로 및 자기계발의 순서로 높게 나타났다.
 - 스스로 관심이 있어 정보를 검색한 후 사회활동에 참여하게 된 경우가 대다수를 차지하였음 (72%).
 - 사회활동 참여 기간은 '2년 이상'에 대한 응답이 52.%를 차지하였으며, 모임 규모는 '50명 미만'이 가장 높은 응답 비율(66.4%)을 보여 이들의 사회활동 모임 규모는 소~중규모임을 확인할 수 있었음.
 - 회원들의 연령대는 20대 또는 20~30대로만 구성된 비율이 55.9%를 차지하였으며, 오프라인 활동 빈도는 한 달에 2회 이상(26.3%), 비정기적으로 자주(22.5%), 월 1회(11.9%) 등으로 나타나 청년들의 활동 참여 빈도가 활발한 것으로 파악되었음.
 - 월평균 활동비는 26,000원~50,000원 미만(32%), 25,000원 이하(25.9%), 51,000원 이상(18.1%)으로 파악되었음.
 - 활동 장소가 없다는 응답(51.7%)이 있다는 응답(48.3%)보다 높아 활동 공간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되었음.
 - 활동참여 목적은 '활동 내용에 대한 관심 또는 흥미'(42.5%) > '사회적 관계망 형성'(21.2%) > '개인역량 강화'(16.6%)의 순서로 나타났다.
 - 청년들은 사회활동 참여가 '타인과 협력하는 능력과 태도를 향상시키'(86.2%)며, '주변 사람의 인정과 지지를 얻게 만든다'(74.6%)고 인식하였음.
- 사회활동 비참여 실태
 - 사회활동 비참여 이유는 '필요성 못 느낌'(28.5%), '시간 부족'(24.7%), '관계형성 부담'(15.2%), '활동비 부담'(13.7%)으로 나타남. 특히 '관계형성 부담'과 '필요성 못 느낌'에 대한 응답은 비경제활동 집단/구직자 집단에서 가장 높았으며, '시간부족'은 상용직

집단에게서 가장 높았음. '활동비 부담'도 비경활/구직자 집단에게서 가장 높게 나타나 향후 집단 유형별로 맞춤형 지원이 제공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음.

- 향후 사회활동 참여 시 필요한 사항은 '사회활동 참여를 위한 시간'(32.1%), '사회활동 참여 활동비'(23.2%), '사회활동 정보'(20.5%)로 조사되었음.

○ 사회활동 관련 인식 및 사회활동 활성화를 위한 정책 욕구

- 조사 참여 청년 중 85.9%가 청년들의 사회활동 참여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 사회활동 참여 이유로 '참여를 통한 삶의 질 향상'(28.1%), '사회문제에 대한 관심과 참여 높임'(24.8%), '사회적 관계망 형성'(20.1%)을 제시하였음.
- 응답자의 88.2%가 청년기본조례를 인지하고 있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 향후 정보 안내 및 홍보 제공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되었음.
- 응답자의 94.9%는 중앙정부 및 지자체의 청년 사회활동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식하였으며, 향후 청년 사회활동 활성화를 위해 가장 필요한 지원은 '활동비 지원'(35.4%), '공간(시설) 지원'(32.3%)으로 나타났음.

○ 사회활동 참여 집단 간 차이 & 사회활동 참여가 비인지적 역량, 대인신뢰, 공동체의식에 미치는 영향

- 종사상 지위 중, 비경제활동 집단/구직자 집단의 활동 참여율이 가장 낮았으며, 부모소득 수준이 낮을수록 사회활동 참여 비율이 낮은 것으로 파악되었음.
- 사회활동 참여자들이 비참여자들에 비해 비인지적 역량 수준이 높았으며(개인시민성 역량 중, 권리책임의식, 민주적 절차 의식 제외), 대인신뢰 수준과 공동체의식 수준이 높았음.
- 여타 독립변인을 통제한 상태에서, 사회활동 참여는 비인지적 역량, 대인신뢰, 공동체의식 수준에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정적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파악되어 청년 개인에게 뿐만 아니라 전체 사회적 자본 수준을 제고하는 데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파악되었음.

3) 사회활동 참여 청년 대상 면담조사 및 청년정책 담당자 FGI 분석

○ 청년 대상 면담조사 결과

- 면담조사 결과, 집단 유형별로 사회활동에 필요한 정책지원 욕구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음.

- 집단유형별 정책 지원 욕구는 다음과 같음. ① 사회활동 비참여 집단에게는 이들이 은둔형 외톨이, NEET 집단이 될 가능성을 고려하여 이들을 위한 전담인력 지원 방안을 마련해 볼 수 있으며, ② 청년 커뮤니티 활동 집단을 위해서는 청년활동에 대한 피드백과 조언을 해 줄 수 있는 지역사회 인력 발굴 및 지원(지역사회 구성원들의 재능기부 자원자 DB 구축 후 활용 방안 고려), ③ 지역사회 기반 청년단체 및 청년 당사자조직 활동 집단에게는 지역사회 내에서 공동체적 삶을 살고자 하는 청년 개인/단체를 위한 지원사업 확대, ④ 소규모 목적지향적 활동(대외활동) 집단에게는 청년이 성장할 수 있는 경험과 실무경험을 쌓을 수 있는 방식으로 대외활동 형식 및 내용 개편을, ⑤ 정책참여활동 집단에게는 지자체-청년들간 신뢰와 이해 제고를 위한 상호교류의 장을 마련하는 한편, 지자체 관계자 및 공무원들의 태도 개선(정책참여 활동의 의미와 가치 인식/정책 파트너로서의 존중)을 위한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되었음.
- 기타, 면담조사에 참여한 청년들은 공통적으로 활동 정보 제공 및 홍보, 공간지원, 활동비 지원, 청년과 지자체 간 가교 역할을 하는 지원 인력, 행정 절차 간소화, 청년단체 지원, 취업과 일자리 중심의 청년정책 탈피 등을 제안하였음.

○ 청년정책 담당자 FGI 결과

- FGI 결과, 청년 사회활동 지원사업 경과에서의 지자체별 차이는 ① 청년 사회활동에 대한 지자체 단체장의 인식 및 마인드 차이, ② 청년 당사자 조직 유무 및 역량 차이, ③ 행정 지원의 차이에서 비롯되었음.
- 지자체 청년정책 담당자들은 향후 청년 사회활동 활성화를 위한 개선점으로 중앙정부 수준에서는 ‘청년기본법 통과 및 청년정책 총괄기구 신설’, ‘청년 사회활동에 대한 지원을 위해 중앙정부 vs. 지방정부의 역할분담 및 민관 거버넌스 체계 구축’을, 지방정부 수준에서는 ‘청년 사회활동 지원사업 확대 및 심화 프로그램 개발’, ‘중간 지원 조직의 설치와 운영을 위한 지원’, ‘민관 협치에 대한 인식 개선과 지원을 위해 청년의 정치적 효능감 제고 및 상호신뢰’ 방안을 제안하였음.

4. 정책제언

1) 청년 사회활동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 청년 관련 법령 및 정책 분야

- 「청년기본법」 제정 및 동법에 청년 사회활동 관련 내용 추가
 - 20대 국회에 발의된 6건의 「청년기본법안」에 청년활동지원에 관한 내용을 추가하고, 청년 사회활동을 진흥하기 위한 청년발전지원기금에 대한 내용 추가 제안
 - 청년들의 정책참여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청년기본법안」에 거버넌스 관련 내용을 명시함.
- 지자체 ‘청년기본조례’ 및 청년정책기본계획에 청년 사회활동 관련 내용 추가

2) 청년 사회활동 활성화를 위한 공통 분야 지원

- 청년 사회활동 활성화를 위한 청년 개별 지원 방안으로 활동비 지원 방안 제안
- 청년 사회활동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지원 방안으로, 프로그램 지원(청년 사회활동 지원사업), 공간지원(개방형 교류공간 및 목적지향적 활동 공간), 인력지원(청년활동 코디네이터 채용 및 활동 멘토 연계), 행정지원(청년단체 지원사업 요건 완화 및 행정절차 간소화) 방안 제안

3) 청년 사회활동 활성화를 위한 유형별 맞춤 지원

- 사회활동 비참여자 및 대학 비진학자를 위한 맞춤형 지원 방안 제안
- 공공기관 대외활동 내용 재편
 - 공공기관의 대외활동을 청년들이 직접 기획하는 활동 또는 프로젝트 참여를 통해 실무경험을 쌓을 수 있는 내용으로 재편
- 정책참여 활동 활성화 방안 제안
 - 청년들의 정책참여 활동 활성화를 위해 지역 청년들의 정책참여 활동 역량 제고 프로그램 운영 및 청년-지자체 담당자간 교류 및 소통기회 확대 방안 제안
- 청년활동 지역격차 해소를 위한 지역 청년단체 지원사업 확대 과제 제안

4) 청년 사회활동 활성화를 위한 지원 시스템 구축

- 청년 사회활동 활성화를 위한 사회적 시스템 구축 과제 제안
 - 청년 참여활동 활성화를 위한 민관 거버넌스 정례화 및 청년 사회활동에 대한 인식 개선과 홍보 활동 제안
- 청년활동 활성화를 위한 지원 프로그램 제공 과제 제안
 - 청년단체 활동가 지원 및 지자체 청년센터 실무자를 위한 지원 방안 제안
- 청소년 활동지원사업과의 연계 시스템 구축 과제 제안

목 차

I.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3
2. 용어의 정의	7
3. 연구내용	7
1) 청년 사회활동 선행연구 고찰, 관련 법령 및 정책, 해외사례 분석	7
2) 20대 청년들의 사회활동 실태 파악	8
3) 20대 청년들의 사회활동 경험 및 의미 분석	8
4) 청년 사회활동 활성화 관련 정책과제 개발 및 제안	9
4. 연구방법	10
1) 문헌연구	10
2) 전문가 자문	10
3) 설문조사	10
4) 면담조사 및 FGI	11
5) 정책연구실무협의회	12
5. 연구추진체계	13
II. 논의의 배경	15
1. 청년 사회활동의 의미와 중요성	17
1) 사회활동의 의미	17
2) 20대 청년 사회활동의 중요성	20
2. 20대 청년들의 사회활동 유형	22
3. 20대 청년들의 사회활동 현황	27
1) 사회조사 및 한국종합사회조사 결과	27
2) 지자체의 청년종합실태조사 결과	36

Ⅲ. 청년 사회활동 관련 법령·정책 및 해외사례 분석	45
1. 청년 사회활동 관련 법령 분석	47
1) 전국 지자체 「청년기본조례」 및 20대 국회 「청년기본법안」	47
2) 「청소년활동진흥법」	54
3) 소결	57
2. 지자체 청년정책기본계획 및 청년 사회활동 관련 내용 분석	59
1) 서울특별시	59
2) 경기도	62
3) 부산광역시	65
4) 대구광역시	67
5) 광주광역시	70
6) 소결	73
3. 해외 청년 사회활동 지원 정책	74
1) EU	75
2) 일본	83
3) 소결	91
Ⅳ. 20대 청년 사회활동 실태 설문조사 결과	93
1. 설문조사 개요	95
1) 표본의 구성 및 조사방법	95
2) 조사 내용	97
3) 자료 분석 방법	101
4) 실태조사 응답자의 배경 특성	101
2. 사회활동 실태	102
1) 사회활동 참여 실태	103
2) 사회활동 비참여 실태	124

3. 사회활동 관련 인식 및 사회활동 활성화를 위한 정책욕구	129
1) 청년들의 사회활동 참여 필요성	129
2) 청년들의 사회활동 참여가 필요한 이유(1순위)	130
3) 청년 커뮤니티 지원 사업 참여 의향	132
4) 청년 커뮤니티 지원 사업에 참여하고 싶은 주된 이유	132
5) 청년기본조례 제정 인지 여부	134
6) 지자체의 청년 사회활동 지원에 대한 인식	135
7) 청년을 위한 별도 공간(시설) 설치·운영 시 가장 필요한 공간	136
8) 중앙정부 및 지자체의 청년 사회활동 지원 필요성에 대한 동의	138
9) 청년 사회활동 활성화를 위해 가장 필요한 지원(1순위)	139
10) 청년을 위한 공간(시설)을 무료제공·할인 지원 시 이용하고 싶은 공간 (중복응답)	139
11) 청년들의 사회활동 참여의 지역사회개선·사회발전 기여 정도에 대한 동의	140
4. 사회활동 참여의 집단 간 차이 및 사회활동 참여가 비인지적 역량, 대인신뢰 및 공동체의식에 미치는 영향	141
1) 사회활동 참여의 집단 간 차이	141
2) 사회활동 참여 여부에 따른 비인지적 역량, 대인신뢰 및 공동체의식의 차이	143
3) 사회활동 참여가 비인지적 역량, 대인신뢰 및 공동체의식에 미치는 영향	149
5. 소결	153

V. 사회활동 참여 청년 면담조사 및 청년정책 담당자 FGI 결과	159
1. 면담조사 및 FGI 개요	161
1) 면담조사 개요	161

2) FGI 개요	165
3) 분석 방법	166
2. 청년 대상 면담조사 결과	167
1) 사회활동 비참여자	168
2) 청년 커뮤니티 지원사업 참여자	172
3) 지역사회기반 청년단체 및 청년당사자 조직 활동 참여자	183
4) 소규모 목적지향적 활동(대외활동) 참여자	197
5) 정책참여 활동자	204
3. 청년정책 담당자 대상 FGI 결과	215
1) 청년 사회활동에 대한 지자체의 인식	215
2) 청년 사회활동지원 사업 경과에서의 지자체별 차이	216
3) 청년 사회활동 활성화를 위한 개선점	221
4. 소결	226
VI. 정책 제언	231
1. 정책 제언의 배경	233
2. 정책 과제	237
참고문헌	277
부 록	293

표 목차

〈표 Ⅰ-1〉 연구내용 및 연구보고서의 구성	9
〈표 Ⅱ-1〉 서울시 청년활동 단체 유형	25
〈표 Ⅱ-2〉 단체 참여자 및 참여 단체 유형(중복응답)	28
〈표 Ⅱ-3〉 기부 경험 및 기부하지 않는 이유	30
〈표 Ⅱ-4〉 향후 기부 의사	31
〈표 Ⅱ-5〉 자원봉사활동 참여현황	32
〈표 Ⅱ-6〉 한국인의 정치·사회적 행동 실천	34
〈표 Ⅱ-7〉 한국인의 사회집단 참여	35
〈표 Ⅱ-8〉 의견 표명 제시 방법	36
〈표 Ⅱ-9〉 지자체별 청년종합실태조사 항목	37
〈표 Ⅲ-1〉 전국 지방자치단체 청년기본조례 제정 현황(2017. 10. 14. 기준)	48
〈표 Ⅲ-2〉 광역자치단체 청년기본조례 내용 분석	49
〈표 Ⅲ-3〉 제20대 국회의 「청년기본법안」 분석	52
〈표 Ⅲ-4〉 서울특별시 청년정책기본계획	59
〈표 Ⅲ-5〉 서울특별시 청년허브 운영 주요 사업	60
〈표 Ⅲ-6〉 경기도 청년정책기본계획	63
〈표 Ⅲ-7〉 부산광역시 청년정책기본계획	65
〈표 Ⅲ-8〉 대구광역시 청년정책기본계획	68
〈표 Ⅲ-9〉 대구광역시청년센터 4개 분야 사업 내용	69
〈표 Ⅲ-10〉 광주광역시 청년정책기본계획	70
〈표 Ⅲ-11〉 광주청년센터 the 숲 사업 내용	72
〈표 Ⅲ-12〉 ‘청년활동’ 프로그램 목표달성을 위한 다섯 가지 행동	76
〈표 Ⅲ-13〉 청년활동 프로그램 참여자 대상 설문조사 결과	78
〈표 Ⅲ-14〉 구조화된 대화 제1차~제5차 사이클 주제	79
〈표 Ⅲ-15〉 에라스무스 플러스 프로그램의 3가지 주요 행동	80
〈표 Ⅲ-16〉 유럽청년재단의 청년 국제활동 지원 교부금 유형	81

〈표 III-17〉 NPO 스텝 및 참여자 연령분포(관계자 유형별)(중복응답)	85
〈표 III-18〉 일본 청년들의 여가활동 실태조사 결과(중복응답)	86
〈표 IV-1〉 배경변인별 만 19~28세 청년 인구 분포	96
〈표 IV-2〉 설문조사를 위한 만 19~28세 표본의 할당 표본수	96
〈표 IV-3〉 20대 청년 사회활동 실태조사 영역 구성 및 주요 조사 항목	98
〈표 IV-4〉 설문조사 개요	100
〈표 IV-5〉 실태조사 응답자의 인구학적 배경 특성	101
〈표 IV-6〉 사회활동 참여 개수	103
〈표 IV-7〉 사회활동 참여 유형(중복응답)	103
〈표 IV-8〉 주요 사회활동 참여 유형	105
〈표 IV-9〉 사회활동 참여 계기	106
〈표 IV-10〉 사회활동 시작 시기	107
〈표 IV-11〉 사회활동 참여 기간	108
〈표 IV-12〉 사회활동 모임 규모	110
〈표 IV-13〉 사회활동 모임 결성 방법	110
〈표 IV-14〉 단체(모임) 회원들의 연령대	112
〈표 IV-15〉 단체(모임) 회원 성비	112
〈표 IV-16〉 오프라인 활동 빈도	114
〈표 IV-17〉 활동 장소 유무	115
〈표 IV-18〉 활동 장소 유형	117
〈표 IV-19〉 활동장소이용 비용 부담 여부	117
〈표 IV-20〉 사회활동에 대한 만족도	120
〈표 IV-21〉 사회활동 참여의 효과에 대한 인식	122
〈표 IV-22〉 사회활동 비참여 이유	126
〈표 IV-23〉 사회활동 참여 의향	127
〈표 IV-24〉 참여하고 싶은 사회활동 유형(1순위)	128

〈표 IV-25〉 청년들의 사회활동 참여 필요성	130
〈표 IV-26〉 청년들의 사회활동 참여가 필요한 이유(1순위)	131
〈표 IV-27〉 청년 커뮤니티 지원 사업에 참여하고 싶은 주된 이유	134
〈표 IV-28〉 지자체의 청년 사회활동 지원에 대한 인식	136
〈표 IV-29〉 청년을 위한 별도 공간(시설) 설치·운영 시 가장 필요한 공간	137
〈표 IV-30〉 중앙정부 및 지자체의 청년 사회활동 지원 필요성에 대한 동의 ...	138
〈표 IV-31〉 청년 사회활동 참여의 지역사회개선·사회발전 기여 정도에 대한 동의	141
〈표 IV-32〉 배경변인별 사회활동 참여 여부	142
〈표 IV-33〉 사회활동 참여 여부에 따른 비인지적 역량의 차이	145
〈표 IV-34〉 사회활동 참여 여부에 따른 대인신뢰 및 공동체의식 차이	148
〈표 IV-35〉 투입변수, 측정 방법 및 기술 통계치	149
〈표 IV-36〉 비인지적 역량, 대인신뢰 및 공동체의식에 대한 회귀분석	151
〈표 IV-37〉 20대 청년들의 사회활동 실태 설문조사 주요 결과 및 시사점	153
〈표 V-1〉 면담조사 내용	162
〈표 V-2〉 면담조사 참여자 선정 과정	163
〈표 V-3〉 면담조사 참여자 개요	164
〈표 V-4〉 FGI 참여자 및 조사내용	166
〈표 V-5〉 사회활동 참여 유형별 면담조사 주요 결과 및 시사점	226
〈표 VI-1〉 정책과제의 근거와 내용	234
〈표 VI-2〉 박주민의원 대표 발의 「청년기본법안」 청년 사회활동 관련 내용 추가	239
〈표 VI-3〉 독일 혁신기금 지원 프로젝트 사례	240
〈표 VI-4〉 박주민의원 대표 발의 「청년기본법안」 청년발전지원기금 내용 추가	241
〈표 VI-5〉 청년들의 정책결정참여 보장을 위한 거버넌스 모델	242

〈표 VI-6〉 청년기본조례에 포함된 ‘청년 참여 확대’ 관련 내용	245
〈표 VI-7〉 청년 사회활동 지원사업 2.0의 내용	252
〈표 VI-8〉 ‘청년 사회활동 코디네이터(가칭)’ 근로 조건 및 직무	257
〈표 VI-9〉 사회활동 비참여자 지원방안	262
〈표 VI-10〉 청년 사회활동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 추진전략(안)	275

그림 목차

【그림 Ⅰ-1】 연구추진체계	13
【그림 Ⅱ-1】 청년 사회활동의 유형	23
【그림 Ⅱ-2】 본 연구과제에서 다루는 20대 청년들의 사회활동 유형	26
【그림 Ⅱ-3】 20대 청년들의 단체 참여율(1999~2015년)	29
【그림 Ⅱ-4】 20대 청년 및 10대 청소년들의 참여 단체 유형 비교 (주된 참여 단체)	29
【그림 Ⅱ-5】 20대 청년들의 기부 참여율(2006~2015년)	31
【그림 Ⅱ-6】 20대 청년들의 자원봉사 참여율(1999~2015년)	33
【그림 Ⅱ-7】 경기도 청년들의 ‘현재 즐기는 여가생활’(중복응답)	38
【그림 Ⅱ-8】 경기도 청년들의 ‘평소 여가를 즐기지 못하는 이유’(중복응답)	38
【그림 Ⅱ-9】 경기도 청년들의 ‘희망하는 문화·예술활동’	39
【그림 Ⅱ-10】 대구시 청년정책 의견 표명 주요 활동 방법(중복응답)	39
【그림 Ⅱ-11】 대구청년센터 운영 프로그램에 대한 관심(중복응답)	40
【그림 Ⅱ-12】 대구청년센터 향후 운영 중점 분야(중복응답)	41
【그림 Ⅱ-13】 광주시 청년들의 ‘동호회 활동 분야’(중복응답)	41
【그림 Ⅱ-14】 광주시 청년들의 ‘활동하고 싶은 동호회 분야’(중복응답)	42
【그림 Ⅱ-15】 광주시 청년들의 ‘청년에게 필요한 공간’ 응답결과	43
【그림 Ⅱ-16】 광주청년센터 운영 방향(중복응답)	43
【그림 Ⅲ-1】 서울시의 청년활력공간	62
【그림 Ⅲ-2】 EU의 청년활동 지원 정책 사례	75
【그림 Ⅲ-3】 청년활동(Youth in Action) 운영 과정	77
【그림 Ⅲ-4】 일본의 청년활동 지원 정책 사례	83
【그림 Ⅲ-5】 일본 동경도 은둔형외톨이청년지원 프로그램 개념도	89
【그림 Ⅲ-6】 일본 삿포로시 청년지원시설 사업소개	91
【그림 Ⅳ-1】 사회활동 참여 및 비참여 실태	102
【그림 Ⅳ-2】 사회활동 참여 유형(중복응답)	104

【그림 IV-3】 사회활동 시작 시기	106
【그림 IV-4】 사회활동 참여 기간	108
【그림 IV-5】 사회활동 모임 규모	109
【그림 IV-6】 단체(모임) 회원들의 연령대	111
【그림 IV-7】 오프라인 활동 빈도	113
【그림 IV-8】 월평균 활동비	114
【그림 IV-9】 활동 장소 유형	116
【그림 IV-10】 사회활동 성격	118
【그림 IV-11】 사회활동을 하는 주된 목적(1순위)	119
【그림 IV-12】 사회활동 참여의 적극성	119
【그림 IV-13】 사회활동 참여의 효과에 대한 인식	121
【그림 IV-14】 사회활동과 향후 진로와의 관련성 여부	123
【그림 IV-15】 사회활동을 통한 창업·창직 고려 또는 실행	124
【그림 IV-16】 사회활동 비참여 이유	125
【그림 IV-17】 참여하고 싶은 사회활동 유형(1순위)	127
【그림 IV-18】 사회활동 참여 시 가장 필요한 것	129
【그림 IV-19】 청년들의 사회활동 참여가 필요한 이유(1순위)	131
【그림 IV-20】 청년 커뮤니티 지원 사업 참여 의향	132
【그림 IV-21】 청년 커뮤니티 지원 사업에 참여하고 싶은 주된 이유	133
【그림 IV-22】 청년기본조례 제정 인지 여부	134
【그림 IV-23】 ‘청년 사회활동에 대한 지자체의 지원이 충분함’에 대한 동의 정도	135
【그림 IV-24】 청년을 위한 별도 공간(시설) 설치·운영 시 가장 필요한 공간	137
【그림 IV-25】 중앙정부 및 지자체의 청년 사회활동 지원 필요성에 대한 동의	138
【그림 IV-26】 청년 사회활동 활성화를 위해 가장 필요한 지원(1순위)	139

【그림 IV-27】 공간(시설) 무료제공·할인 지원 시 이용하고 싶은 공간 (중복응답)	140
【그림 IV-28】 부모소득에 따른 사회활동 참여의 차이	143
【그림 IV-29】 사회활동 참여 여부에 따른 비인지적 역량의 차이	147
【그림 IV-30】 사회활동 참여 여부에 따른 대인신뢰 및 공동체의식	149
【그림 V-1】 분석과정에서 활용한 자료	167
【그림 V-2】 면담조사 참여자 유형	167
【그림 V-3】 청년 커뮤니티 활동 분야(서울시 ‘청년참’ 사례)	172
【그림 V-4】 청년 사회활동의 의미	230
【그림 VI-1】 청년 사회활동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 4개 영역	235
【그림 VI-2】 정책영역 및 정책추진과제	236
【그림 VI-3】 청년 사회활동지원사업 2.0 주요내용	253
【그림 VI-4】 ‘청년 사회활동 코디네이터’(가칭)의 표준직무 및 역할	258
【그림 VI-5】 청년을 위한 공공기관 대외활동 개선안	264
【그림 VI-6】 유럽 청년 포털(European Youth Portal) 홈페이지	271

제 I 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용어의 정의
3. 연구내용
4. 연구방법
5. 연구추진체계

제 | 장 서 |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고용 없는 성장의 시대에 접어든 지금, 청년 취업난은 좀처럼 호전되지 않고 있다. 통계청 고용동향에 따르면, 청년층(15~29세)의 실업률은 2012년 7.5%에서 2016년 12월 현재 9.8%로 2.2%p 증가하였으며(통계청, 2017. 1. 11.), 체감 청년 실업률은 22.0%에 이른다(통계청, 2017. 2. 8.). 지금까지 다양한 청년 일자리 정책이 도입·적용되었으나(이데일리, 2017. 2. 14.), 청년 일자리 문제를 포함하여 청년의 전반적인 삶이 개선되고 있다는 단서를 찾기는 어렵다.

현재 청년들이 당면한 문제들 중 핵심은 일자리임에는 틀림없지만, 일자리 정책만으로 청년들의 삶을 온전히 개선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지금까지 정부의 청년정책은 대부분 취업과 창업 등 고용정책에 한정되어 왔던 것이 사실이다. 서구사회에서도 청년정책의 초점이 일자리에 맞추어져 있긴 하나 대부분의 정책이 고용에만 국한되어 있지는 않다. 일례로 EU가 추진하고 있는 청년정책에는 고용문제를 포함하여 교육과 훈련, 참여, 사회통합, 건강과 웰빙, 문화·예술·여가, 자원봉사활동, 국제교류 등(European Commission, 2012) 청년의 전반적인 삶의 이슈들을 포함한다. 일자리 중심의 청년정책은 최근 많은 문제제기와 비판을 받고 있는데, 비판의 요지는 일자리 중심의 청년정책이 청년 삶을 둘러싼 다양한 쟁점들을 포괄하지 못한다는 점이다(신필균, 2016. 5. 20.).

일자리 및 고용문제 중심의 청년정책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면서 19대 국회에서는 청년 삶의 전반적인 문제를 포괄하는 「청년기본법안」이 발의되었으나 처리되지 못했다. 20대 국회에서도 여러 건의 「청년기본법안」이 발의된 상태에 있다. 그 사이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청년기본조례들이 제정되고 있다. 나아가 청년이 직면한 어려움은 일자리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주거, 부채 등 사회경제적 기반의 취약성에 있으며, 그로 인한 생활 안정이 불가능하다는 문제의식으로

* 이 장은 김정숙 부연구위원(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집필하였음.

확장되었다. 이로써 청년문제 해결을 위한 종합적인 지원정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서울시에서는 일자리 중심의 청년정책에 대한 문제의식을 토대로, 청년정책을 ① 활동(설자리) ② 노동(일자리) ③ 주거(살자리) ④ 공간(놀자리) 등 4개 분야, 20개 하위정책으로 구성하여 청년들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청년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하였다¹⁾. 특히 이 중, 청년활동 지원사업은 “변화된 사회문화적 환경에 따라 청년들이 스스로 계획을 세우고 능동적으로 진로를 찾을 수 있도록 자율적인 진로·사회활동을 지원”²⁾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청년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활동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공간 지원에도 힘쓰고 있다. 그간 청소년 분야에서의 ‘활동’은 수련활동, 교류활동, 문화활동 등 체험활동에 국한하여 논의되어 왔다. 물론 청소년 인권 또는 역량의 측면에서 ‘사회참여’에 대한 관심과 강조도 있었다. 즉, 사회참여는 선거나 정책참여와 같은 정치 참여, 시민사회 및 지역사회 참여활동을 통해 시민으로서의 역량을 제고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 그런데 기존의 청소년 활동 또는 사회참여 범주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청년들에게 유의미한 활동들이 존재한다. 예컨대 청년들 사이에는 다양한 목적을 지향하는 소규모 커뮤니티 활동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기존 시민사회단체(NGO, NPO) 활동에서 나아가 2010년 이후 새롭게 등장한 자발적 청년 조직의 등장과 관련된 활동들, 민관 거버넌스에 의한 정책 참여 활동들도 청년들의 성장과 발달에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성인기 이행(transition)이 지연되고 있는 사회문화적 환경에서 청년들의 사회적 관계와 새로운 유형의 활동을 지칭하는 개념으로 “사회활동”을 포괄적으로 정의하고 20대 청년들의 사회활동을 분석해 보고자 한다.

주지하다시피 최근 20대 청년들을 설명하는 키워드 중 하나는 ‘나홀로족’이다. 취업포털 사람인이 2016년 9월 20~30대 성인남녀 1,59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조사대상의 52.5%가 본인이 ‘나홀로족에 해당한다’고 응답했다. 나홀로 문화가 확산되는 원인으로는 ‘개인주의 가치관 확산’(44.1%), ‘경제 불황’(19.8%), ‘비혼 증가’(12.1%), ‘청년실업 증가’(8.9%)의 순으로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서울신문, 2016. 9. 20.). 또한 젊은이들 중 연애, 결혼, 출산에 더해 내 집 마련과 인간관계까지 포기하는 ‘5포 세대’가 증가하고 있다는 기사도 보도된 바 있다(한겨레신문, 2015. 3. 3.). 청년들의 사회적 관계 형성이 취업준비 또는 자기계발과 같은 목적지향적 활동에 국한되거나 제한되고 있는 점은 노동시장으로의 이행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에게 사회적 지지의

1) 서울시 홈페이지 <http://mediahub.seoul.go.kr/archives/955898>에서 2017년 3월 15일 인출.

2) 서울시 홈페이지 http://youthhope.seoul.go.kr/?tr_code=theme#page7에서 2017년 3월 15일 인출.

부재나 소속감의 상실을 안겨줄 가능성이 크다. 이는 청년 개인뿐만 아니라 전체 사회의 협력과 신뢰 형성에도 부정적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다.

상술한 내용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의 맥락에서 청년 사회활동의 의미와 중요성에 대해 주목해 보고자 한다. “사회구조 내의 개인이나 집단이 특정한 행위를 성공적으로 행할 수 있는 유용한 도구”로 정의(Coleman, 1988; 백병부·김정숙, 2014: 225에서 재인용)되는 사회적 자본의 접근을 취할 때, 청년들의 사회활동은 청년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적으로도 의미가 있다. 20대 청년들에게 사회활동은 한편으로 사회적 관계 형성을 통해 소속감을 얻고 상호 협력의 기회를 제공한다. 아울러 사회활동 자체가 사회에 대한 개입(engagement)과 변화의 의미를 내포한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다시 말해서, 청년들은 사회활동을 통해 타인에 대한 이해, 지역사회와 전체 사회의 상황 변화를 확인하면서 사회 내에서의 자신들의 위치와 입지를 구축할 수 있게 된다. 다른 한편, 사회적 관계망 형성을 견인하는 사회활동은 사회적 신뢰수준을 제고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가치가 있다.

그간 청년 실업난과 그에 따른 청년 일자리 정책에는 많은 관심이 있었으나, 변화된 사회문화적 환경과 그로 인한 청년 활동의 변화에 주목한 연구는 많지 않았다. 특히 청년들의 사회활동에 대한 논의는 ‘활동’ 또는 ‘참여’로 분리되어 제한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통계청(2015)의 조사에서도 단체 참여는 과거의 분류 방식(친목 및 사교단체, 종교단체, 취미, 스포츠 및 레저단체, 시민사회단체, 정치단체, 학술모임, 지역사회모임 등)을 그대로 따르고 있으며, 청년의 참여활동 역시 지역사회참여(도승자, 2012)와 정치참여(김지만, 2012) 등에 국한되어 논의되어 왔다. 마찬가지로, 활동 분야 역시 자원봉사활동, 기부활동에 국한하여 조사되고 있다(통계청, 2015).

상술한 선행연구들의 접근 방식은 2010년 이후 20대 청년들의 사회적 관계 형성의 변화와 청년 당사자 조직의 활동을 종합적으로 파악하는 데에는 일정 부분 한계가 있다. 우선 취업준비에 따른 시간 부족과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20대 청년들에게 사회적 관계 형성은 과거와는 다른 의미를 지닐 가능성이 크다. 또한 새로운 관계 형성을 통해 이루어지는 활동 내용의 성격도 새롭게 고찰할 필요가 있다. 즉 그것이 청년 개인과 사회적 측면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분석하는 것은 새로운 청년정책 수립 및 지원 방안 마련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청년 당사자 조직의 등장과 활동은 청년정책의 외연을 확장하는 데에도 도움이 되고 있다. 이에 청년들의 사회활동은 과거 ‘활동’ 또는 ‘참여’라는 한 가지 개념으로 환원되기 어려우며, 질적으로 변화된 양상을 띠는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청년 사회활동의 개념을 새로운 맥락에서 재구성하고 새로운 관점으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외에도 청년들의 사회활동은 청년들의 성장과 발달을 위해 긍정적 의미와 가치를 지닌다고 볼 수 있다. 현재 많은 청년들이 취업난과 사회경제적 문제를 겪고 있지만, 그들은 사회라는 울타리 안에서 타인과 관계를 맺을 수 있어야 하고, 미래 자신의 진로와 삶을 기획할 수 있는 다양한 사회활동들을 모색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활동들은 청년에게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심리적 위축과 사회적 고립을 막을 수 있는 장치가 되고, 나아가 동료들의 지지와 소속감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2010년 이후 청년들의 다양한 사회활동의 유형을 분류하고 사회활동의 효과를 분석하는 작업은 청년정책의 외연을 확장하는데 기여하고 동시에 청년들의 사회활동을 지원하는 실증적 근거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청년의 연령을 20대로 국한하였다. 우선 「청소년기본법안」에 명시된 청소년의 연령은 9세~24세인데 최근 20대 국회에서 발의된 「청년기본법안」은 각 법안들마다 청년들의 연령 기준(19~34세, 19~39세)이 상이하다(김기현·하형석·신인철, 2016: 208). 그러나 통상 20대를 청년으로 명명해 온 점, '청년'의 연령 기준으로 '19~29세'까지라는 응답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난 가장 최근의 연구결과(김기현·하형석·신인철, 2016)를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 분석하고자 하는 청년 연구대상을 20대로 한정하였다. 아울러 성인기 이행이 지연되고 상황에서, 20대에 이루어진 사회활동이 그들의 30~40대의 삶을 기획하고 준비하는 데 영향을 주며 실제로 의미 있는 변화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도 청년 연령을 20대로 한정하는 근거로 작용하였다.

상술한 문제의식을 토대로, 본 연구는 청년들의 사회활동 실태를 다양한 유형으로 구분하여 분석하고 분석 결과를 토대로 청년들의 사회활동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특히 최근 대학비진학 인구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여, 이 연구에서는 20대 청년들의 사회활동 참여를 대학 진학, 비진학 청년을 모두 포괄하여 분석해 보고자 한다. 청년들의 사회활동은 미시적으로는 개인적 만족감 또는 특정한 목적 달성에 도움이 되는 활동이 될 수 있고, 거시적으로는 지역사회 및 전체 사회의 발전에 새로운 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청년들의 사회활동 실태 분석을 통해 사회활동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청년들의 사회활동 지원방안을 제안함으로써 청년들의 사회활동 활성화에 단초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2. 용어의 정의

본 연구에서는 20대 청년들의 사회활동을 “일상생활 영역과 공적 영역 전반에서 이루어지는, 시민성을 실현할 수 있는 다양한 유형의 활동”으로 정의한다. “시민성은 시민으로서의 자기 확립과 타인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덕목과 역량을 의미한다(이선미, 2016: 60).” 지금까지 시민성에 대한 논의는 주로 공적, 정치적 영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일상생활 영역에서 시민성이 제대로 발현될 때 공적, 정치적 영역에서의 시민성 역시 제대로 발현될 수 있다는 점에서 두 가지 영역 모두에서 시민성의 발현이 중요하다(이선미, 2016: 61~63). 또한 사회활동 참여를 통한 시민성 향상은 전체 사회의 사회적 자본 수준을 제고한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청년들의 사회활동을 일상생활 영역에서부터 공적 영역까지 생활 전반의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유형의 활동으로 포괄적으로 정의하여 살펴본다.

3. 연구내용

1) 청년 사회활동 선행연구 고찰, 관련 법령 및 정책, 해외사례 분석

청년 사회활동의 의미와 중요성, 청년 사회활동 유형 및 현황을 문헌연구를 통해 정리하였다. 청년들의 기존 사회활동 참여 현황 파악을 위해 통계청의 「사회조사」, 성균관대학교 서베이리서치센터의 「한국종합사회조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청년 사회·경제 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 I」의 조사결과를 활용하여 관련 내용을 정리하였다. 또한 청년 사회활동 관련 법령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정한 청년기본조례 및 20대 국회에서 발의한 「청년기본법안」, 「청소년활동진흥법」을 중심으로 분석하였으며, 특별시와 광역시, 경기도를 중심으로 청년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한 사례를 정리하면서 청년 사회활동과 관련된 내용을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해외 청년활동 정책지원 동향을 문헌연구를 통해 정리하였다. 이를 토대로 청년 사회활동 실태조사 및 면담조사의 내용과 방향 그리고 정책제안의 방향을 설정하고 전체 연구의 분석과 정책과제 도출 및 제안을 위한 명확한 논리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2) 20대 청년들의 사회활동 실태 파악

국내에서 20대 청년들의 사회활동과 관련된 실태조사가 거의 전무한 상황에서, 청년들의 사회활동 기본실태, 비참여 이유, 사회활동 전반에 대한 인식 및 정책욕구 등을 파악하기 위해 실태조사가 필요하다. 인구학적 특성을 고려할 때, 20대 청년 집단은 다양한 세부 집단으로 구분될 수 있다. 때문에, 사회활동에 대한 인식 조사는 다양한 청년 집단의 의견이 고루 반영될 수 있도록 설계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청년 사회활동 기본실태 및 사회활동 관련 인식을 다각도로 파악하기 위해 청년들의 다양한 배경변수를 고려하여 실태조사를 설계하였다. 구체적으로, 20대 청년들을 대학 진학 여부, 연령, 권역, 성별 등을 고려하여 사회활동 실태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3) 20대 청년들의 사회활동 경험 및 의미 분석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청년 사회활동 유형을 사회활동 비참여 집단, 지역사회기반 청년단체 및 청년 당사자 조직 활동 집단, 청년 커뮤니티 활동 집단, 소규모 목적지향적 활동 집단, 정책참여 활동 집단 등을 구분하여 면담조사를 실시하였다. 면담에서는 사회활동 (비)참여의 경로와 목적, 사회활동을 통한 경험, 사회활동의 의미, 사회활동 관련 정책 욕구 등을 조사하고 분석하였다. 특히 사회활동 비참여 청년 집단의 경우, 사회활동을 하지 않는 이유, 사회활동의 걸림돌, 사회활동의 필요성과 참여 의사 등을 심층적으로 파악하였다.

한편 사회활동 참여 집단 중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하거나, 정책참여 활동을 하는 경우 청년들이 협업하거나 상대하는 단체가 지자체일 경우들이 있다. 청년들의 사회활동을 지원하거나, 또는 청년들의 사회활동의 파트너가 지자체 업무 담당자일 경우, 청년들과 업무를 함께 하는 과정에서 청년들의 사회활동에 대한 인식, 청년 사회활동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직면하는 어려움, 청년 사회활동의 장애 요인, 청년 사회활동이 지자체에 미치는 효과, 청년들의 사회활동 활성화를 위한 지원 방안 등에 대한 의견, 평가, 경험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이들이 청년들의 사회활동 전반에 대해 어떤 인식과 경험을 공유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분석하였다.

4) 청년 사회활동 활성화 관련 정책과제 개발 및 제안

20대 청년들의 사회활동 관련 설문조사와 면담조사, 전문가 협의회, 정책연구실무협의회 등 다양한 연구방법을 통해 도출된 내용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20대 청년들의 사회활동 지원을 위한 정책과제를 개발하고 제안하였다. 특히 여기에서는 청년들의 사회활동 지원방안을 토대로 단계별 추진과제를 도출하고 구체적인 정책 추진체계와 전략을 제시하였다.

상술한 연구내용은 본 연구보고서에 <표 1-1>과 같이 반영되었다.

표 1-1 연구내용 및 연구보고서의 구성

연구 내용	보고서 구성	주요 내용
사회활동의 의미와 중요성 20대 청년들의 사회활동 유형 20대 청년들의 사회활동 현황	제Ⅱ장	• 사회활동의 의미와 중요성(사회적 자본의 접근) • 사회활동의 유형(5가지 유형 정리) • 「사회조사」와 「한국종합사회조사」 결과 • 지자체의 「청년종합실태조사」 결과 정리
청년 사회활동 법령, 정책 및 해외 사례 분석	제Ⅲ장	• 청년 사회활동 관련 법령 분석: 지자체 청년기본조례 및 20대 국회 「청년기본법안」 • 지자체 청년정책기본계획 분석 • 해외 청년 사회활동 지원정책 사례: EU, 일본
20대 청년들의 사회활동 실태 설문조사	제Ⅳ장	• 사회활동 참여/비참여 실태, 사회활동에 대한 인식 및 사회활동 활성화를 위한 정책욕구 • 사회활동 참여의 집단 간 차이 및 사회활동 참여가 비인지적 역량, 대인신뢰, 공동체 의식에 미치는 영향
20대 사회활동 참여 청년 면담조사 및 지자체 청년정책 담당자 FGI	제Ⅴ장	• 청년 사회활동 비참여자 포함 5개 사회활동 유형 참여자 면담 – 비참여자, 청년 커뮤니티 지원사업 참여자, 지역 사회기반 청년단체 및 청년당사자 조직 활동 참여자, 소규모 목적지향적 활동(대외활동) 참여자, 정책참여 활동자 면담분석 • 10개 지자체 청년정책 담당자 FGI 분석
정책과제 개발 및 제안	제Ⅵ장	• 선행연구 검토, 법령, 정책, 해외사례 분석 결과, 설문조사 및 면담조사, 지자체 청년정책 담당자 FGI 결과 분석, 전문가자문 등을 통해 도출된 청년 사회활동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 제안

4. 연구방법

1) 문헌연구

20대 청년들의 사회활동 관련 선행연구와 이론적 배경 검토를 위해 문헌연구를 실시하였다. 문헌 검토를 통해 청년 사회활동의 의미와 중요성 등을 정리하고, 선행연구 고찰을 통해 청년 사회활동 유형 및 현황을 정리하였다. 또한 해외의 청년 사회활동 지원정책 및 관련 쟁점을 분석하였다.

2) 전문가 자문

20대 청년들의 사회활동 실태를 분석하고 향후 사회활동 활성화를 위한 지원방안 도출을 위해 전문가 자문회의를 실시하였다. 청년 사회활동 및 청년 활동지원과 관련된 연구 및 업무 수행 경험을 보유한 중앙정부 및 지자체 관계자, 학계 전문가와 현장 전문가, 청년 사회활동 관련 정책을 개발하거나 정책 연구를 수행한 관련 연구기관의 연구원, 청년 사회활동을 실천하고 연구하는 민간단체 관계자 및 청년활동가 등을 대상으로 전문가 자문회의를 실시하였다.

자문회의 내용은 연구 수행 방향 설정, 청년 사회활동 현안에 대한 자문, 설문조사 및 면담조사 내용 구성을 위한 자문, 추후 자료 분석 및 정책개발 방향 수립 등을 위해 활용되었다.

횟수	자문영역(내용)	자문진	비고
1차	연구방향 설정, 청년 사회활동 관련 현안 및 쟁점 파악	정부부처 및 지자체 학계, 민간단체 및 민간연구소 전문가 등으로 구성	
2차	설문도구 타당성 검토		
3차	면담조사 결과에 대한 자문		
4차	정책제안 타당성 검토		

3) 설문조사

본 연구에서는 20대 청년들의 사회활동에 대한 전반적 실태를 파악하고자 설문조사를 실시하였

다. 20대 청년들의 사회활동에 대한 설문조사가 제대로 수행된 바가 없는 만큼, 본 연구의 실태조사에서는 1) 사회활동 실태(사회활동 개수 및 유형, 활동 내용, 활동 목적, 활동 기간, 활동 효과 등), 2) 사회활동 비참여 이유와 향후 활동 의향, 3) 사회활동에 대한 인식 및 정책욕구(청년 사회활동 참여의 중요성 및 필요성에 대한 인식, 청년기본조례 제정에 대한 인지, 청년시설 이용 의향, 청년 사회활동 활성화 정책 욕구 등), 4) 비인지적 역량(심리·정서, 관계형성, 협력, 대인신뢰와 공동체의식 등) 등으로 구분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20대 청년들의 사회활동 설문조사는 20대 청년들을 배경변인별로 구분하여 온라인 조사를 통해 실시하였다. 특히 20대 청년들은 대학 진학 여부, 연령, 권역, 성별 등을 고려할 때 다양한 세부집단으로 구분될 수 있다. 설문조사에서는 20대 청년 중 대학 진학 vs. 비진학, 연령(20대 초중반 vs. 중후반), 권역(수도권 vs. 비수도권), 성별(남녀)에 따른 사회활동 실태를 분석하였다.

4) 면담조사 및 FGI

본 연구에서는 20대 청년들의 사회활동의 의미를 심층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사회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면담조사를 실시하였다. 면담조사 참여자 섭외는 청년 사회활동 유형 구분에 따라, 지자체에서 실시하는 청년 커뮤니티 지원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청년들을 사업 담당자의 도움을 얻어 섭외하거나, 지역사회단체 기반 청년 단체 및 정책참여 활동 집단의 경우 연구자가 직접 연락하여 섭외하였다. 또한 사회활동 비참여 집단과 소규모 목적 지향적 활동에 참여하는 청년들의 경우에는 실태조사에 참여한 청년들(실태조사 조사업체의 패널DB를 활용) 중 면담조사 참여에 동의한 청년들을 섭외하여 진행하였다. 면담조사 참여자를 선정할 때에는 가급적 다양한 배경과 사회활동 경험을 지닌 청년들을 포함하여 청년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하고자 하였다. 면담조사에서는 1) 사회활동 (비)참여 경로와 목적, 2) 사회활동을 통한 경험 내용, 3) 사회활동의 의미, 4) 사회활동 관련 정책 욕구 등을 질문하고 그에 대한 청년들의 경험과 의견을 조사하였다.

한편, 청년들 중 정책참여 활동이나 지역사회에 토대를 둔 활동들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 이들의 활동을 다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지자체의 청년정책 담당자와 FGI를 실시하였다. FGI에서는 청년들의 활동 지원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 청년활동에 대한 지자체 관계자들의 입장, 청년활동 지원의 효과, 청년활동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면담조사와 FGI 결과를 토대로 연구진은 청년 사회활동의 의미를 해석(interpretation)하고자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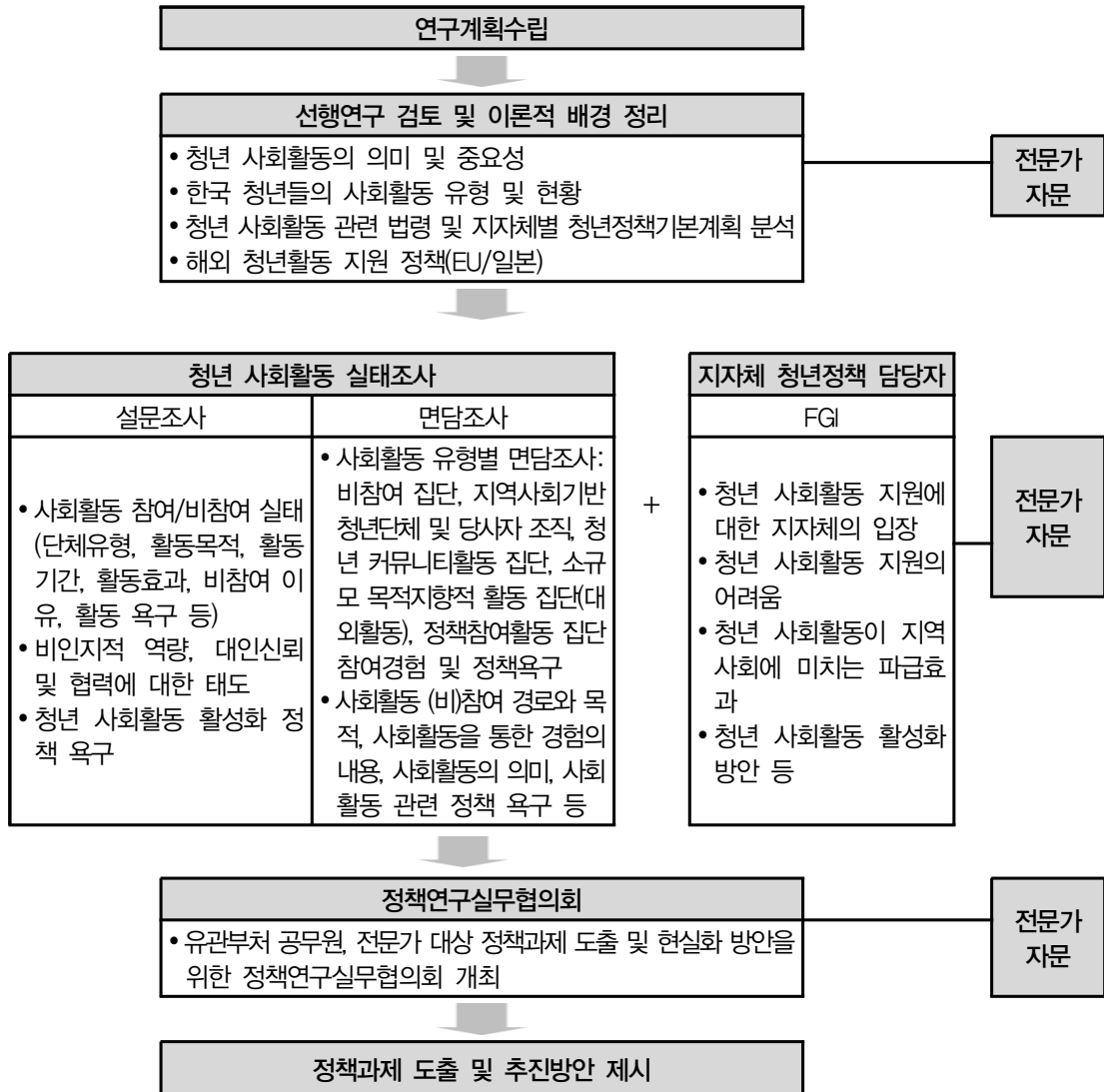
5) 정책연구실무협의회

본 연구에서는 연구 초기 20대 청년들의 사회활동 관련 현안을 파악하고, 연구결과를 토대로 도출된 정책제언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2차에 걸쳐 정책연구실무협의회를 실시하였다.

차수	주요내용	참석공무원 부처(과)	개최시기	비고
1차	청년 사회활동 관련 현안 파악 및 연구방향 협의	청년위원회 서울시	3월	
2차	연구결과에 대한 시사점 검토 정책제언 내용 논의	지자체 청년정책 담당자	10월	

5. 연구추진체계

20대 청년들의 사회활동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효과적인 정책과제를 도출하고자 수행되는 본 연구과제의 추진체계는 [그림 1-1]과 같다.



【그림 1-1】 연구추진체계

제 II 장

논의의 배경

1. 청년 사회활동의 의미와 중요성
2. 20대 청년들의 사회활동 유형
3. 20대 청년들의 사회활동 현황

제 II 장

논의의 배경*

본 연구의 목적은 20대 청년들의 사회활동 실태와 지원방안을 모색하고 제안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II장에서는 청년 사회활동에 관한 이론적 배경을 정리하였다. 구체적으로, 1절에서는 청년 사회활동의 의미와 중요성에 대해 정리하였다. 특히 이 연구에서는 사회적 자본의 맥락에서 청년 사회활동의 중요성을 고찰하였다. 2절에서는 선행연구를 토대로 20대 청년들의 사회활동을 분류하고, 2010년 이후 새롭게 등장하거나 변화된 청년 사회활동을 유형화하였다. 3절에서는 대규모 실태조사 결과(2차 자료)를 통해 20대 청년들의 사회활동 현황을 개략적으로 살펴보았다.

1. 청년 사회활동의 의미와 중요성

1) 사회활동의 의미

여기에서는 우선 본 연구에서 다루는 ‘사회활동’의 의미를 ‘사회적’(social)의 개념과 ‘활동(activity)’의 개념으로 구분하여 고찰한다.

우선 ‘사회적(social)’ 또는 사회적인 것(the social)은 사회학이 경제학을 비판하면서 고유한 학문적 대상으로 삼았던 개념이다. 19세기의 산업 자본주의의 발달은 인간의 욕구와 그것의 실현 방식을 변화시켰고, 시민사회의 등장으로 인해 사회적 차원에 대한 관념이 생겨났다. 사회학에서 사회적인 것의 개념은 기존 경제학적 관점 또는 공리주의적 관점으로 설명될 수 없는 영역으로 인식되었으며, 사회학의 주된 분석 대상으로 자리잡았다(Turner, 2010/2000: 24~26). 뒤르케임은 법률과 도덕적 신념과 같은 집합의식이 개인을 강제하는 힘과 구조로 작용하는 점을 사회적 사실(social fact)로 간주하고, 이를 사회학의 연구과제로 강조하였다(Ritzer,

* 이 장은 김정숙 부연구위원(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집필하였음.

2006/2000: 24). 베버의 경우, 사회적 행위(social action)에 대한 분석을 강조했다. 그는 사고과정이 개입하지 않는 자극에 대한 반작용적 반응을 의미하는 행동(behavior)과 자극과 반응 사이에 사고과정의 개입을 전제한 행위(action)를 구분하였으며, 개인의 사회적 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거대 구조의 영향력을 강조한 바 있다(Ritzer, 2000/2006: 173~174).

한편, 사회적인 것의 개념에 대해 가장 선구적인 방식으로 탐구했던 이는 한나 아렌트였다(김홍중, 2013: 3). 아렌트는 ‘사회적인 것’의 개념을 세 가지 방식으로 구분하여 그 의미를 분석한 바 있는데, 그 중 첫 번째에 해당하는 새로운 영역의 출현으로서의 ‘사회적인 것’의 의미에 주목해 볼 수 있다. 고대 그리스 시대에 인간의 삶은 공적 영역(국가)과 사적 영역(가정)으로 구성되었으나, 16세기 이후 유럽에서 제 3영역의 등장, 즉 사회적인 것의 등장으로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의 구분은 재구조화를 겪게 되었다. 여기에서 사회적인 것은 가정과 국가 사이에 형성된 국민경제, 즉 근대 초기의 자본주의 시장을 가리킨다(김홍중, 2013: 5~6). 국민경제 또는 자본주의 시장의 개념은 인간의 욕구가 ‘사회적’인 방식으로만 충족될 수 있다고 보았던 헤겔의 시민사회 개념과도 일맥상통한다. 결국, 사회적인 것은 국가 내부의 특정 영역이면서, 정치적인 것과 경제적인 것의 의미가 중첩된 것으로 볼 수 있다(김홍중, 2013: 8).³⁾ 본 연구에서는 상술한 내용을 고려하여, 사회활동을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이 중첩된 시민사회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청년들의 활동이며 동시에 사회적 행위(social action)로서의 의미를 지니는 것으로 전제한다.

다음으로 ‘활동’의 개념을 살펴보겠다. 「청소년활동진흥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청소년‘활동’은 통상 수련활동, 교류활동, 문화활동 등으로 구분된다. 여기에서 수련활동은 “청소년시기에 필요한 기량과 품성을 함양하는 교육적 활동”을, 교류활동은 “지역 간, 남북 간, 국가 간의 다양한 교류를 통하여 공동체의식 등을 함양하는 체험활동”으로, 문화활동은 “예술활동, 스포츠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등을 통하여 문화적 감성과 더불어 살아가는 능력을 함양하는 체험활동”을 의미한다(국가법령정보센터, 2017. 3. 21.). 그러나 청소년활동의 법적 개념은 실제 활동 현장과는 괴리가 있으며, 활동의 개념이 포괄적인데 비해 우리나라에서는 정책적인 개념으로 출발하고 있는 점 등을 이유로 청소년활동 개념이 재개념화 될 필요가 있다는 문제제기가 이루어진 바 있다. 이 때문에 청소년활동을 활동 영역에 따라 수련활동, 단체활동, 동아리활동, 학교의 특별활동, 종교단체 및 시민단체 등 특수기관의 청소년활동으로 구분하거나, 활동 공간(학교,

3) 사회적인 것의 두 번째 의미는 사회적인 것의 등장으로 인해 정치적인 것의 기능, 역할이 축소된 반면, 시장을 통한 통치, 자유주의적 통치가 그것을 대체하게 된 점을, 세 번째 의미는 삶의 형식으로서의 문화적 차원과 관련된다(김홍중, 2013: 9~11).

지역사회, 자연권 등)에 따라 구분하기도 한다(김윤나 외, 2015).

「청소년기본법」에서 규정한 청소년이 9세~24세에 해당하는 자(국가법령정보센터, 2016. 12. 20.)이고, 본 연구의 분석대상이 20대 청년이란 점에서 청소년활동에서 다루고 있는 ‘활동’의 내용이 20대 청년들에게도 일정 부분 적용가능하나 한계점도 존재한다. 예컨대, 교류활동의 개념은 지나치게 공식적이고 형식적인 영역에서의 활동이란 점에서 제한적이다. 또한 수련활동과 문화활동에서 명시하고 있는 ‘교육적 활동’과 ‘체험활동’의 개념은 10대 청소년, 학교 청소년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반면, 본 연구의 연구대상인 20대 청년들은 대학 진학 또는 비진학, 취업준비 상황에 있는 다양한 청년 집단을 포괄하므로, 시민사회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이들의 활동은 다양하고 다층적 의미를 지니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이에 이 연구에서 다루는 청년 사회활동은 청소년계에서 청소년활동으로 규정하는 활동들을 포함하되 20대 청년들이 처한 사회문화적 맥락을 반영하는 포괄적인 내용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즉, ‘사회활동’을 “다른 사람과의 상호교류 또는 사회적 관계 속에서 발생하는 모든 형태의 행위”로 정의할 수 있다(장인협·최성재, 1987; 이소정 외, 2007: 33에서 재인용). 사회활동은 시민성의 발현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시티즌십(citizenship)의 개념은 ‘시민권’과 ‘시민성’의 개념을 포괄한다(이선미, 2016: 59). Marshall은 ‘시민권’을 공민권(civic rights), 정치권(political rights), 사회권(social rights)으로 구성된다고 규정한 바 있다(Marshall & Bottomore, 2014/1992). 시민권이 법과 제도적 차원에서 논의되고 발전되어온 개념이라면, 시민성은 덕목과 역량을 지칭한다. 구체적으로, 시민성은 두 가지 차원, 즉 자유와 평등을 정치적 가치와 원칙으로 추구하는 태도와 역량 및 타인의 자유와 권리를 인정하고 그들과 함께 시민사회를 유지하고 개선하는 태도와 역량을 포함한다(이동수, 2013: 26~27; 이선미, 2016: 60에서 재인용).

지금까지 시티즌십에 대한 논의는 주로 법적, 제도적 중심의 시민권에 대한 논의가 주를 이루어 왔으나 1990년대 이후 시민적 가치와 덕목을 강조하는 개념으로 또는 공동체의 삶에 참여할 기회, 시민들의 전체 사회영역에 대한 참여를 포함하는 포괄적이고 역동적인 개념으로 변화하였다(이선미, 2016: 51~52; 장미경, 2001: 67~69).

상술한 맥락에서 볼 때, 한국사회에서도 시티즌십에 대한 논의는 법적, 제도적 차원의 권리 개념과 공적영역에 대한 참여에 국한되어 온 측면이 있다. 그러나 일상적 삶과 관계에서 시민성이 잘 발휘되었을 때 법적, 제도적 시민권 역시 잘 실현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하면,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의사표현 능력, 토론 및 의사결정 과정 참여 역량은 공적 영역뿐만 아니라 일상생활 영역에서도 필요하다(이선미, 2016: 51~53). 따라서 시민성을 실현할 수 있는 다양한 유형의 사회활동 참여

기회는 공동체의 모든 구성원에게 제공되어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국가가 청년들의 사회활동 참여를 지원하는 것은 시민으로서 누려야 할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자, 시민의 시민성 제고, 즉 시민적 태도와 역량을 제고함으로써 전체 사회의 발전을 도모하는 차원에서도 의미가 있다. 상술한 내용을 토대로, 이 연구에서 청년들의 사회활동은 청년들의 일상생활 영역과 공적 영역 전반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유형의 활동이자, 청년들의 시민성을 제고할 수 있는 활동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그런데 성인기 이행(transition to adulthood)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은 시민성을 실현할 수 있는 다양한 사회활동 참여에서도 제약을 받고 있다. 사회활동은 청년들에게 타인과 관계를 맺고 유지하는 태도와 역량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동시에, 자신의 의견 표명, 토론 능력,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참여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시민성을 발현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로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청년들이 성인기로의 이행과정에서의 어려움으로 인해 사회활동 참여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 국가는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누려야 할 권리의 일환으로 청년들의 사회활동 참여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

2) 20대 청년 사회활동의 중요성

경제 불황의 장기화와 청년 실업의 증가로 인해, 청년들은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하는 3포세대에 이어 내 집 마련과 대인관계까지 포기하는 5포세대로 명명되고 있다. 2030세대 2,88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연애, 결혼, 출산, 대인관계, 내 집 마련 중 한 가지 이상을 포기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응답자의 57.6%가 ‘있다’고 응답했다. 구체적으로, ‘결혼’(50.2%, 중복응답), ‘내 집 마련’(46.8%), ‘출산’(45.9%), ‘연애’(43.1%), ‘대인관계’(38.7%)의 순서로 나타났다(한겨레신문, 2015. 3. 3.). 대학내일20대연구소의 조사에 따르면, 조사 대상 20대 청년들 중 약 74%는 ‘새로운 인간관계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고 응답했으며, 약 80%는 ‘혼자 시간을 보낼 때 긍정적인 감정을 느낀다’고 응답했다. 새로운 인간관계의 필요성을 인식하지 못한다고 응답한 20대가 많았지만, 조사대상 20대의 절반(48.2%)은 현재 동호회에 참여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들의 모임 참여 목적은 친목보다는 개인적 목적 달성에 있었다. 이들이 동호회에 참여하는 주된 이유는 자기계발을 위한 것(33.9%)으로 나타났다(대학내일20대연구소, 2016. 4. 26.). 이 조사에서 20대들은 혼자 시간을 보낼 때 편안함과 자유로움을 느끼며, 혼자 보내는 시간은 자발적 선택에 의한 것으로 보고하였다. 그러나 20대의 혼자 보내는 시간은 자발적

선택이기보다는 사회구조적으로 강제된 선택에 가깝다. 최근 청년들이 그들이 속한 집단에서 자발적 아웃사이드가 되거나 혼밥, 혼술하는 경향은 결국 20대 청년들이 관계 형성에 필요한 재정적, 시간적 여유의 부족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사회활동이 궁극적으로 타인과의 상호교류 또는 사회적 관계 속에서 발생한다는 점에서 20대가 대인관계를 포기하는 현실 또는 대인관계 형성의 필요성을 인식하지 못하는 현 상황은 사회활동이 발생할 수 있는 토대 형성에 제약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청년들의 사회활동은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의 개념으로 접근할 때 여러 가지 가치가 있다. Coleman(1988)은 사회적 자본을 그 기능에 의해 설명한 바 있다. 사회적 자본은 사회구조 내의 개인이나 집단이 특정한 행위를 성공적으로 행할 수 있는 유용한 도구로써 기능한다. 이 때문에, 사회적 자본을 소유하거나 이에 접근 가능한 개인 또는 집단은 그렇지 못한 개인 또는 집단에 비해 유용한 자원을 보유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백병부·김정숙, 2014: 225에서 재인용). 즉 Coleman의 정의에 따르면, 사회적 자본을 소유한 20대 청년은 그렇지 않은 청년에 비해 그들이 목적하는 바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도구를 보유한 셈이다. 한편 Putnam은 Coleman의 사회적 자본의 개념을 공동체나 국가로 확장하여 분석한 바 있다. 그에 따르면, 사회적 자본은 “협력적 행위를 촉진시켜 사회적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사회조직의 속성(신뢰, 규범, 네트워크 등)”을 의미한다(Putnam et al., 2000/1994: 281). 따라서 사회적 자본을 많이 보유한 사회는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상호협력력을 높이는 반면 거래비용을 감소시킴으로써 전체적으로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것이다.

학자들마다 사회적 자본에 대한 개념 규정에 약간씩 차이가 있지만, 사회적 자본은 네트워크와 호혜성의 규범에 의해 발생되고 유지되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구혜정, 2002). 또한 신뢰는 네트워크 내 구성원들이 호혜성의 규범에 기초하여 상호 협력할 것이라는 기대를 의미한다(Fukuyama, 1996/1995). 많은 연구자들은 사회적 자본을 네트워크, 호혜성의 규범, 신뢰의 개념을 포괄하는 것으로 전제하고 사회적 자본이 어떻게 증진될 수 있는지에 대해 분석한 결과, 공적 제도가 공정하게 집행될 때 사회적 신뢰가 높아지며, 자발적인 네트워크 참여 활동 역시 상호협력력을 촉진함으로써 사회적 신뢰를 증진시킨다고 보고하였다(이동원 외, 2010). 나아가 Putnam 외(2000/1994)는 이웃 간의 모임, 합창단, 협동조합, 운동클럽 등 수평적 네트워크에 대한 시민들의 참여가 활발할수록 경제적 번영과 민주주의의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음을 강조하였다.

상술한 바와 같이, 대인관계 형성에 제약이 있는 20대 청년들에게 사회활동은 관계 형성이 이루어질 수 있는 네트워크의 장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리고 수평적 네트워크에서 이루어지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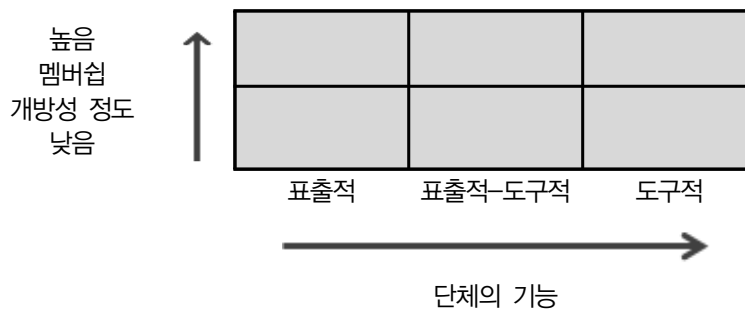
다양한 사회활동은 상호 협력 행위를 증가시킴으로써 사회적 신뢰를 제고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아울러 성인기 이행이 지연되고 있는 20대 청년들에게 다양한 사회활동은 관계 형성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기술과 경험을 제공하며, 다양한 사회활동의 결과를 직접 확인할 수 있게 함으로써 사회 내에서의 자신들의 입지를 다지고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전망을 수립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도 가치가 있다(Settersten & Ray, 2012/2010: 321).

2. 20대 청년들의 사회활동 유형

이 연구에서는 사회적 자본의 맥락에서 20대 청년들의 사회활동에 주목해 보고자 한다. 20대 청년들의 사회활동을 사회적 자본의 맥락에서 고찰할 경우 이들의 사회활동은 네트워크와 상호 호혜성의 규범에 의해 유지되는 것이어야 한다. 또한 이들의 사회활동은 20대 청년 개인에게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및 국가적 차원에서도 긍정적 파급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해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조건을 전제로, 이 연구에서는 20대 청년들의 사회활동을 사회활동이 이루어지는 네트워크의 성격에 따라 구분해 보고자 한다.

청년들의 사회활동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형성한 네트워크, 즉 자발적 결사체를 몇 가지 기준에 의해 분류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류태건·차재권(2014)의 연구에서는 자발적 결사체를 시민사회 영역에서 자발적으로 조직된 비정부·비영리 민간단체로 규정하면서 그간 자발적 결사체에 대한 분류가 연구마다 상이하여 분류 기준이 합의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다. 예컨대, 세계가치관조사의 1990~1991 조사주기에서는 사회복지 서비스, 종교·교회단체, 교육·예술·문화활동, 노조, 정당 및 정치단체, 지역공동체활동 등 16개 영역으로 분류된 반면, 2005~2006 조사주기에서는 종교·교회단체, 체육·오락단체, 예술·교육단체, 노조, 정당 등 10개 영역으로 분류되어 조사되었다(류태건·차재권, 2014: 172). 이들은 자발적 결사체를 활동 영역으로 구분하지 않고 Gordon & Babchuk(1959)의 분류를 따르고 있다. Gordon & Babchuk(1959)은 자발적 결사체를 멤버십의 개방성 정도, 결사체의 지위, 결사체의 기능에 따라 구분한다. 멤버십의 개방성 정도는 결사체에 대한 접근가능성이 높은지 낮은지를 뜻하며, 결사체의 지위는 결사체의 활동 또는 역할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높은지 낮은지를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결사체의 기능에 따라 표출적, 도구적, 표출적-도구적 결사체로 구분된다. 표출적

결사체(expressive association)는 결사체 내 구성원들의 자기만족적인 활동을 추구하는 반면, 도구적 결사체(instrumental association)는 결사체의 활동이 구성원들의 욕구를 만족시킬 수도 있으나 결사체의 활동을 통해 특정한 목적 달성을 추구하는 결사체이다. 표출적-도구적 결사체는 이 두 가지 성격이 혼재된 결사체이다(Gordon and Babchuk, 1959: 26~28). 이들의 분류기준 중 결사체의 지위는 20대 청년들의 사회활동을 분석하는 데 결정적인 의미를 지닌다고 보기 어려워 제외하고, 멤버십의 개방성 정도와 단체의 기능에 따라 청년 사회활동의 유형을 [그림 II-1]과 같이 구분할 수 있다.



출처: Gordon & Babchuk(1959: 28)의 내용을 수정하여 적용

【그림 II-1】 청년 사회활동의 유형

현재 20대 청년들의 사회활동은 과거와는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서론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청년들의 성인기 이행이 지연되면서 이들의 사회활동은 보다 다양해지고 있다. 일례로 서울특별시 청년허브의 청년참 지원사업에 대한 소개글에는 해당 사업의 지원 대상을 “스스로 모임을 기획하여 문화예술, 사회적 경제, 생태환경 등 청년활동 및 창의적인 학습을 진행하거나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과 사회변화를 위해 즐겁게 활동하는 청년 커뮤니티”⁴⁾로 제시하고 있다. 2013년에 시작된 청년참 지원사업은 2016년까지 지속되고 있으며, 이 사업을 통해 발굴된 청년 커뮤니티는 현재 596개이다.⁵⁾ 청년참 지원사업을 운영하는 청년활동가들은 청년활동 단체의 유형을 크게 자기계발과 공익활동 2가지로 구분하고 있다(청년참, 2015. 11. 16.). 자기계발 유형은 다시 진로탐색 유형과 진로설계 유형으로 구분되며, 공익활동은 세대 간 협력모델,

4) 서울특별시 청년허브 홈페이지 청년참 소개글 <https://youthhub.kr/hub/2400>에서 2017년 2월 12일 인출

5) 서울특별시 청년허브 홈페이지 청년 커뮤니티 소개글 <https://youthhub.kr/youth/directory?d=271>에서 청년커뮤니티 검색 (2017년 2월 12일 인출).

지역 협력모델, 도시 혁신모델 유형으로 구분된다.

<표 II-1>에 따르면, 청년들의 사회활동은 진로탐색과 설계뿐만 아니라 지역변화와 도시혁신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 활동들은 청년들이 사회의 독립된 구성원이 되기 위한 경제적 자립을 모색하는 활동에서부터 그들이 살고 있는 지역사회를 변화시키는 내용까지 다양하다. 즉 현재 20대 청년들의 사회활동은 과거부터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는 기존의 사회활동(예: 시민사회단체 활동, 자원봉사활동, 동아리 활동 등)뿐만 아니라, 노동시장 이행이 지연되는 과정에서 사회에 진입하고 뿌리 내리기 위한 다양한 실험과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참여 등 새로운 사회활동 유형을 포함하는 양상으로 변화하고 있다. 그 결과 청년활동 단체들의 기능은 표출적, 또는 표출적-도구적 성격을 동시에 지니며, 멤버십에 대한 개방성 정도도 다양하다. 대학내일20대연구소(2016. 4. 26.)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대 청년들은 자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모임에 참여하는 경향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소규모 스터디 그룹 등 자기계발 활동들이 그 대표적인 사례로 볼 수 있다. 향후 단체별 활동의 기능과 목적에 따른 청년 활동의 차이를 분석하는 작업이 의미가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2010년 이후 나타난 청년당사자 조직의 출현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대표적인 청년당사자 조직에는 청(소)년유니온, 알바노조, 민달팽이유니온이 포함된다. 세 단체 모두 2010년 이후 출범하였으며 청년들의 불안정노동 및 과도기 노동의 문제와 주거문제에 대한 청년들의 이해를 대변한다. 이들 단체들은 제도적으로는 노동조합의 형태를 띠고 있지만 활동면에서는 시민운동단체의 실천 방식에 가깝다(유형근, 2015). 이에 이들 단체에 소속된 청년들에게 사회활동은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를 분석해 볼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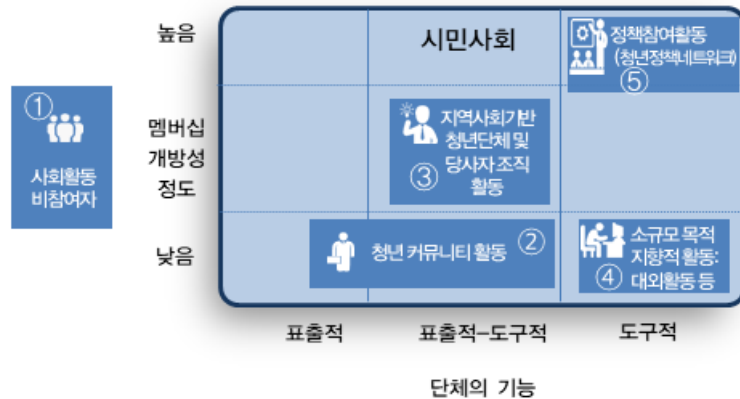
마지막으로, 시정참여와 같은 정책참여 활동이다. 이것의 대표적 사례로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를 소개할 수 있다.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는 청년이 직면한 문제와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조직된 단체로, 청년에게 필요한 정책 제안뿐만 아니라 청년이 주도하는 능동적인 협치 모델(지자체와의 시정 협력 거버넌스 구축)을 구현하고자 한다. 이들은 ‘청년’문제에만 머물기보다는 청년‘시민’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실천하는 데 초점을 둔다(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 홈페이지, 2017. 2. 11.). 지자체 기반의 전국 청년정책네트워크(부산, 광주 등)가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를 모델로 출범하고 있다. 청년정책네트워크 사례는 청년 정책에 대한 참여뿐만 아니라 시정에 참여하는 새로운 청년 사회활동의 유형으로 볼 수 있다. 이들 청년정책네트워크를 사회활동 유형으로 구분해 보면, 멤버십에 대한 개방성 정도는 높은 편이며, 네트워크(결사체)의 기능은 도구적 성격을 띠는다고 봐야 할 것이다.

표 II-1 서울시 청년활동 단체 유형

구분		활동 내용	활동 사례
진로탐색 유형	관계망 형성	전공분야, 관심분야의 인적 네트워크 형성을 통해 관련 정보 및 경험 공유 통해 진로 탐색	[디스커버리서울] 익숙한 서울 속의 숨겨진 모습을 찾고 탐방하는 활동. 여행 관련 진로 탐색 중
	가능성 탐색	관심분야와 관련된 공모전 참여 등을 통해 자기 가능성과 역량 수준을 탐색해 보는 활동	[오온] 감소하고 있는 녹차밭에 대한 문제의식을 토대로 보성, 하동지역의 고유한 특징을 살려 제품의 이미지 브랜딩부터 판매까지 활동 시도
	역량개발	자기 진로와 연관된 실질적 역량개발을 위한 집중학습 및 다양한 협업 활동	[작은극장] 소규모 공연을 지향하는 공연예술가 모임으로 공동공연 또는 역량 향상을 위한 워크숍 진행
	현장 프로젝트형	자기 진로를 설정하고 진로와 연관된 현장 중심의 구체적 프로젝트 기획, 실행	[KUST] 자기주도적 학습과 연구를 통해 전기와 태양광에너지를 이용한 차량 개발, 국제그린카 경진대회 등 참여
공익 활동	세대 간 협력모델	청년의 활동력과 새로운 시도에 대한 의지를 다룬 세대의 경험과 연결하여 시너지 창출, 세대 간 우정의 관계 형성	[동네활동] 예술가, 청소년상담사, 교육전문자 등 다양한 영역의 청년들이 모여 교내폭력, 양파 문제를 청소년 스스로 생각하고 해결점을 찾도록 돕는 통합적 문화예술기획 운영 활동
	지역 협력모델	일상에서 가장 많이 머무는 장소인 지역의 필요와 청년의 활동 연결	[중점목공소] 지역 어르신에게 오래된 목공소를 기증받아 운영되는 목공소, 지역주민과 함께 하는 목공워크숍, 도시농업 관련 학습을 하며 새로운 도시형 제작 공방 운영 활동 진행
	도시 혁신모델	청년 당사자성을 넘어 도시의 삶을 사는 시민으로서 지속가능한 도시를 위한 혁신적 제안, 창의적 발상, 문제해법 모색활동 활성화	[동대문DRP] 동대문지역 상가 옥상에서 틈새관광, 양봉, 가드닝 등 다양한 문화활동 및 상품개발. 새로운 방식의 자립기반을 위한 실험적 활동

출처: 청년친 내부자료(2015. 11. 16.).

본 연구에서 다루는 20대 청년들의 사회활동 유형을 단체의 기능과 멤버십 개방성 정도⁶⁾에 따라 구분하여 제시하면 [그림 II-2]와 같다.



【그림 II-2】 본 연구과제에서 다루는 20대 청년들의 사회활동 유형

구체적으로 본 연구에서 주목하고자 하는 20대 청년들의 사회활동 유형은 다음과 같다. ① 첫 번째 유형은 사회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청년 집단이다. 이들은 어떤 이유로 사회활동에 참여하고 있지 않은지, 향후 사회활동 참여 의사가 있는지에 대해 살펴본다. ② 두 번째 유형은 다양한 청년 커뮤니티 활동이다. 서울시를 비롯하여, 대구와 광주에서는 청년 커뮤니티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여기에는 취미활동에서부터 느슨한 형태의 목적지향적 활동까지 다양한 활동 유형들이 포함된다. 이 때문에, 이 활동 유형들은 친교활동(표출적 기능)에서부터 친교적이면서 목적지향적인 성격을 모두 띠는 표출적-도구적 기능을 모두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Putnam 외(2000/1994)는 이웃 간의 모임, 합창단, 협동조합, 운동클럽 등 수평적 네트워크 활동이 사회적 자본 형성에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를 토대로,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20대 청년들에게 현재 커뮤니티 활동들은 어떤 양상으로 나타나며, 그것이 청년 당사자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분석한다. ③ 세 번째 유형은 표출적-도구적 기능이 혼재된 ‘지역사회기반 청년 단체’ 또는 ‘청년 당사자 조직’ 활동이다. 여기에서는 서울이 아닌

6) 앞서 [그림 II-1]에서 Gordon and Babchuk(1959)은 멤버십 개방성 정도를 높음, 낮음 2단계로 구분하였으나, 본 연구에서 다루는 5가지 청년 사회활동 유형을 구분하는 데에는 무리가 있다고 연구자가 판단하였다. 특히 본 연구에서 다루는 5가지 청년 사회활동 유형의 구분이 멤버십의 개방성 정도에 따른 것이 아니기에 유형 구分的 명확성을 위해 연구자가 임의적으로 3단계로 구분하였다.

‘지방’에서 청년단체를 운영해 나가고 있는 사례를 선정하여 지방에서 삶을 살아가면서 청년 사회활동을 하는 것의 의미를 분석해 본다. 덧붙여 표출적-도구적 기능이 혼재된 청년 당사자 조직활동에 대해서도 살펴본다. ④ 네 번째 유형은 소규모 목적 지향적 사회활동 참여 유형이다. 최근 20대 청년들이 자기계발과 같은 뚜렷한 목적 지향적 활동을 선호한다는 조사결과(대학내일 20대연구소, 2016. 4. 26.)를 반영하여 멤버십의 개방성 정도가 낮으면서도 단체 활동이 도구적 성격을 띠는 유형에도 주목해 보고자 하며, 본 연구에서는 이 유형의 대표적 사례로 대외활동을 살펴보았다. 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유형은 청년들의 정책참여활동이다. 이 단체의 기능은 정책참여라는 도구적 성격을 띠면서도, 해당 지자체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 모두가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개방적인 성격을 띤다. 지자체별로 청년조례가 제정되고, 청년정책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청년정책네트워크 활동들이 의미 있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활동 유형을 분석대상에 포함시켰다.

상술한 20대 청년들의 다섯 가지 사회활동 유형은 본 연구에서 실시한 ‘20대 청년 사회활동 실태조사’에 반영하여 조사하였으며, 동시에 면담조사에서도 다섯 가지 유형별 참여자를 포함하여 각 활동의 의미를 심층적으로 분석하였다.

3. 20대 청년들의 사회활동 현황

1) 사회조사 및 한국종합사회조사 결과

한국의 청년 관련 이슈가 고용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다 보니, 청년들의 사회활동에 초점을 둔 실태조사 결과를 찾아보기 어렵다. 다만 20대 청년들의 사회활동 현황은 다음의 조사 결과를 통해 부분적으로 확인해 볼 수 있다. 격년마다 이루어지는 통계청의 ‘사회조사’와 성균관대학교 서베이리서치센터에서 수행하는 ‘한국종합사회조사’, 2016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수행한 ‘청년 사회·경제 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 I’이 그것이다. 통계청의 사회조사에서는 활동 실태 문항을 단체참여, 자원봉사활동, 기부활동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한국종합사회조사’는 단체참여뿐만 아니라 정치·사회적 행동실천 문항들을 포함하고 있다. 그런데 이들 조사들은 전통적인 사회참여 관련 문항들만을 포함하고 대체로 공적 영역에서의 참여 활동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어, 최근 20대 청년들의 사회활동의 변화와 그에 대한 정책 욕구 수준을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한적으로나마 대규모 실태조사 결과를 통해 20대 청년들의 사회활동 현황을 정리하였다.

우선 단체참여 및 참여 단체 유형 실태는 <표 II-2>와 같다. 2013년 대비 2015년 단체 참여 비율은 48.9%로 약간 감소하였다. 20대의 단체참여 비율은 44.9%로 10대보다는 높고, 40대와 50대에 비해서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 단체 유형은 친목 및 사교단체가 73.3%로 가장 높았고, 취미, 스포츠 레저단체(46.0%)와 종교단체(21.1%)의 순서로 높았다. 상기 3개 단체 외에 시민사회단체에 대한 참여가 비교적 고르게 높게 나타나는 10대를 제외하면, 모든 연령대에서 단체 참여 비율이 상기 3개 단체에 치우쳐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10대를 제외한 모든 연령대의 시민사회단체 참여 비율이 10% 미만인 점, 정치단체와 지역사회모임에 대한 참여비율(50~60대 제외)이 매우 낮은 점은 도구적 또는 공적 성격을 띠는 단체에 대한 20대 이상 성인들의 참여가 활발하지 않다는 점을 시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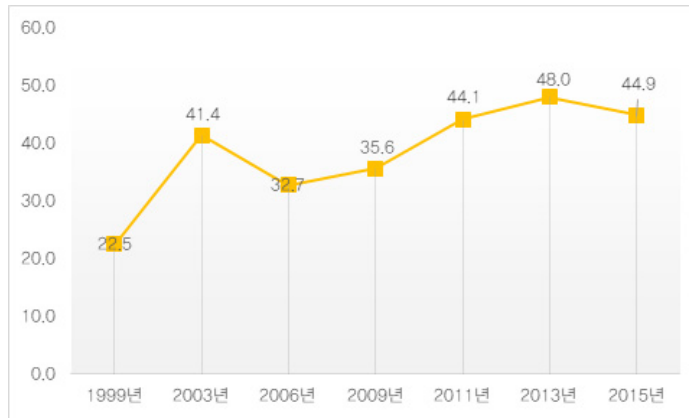
표 II-2 단체 참여자 및 참여 단체 유형(중복응답)

(단위: %)

구분	계	참여자	참여자 유형									미 참여자
			친목, 사교 단체	종교 단체	취미, 스포츠 레저 단체	시민 사회 단체	학술 단체	이익 단체	정치 단체	지역 사회 모임	기타	
2013년	100.0	50.1	75.3	26.4	32.8	11.3	4.6	2.1	0.7	8.9	0.3	49.9
2015년	100.0	48.9	75.6	27.2	35.2	9.4	5.3	2.5	0.6	9.2	0.1	51.1
13~19세	100.0	31.9	41.0	31.3	47.4	30.9	9.0	0.3	0.3	0.5	0.2	68.1
20~29세	100.0	44.9	73.3	21.1	46.0	8.1	13.6	2.2	0.8	1.7	0.0	55.1
30~39세	100.0	48.1	78.3	23.4	39.4	5.6	5.5	3.2	0.6	7.1	0.0	51.9
40~49세	100.0	56.7	80.2	25.1	38.5	9.5	4.0	4.1	0.7	9.3	0.0	43.3
50~59세	100.0	59.1	81.4	29.7	31.1	9.8	3.2	2.8	0.6	11.6	—	40.9
60세 이상	100.0	44.2	74.3	33.4	20.4	6.0	1.8	0.8	0.4	16.4	0.2	55.8

출처: 통계청(2015). 사회조사보고서. p. 172.

1999년부터 2015년까지 20~29세 청년들의 단체 참여율 변화는 [그림 II-3]과 같다. 1999년에는 22.5%에 불과하였던 단체 참여율이 2003년 41.4%로 약 2배 가량 증가하였고 2009년까지는 30%대 비율로 감소하였다가 2011년 이후 다시 44.1%로 증가하였다. 2013년 48.0%로 정점을 찍고 2015년에는 44.9%로 다시 감소한 상태임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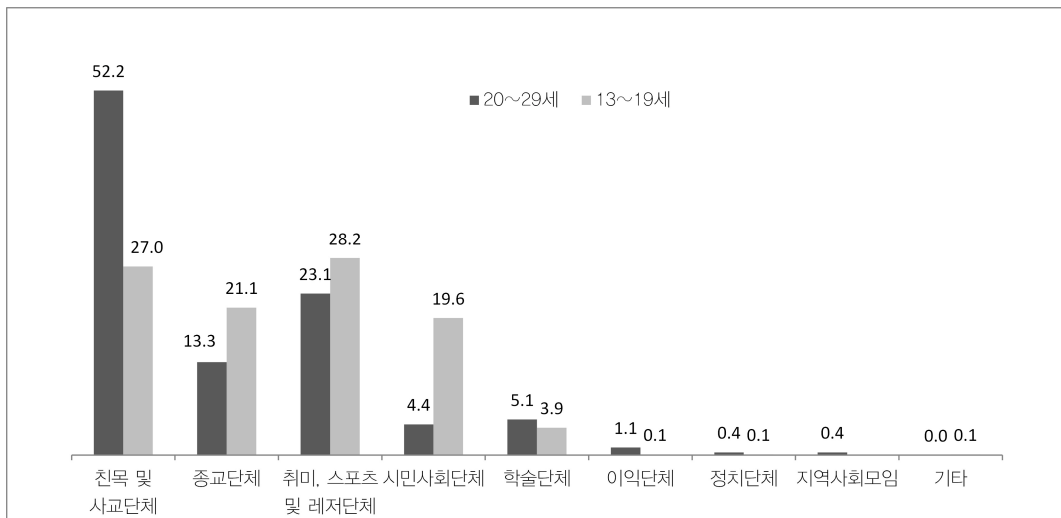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각 년도.

http://kosis.kr/statisticsList/statisticsList_01List.jsp?vwcd=MT_ZTITLE&parmTabId=M_01_01에서 인출.

【그림 II-3】 20대 청년들의 단체 참여율(1999~2015년)

20대 청년과 10대 청소년만을 선택해 이들의 주된 참여 단체 유형을 비교한 결과는 [그림 II-4]와 같다. 10대 청소년들의 참여 단체 비율이 상위 4개 단체에 고르게 분배되어 있는 반면, 20대 청년들의 경우, ‘친목 및 사교단체’, ‘취미, 스포츠 및 레저단체’에 집중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출처: 통계청(2015), 사회조사보고서, pp 168~169.

【그림 II-4】 20대 청년 및 10대 청소년들의 참여 단체 유형 비교(주된 참여 단체)

<표 II-3>에는 '기부 경험 및 기부하지 않는 이유'에 대한 조사 결과가 제시되어 있다. 한국인의 기부 경험 비율은 2015년 현재 29.9%로 나타났다. 20대의 기부 경험 비율은 전 연령대 중 가장 낮은 20.8%였으며, 기부하지 않는 이유에 대한 응답은 '경제적 여유가 없기 때문'(60.6%)이 가장 높았다. 2013년 대비 2015년 기부 경험 비율이 전체적으로 낮아진 것도 '경제적 여유가 없다'는 응답 증가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표 II-3 기부 경험 및 기부하지 않는 이유

(단위: %)

구분	계	기부 경험		기부하지 않는 이유						
		있음	없음	소계	경제적 여유가 없어서	기부에 대한 관심이 없어서	기부 방법을 몰라서	기부단체 신뢰할 수 없어서	직접 요청 받은 적이 없어서	기타
2013년	100.0	34.6	65.4	100.0	60.9	18.3	4.2	8.2	7.8	0.6
2015년	100.0	29.9	70.1	100.0	63.5	15.2	3.5	10.6	7.1	0.2
13~19세	100.0	31.0	69.0	100.0	45.6	22.0	11.8	7.2	13.3	0.1
20~29세	100.0	20.8	79.2	100.0	60.6	16.7	3.2	11.3	8.2	0.1
30~39세	100.0	32.2	67.8	100.0	58.5	15.8	3.0	15.5	6.9	0.3
40~49세	100.0	38.3	61.7	100.0	61.5	13.5	2.5	15.4	6.8	0.3
50~59세	100.0	34.6	65.4	100.0	68.6	12.5	1.9	10.0	6.7	0.3
60세 이상	100.0	22.0	78.0	100.0	73.9	14.0	2.4	5.1	4.4	0.2

출처: 통계청(2015). 사회조사보고서. p. 174.

<표 II-4>에는 향후 기부 의사와 관련된 결과가 제시되어 있다. 나머지 연령대와 비교할 때, 60대 이상을 제외하면 20대의 향후 기부 의사 비율이 44.1%로 가장 낮았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한국 20대 청년이 직면한 청년 실업 및 고용의 불안정성이 일정 부분 이들의 기부활동 참여에도 부정적 영향을 주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다음으로 2006년부터 2015년까지 20~29세 청년들의 기부 참여율 변화는 [그림 II-5]와 같다. 2006년 19.2%였던 기부 참여율은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조금씩 증가하다가 2015년에는 20.8%로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II-4 향후 기부 의사

(단위: %)

구분	계	있음	없음
2013년	100.0	48.4	51.6
2015년	100.0	45.2	54.8
13~19세	100.0	56.3	43.7
20~29세	100.0	44.1	55.9
30~39세	100.0	51.0	49.0
40~49세	100.0	52.9	47.1
50~59세	100.0	46.5	53.5
60세 이상	100.0	27.9	72.1

출처: 통계청(2015). 사회조사보고서, p. 192.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각 년도, 기부 참여인구 문항은 2006년 조사부터 실시되었음.

http://kosis.kr/statisticsList/statisticsList_01List.jsp?vwcd=MT_ZTITLE&parmTabId=M_01_01에서 인출.

【그림 II-5】 20대 청년들의 기부 참여율(2006~2015년)

자원봉사활동 참여현황은 <표 II-5>와 같다. 연간 자원봉사활동 평균 참여횟수를 제외하면, 2013년 대비 2015년 자원봉사활동 참여경험, 평균시간, 참여의향 모든 지표의 수치가 감소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2015년 한국인들의 자원봉사활동 참여 비율은 18.2%로 낮은 수준이다. 연령대별로 살펴볼 때, 10대의 자원봉사활동 경험 비율이 76.6%로 가장 높는데, 이는 학교교육에서 자원봉사활동이 적극 권장되고 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10대와 60대 이상을 제외할 경우, 20~30대의 자원봉사활동 참여경험 비율이 10% 초반대로 낮은 수준이며 이는 현재 20~30대가 직면한 노동시장 이행의 지연, 경제적 어려움이 이들의 다양한 활동 참여에 부정적 영향을 주고 있음을 시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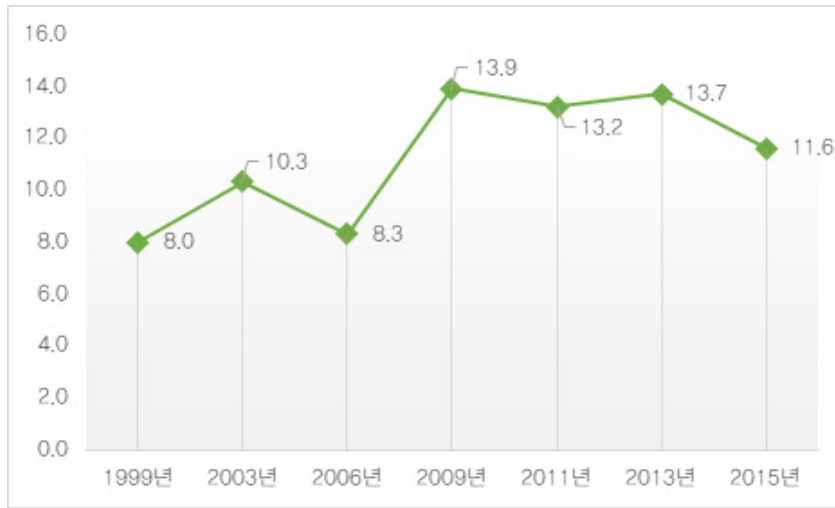
표 II-5 자원봉사활동 참여현황

(단위: %, 회, 시간)

	자원봉사활동 참여경험		연간 참여횟수 및 시간		향후 1년 이내 참여의향1)	
	있음	없음	평균 횟수	평균 시간	있음	없음
2013년	19.9	80.1	7.6	25.1	43.2	56.8
2015년	18.2	81.8	7.8	24.4	37.3	62.7
13~19세	76.6	23.4	5.4	16.0	71.4	28.6
20~29세	11.6	88.4	8.3	30.6	41.1	58.9
30~39세	10.6	89.4	6.9	20.8	36.6	63.4
40~49세	15.6	84.4	8.3	26.2	40.8	59.2
50~59세	14.6	85.4	10.0	34.0	34.9	65.1
60세 이상	7.8	92.2	14.2	41.1	18.3	81.7

출처: 통계청(2015), 사회조사보고서, p. 53. 2013년은 '향후 2년 이내' 참여의향임.

1999년부터 2015년까지 20~29세 청년들의 자원봉사 참여율 변화는 [그림 II-6]과 같다. 1999년부터 2006년까지 20대의 자원봉사 참여율은 8~10% 사이에 머물다가 2009년 13.9%로 약간 상승한 이후 미미한 수준이지만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경향이 나타난다.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각 년도

http://kosis.kr/statisticsList/statisticsList_01List.jsp?vwcd=MT_ZTITLE&parmTabId=M_01_01에서 인출.

【그림 II-6】 20대 청년들의 자원봉사 참여율(1999~2015년)

한편 성균관대학교 서베이리서치센터(Survey Research Center)에서 조사한 2014년 한국종합사회조사(KGSS)에는 한국인의 정치·사회적 행동 실천에 관한 문항과 사회집단 참여 관련 문항이 포함되어 있다.

<표 II-6>에 제시된 바와 같이 정치·사회적 행동 실천 중 20대가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로 참여하고 있는 행동 실천(‘지난 1년간 했음’ + ‘그보다 오래 전에 했음’)은 ‘진정서 서명’(35.3%)과 ‘사회·정치활동 위한 기부/모금(33.0%)’, ‘정치/윤리/환경적 이유에 의한 상품 구매/불매’(30.4%)로 나타났다. 그에 비해, ‘언론기관 접촉’(3.5%), ‘정치인·공무원 접촉 시도’(5.3%), ‘정치모임 또는 집회 참가’(6.2%) 실천 경험 비율은 매우 낮았으며, 향후 관련 행동을 실천하지 않겠다는 의사도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대적으로 참여 비율이 높게 나타난 진정서 서명이나 기부/모금 활동, 상품 구매/불매 활동도 매우 활발한 수준으로 보기는 어렵다. 더구나, 적극적인 정치·사회적 행동 실천에 대한 향후 참여 의사도 부정적으로 나타난 점을 고려할 때, 향후 정치·사회적 행동 실천에 대한 의사가 강하지 않은 원인과 배경을 분석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표 II-6

한국인의 정치·사회적 행동 실천

(단위: %)

문항	집단	지난 1년간 했음	그보다 오래 전에 했음	전에 안했지만 앞으로 할 것	전에도 안했고 앞으로도 안할 것	무응답	전체
진정서 서명	20대	23.8	11.5	38.3	26.0	0.4	100.0
	30대	29.0	16.9	33.3	20.8	—	100.0
	40대	27.0	23.8	27.7	21.2	0.3	100.0
	50대	24.7	20.8	23.8	30.7	—	100.0
	60대 이상	9.9	13.3	20.1	56.7	—	100.0
정치/윤리/ 환경적 이유에 의한 상품 구매/불매	20대	16.7	13.7	34.8	33.9	0.9	100.0
	30대	16.1	14.5	43.1	25.9	0.4	100.0
	40대	17.6	16.3	34.5	31.6	—	100.0
	50대	11.3	14.7	36.8	37.2	—	100.0
	60대 이상	6.5	6.1	21.2	66.2	—	100.0
시위참가	20대	3.5	9.3	38.8	47.6	0.9	100.0
	30대	4.7	13.3	33.3	48.6	—	100.0
	40대	3.6	15.0	30.3	51.1	—	100.0
	50대	2.6	12.1	21.6	63.6	—	100.0
	60대 이상	3.1	4.4	7.8	84.3	0.3	100.0
정치모임 또는 집회 참가	20대	2.2	4.0	37.4	55.5	0.9	100.0
	30대	3.5	5.9	30.6	59.6	0.4	100.0
	40대	3.6	9.1	24.4	61.9	1.0	100.0
	50대	2.6	8.7	20.3	68.0	0.4	100.0
	60대 이상	2.7	3.4	8.5	85.3	—	100.0
정치인· 공무원 접촉 시도	20대	3.5	1.8	36.1	58.1	0.4	100.0
	30대	3.1	2.4	35.5	59.2	—	100.0
	40대	4.9	5.2	29.6	59.9	0.3	100.0
	50대	3.9	4.8	30.7	60.2	0.4	100.0
	60대 이상	4.4	4.1	10.6	80.5	0.3	100.0
사회·정치 활동 위한 기부/모금	20대	20.7	12.3	39.6	26.9	0.4	100.0
	30대	16.1	14.5	42.4	27.1	—	100.0
	40대	17.3	8.5	37.8	35.8	0.7	100.0
	50대	18.2	13.9	34.2	33.8	—	100.0
	60대 이상	11.3	8.2	20.1	60.4	—	100.0
언론기관 접촉	20대	2.6	0.9	38.8	56.4	1.3	100.0
	30대	2.0	0.4	35.7	62.0	—	100.0
	40대	3.3	2.6	32.2	60.9	1.0	100.0
	50대	1.7	5.6	27.7	64.5	0.4	100.0
	60대 이상	3.1	1.7	11.9	83.3	—	100.0
인터넷 토론 참여	20대	4.8	2.2	42.7	49.3	0.9	100.0
	30대	2.4	3.1	38.4	55.7	0.4	100.0
	40대	2.9	2.9	32.2	61.6	0.3	100.0
	50대	2.2	4.3	29.0	64.5	—	100.0
	60대 이상	2.0	1.4	7.8	88.4	0.3	100.0

자료: 성균관대학교 서베이리서치센터(2014), 한국종합사회조사 데이터, http://kgss.skku.edu/?page_id=39에서 2017년 3월 17일 인출.

한국종합사회조사에서도 한국인의 사회집단 참여를 조사하였다. <표 II-7>에는 통계청의 사회조사와 달리, 조사 항목을 달리 범주화한 세대별 사회집단 참여 실태가 제시되어 있다. 통계청의 사회조사 결과와 유사하게, 모든 연령대에서 ‘기타 자발적 모임 및 단체’ ‘문화단체’ ‘종교단체’에 대한 참여 비율이 높았다. 반면, 정당과 노조 및 조합에 대한 참여는 극히 미미한 것으로 나타나 한국인들의 사회집단 참여의 특성을 재확인할 수 있다.

표 II-7 한국인의 사회집단 참여

(단위: %)

문항	집단	소속되어 있으며 적극적으로 활동	소속되어 있으나 활동은 안 함	과거에 소속된 적 있음	소속된 적 없음	무응답	전체
정당	20대	0.4	0.9	0.9	97.8	—	100.0
	30대	0.4	5.9	3.1	90.6	—	100.0
	40대	0.7	6.5	6.2	86.6	—	100.0
	50대	0.4	7.4	6.9	85.3	—	100.0
	60대 이상	0.7	2.7	5.1	91.5	—	100.0
노조, 사업자 단체 및 직업조합	20대	1.3	2.2	2.6	93.8	—	100.0
	30대	2.0	10.6	5.1	82.4	—	100.0
	40대	1.6	5.2	10.1	83.1	—	100.0
	50대	2.2	10.8	6.5	80.5	—	100.0
	60대 이상	—	3.4	7.5	89.1	—	100.0
종교단체	20대	11.5	11.5	10.6	66.5	—	100.0
	30대	10.2	12.9	12.5	64.3	—	100.0
	40대	14.3	16.6	9.4	59.6	—	100.0
	50대	19.0	16.5	4.8	59.3	0.4	100.0
	60대 이상	15.7	12.6	6.8	64.8	—	100.0
문화단체	20대	15.4	9.3	24.2	51.1	—	100.0
	30대	14.5	12.9	25.5	46.7	0.4	100.0
	40대	17.6	11.4	21.8	49.2	—	100.0
	50대	14.7	12.1	19.0	53.7	0.4	100.0
	60대 이상	11.9	5.1	8.9	74.1	—	100.0
기타 자발적 모임 및 단체	20대	21.1	10.1	24.2	44.5	—	100.0
	30대	15.7	17.3	20.8	45.9	0.4	100.0
	40대	22.1	15.3	14.7	47.9	—	100.0
	50대	25.1	13.0	16.9	44.6	0.4	100.0
	60대 이상	21.5	7.2	11.3	60.1	—	100.0

자료: 성균관대학교 서베이리서치센터(2014), 한국종합사회조사 데이터, http://kgss.skku.edu/?page_id=39에서 2017년 3월 17일 인출.

한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수행한 ‘청년 사회·경제 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 I (김기현·하형석·신인철, 2016)’에서는 청년들의 참여와 관련하여 ‘의견 표명 행동’을 조사하였다. 조사 항목에는 ‘SNS에 글을 올리거나 답변하기’ ‘뱃지/팔찌/리본 등 착용/부착’ ‘서명 참여’ ‘집회

및 시위 참여'가 포함되었다. <표 II-8>에 따르면, 'SNS에 글을 올리거나 답변하기', '밴지/팔찌/리본 등 착용/부착', '서명 참여' 항목에 대한 참여 응답(아마도 참여함+확실히 참여함)은 30%이상으로 나타난 반면, '집회 및 시위 참여'에 대한 응답은 12.7%로 나타나 유형별 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

표 II-8 의견 표명 제시 방법

(단위: %)

	SNS에 글을 올리거나 답변하기	개인의견표현 위해 밴지/팔찌/리본 등을 착용/부착	서명에 참여하기	집회 및 시위에 참여하기
절대로 참여하지 않음	14.3	16.5	14.9	24.4
아마도 참여하지 않음	24.4	25.2	19.9	33.5
보통이다	27.8	25.3	31.0	29.5
아마도 참여함	30.5	28.4	28.2	11.2
확실히 참여함	3.0	4.6	6.0	1.5

출처: 김기현·하형석·신인철(2016: 139). 「청년 사회·경제 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 I」

* 조사대상: 15~39세 청소년, 청년

2) 지자체의 청년종합실태조사 결과

청년기본조례를 제정한 지자체 중에는 청년종합실태조사를 실시한 곳들이 있다. 여기에서는 청년종합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보고서를 발간한 경기도, 대구광역시와 광주광역시의 사례를 정리해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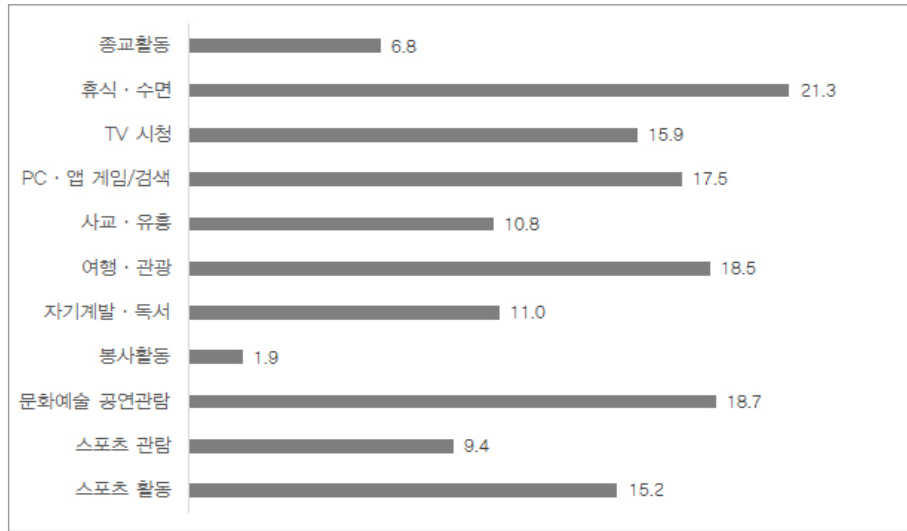
우선 청년종합실태조사에 포함된 설문 항목들은 다음과 같다. 경기도의 경우, 취업 및 향후 진로, 주거생활, 경제생활, 여가 및 문화생활, 현안 및 청년정책 인식, 정주의식 등을 조사항목으로 포함하였으며, 대구광역시의 경우, 삶의 만족도, 대구 정주의향, 주거와 소득·지출, 경제활동 현황, 결혼과 가정생활, 문화와 사회참여 등을 포함하였다. 광주광역시에서는 취업과 근로, 문화, 사회·정치·의식, 광주에 대한 인식, 청년정책 인식 및 평가 항목을 조사하였다. 이 중, 청년 사회활동과 관련된 여가 및 문화생활(경기도), 청년정책 및 사회참여(대구광역시)와 동호회 활동(광주광역시) 및 청년센터 이용 의향 등에 대한 결과를 살펴보고, 기타 청년 사회활동에 시사점을 제공하는 문항들을 중심으로 결과를 정리하였다.

표 II-9 지자체별 청년종합실태조사 항목

	조사대상	조사 항목
경기도	19~34세 1,200명	1) 취업 및 향후 진로: 진로결정, 교육프로그램, 아르바이트 경험, 이직 경험 2) 주거생활 3) 경제생활: 생활비 및 학비마련, 부채, 전망 4) 여가 및 문화생활: 여가생활, 문화생활 5) 현안 및 청년정책 인식: 현안, 청년정책 인식, 거역도 청년정책 6) 정주의식
대구광역시	19~39세 1,000명 (지역청년 900명, 출향청년 100명)	1) 청년 삶의 만족도 및 대구 정주의향: 대구 거주년수 및 정주의향, 삶의 만족도 2) 주거와 소득 지출: 주거, 소득과 지출 3) 청년 유형별 경제활동 현황: 비경제활동인구, 경제활동인구, 청년창업 4) 결혼과 가정생활: 결혼과 가족형성, 가정생활 및 일-가정 양립 5) 문화와 사회참여: 여가문화, 청년정책 및 사회참여, 대중교통 운행시간 인식, 대구시가 주력할 청년정책 분야 6) 귀향 청년 현황: 귀향 청년 현황, 귀향자-일반청년 비교 7) 출향 청년 현황: 출향청년의 인구통계적 특성, 출향시기와 이유 등
광주광역시	19~39세 1,200명	1) 경제적 삶: 부모의 교육수준, 부모의 거주지역, 거주형태, 혼인, 월평균 가구소득 등 2) 취업과 근로: 개인진로결정, 취업 준비기간, 취업 정보 획득경로, 취업정보 만족도 등 3) 청년문화: 문화시설 이용 및 만족도, 선호 문화향유 활동, 문화 창작활동, 스포츠 활동, 동호회 활동, 청년문화 4) 사회·정치의식: 사회인식지수, 활력지수, 정치의식 5) 광주에 대한 인식: 광주의 삶 만족도, 광주 시민으로서의 자부심, 청년을 위한 우선 관심 분야, 타지역으로 이주, 광주의 이미지, 청년도시 6) 청년정책 인식 및 평가: 청년정책 우선순위, 청년지원정책 우선순위, 청년실업 문제의 일차적 책임, 청년실업 문제 해결 고려할 점, 청년창업, 청년센터, 정보플랫폼 등

출처: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2017), 「경기도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 연구」; 광주광역시(2016a), 「광주청년 종합실태조사」; 대구광역시(2016), 「2016년 대구청년실태조사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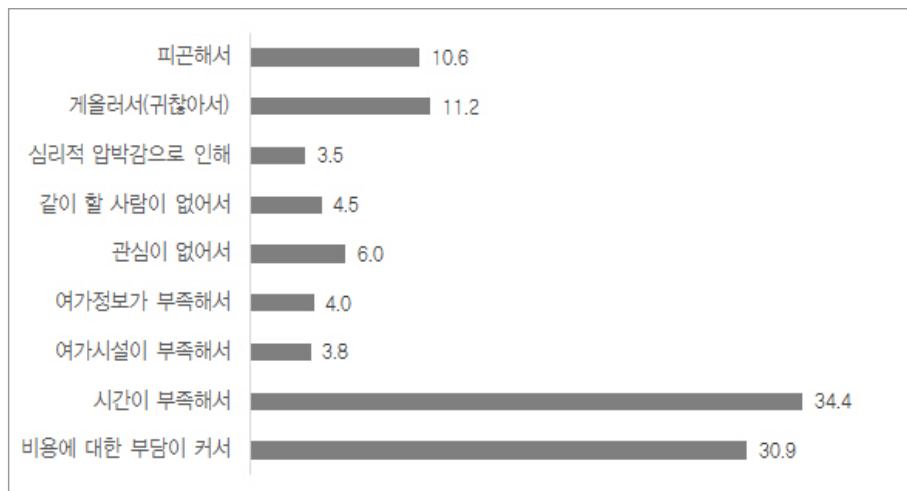
[그림 II-7]에는 경기도 청년들이 현재 즐기는 주된 여가활동에 대한 응답 결과를 제시하였다. 주된 여가활동에는 휴식과 수면(21.3%)이 가장 높은 응답 결과를 보였고, 그 다음으로 문화예술 공연관람(18.7%), 여행 및 관광(18.5%)의 순서로 높게 나타났다.



출처: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2017). 「경기도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 연구」, p. 1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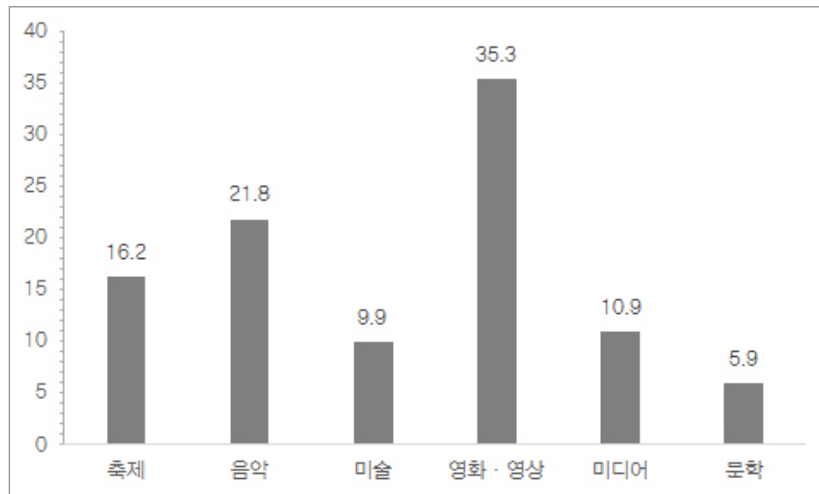
【그림 II-7】 경기도 청년들의 ‘현재 즐기는 여가생활’(중복응답)

경기도 청년들이 평소 여가를 즐기지 못하는 주된 이유에 대한 응답은 ‘시간이 부족해서’(34.4%)와 ‘비용에 대한 부담이 커서’(30.9%)가 가장 높았다. 청년들이 여가활동을 제대로 즐기지 못하는 이유 중 가장 큰 것이 비용 부담과 시간 부족 문제임을 확인할 수 있다.



출처: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2017). 「경기도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 연구」, p. 1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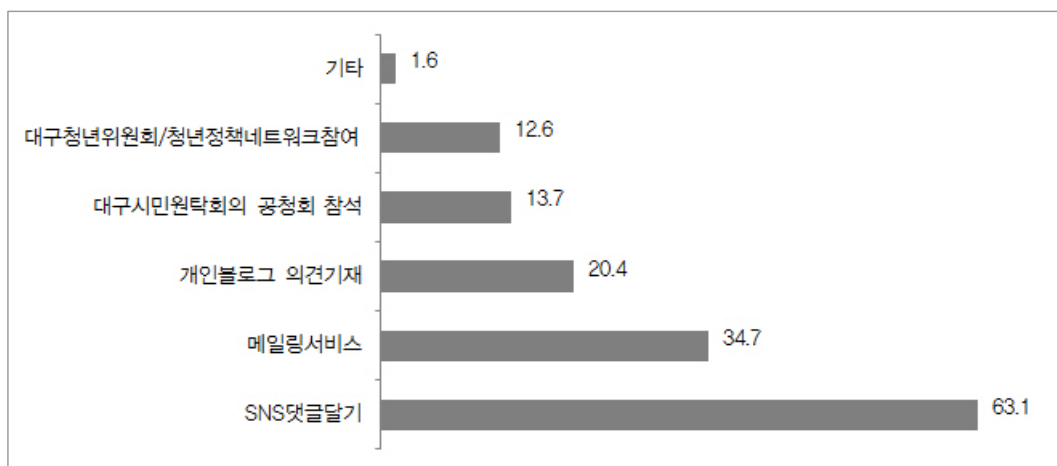
【그림 II-8】 경기도 청년들의 ‘평소 여가를 즐기지 못하는 이유’(중복응답)



출처: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2017). 「경기도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 연구」. p. 124.

【그림 II-9】 경기도 청년들의 ‘희망하는 문화·예술활동’

경기도 청년들이 가장 희망하는 문화·예술활동은 영화 및 영상(35.3%)이었고, 음악(21.8%)과 축제(16.2%)에 대한 응답이 그 다음으로 높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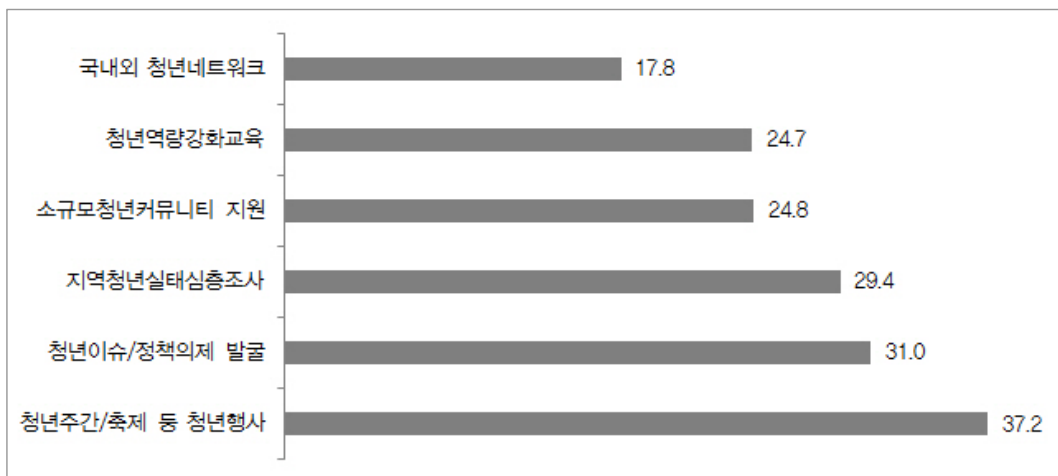


출처: 대구광역시(2016). 「2016년 대구청년실태조사 결과」. p. 109.

【그림 II-10】 대구시 청년정책 의견 표명 주요 활동 방법(중복응답)

대구 청년들의 청년정책 의견 표명을 위한 주요 활동은 SNS 댓글달기가 63.1%로 가장 높았고, 메일링서비스 받기(34.7%), 개인블로그 의견 기재(20.4%)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대구시민원탁회의 및 공청회 참석이나 청년위원회 및 청년정책네트워크 참석과 같은 적극적 활동 참여 비율은 12~13%대로 낮았다. 유사한 맥락에서, 대구시 청년정책 형성과정에 대한 참여 의향을 묻는 문항에 대해서도 참여 의향 있음(24.9%)보다 참여 의향 없음(34.7%)에 대한 응답이 조금 더 높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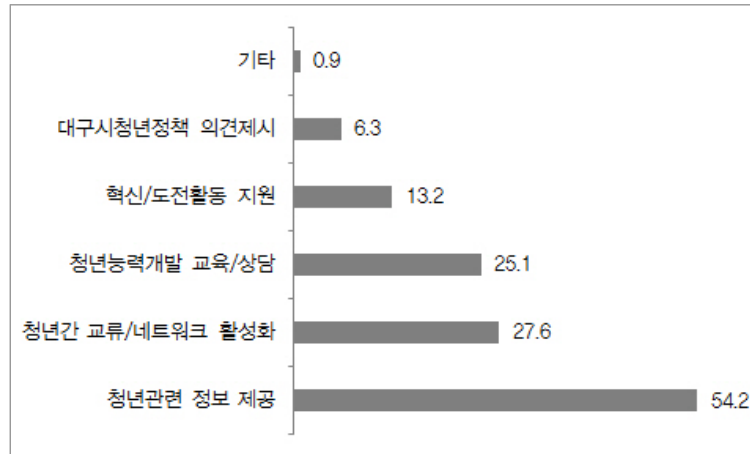
다음으로 대구청년센터 이용 의사를 묻는 문항에 대해서도 이용 의사 있음(18.7%)보다 이용 의사 없음(34.7%)이 약 2배 가량 높게 나타났고, 보통이 46.7%를 차지해 다소 유보적인 반응이 많았다. 대구청년센터가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대한 관심도는 청년주간/축제 등 청년행사가 37.2%가 가장 높았고, 청년이슈 및 정책이슈 발굴(31.0%), 지역청년실태 심층조사(29.4%)의 순서로 높게 나타났다.



출처: 대구광역시(2016), 「2016년 대구청년실태조사 결과」, p. 110.

【그림 II-11】 대구청년센터 운영 프로그램에 대한 관심(중복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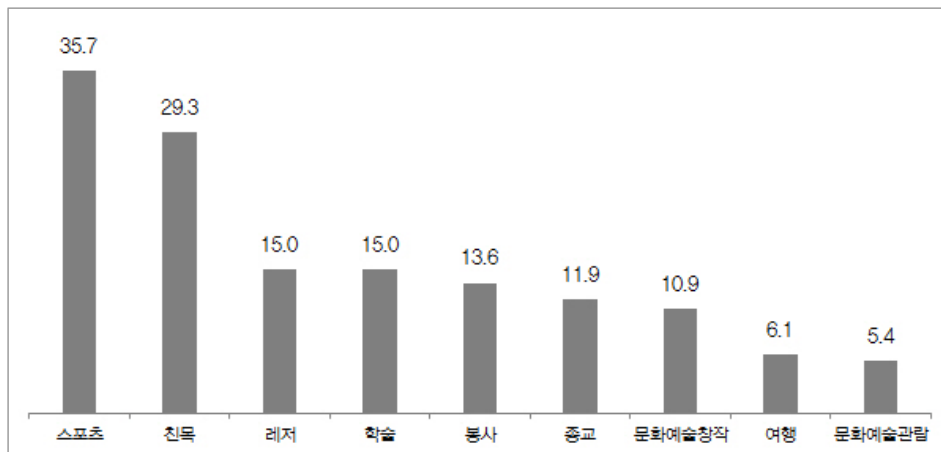
다음으로, 대구청년센터의 향후 운영 중점 분야에 대한 의견은 청년관련 정보 제공이 54.2%로 가장 높았고, 청년간 교류 및 네트워크 활성화(27.6%), 청년능력개발을 위한 교육 및 상담(25.1%)의 순서로 높았다.



출처: 대구광역시(2016), 「2016년 대구청년실태조사 결과」, p. 111.

【그림 II-12】 대구청년센터 향후 운영 중점 분야(중복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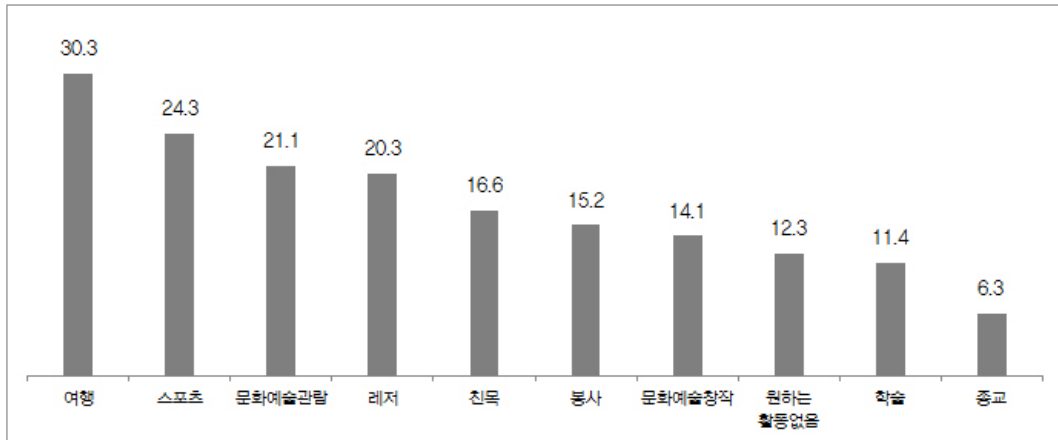
다음으로 광주광역시에서는 동호회 활동에 대한 문항을 조사하였는데, 정기적인 동호회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비율은 전체 조사대상자 중 24.5%였다. 그런데 30대 청년들에 비해 19~24세(21.8%), 25~29세(19.4%) 청년들의 동호회 활동 참여가 평균을 밑도는 낮은 수치를 보였다. 동호회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활동하는 동호회 분야를 조사한 결과, 스포츠(35.7%), 친목(29.3%), 레저(15.0%), 학술(15.0%), 봉사(13.6%), 종교(11.9%), 문화예술창작(10.9%), 여행(6.1%), 문화예술관람(5.4%) 활동 순서로 높았다.



출처: 광주광역시(2016a), 「광주청년 종합실태조사」, pp. 208~209.

【그림 II-13】 광주시 청년들의 '동호회 활동 분야'(중복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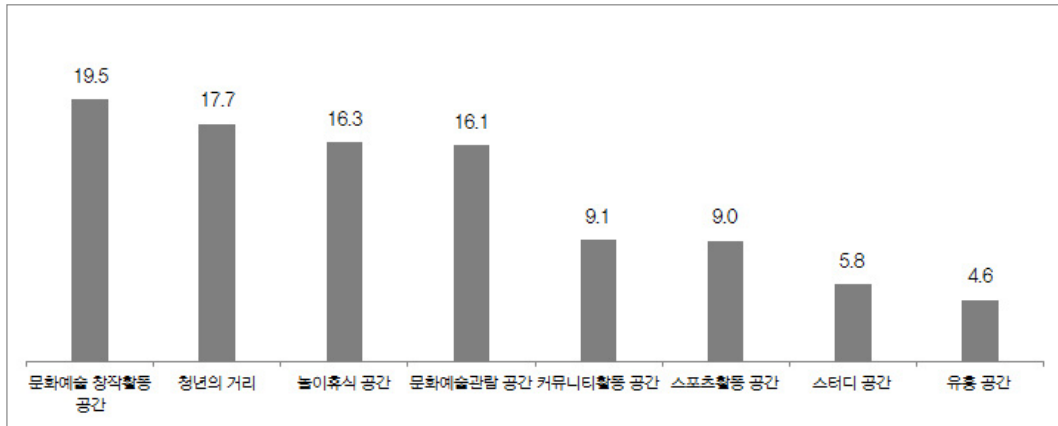
[그림 II-14]는 광주시 전체 조사대상 청년들을 대상으로 활동하고 싶은 동호회 분야를 조사한 결과이다. 청년들은 여행(30.3%), 스포츠(24.3%), 문화예술관람(21.1%), 레저(20.3%) 활동 순서로, 관련 동호회 활동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출처: 광주광역시(2016a). 「광주청년 종합실태조사」, pp. 210~211.

【그림 II-14】 광주시 청년들의 ‘활동하고 싶은 동호회 분야’(중복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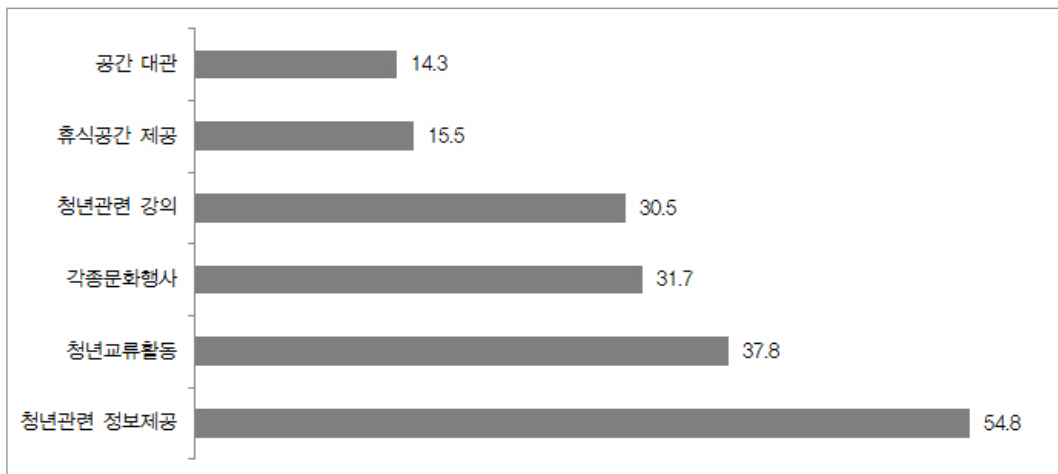
상술한 결과는 청년 다수가 동호회 활동에는 참여하지 못하고 있지만, 여행, 스포츠, 문화예술관람 등 활동하고 싶은 동호회 분야도 다양함을 보여준다. 청년들이 단체 가입을 통해 타인과 교류하면서 활동하고 싶은 욕구는 ‘청년에게 필요한 공간’에 대한 문항 조사에서도 잘 드러난다. 청년들은 문화예술 창작활동을 위한 공간(19.5%), 청년의 거리(17.7%), 놀이휴식 공간(16.3%)들을 청년에게 필요한 공간으로 인식하였다. 조사대상 중 30대 청년들은 문화예술 창작활동을 위한 공간을 1순위로, 19~29세 청년들은 ‘청년의 거리’를 1순위로 꼽아 선호 공간에 대한 인식에서 차이를 나타냈다.



출처: 광주광역시(2016a), 「광주청년 종합실태조사」, pp. 224~225.

【그림 II-15】 광주시 청년들의 ‘청년에게 필요한 공간’ 응답결과

마지막으로, 광주시 청년들의 경우 광주청년센터를 이용할 의사가 있다는 응답이 61.9%로 높았다. 향후 청년센터 운영 방향에 대해서는 청년관련 정보 제공이 54.8%로 가장 높았으며, 청년교류활동(37.8%), 각종 문화 행사(31.7%), 청년관련 강의(30.5%)의 순서로 응답 비율이 높았다.



출처: 광주광역시(2016a), 「광주청년 종합실태조사」, pp. 300~301.

【그림 II-16】 광주청년센터 운영 방향(중복응답)

제 III 장

청년 사회활동 관련 법령·정책 및 해외사례 분석

1. 청년 사회활동 관련 법령 분석
2. 지자체 청년정책기본계획 및
청년 사회활동 관련 내용 분석
3. 해외 청년 사회활동 지원 정책

제 III 장

청년 사회활동 관련 법령·정책 및 해외사례 분석*

이 장에서는 먼저 청년 사회활동 관련 법령을 전국 지자체별 청년기본조례와 20대 국회에서 발의된 청년 관련 법안, 그리고 청소년활동진흥법을 중심으로 분석하고 정리하였다. 2절에서는 특별시와 광역시, 경기도를 중심으로 자치단체의 청년정책기본계획을 살펴보았으며, 청년 사회활동 관련 내용을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3절에서는 해외 청년 사회활동 지원 정책을 EU와 일본 사례를 통해 살펴보았다.

1. 청년 사회활동 관련 법령 분석⁷⁾

1) 전국 지자체 「청년기본조례」 및 20대 국회 「청년기본법안」

청년들이 직면한 다양한 문제들이 사회적 현안으로 등장함에 따라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고용정책 중심의 청년정책을 참여, 능력개발, 일자리, 주거, 생활안정, 문화 등의 내용을 포괄하는 종합지원정책으로 마련하기 위한 법적 기반으로 청년기본조례를 제정하였다.

<표 III-1>은 2017년 10월 현재,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별 청년기본조례 제정 현황을 정리한 것이다. 광역자치단체 17개 중, 인천광역시와 강원도를 제외한 15개에서 청년기본조례를 제정하였고, 기초자치단체 229개 중 49개에서 청년기본조례를 제정 완료하였다. 기초자치단체 중에서는 호남지역이 타 지자체에 비해 청년기본조례를 제정한 수가 많은 편이며, 영남지역이 상대적으로

* 이 장의 1~2절은 김정숙 부연구위원(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집필하였고, 3절은 조소연 박사(한국외대)와 강영배 교수(대구대)가 집필한 원고를 김정숙 부연구위원(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수정·보완하였음.

7) 이 부분은 김정숙 부연구위원(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집필하였음.

매우 적은 편이다. 광역, 기초자치단체에서 제정한 청년기본조례의 내용이 지자체별로 약간씩 차이가 있지만 전체적인 틀은 유사한 것으로 나타나, 여기에서는 광역자치단체의 청년기본조례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표 III-1 전국 지방자치단체 청년기본조례 제정 현황(2017. 10. 14. 기준)

구분	청년기본조례 제정 완료		전체
광역 (17)	서울, 경기, 대구, 대전, 부산, 충북, 충남, 경북 ⁸⁾ , 세종, 울산, 경남, 광주, 전남, 전북, 제주		15개
기초 ⁹⁾ (229)	서울(9)	강동구, 강서구, 관악구, 금천구, 도봉구, 동대문구, 서대문구, 성북구, 은평구	49개
	인천/경기(8)	인천남구, 고양시, 과천시, 성남시, 수원시, 시흥시, 안산시, 안양시	
	충청/강원 (12)	대전서구, 대전유성구, 단양군, 당진시, 부여군, 서천군, 아산시, 옥천군, 청양군, 청주시, 충주시, 홍성군	
	영남(3)	부산동구, 부산서구, 창원시	
	호남/제주 (17)	광주동구, 광주서구, 고흥군, 곡성군, 광양시, 나주시, 목포시, 보성군, 순천시, 여수시, 영광군, 완주군, 장흥군, 전주시, 함평군, 해남군, 화순군	

출처: 자치법규정보시스템 홈페이지(<http://www.elis.go.kr>)에서 2017년 10월 14일 검색하여 정리
행정자치부(2017. 4.). 지방자치단체 행정구역 및 인구현황을 토대로 작성

<표 III-2>에는 15개 광역자치단체에서 제정한 청년기본조례의 주요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15개 광역자치단체에서 제정한 청년기본조례의 명칭과 담당부서는 약간씩 상이하지만, 공통적으로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 및 시행하고, 청년정책에 “청년의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의 참여 확대, 청년의 능력 개발, 청년의 고용확대 및 일자리 질 향상, 청년의 주거 안정, 청년의 생활안정, 청년 문화의 활성화, 청년의 권리보호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본 연구주제와 관련된 “청년활동”에 대해서도 명시하고 있다. 청년활동이란 “청년의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의 참여 확대, 권익 증진, 청년발전을 위해 필요한 청년 및 청년단체의 다양한 활동”을 의미한다.¹⁰⁾ 이처럼 청년활동을 “청년발전을 위해

8) 2017년 10월 의회 제출 예정

9) 서울: 25구, 인천/경기: 인천(8구 2군), 경기(28시 3군), 충청/강원: 대전(5구), 충북(3시 8군), 충남(8시 7군), 세종(1행정시), 강원(7시 11군), 영남: 부산(15구 1군), 대구(7구 1군), 울산(4구 1군), 경북(10시 13군), 경남(8시 10군), 호남/제주: 광주(5구), 전남(5시 17군), 전북(6시 8군), 제주(2행정시) 기준(행정자치부, 2017. 4.).

10) 국가법령정보센터 서울특별시 청년기본조례(2016. 1. 7.).

필요한 청년 및 청년단체의 다양한 활동”으로 규정하고 있어, 향후 지자체에서 청년들의 다양한 사회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청년기본조례에는 청년의 참여와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청년시설의 설치·운영 지원’에 관한 내용과 청년정책 추진을 위한 ‘청년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광역자치단체 중 일부는 청년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청년센터를 설치하고, 청년들의 자유로운 활동 보장을 위한 공간을 지원하고 있다.

표 III-2 광역자치단체 청년기본조례 내용 분석

지역	조례명	담당부서	주요 내용	청년지원기관 (공간)	청년의 정의
서울	서울특별시 청년기본조례	청년정책담당관	5개년 기본계획 수립시행, 청년정책위원회운영, 주요 청년사업 시행 - 청년정책연구, 청년허브 운영, 청년시설 운영, 청년단체 재정지원	청년허브, 청년청, 무중력지대	청년의 범위는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 그 밖의 관계 법령의 규정을 따름
경기	경기도 청년기본조례	여성가족국 아동청소년과	- 기본계획 수립시행, 청년정책위원회 운영, 주요청년사업 시행 - 청년정책연구, 청년지원사업단·청년시설 운영, 청년단체 재정지원	청년시설 (추진중)	청년의 범위는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 그 밖의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름
대전	대전광역시 청년기본조례	기획조정실 청년정책담당관	5개년 기본계획 수립시행, 청년정책위원회·청년정책 네트워크 운영 - 실태조사 실시, 청년시설 지정·운영, 청년단체 지원	-	“청년”이란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사람을 말함
충남	충청남도 청년기본조례	미래성장본부 미래정책과	5개년 기본계획 수립시행, 청년정책위원회 운영, 청년단체 경비지원, 주요청년사업 시행, 정책연구	-	“청년”이란 도에 거주·생활하거나 이를 희망하는 18세 이상 34세 이하의 사람을 말함
충북	충청북도 청년기본조례	행정국 청년지원과	5개년 기본계획 수립시행, 청년위원회 운영	청년희망센터 (청년광장)	“청년”이란 15세 이상 39세 이하의 사람을 말함

<http://www.law.go.kr/ordinSc.do?menuId=2&query=%EC%84%9C%EC%9A%B8%EC%8B%9C%20%EC%B2%AD%EB%85%84%20%EC%A1%B0%EB%A1%80#AJAX>에서 2017년 5월 20일 인출

지역	조례명	담당부서	주요 내용	청년지원기관 (공간)	청년의 정의
			• 청년정책연구, 청년희망센터 운영, 청년시설 운영, 청년단체 재정지원		
세종	세종특별자치시 청년기본조례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 5개년 기본계획 수립시행, 청년정책연구 실시 • 청년정책위원회, 청년센터 설치운영, 청년단체지원	-	“청년”의 범위는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 그 밖의 관계 법령에서 따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그 규정에 따름
대구	대구광역시 청년기본조례	시민행복교육국 청년정책과	• 5개년 기본계획 수립시행, 청년정책심의회·청년정책네트워크 운영, 주요청년사업 시행 • 청년정책연구, 청년센터·청년시설 운영, 청년단체 재정지원	대구광역시 청년센터	“청년”이란 만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사람을 말함. 다만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 그 밖의 관계법령에서 따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그 규정에 따름
부산	부산광역시 청년기본조례	시정혁신본부 비전추진단	• 5개년 기본계획 수립시행, 청년위원회, 청년정책분과위원회 운영 • 청년공간 설치 운영 및 지원, 청년단체 등에 대한 지원 등	-	“청년”이란 만 18세이상 34세 이하의 사람을 말함. 다만,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등 관계 법령에서 따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그 규정 따름
울산	울산광역시 청년기본조례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 5개년 기본계획 수립시행, 청년정책위원회 운영 • 청년네트워크 운영, 청년센터 설치·운영, 청년단체 보조금 지원	-	청년의 범위는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그 밖의 관계 법령에서 따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그 규정에 따름
경남	경상남도 청년발전기본 조례	기획조정실 교육지원담당관	• 5개년 기본계획 수립시행, 청년정책연구 실시 • 청년정책위원회, 청년센터 설치운영, 청년시설 설치, 청년단체 지원	-	청년의 범위는 19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을 말함

지역	조례명	담당부서	주요 내용	청년지원기관 (공간)	청년의 정의
경북	경상북도 청년기본조례 ¹¹⁾	일자리민생본부 청년정책담당관	-	-	
광주	광주광역시 청년정책기본 조례	자치행정국 청년정책과	5개년 기본계획 수립시행, 청년정책위원회·청년위원회 운영 - 실태조사, 청년센터운영, 청년단체보조금지원	광주청년센터 the 숲	“청년”이란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사람을 말함
전북	전라북도 청년기본조례	경제산업국 일자리경제 정책관	5개년 기본계획 수립시행, 청년정책위원회 운영, 청년 정책포럼단 구성 - 청년센터 설치운영, 청년단체 행정적·재정적 지원	-	“청년”이란 전라북도(이하 “도”라 한다)에 주소를 두거나 거주하고 있는 18세 이상 39세 이하의 사람을 말함
전남	전라남도 청년기본조례	기획조정실 청년정책담당관	5개년 기본계획 수립시행, 청년발전위원회 운영, 주요 청년사업 시행 - 청년정책연구, 청년시설운영, 청년단체재정지원	-	청년이란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를 원칙으로 하되, 개별사업의 성격, 그 밖의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
제주	제주특별 자치도 청년기본조례	특별자치행정국 평생교육과	5개년 기본계획 수립시행, 청년정책연구 실시 - 청년위원회, 청년센터 설치 운영, 청년단체 지원	청년다락 (多樂)	“청년”이란 만 19세부터 34세까지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에 거주하는 사람을 말함

출처: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 “전국 지자체 청년 자치법규 추진현황” 내부자료(2017. 1.)을 토대로 신규 제정된 각 지자체의 청년기본조례(자치법규정보시스템(<http://www.elis.go.kr>) 및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LSW/main.html>)에서 검색)를 추가하였음.

다만 광역자치단체별로 청년기본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청년의 정의, 구체적으로 청년의 연령 규정에 차이가 있어 향후 혼선이 예상된다. 특히 19대 국회에서 3건의 ‘청년발전기본법안’이 발의되었으나 처리되지 못했고, 20대 국회에서도 ‘청년기본법안’ 또는 ‘청년정책기본법안’ 등이 발의된 상태이지만 아직까지 처리되지 못한 상태에 있다. 이처럼 중앙정부 차원에서 청년 관련 법령이 처리되지 못한 상태에서 지자체가 먼저 청년기본조례를 제정하는 과정에서 지자체별로 참고했던 청년연령 규정이 달랐던 것으로 보인다. 많은 광역자치단체는 “청년고용촉진특별

11) 경상북도의 경우, 2017년 10월 도의회 제출 예정이어서 지방법규정보시스템에서 검색 불가함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청년 연령규정을 준용하고 있는데, 동법에서의 청년 연령은 15~29세이며, 청년고용할당제에 한해 34세까지 포함하고 있다. 광역자치단체별 청년기본조례에서 청년의 하한연령은 15세, 18세, 19세 등으로 다양하며, 상한연령은 34세 또는 39세이다. 어떤 기준을 따르든 하더라도, 청년기본조례에서 규정한 청년 연령이 ‘청소년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청소년의 연령(9~24세)과 중복되는 문제점도 있어 정책적 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¹²⁾

한편 19대 국회에서 발의하였으나 처리되지 못했던 여러 건의 ‘청년기본법안’들이 20대 국회에서 다시 발의되었다. 2016년 5월 30일부터 2017년 10월 20일 현재까지 발의된 법안은 총 6건이며, 구체적인 내용은 <표 III-3>과 같다.¹³⁾

표 III-3 제20대 국회의 「청년기본법안」 분석

대표 발의	신보라의원	박홍근의원	이원욱의원	김해영의원	박주민의원	강창일의원
명칭	청년기본법안	청년정책 기본법안	청년기본법안	청년발전 기본법안	청년기본법안	청년발전지원 기본법안
제안일	2016. 5. 30.	2016. 8. 17.	2016. 8. 24.	2016. 12. 2.	2017. 4. 13.	2017. 6. 30.
청년 연령	19~39세	19~34세	19~39세	19~34세	19~34세	18~39세
주요 내용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청년정책의 수립·조정 및 청년지원 등에 관한 기본 사항 규정 • 청년의 권리와 책임 선언 • 매년 8월을 청년의 달로 지정 • 청년정책기본계획(5년) 및 시행계획 수립·시행 • 청년 관련 실태조사 매년 실시 • 국무총리 소속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설치, 시·도지사소속 지역청년정책조정	• 청년 능력개발 관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규정 • 청년정책기본계획(5년)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시행 • 청년 관련 기초조사와 여론조사 실시 • 국무총리 소속 청년발전위원회 및 지방청년발전위원회 설치 • 청년의 날 지정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결정과정에 청년 참여증진 및 확대방안 강구 • 청년수당 지급	• 청년의 권리 및 청년발전과 청년지원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규정 • 청년의 권리와 책임에 대한 선언 • 매년 중 1주년을 청년주간 지정 • 청년정책기본계획(5년) 및 시행계획 수립·시행 • 청년정책위원회 및 지역청년정책위원회 설치 • 청년정책관 지정 • 청년 관련 실태조사 매년 실시	• 청년의 무한한 능력을 개발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규정 • 청년정책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시행 • 청년정책조정회의 설치,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년정책책임관 지정 • 청년 관련 기초조사와 여론조사 실시 • 1년 중 1주년을 청년주간(靑年週刊)으로 지정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청년지원금 지급	• 청년에 대한 사회·국가·지방자치단체의 책임 규정 • 청년정책기본계획(5년) 및 시행계획 수립·시행 • 대통령 소속 청년위원회 설치 • 청년 실태조사 실시 • 청년정책책임관 지정 • 정책결정과정에서 청년 당사자의 참여 확대 위해 청년참여회의 설치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청년지원금 지급	• 청년의 달(7월) 지정 • 청년정책기본계획(3년)수립·시행 • 청년정책 분석 평가 • 청년발전지원위원회 설치 • 교육훈련비용 지원금, 주거안정지원금 등 지급 • 청년정치 참여 보장 • 청년정책 수행에 필요한 자원 확보 위해 청년발전지원기금 설치 • 정부는 주요 청년정책에 관한 연차보고서 작성, 국회 제출

12) 청년 관련 법령 현황 및 문제점에 대한 더 구체적인 내용은 김기현·하형석·신일철(2016: 144~149)을 참고할 것

13) <표 III-3> 이하에서 2) 「청소년활동진흥법」 이전까지의 내용은 20대 국회에서 발의된 6개 법안을 토대로 핵심내용을 요약한 것이다(청년기본법안, 2016. 5.30., 2016. 8. 17., 2016. 8.24., 2016. 12.2., 2017. 4.13., 2017. 6.30.).

대표 발의	신보라의의원	박홍근의원	이원욱의원	김해영의원	박주민의원	강창일의의원
	- 위원회 설치 - 청년정책책임관 지정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결정과정에 대한 청년 참여 증진 및 확대방안 강구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청년단체 행정 지원, 청년시설 설치·운영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청년단체 활동 지원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청년시설 설치·운영 - 정부는 매년 주요 청년정책의 수립 및 추진실적 등에 관한 보고서 작성, 국회 제출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결정과정에 청년 참여 확대 방안 강구 - 청년생활지원금 지급 - 청년단체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청년시설 및 청년지원센터 설치·운영 - 정부는 매년 주요 청년정책의 수립 및 추진실적 등에 관한 보고서 작성, 국회 제출	- 체의 정책결정과정에 대한 청년참여 확대 방안 마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청년단체 활동 지원, 청년관련시설 설치·운영 - 정부는 청년정책에 관한 연차보고서 작성 제출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청년단체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청년시설 설치·운영 1년 중 1주년을 청년주간으로 지정 - 청년친화도시 조성 노력 - 정부는 주요 청년정책에 관한 연차보고서 작성, 국회 제출	
청년 활동 관련 내용	- 청년 문화활동 지원 - 청년 국제협력활동 지원 - 청년 자원봉사활동 지원 - 청년단체 활동 지원 - 청년시설 설치 운영	- 청년의 국제협력 활동 지원 - 자원봉사활동 지원 - 청년단체 운영 및 활동 지원 - 청년시설 설치 운영	- 청년 문화활동 지원 - 국제협력 활동 지원 - 청년단체 활동 지원 - 청년시설 설치 운영	- 청년 국제협력 활동 지원 - 청년 자원봉사활동 지원 - 청년단체 활동 지원 - 청년관련시설의 설치 운영	- 청년문화 활성화 - 청년단체 활동 지원 - 청년시설 설치 운영	- 정책결정과정에 참여확대 - 청년 문화 활성화 - 청년정치 참여 보장 등 - 청년단체 지원

출처: 의안정보시스템(<http://likms.assembly.go.kr/bill/main.do>)에서 2017년 5월 30일, 10월 20일 검색하여 정리

6건의 청년 관련 법안에서는 공통적으로 청년을 지원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고, 청년정책기본계획(5년) 및 시행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내용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청년 관련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결정과정에 청년 참여를 확대하는 한편, 매년 청년주간 또는 청년의 날(달)을 지정하여 청년 문제에 대한 관심을 높이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아울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년단체 운영·활동에 대한 지원, 청년시설의 설치·운영에 대한 지원을 명시하고 있다.

반면, 강창일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에서는 청년 연령이 18~39세로 연령 시작 시점이 나머지 법안과 차이가 있다. 또한 법안마다 특색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 예컨대 신보라의의원, 이원욱의원, 박주민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에서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장은 청년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 시행하기 위해 청년정책책임관 지정을 명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을 끈다. 또한 신보라의의원 및 김해영의원 법안을 제외한 나머지 4개 법안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청년의 생활안정, 복지향상, 능력개발을 위한 청년수당 또는 청년생활지원금(청년지원금, 청년수당 등), 또는 고용훈련비용 및 주거안정지원금 지급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신보라의원 법안을 제외한 나머지 5개 법안에서는 정부가 매년 청년정책의 수립, 추진실적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마지막으로, 박주민의원의 법안에서는 아동친화도시와 유사한 ‘청년친화도시’ 조성 노력에 대해 언급하고 있고, 강창일의원 법안에서는 청년정책 수행에 필요한 재원 확보 차원에서 ‘청년발전지원기금’에 관한 내용을 명시하고 있어 차별성이 있다.

한편, 청년활동과 관련된 내용들을 살펴보면 주로 청년 문화활동 및 자원봉사활동, 국제협력활동 등의 영역에 한정하여 청년활동을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한계점이 있다. 이 때문에, 청년 관련 법안에 담긴 청년활동의 내용은 종합적이고 유기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물론 청년단체 활동 지원과 청년시설 설치·운영에 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청년당사자 조직에 대한 지원, 청년들을 위한 공간 보장 등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어 의미가 있다. 또한 청년들의 정책참여를 보장할 수 있는 기구나 위원회 설치에 대한 내용도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청년들의 정책참여를 활성화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상술한 바와 같이, 청년활동에 국한할 경우 20대 국회에서 발의된 청년 관련 법안의 내용은 여러모로 제한점이 있다. 특히 지금과 같이 청년 고용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청년들이 노동시장 이행 이전까지 다양한 자기실험을 시도해 볼 수 있는 청년활동에 대한 보장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청년들은 자신들의 진로를 개척하고,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권리를 실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청년기본법안에서의 청년활동 정책을 특정 영역으로 한정하기보다는 일자리를 갖기 전의 진로와 관련된 다양한 실험적 활동 또는 시민으로서의 사회참여, 지역사회 참여와 개선 등 보다 다양하고 혁신적인 내용들을 포괄할 수 있도록 확대할 필요가 있다.

2) 「청소년활동진흥법」

「청소년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청소년의 연령이 9~24세이므로, 본 연구대상인 20대 청년 중 20~24세 청년들은 청소년 관련 법의 정책대상이 된다. 「청소년활동진흥법」은 「청소년기본법」 제3조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청소년활동, 즉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과 이러한 활동을 소재로 하는 수련활동·교류활동·문화활동 등 다양한 형태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진흥하기 위해 제정되었다(국가법령정보센터, 2017. 3. 21.). 여기에서는

「청소년활동진흥법」의 내용들을 분석하여, 청년 사회활동과 관련된 「청소년활동진흥법」의 내용과 향후 청년 사회활동 활성화를 위한 개선점에 대해 정리해 본다.

앞서 II 장 1절 ‘사회활동’의 의미 고찰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청소년활동에서 규정하고 있는 활동영역에는 수련활동, 교류활동, 문화활동(예술, 스포츠, 동아리, 봉사활동 등) 등이 포함된다. 「청소년활동진흥법」 제6조(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의 설치) 제1항은 “「청소년기본법」 제3조 제2호에 따른 청소년육성(이하 “청소년육성”)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기 위하여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을 설치한다.”고 규정하였다(국가법령정보센터, 2017. 3. 21.). 그 중, 제1항 5호에는 “청소년활동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제7조(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의 설치 등) 제2항에는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가 수행하는 사업을 규정하고 있는데, 그 중 1호 “지역 청소년활동의 요구에 관한 조사”, 5호 “청소년활동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6호 “청소년활동에 대한 교육과 홍보”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국가법령정보센터, 2017. 3. 21.).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 2017.9.22.] [법률 제14705호, 2017.3.21., 일부개정]

제6조(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의 설치) ①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청소년육성(이하 “청소년육성”이라 한다)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기 위하여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이하 “활동진흥원”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16.3.2., 2017.3.21.>

1. 청소년활동,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청소년복지, 같은 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청소년 보호에 관한 종합적 안내 및 서비스 제공
 2. 청소년육성에 필요한 정보 등의 종합적 관리 및 제공
 3. 청소년수련활동 인증위원회 등 청소년수련활동 인증제도의 운영
 4. 청소년 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
 5. 청소년활동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6. 국가가 설치하는 수련시설의 유지·관리 및 운영업무의 수탁
 7.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개발한 주요 청소년수련거리의 시범운영
 8. 청소년활동시설이 실시하는 국제교류 및 협력사업에 대한 지원
 9. 청소년지도자의 연수
 - 9의2. 제9조의2에 따른 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 계획의 신고 지원에 대한 컨설팅 및 교육
 10. 제18조의3에 따른 수련시설 종합 안전·위생점검에 대한 지원
 11. 수련시설의 안전에 관한 컨설팅 및 홍보
 - 11의2. 제18조의2에 따른 안전교육의 지원
 12. 그 밖에 여성가족부장관이 지정하거나 활동진흥원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 ② 활동진흥원은 법인으로 한다.
- ③ 활동진흥원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전문개정 2014.1.21.]

제7조(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의 설치 등) ①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및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해당 지역의 청소년활동을 진흥하기 위하여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이하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지역 청소년활동의 요구에 관한 조사
2. 지역 청소년 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
3. 청소년수련활동 인증제도의 지원
4. 인증받은 청소년수련활동의 홍보와 지원
5. 청소년활동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6. 청소년활동에 대한 교육과 홍보
7. 제9조의2에 따른 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 계획의 신고에 대한 지원
8. 제9조의4에 따른 정보공개에 대한 지원
9. 그 밖에 청소년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는 제2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활동진흥원과 연계·협력한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4.1.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2017. 3. 21.). 청소년활동진흥법

상술한 「청소년활동진흥법」 제6조와 제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과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는 지역 청소년활동에 관한 요구조사를 실시하고, 그것을 기반으로 청소년활동 프로그램 개발·보급, 교육 및 홍보 사업을 적극적으로 수행해야 한다. 그런데 대부분 청소년활동 프로그램들은 중고등학교 재학 청소년을 중심으로 한 내용들이 주를 이루거나, 중고등학교 재학 청소년과 대학생이 함께 하는 활동 프로그램들이 대부분이어서, 청년에게 특화된 프로그램을 거의 찾을 수 없다.¹⁴⁾

「청소년기본법」에서 청소년의 연령을 9~24세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청소년활동 사업들이 24세까지의 청년들을 정책대상으로 포함시키고 있긴 하지만, 기실 9~24세의 청소년들은 연령별로 발달 단계가 다르기 때문에 활동 프로그램도 그에 따라 차별적으로 개발되고 보급될 필요가 있다. 9~18세까지는 동일한 활동 프로그램을 적용한다 할지라도 19~24세 청년들의 경우에는 별도의 활동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노력이 새롭게 요구된다. 새로운 활동 프로그램을

14) 청소년활동정보서비스 홈페이지(<http://www.youth.go.kr/youth/eYouth/main/main.yt#>)에서 2017년 5월 20일 인출)에 따르면, 청소년활동 검색란에 제시된 활동 프로그램 구분하는 연령기준에는 초, 중, 고, 대, 일반 범주만 포함되어 있다. 일반 범주가 최근 증가하고 있는 학교 밖 청소년이나 20~24세 청소년 중 대학 비진학 청소년을 위한 범주라기보다는 초·중·고 청소년의 부모들을 참여시키기 위한 범주로 보인다. 홈페이지의 '활동사업안내'에 제시된 프로그램을 살펴보면, 이 중 20대가 참여하고 있는 프로그램은 국제교류활동, 성취포상활동, 정책참여활동 등 제한적이다.

개발할 경우, 청년들이 처한 사회문화적 배경과 변화된 활동 환경 그리고 그들의 사회활동에 대한 요구조사를 반영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다.

또한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청소년활동시설의 종류)는 청소년활동시설의 종류를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청소년수련시설과 청소년이용시설만을 명시하고 있어(국가법령정보센터, 2017. 3. 21.), 다양한 활동시설들을 포함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이에 향후 한편으로는 청년활동 관련 시설을 법령에 추가하여 청년활동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기존 청소년활동시설 중 청년들의 시설 이용 실태를 점검하고, 청년들의 청소년활동시설에 대한 이용 증진 방안(홍보 등)을 마련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 2017.9.22.] [법률 제14705호, 2017.3.21., 일부개정]

제10조(청소년활동시설의 종류) 청소년활동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소년수련시설

- 가. 청소년수련관: 다양한 청소년수련거리를 실시할 수 있는 각종 시설 및 설비를 갖춘 종합수련시설
- 나. 청소년수련원: 숙박기능을 갖춘 생활관과 다양한 청소년수련거리를 실시할 수 있는 각종 시설과 설비를 갖춘 종합수련시설
- 다. 청소년문화의 집: 간단한 청소년수련활동을 실시할 수 있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춘 정보·문화·예술 중심의 수련시설
- 라. 청소년특화시설: 청소년의 직업체험, 문화예술, 과학정보, 환경 등 특정 목적의 청소년활동을 전문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시설과 설비를 갖춘 수련시설
- 마. 청소년야영장: 야영에 적합한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청소년수련거리 또는 야영편의를 제공하는 수련시설
- 바. 유스호스텔: 청소년의 숙박 및 체류에 적합한 시설·설비와 부대·편익시설을 갖추고, 숙식편의 제공, 여행청소년의 활동지원(청소년수련활동 지원은 제11조에 따라 허가된 시설·설비의 범위에 한정한다)을 기능으로 하는 시설

2. 청소년이용시설: 수련시설이 아닌 시설로서 그 설치 목적의 범위에서 청소년활동의 실시와 청소년의 건전한 이용 등에 제공할 수 있는 시설

[전문개정 2014.1.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2017. 3. 21.), 청소년활동진흥법

3) 소결

현재 중앙정부의 「청년기본법」이 제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자체에서는 청년기본조례 제정을 통해 청년들을 위한 지원 정책 및 사업을 운영 중에 있다. 이 때문에 지자체별로 청년기본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연령 규정이 상이하여 지원 대상에서 차이가 있었다. 지자체의 청년기본조례에서는 유사하게, 5개년 기본계획 수립이나 청년(정책)위원회 운영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고, 또한 청년들의 참여와 자유로운 활동 보장을 위한 청년시설 및 공간 운영 및 지원에 관한 내용을 공통적으로 담고 있었으나, 지자체별로 정책이 현장에 적용되는 방식이나 정책의 시행 시점에서는 약간씩 차이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한편, 20대 국회에서 여러 건의 「청년기본법안」이 발의되었으나 아직 통과되고 있지 못한 상황이다. 이 때문에,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종합적인 청년지원 정책이나 기본계획이 부재하고, 그로 인해 지자체별로 청년들에 대한 지원에 편차가 발생하고 있다.

20대 국회에서 발의된 「청년기본법안」에서는 청년단체 활동에 대한 지원 및 청년시설 설치·운영에 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청년당사자 조직에 대한 지원, 청년들을 위한 공간 보장 등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어 의미가 있다. 또한 청년들의 정책참여를 보장할 수 있는 기구나 위원회 설치에 대한 내용도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청년들의 정책참여를 활성화할 수 있는 근거로 작용할 수 있다.

이전 정부에서 추진되었던 청년정책이 주로 취업과 일자리 분야에 국한되어 왔다는 점에서 한계점이 있었다면, 「청년기본법안」에서는 취업과 일자리 분야 외에, 정치, 사회, 경제, 문화 등의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청년활동들을 명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러나 법안에서 다루는 활동들은 대개 문화활동, 자원봉사활동, 국제협력활동 등 특정 영역에 한정되어 있다. 따라서 청년들의 사회활동이 자기탐색 또는 진로모색, 사회참여의 의미가 결합된 다양한 실험적 활동들, 예컨대, 진로에 대한 실험과 탐색,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실천할 수 있는 활동, 지역사회 참여와 개선, 당사자 조직 활동, 정책 참여 활동 등 보다 다양하고 혁신적인 내용들을 포괄할 수 있도록 확대할 필요가 있다.

한편 「청소년활동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활동들은 주로 수련, 교류, 국제협력, 자원봉사활동 등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동법의 지원 대상은 9~24세 청소년인데 현재 청소년활동 프로그램들이 연령별 발달단계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개발 보급되었다고 간주하긴 어렵다. 때문에, 향후 20대 초반 청년들의 활동에 대한 욕구나 이들의 활동 환경을 고려한 지원이 필요하다. 아울러, 청소년활동시설에 대한 청년들의 이용을 증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2. 지자체 청년정책기본계획 및 청년 사회활동 관련 내용 분석¹⁵⁾

청년기본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5개년 청년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발표한 지자체들이 있다. 서울특별시와 광역시, 경기도를 중심으로 청년정책기본계획을 정리하고, 기본계획 내용 중 청년 사회활동과 관련된 내용을 분석해 본다.

1) 서울특별시¹⁶⁾

서울시의 청년정책기본계획은 크게 설자리, 일자리, 살자리, 놀자리 등 4가지 분야로 구분된다. 우선 설자리는 청년들의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지원사업을 포함한다. 대표적으로, 청년들에게 지급되고 있는 청년수당, 즉 서울형 청년활동보장 정책이 있다. 일자리는 일자리 진입을 위한 지원과 노동권익 보호, 근로환경 개선 등 안전망 구축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다. 다음으로 살자리는 청년들의 주거지원과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을 포함한다. 본 연구의 주제인 사회활동(2~3인 이상의 커뮤니티 활동)을 위한 지원사업은 주로 놀자리 분야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놀자리 분야의 사업목적은 청년활동 생태계를 조성하는 한편, 정책기반을 확대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서울시에서는 청년 활동 활성화를 위한 공간지원 사업, 청년허브를 통한 청년활동 지원, 청년들의 정책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청년정책네트워크 운영 등을 지원하고 있다.

표 III-4 서울특별시 청년정책기본계획

분야	목적	추진정책	비고
① 설자리 (4개 사업)	청년의 사회참여 기회 확대 및 역량강화	1. 서울형 청년활동보장(청년수당) 추진 2. 공익적 가치를 실천하는 장학생 지원 3. 대학생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 4. 저소득 장학생 지원	• 청년활동 지원은 주로 ‘청년활동생태계 조성 및 정책기반 확대’의 일환으로 청년 허브에서 운영하는 사업을 통해 지원
② 일자리 (9개 사업)	일자리 진입지원 및 안전망 구축	1. 청년 뉴딜일자리 확대 2. 기술교육원 청년대상 직업훈련 확대 3. 챌린지 1000 프로젝트(청년창업 지원)	

15) 이 부분은 김정숙 부연구위원(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집필하였음.

16) 이 부분은 「2020 서울형 청년보장 추진계획」(서울혁신기획관 청년정책담당관, 2015. 11.) 및 「서울특별시 청년활동지원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서울특별시의회, 2016. 4. 25.)의 내용을 토대로 작성되었음.

분야	목적	추진정책	비고
		4. 서울시정 대학생 인턴십 프로그램 운영 5. 서울일자리+센터 통합지원서비스 강화 6. 근로빈곤청년 사회보험료 매칭 지원 7. 아르바이트 청년 권리보호 및 근로환경 개선 8. 신진 유망예술가 지원 9. 문화예술매개자 양성과정 추진	
③ 살자리 (4개 사업)	청년주거 및 생활안정 지원	1. 1인 청년가구를 위한 주택공급 확대(세어형기숙사 모델개발 및 공급, 토지임대부 사회주택 공급, 대학생 희망하우징, 빈집살리기 프로젝트, 청년과 어르신 주거공유, 자치구 청년 맞춤형 주택공급) 2. 희망두배 청년통장 운영 3. 건강한 금융생활 지원을 위한 민간협력 활성화 4. 긴급생활안정 자금 지원	
④ 놀자리 (3개 사업)	청년활동생태계 조성 및 정책기반 확대	1. 청년활력공간 조성 및 지원, 민간청년활동공간 지원 2. 청년허브 운영을 통한 청년정책 실행기반 강화 3. 청년정책네트워크 운영 지원	

출처: 서울혁신기획관(청년정책담당관)(2015. 11.), 「2020 서울형 청년보장 추진계획」, pp. 12~13.

구체적으로, 청년허브에서 운영 중인 청년활동 생태계 조성 및 정책기반 확대 사업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청년허브에서 운영하는 사업은 크게 진로모색, 자립공존, 사회협력 분야와 관련된다. 진로모색에서는 청년들의 진로탐색과 진로전환을 위한 지원 사업들이 운영되고 있으며, 자립공존에서는 청년활력공간 지원 사업, 청년들의 개방형 공간 플랫폼인 청년청 활성화, 청년 커뮤니티 지원사업인 청년참 사업, 청년 커뮤니티의 프로젝트 사업 지원을 위한 청년청 사업 등 공간지원과 활동 지원 사업이 주를 이룬다. 마지막으로 사회협력 분야에서는 청년 당사자들이 청년 이슈를 발굴하고 정책연구까지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 운영 지원, 서울청년주간 행사 개최 및 운영 사업 등을 진행하고 있다.

표 III-5 서울특별시 청년허브 운영 주요 사업

사업 분야	내용
진로모색 (학습·경험)	1. 대학생을 위한 인문경영학교 영리더아카데미 2. 사회초년생을 위한 진로탐색과 전환모색을 위한 N개의 청년학교 3. 일을 찾는 청년의 일경험 지원을 위한 사회혁신 청년활동가 양성 사업 4. 청년취재단이 만드는 구인구직 온라인 플랫폼 서울JOB스

사업 분야	내용
	5. 청년활동가 교육 6. 청년강연플랫폼 기획 및 운영
자립공존 (공간·활동)	1. 청년이 동료에게 배우고 서로를 돌보는 청년활력공간 지원 2. 새로운 시도를 벌이는 청년들의 개방형 공간플랫폼 청년청 활성화 3. 청년허브 공유 공간 및 미달이사무실 운영 4. 동료로 만나 가능성을 탐색하는 소규모 청년커뮤니티 지원 청년참 5. 청년단체의 도전적인 프로젝트 사업화 지원 청년활 6. 청년 당사자들의 다양한 모임과 협력을 위한 청년당사자 네트워크
사회협력 (이슈·공간)	1. 당사자 주도의 청년이슈 발굴 및 정책연구 2. 지속가능한 청년활동을 위한 사회적 자원 연계 3. 청년정책 홍보 및 아카이빙 4. 서울청년거버넌스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 운영 지원 5. 청년문제 해법 모색을 위한 국내외 교류 6. 서울청년축제 서울청년주간행사 개최 및 운영

출처: 서울특별시의회(2016. 4. 25.), 「서울특별시 청년활동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p. 16.

정리하면, 서울시의 청년정책기본계획에 명시된 청년 사회활동 지원의 초점은 공간 지원과 직접적 활동 지원 사업에 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청년 공간과 관련하여 서울시에서는 청년활력공간으로 ‘무중력지대’ 2개소와 청년허브, 청년청(청년단체(모임) 입주공간, 커뮤니티 공간)을 조성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2018년 2월까지 5개소(무중력지대 성북, 무중력지대 도봉, 무중력지대 서대문, 무중력지대 양천, 서울시 청년교류공간)를 신규 조성하여 운영할 예정이다(서울특별시 청년정책담당관, 2017. 9. 28.).



출처: 서울특별시 청년허브 홈페이지 <https://youthhub.kr/hub/>에서 2017. 10. 5. 인출



출처: 무중력시대 홈페이지 <http://youthzone.kr>에서 2017. 9. 29. 인출

【그림 III-1】 서울시의 청년활력공간

2) 경기도¹⁷⁾

경기도의 청년정책기본계획은 크게 4개 정책목표 분야 즉, 참여, 도약, 자립, 향유로 구성된다. 참여 분야는 청년들의 활동 지원 및 정책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세부과제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도약은 일자리를 얻기 전 청년들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지원 과제가 주를 이루며 자립은 진로결정 지원, 일자리 질 제고 등 고용과 관련된 과제가 중심을 이룬다. 마지막으로, 향유 분야에서는 경기도의 특성상 학업 및 일을 위해 장거리 이동이 잦은 청년들을 위한 이동 지원, 주거 지원, 문화 지원으로 구성된다. 경기도 청년정책기본계획은 주로 청년들의 고용과 일자리, 그를 위한 역량 개발 지원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중, 청년 사회활동과 관련된 세부과제는 청년활동지원 사업인 청년 파복공동체 사업(청년공동체 활동지원) 및 청년참여 거버넌스 구축에 해당하는 청년정책네트워크 지원과 관련된다. 참여 분야의 세부과제 중, 경기도 대학생 지식멘토 사업은 대학생 자원봉사를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교육 취약계층의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대학생 멘토(경기도 지역 대학생)와 취약계층 학생 멘티를 연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 때문에 엄밀히 말해 청년들의 사회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보기는 어렵다.

17) 이 부분은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2017)의 「경기도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 연구」와 경기도(2017. 7.)의 '경기도 청년정책 기본계획(안)'의 내용을 토대로 작성되었음.

그 외, 경기도의 청년 사회활동 지원은 정책목표 ‘향유’의 추진전략 중 ‘문화 활성화’의 세부과제에서 부분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주로 문화공간을 조성하는 한편, 문화예술 공연 관람 및 동아리 활동을 지원하는 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경기도의 경우, 서울시의 청년허브와 같은 중간지원 조직을 갖추고 있지 않은 상황이어서 청년 사회활동 지원을 위한 공간 지원, 활동 지원 사업 등이 활성화되어 있지는 않으며 향후 정책 추진 과정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

전체적으로, 경기도의 청년정책기본계획을 살펴볼 때 활동과 관련된 과제들은 몇 개 세부과제에 한정되어 있다. 또한 4개 정책목표 분야 중 일자리 관련 과제와 입직 전 진로역량을 강화하는 취업과 고용 중심의 과제들이 주를 이루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III-6 경기도 청년정책기본계획

정책목표	전략목표	추진전략	세부과제
① 참여	1. 청년참여 정책 추진	1. 청년활동지원	청년 따복공동체 사업 운영 경기도 대학생 지식멘토 사업
		2. 청년참여 거버넌스 구축	청년정책 민관협치 활성화
		3. 청년지원사업단 설치	청년지원사업단 운영
		4. 청년정책 통합 추진	청년정책 전담조직 기능 강화
② 도약	2. 청년 역량 강화	1. 교육비 경감	경기도 학자금 이자 지원 G-NETX (게임산업육성추진)
		2. 청년역량 개발	경기산업기술 교육센터 운영 경기청년+4 Trade Manager 육성사업
			농촌지도인프라구축지원(전문능력개발)
			농촌지도인프라구축지원(후계농업인력양성)
		3. 전문적 맞춤형인재 양성	경기도 영상아카데미 현장적합 인재교육
			경기 콘텐츠 코리아랩 운영
			문화창조허브(판교, 광교, 북부)
③ 자립	3. 입직과 안정	1. 고용확대 및 일자리의 질 제고	대학창조일자리센터 사업 청년 해외 역작구 창업지원(e-커머스 분야 창업 지원) 경기도 대학생 융합기술 창업지원 사업 청년창업 SMART 2030

정책목표	전략목표	추진전략	세부과제
4 향유		2. 생활안정	전통시장 청년상인 육성지원
			일하는 청년 통장
			자립지원사업
			청년구직지원금
			장기구직 청년 컨설팅
			채무청년 부채상환 상담 지원
			취약청년 생활자립 서비스
			무연고 청년 의료 지원
		3. 입직 진 체험과 멘토링	대학생 기업체 예비취업 협력사업
			취업예약형 전공과정 지원사업
			대학생 공직자 멘토링
			전문대학 취업지원 패키지
			환경분야 취업지원 프로그램 운영지원
			경기청년 및 대학생 인턴지원 사업
		4. 적성파악과 진로결정	수요자 맞춤형 채용지원서비스 사업
			대학생 입직 프로젝트
	4. 생활의 질 향상	1. 장거리 이동지원	장거리 이동청년 교통 편의제공
			장거리 이동청년 주거지원
		2. 주거안정 지원	BABY2+ 파복하우스
			송파학사 운영
			파복기숙사 사업
			청년 공유기숙사
			청년-노인 쉼어하우스
		3. 문화 활성화	서울농생대 문화공간조성(청년문화창작소)
			경기 청년문화 거리조성
			경기 청년 영상축제
			문화예술 동아리 지원
			공연문화 청년 할인
		4. 권리보호	아르바이트 근로환경 개선

출처: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2017), 「경기도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 연구」, pp. 151~152.

3) 부산광역시¹⁸⁾

부산광역시의 청년정책기본계획은 고용, 주거, 금융, 문화, 삶의 질 5개 분야로 구분된다. 고용은 일자리 확대와 관련된 분야이며, 주거는 청년 주거공간 및 주거지원 관련 과제를 포함하고 있다. 금융은 청년들의 부채경감 및 자립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지원과 관련되며, 문화는 청년문화 인프라 확충, 문화생산 인력에 대한 지원 및 문화 향유기회를 확대하는 세부과제를 포함하고 있다. 삶의 질 분야는 청년 근로빈곤층에 대한 지원, 사회적 고립감 해소, 공공지원 강화 사업과 관련된다.¹⁹⁾

이 중, 사회활동 지원과 관련된 분야는 문화 분야와 삶의 질 일부 분야에서 확인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의 공간 지원은 청년 문화에 국한되어 있으며, 구체적으로 청년문화 인프라 확충의 일환으로 예술공간 프로그램 확대, 청년문화팩토리 조성과 관련된다. 물론 세부과제들이 어떤 추진과정을 거쳐 구체적으로 운영되는지 향후 지켜봐야 하겠으나, 청년들이 주도하는 중간지원 조직이 없을 경우 이 사업들은 지자체가 일방적으로 청년들에게 제공하는 방식의 사업에 그칠 가능성이 있다. ‘삶의 질’ 분야 중 네트워크 강화를 통한 사회적 고립 해소와 관련된 세부사업을 살펴볼 때, 이들 사업들이 단발성 이벤트로 끝나지 않도록 하는 고민이 필요하다. 즉, 청년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는 생태계, 즉 개인 청년 또는 청년 단체들이 자발적, 주도적으로 네트워크를 강화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 상태에서 이들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러한 여건이 조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세부과제들을 운영할 경우, 각 사업에 대한 참여율이 저조하거나, 청년들의 욕구에 부합하지 않는 방식으로 사업이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

표 III-7 부산광역시 청년정책기본계획

분야	정책목표	핵심과제	세부사업
① 고용	괜찮은 일자리 확대	청년 맞춤형 일자리 확대	• 부산청년직무·직능은행 설립 운영 • 청년창업가 맞춤형 경제 프로그램 • 공공부문 인턴종합관리제도 도입 • 도심형 청년창업 콤플렉스 조성: 구글캠퍼스 타입

18) 이 부분은 「인재집적도시를 위한 부산광역시 청년 종합정책 연구」(김형균·임호·강성권, 2015)의 내용을 토대로 작성되었음.

19) 부산광역시의 경우, 해당 연구가 수행된 시점이 2015년인 관계로 청년 커뮤니티 지원사업이나 청년 정책참여 관련 사업들을 전혀 포함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2017년에 청년 정책참여 사업을 진행하였으며, 향후 청년 커뮤니티 지원사업도 진행할 계획이다.

분야	정책목표	핵심과제	세부사업
		비경제활동 인력의 노동의욕 고취	• 경력단절여성 종합지원센터 설립 운영 • 생애 최초 구직촉진수당제도 도입 • 사회적경제 일자리형 공공근로제 도입 • 글로벌 청년프론티어 프로그램 운영 • 아르바이트 근로조건 개선 ‘굿알바’
		청년일자리 정보접근성 제고	• ‘괜찮은 일자리’ 직업 지도 작성 • 민간 주도형 청년창업 인큐베이팅 지원 • 맞춤형 일자리 SNS 운영
		지역기업 청년일자리 확대 지원	• 부산이전기업 청년일자리 창출 인센티브제 도입 • 일자리 나눔(Job Sharing) 사회적 협의기구 운영 • 기업환경개선 프로그램 ‘아이러브 부산컴퍼니’ 확대 • 기업내 직업교육 취업지원제 사업 확대
② 주거	주거자립성 강화	저렴한 청년 주거공간 공급	• 대학가 생활아파트 제도 • 세대협력형 룸쉐어링 ‘DRIDA’ • 공·폐가 재건축택 ‘가치집’ • 주거빈곤 가이드라인 마련
		생활패턴 맞춤형 주거지원	• 청년공동주거 지원 ‘함사세요’ • 임차인보호제도 강화 및 교육정책 ‘청년살이 지킴이’
		주거안정을 통한 일자리 창출	• 도심산업단지에 청년전용 주택 공급 • 부산이주 청년 초기정착용 기숙사 운영
③ 금융	금융신뢰성 확보	일자리 연계형 부채경감	• 청년기금 조성 ‘Young Fund’ • 청년일자리 소셜임팩트본드 운영 (SIB) • 긴급생활지원제도 운영
		자립기반 강화	• 청년주택기금 조성: 청년달팽이론 • 청년자립펀드 조성
		금융 잠재력 강화를 위한 공공지원	• ‘두 배로 이자’ 청년저축상품 개발 지원: 지역은행 협력 • 청년 워크아웃제 도입 • 소액자금대출 공제조합 운영 ‘청년지렛대 펀드’ • 대학생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
④ 문화	문화정체성 강화	청년문화 인프라 확충	• 폐공장 활용 예술공간 프로그램 확대 ‘뉴 어라운드’ • 글로벌 청년문화팩토리 조성 • 취악마을 활성화 기여 청년문화공간 임대료 상한제도 도입
		문화생산인력 확대	• 청년층 축제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 • ‘괴물기획자’ 키우기 프로젝트 • 청년문화 홍보대사 프로그램 운영
		문화 향유기회 및	• 부산 문화예술지도 C-Map 제작보급

분야	정책목표	핵심과제	세부사업
		정보 확대	• 부산 문화 카탈로그(컬처쇼크)와 앱 제작 • 청년맞춤형 문화바우처제 도입: 청춘카드 • 버스킹 프로그램 확대: 버스킹 IN BUSAN • 청년 해양 스포츠, 문화 체험 지원 • 스마트폰 디톡스 프로그램 운영: 슬로 리딩 IN BUSAN -느리게, 천천히 책 읽는 1시간!
5 삶의 질	생활역동성 제고	청년(근로)빈곤층 집중 지원	• ‘아르바이트청년’ 상해 시 긴급생활자금 지원 • 청년종합건강검진 프로그램 운영 • 청년 생활임금제 도입
		네트워크 강화로 사회적 고립 해소	• 홀로청년 공유부엌 프로그램 • 청년복합지원센터 조성 ‘부산청년포트’ • 부산청년 커뮤니티 네트워크맵핑 • 부산청년 SNS: ‘매청년’ • 다문화청년위원회 교류 지원 • 세대융합형 마을대학 운영: 생애주기 아카데미 • 마을청년 부통장 제도 도입 • 전국청년회의 운영: ‘전국청년라운드’
		행복증진을 위한 공공지원 강화	• 청년복지사제도 •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청년 보험료 지원 • 청년맞춤형 법률지원시스템 구축 • 공공 산후조리원 조성 • 공동육아 활성화 지원

출처: 김형균·임호·강성권(2015), 「인재집적도시를 위한 부산광역시 청년 종합정책 연구」, pp. 174~234.

4) 대구광역시²⁰⁾

대구광역시의 청년정책기본계획은 기회의 도시, 즐거운 도시, 참여의 도시라는 3개 분야에 9개 핵심과제로 구성되어 있다. 여타 지자체와 마찬가지로, 일자리와 역량 개발과 관련된 사업들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핵심과제들 중, 청년 사회활동과 관련된 내용은 ‘청년문화 활성화’와 ‘청년 주도의 소통과 참여’ 과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우선 ‘청년문화 활성화’와 관련한 활동들은 주로 청년문화활동, 스포츠 활동, 창작활동에 국한되어 있으며, 이를 활성화하기 위한 일환으로 핫플레이스를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또한 청년문화 활성화를 일자리와 창작물 판로 다각화 등 고용 및 수익 창출과 관련된

20) 이 부분은 「2020 청년희망 대구」 보도자료(대구광역시, 2017. 1. 16.) 내용을 토대로 작성되었음.

계획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점을 보인다. 한편 ‘청년 주도의 소통과 참여’와 관련된 세부사업에는 다른 지자체들의 청년정책기본계획에서와 마찬가지로, 청년들의 정책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동시에 청년 커뮤니티를 조성하고 지원하는 세부사업들을 포함하고 있다.

표 III-8 대구광역시 청년정책기본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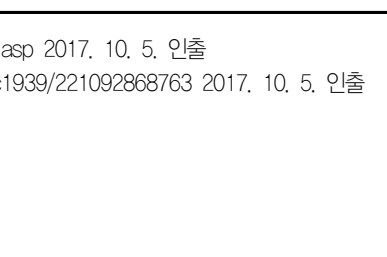
분야	정책목표	핵심과제	세부사업
① 기회의 도시	일자리와 역량 개발	청년 일자리 기반 강화	• 청년커리어센터 설립 • ‘The Best of Daegu’: 우수기업 통합포털 구축 • 대구청년일자리축제 개최 • 고용친화기업 확산과 청년인력 장기재직 지원 • 실질청년고용지표 관리체계 구축
		지역대학 경쟁력 제고	• 대구권 산학연관 청년일자리협의회 운영 • 현장 수요 기반 인재양성 • 지역 밀착형 연구 지원 • 대학생 진로취업 교육 강화
		미취업 청년 노동시장 진입	• 장기 미취업자 노동시장 연결 • 청년 단기 경력자 전직 지원
		청년 창업 성공 기반 구축	• 청년 창업도시 인프라 확대 [기술창업] • 스타트업 발굴 및 육성 • 다양한 창업펀드로 도전 기회 확대 • 기업가 정신과 창업문화 활성화 [생활형 창업] • 청년 소상공인의 성공적 창업 지원 • 우수 창업기업 프랜차이즈화 지원
② 즐거워 도시	가족 형성과 문화 향유	“결혼하기 좋은 대구” 만들기	• 자녀양육을 위한 유연근무 강화 • 맞벌이 자녀 돌봄 확대(긴급/방과후) • 결혼을 장려하는 사회분위기 조성
		안정적 주거환경 조성	• 도심형 행복주택 공급 • 매입임대주택 대학생 공급
		청년문화 활성화	• 청년문화활동 확산(문화동아리, 문화패스) • 청년예술과 문화일자리 연결 • 청년 핫플레이스 조성(청년문화거리, 버스킹존) • 건강한 청년 스포츠 활성화 • 청년예술인 창작활동 지원 • 청년예술 3대 창작공간 확충 • 청년창작물 판로 다각화(아트카페, 마켓)

분야	정책목표	핵심과제	세부사업
③ 참여의 도시	시민 참여와 교류	청년 주도의 소통과 참여	• 청년 참여 확대 및 창의적 정책 발굴 강화 • 생활권별 청년 커뮤니티 조성 • 청년 스마트 정보체계 구축(DB, MAP) • 청년정책 전담조직 신청
		외부와의 적극적인 교류	• 국내외 인적교류 확대 • 외부청년 유입/정착기반 마련

출처: 대구광역시(2017. 1. 16.), 「2020 청년희망 대구」 보도자료.

대구광역시에서는 대구광역시청년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청년센터에서 운영하는 사업은 크게 4가지로 구분되는데, 서울시의 청년허브와 유사하게 청년활동 지원사업과 청년들의 진로모색 및 진로발견을 위한 성장지원 사업, 청년들이 청년정책을 발굴하고 제안하는 청년정책 참여 지원사업 등을 운영하고 있다.

표 III-9 대구광역시청년센터 4개 분야 사업 내용

사업 분야	내용	대구광역시청년센터
청년정책 지원	• 청년문제 이슈 발굴 • 청년들이 참여하고 제안하는 청년정책	
청년활동 지원	• 청년활동지 - 청년커뮤니티 활성화 지원(다모디라) - 청년공간 운영의 활성화를 위한 공간운영 지원 • 청년의 실험과 도전 지원 - 청년들의 모험, 실험 프로젝트 지원	
청년성장 지원	• 청년에게 교육과 경험의 기회 제공 - 다양한 삶과 진로를 모색할 수 있는 교육 제공 - 인물특강, 진로특강 등 개최 • 청년활동을 위한 네트워크 지원 - 국내외 네트워크 형성을 통한 성장지원 - 청년소통강화를 위한 네트워킹 활성화	
청년활동홍 보지원	• 청년기자단 운영 • 청년관련 데이터 구축 사업 - 청년공간 맵구축사업 추진 - 청년데이터베이스 구축 - 청년활동 홍보 및 아카이빙 구축	

출처: 대구광역시청년센터 홈페이지. <http://www.dgyouth.kr/business/information.asp> 2017. 10. 5. 인출

대구광역시청년센터 청년기자단 Hi-Five 블로그 <http://blog.naver.com/dyc1939/221092868763> 2017. 10. 5. 인출

5) 광주광역시²¹⁾

광주광역시의 청년정책기본계획은 일자리, 지역인재, 복지, 문화 4개 분야로 구성된다. 일자리와 지역인재는 여타 지자체와 유사하게 일자리 창출과 고용,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과 관련된다. 복지 분야에는 주거, 의료, 부채경감과 관련된 세부사업들이 포함되어 있으며, 문화 분야에는 청년의 문화향유, 청년문화 인재 육성, 청년공간 조성 및 활성화와 관련된 세부과제를 포함한다. 이 중, 네 번째 정책분야인 ‘문화’ 분야에 청년활동 관련 사업들이 부분적으로 포함되어 있다.

표 III-10 광주광역시 청년정책기본계획

분야	정책목표	핵심과제	세부사업
① 일자리	미래형 청년일자리 창출 및 창업기반 구축	미래신산업 연계 청년일자리 창출	• 광주형일자리 연계 친환경자동차산업 일자리 창출 • 에너지밸리 청년일자리 창출
		청년이 중심이 되는 청년창업허브 조성	• 청년친화형 지식산업센터 조성·운영 • 광주청년일자리종합센터 설치·운영 • 청년창업문화촌 조성·운영
		청년창업 인큐베이팅 지원	• 청년창업 금융, 판로, 컨설팅 지원
	도전과 상상력으로 개척하는 청년진로 설계	공공형 청년혁신일자리 확대	• 공공형 경과일자리 발굴 및 교육 • 청년 사회적경제 기업 발굴·육성
		창의인재청년직업능력 개발 훈련 촉진	• 지역특화 인력양성 프로그램 운영 • 청년여성 특화 돌봄 사회서비스 혁신프로젝트 개발 및 운영 • 특성화고·대학 연계 NCS기반 인력양성
	청년기반 시장체계 구축 및 지원강화	청년일자리 지원체계 강화	• 청년일자리 지원 협력네트워크 구축·운영
② 지역 인재	지구적 전망과 실전역량을 갖춘 글로벌 인재 육성	글로벌(Glocal) 인재 육성	• 아시아 인재교류 네트워킹 사업 • 미래창의인재 해외활동 지원사업
		실전형 인재 육성	• 신성장산업 실전형 인재 지원사업 • 문화창의인재 대학원 합동과정
		제3섹터형 창업환경조성 인재발굴	• 광주활력자원 사회적경제 프로젝트 • 광주형 사회서비스 발굴사업

21) 이 부분은 「2017~2021 청년도시 광주 청년정책 기본계획」(광주광역시, 2016b)의 내용을 토대로 작성되었음.

분야	정책목표	핵심과제	세부사업
		광주인재진로관리 ‘포트폴리오’	• 인재 포트폴리오 프로그램 • 진로관리 운영협의체 구성
③ 복지	금융·주거·의료 등 복지인프라 연계로 탄탄한 청년사회안전망 구축	청년부채감축	• 광주형 청년 자산형성 프로그램 도입 • 대학생 학자금 이자 지원
		주거문제해결과 연대강화	• 협동조합형 공공주택 도입 • 청년 주거 커뮤니티 활동 지원
		광주청년건강권 보장	• 청년 건강검진 참여병원 지정 및 정기검진 지원 • 청년의 정신건강 강화
		장애청년에 대한 사회적 지지망 강화	• 장애청년의 사회진출 확대 • 장애청년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
		여성청년의 일-가정 양립지원 확대	• 공동육아 협동조합 설립 지원
④ 문화	청년의 문화역량제고 및 문화향유권 확대	청년의 다양한 문화향유 보장	• 뮤지컬@챔피언스 필드 • 수요자 중심의 버스킹 • 컬처트럭 지원 • 청년동아리 페스티벌
		청년문화 인재 육성	• 청년 문화예술유통 전문가 육성 • 청년 문화기획자 양성 • 문화예술지원사업 청년 쿼터제 • 청년인디문화지원
		청년공간 조성 및 활성화	• 민자유치를 통한 청년공간 조성 • 청년 문화예술 카페 지원 • 청년문화의집 확대 운영 • 청년생활문화 공공 공간 제공

출처: 광주광역시(2016b), 「2017~2021 청년도시 광주 청년정책 기본계획」, pp. 150~214.

광주광역시의 경우에도 청년공간을 조성하고 활성화하는 세부사업들이 기본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반면, 주로 청년 사회활동은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하거나, 문화 인재를 육성하는 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여타 지자체와 구별되는 것은 광주광역시의 경우 청년공간을 다양한 방식으로 조성 운영하겠다는 계획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민자 유치를 위한 공간조성, 청년문화예술 카페 지원, 청년문화의집 확대 운영, 청년생활문화 공공 공간 제공 방안이 그것이다. 서울특별시의 경우에는 청년 공간 조성이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주고 있는데, 광주광역시에서 향후 청년정책기본계획에서 명시한 청년 공간 활성화와 관련된 세부사업들이 어떤 과정을 거쳐 가시화되는지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

한편, 광주광역시에서 운영하는 광주청년센터 the 숲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업들은 서울시의 청년허브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업만큼이나 다양하다. 서울시만큼 다양한 청년공간을 조성하고 있지는 못하지만, 청년들이 운영하는 공간을 청년들에게 직접 연결하는 공간교류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청년 커뮤니티 지원사업인 ‘청년모험’ 사업, 광주에 유학 중인 유학생과 교류하는 광주청년 커뮤니티를 발굴하고 지원하는 ‘우리동네 외국친구’ 사업 그리고 청년의 혁신활동이 지역사회에 활력을 불어넣는 ‘청년챌린저’ 사업 등을 운영하고 있다.

표 III-11 광주청년센터 the 숲 사업 내용

사업 분야	내용	광주청년센터 the 숲
청년과 사회를 잇는 플랫폼	• 광주청년플랫폼 ‘도킹’: 온라인 정보플랫폼 • 청년공간 플랫폼 ‘the 숲’: 공간지원 및 대관 • 청년 운영 공간 교류활동 지원사업 – 청년들이 직접 운영하는 공간을 광주청년들과 이어주는 공간교류 사업 • 청년상담소 ‘토닥토닥’ – 또래 청년이 상담하는 프로그램 (온/오프라인 운영) • 청년보고회 ‘파란만장’ – 광주에서 진행된 청년 개인, 단체 등 청년활동 공유 및 교류 • 해외 청년활동(아시아 프렌즈 2nd) – 광주 거주 아시아 유학생 고향에 대한 지원을 통해 국제개발협력 활동 수행	
청년 커뮤니티 확대 및 혁신사례 발굴	• 청년 커뮤니티 활성화 ‘청년모험’ – 청년, 모이면 힘이 된다 • 청춘대학 ‘버킷캠퍼스’ – 청년이 함께 교육과정을 만들어가는 경험 중심의 대안교육 프로젝트 • 글로벌 유학생 커뮤니티 ‘우리동네 외국친구’ – 광주청년들의 글로벌 소통역량 배양을 위해 광주거주 유학생과 교류하는 커뮤니티 발굴 및 지원 사업 • 새내기 유학생 지원 ‘새내기 유학생 투어’ – 새내기 유학생들의 편안한 광주생활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 청년도전사업 ‘청년챌린저’ – 청년혁신활동 지원(지역에 활력을 불어넣는 사업 지원)	

사업 분야	내용	광주청년센터 the 숲
청년정책 발굴	• 청년정책연구공모 ‘청년살이’ – 청년이 직접 청년들의 삶을 연구하고, 정책을 제안할 수 있는 지원 사업 • 청년 파트너십 구축사업 ‘청년같이’ – 광주청년센터와 청년단체가 파트너십을 맺어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공동 프로젝트 진행	
청년 일경험 및 일자리	• 청년 일경험 지원 ‘청년드림사업’ – 청년활동, 창직 영역의 일경험과 구직활동수당 지원 • 청년사업장 발굴 ‘청년일자리 발굴사업’ – 혁신적인 청년사업장 발굴 및 지원	

출처: 광주청년센터 the 숲 홍보 안내서 “다르게 살아도 괜찮아.”

광주청년센터 the 숲 홈페이지 the 숲사진첩 <http://www.gjtheforest.kr/?sid=59> 2017. 10. 5. 인출

6) 소결

서울시에서는 청년정책기본계획에 설자리, 일자리, 살자리, 놀자리 4가지 분야에 대한 정책지원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중, 청년활동은 놀자리, 즉 “청년활동 생태계 조성 및 정책기반 확대”와 밀접하게 관련된다. 서울시는 청년허브 설치 및 운영을 통해, 청년활동 전반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서울시에서는 청년활동 지원을 공간 지원과 병행하면서 실질적인 활동 활성화를 위한 생태계 구축에 노력하고 있는 특성을 보인다. 한편, 경기도의 정책 분야는 참여, 도약, 자립, 향유로 구분된다. 참여에서는 청년들의 활동 지원 및 정책 참여 촉진, 도약에서는 일자리 진입을 위한 역량 강화 지원을, 자립에서는 진로결정 지원 및 일자리의 질 제고 등 고용 관련 과제들이 포함된다. 마지막으로 향유 분야에서는 이동 지원, 주거 지원, 문화 지원 사업들이 포함되어 있다. 경기도의 청년정책기본계획 내용 중, 몇 개 세부과제만이 청년들의 활동과 관련되어 있을 뿐 전체적으로 고용과 일자리, 입직 전 진로역량과 관련된 지원이 주를 이루고 있다. 부산광역시의 청년정책기본계획은 고용, 주거, 금융, 문화, 삶의 질 5개 분야로 구분된다. 이 중, 사회활동 지원과 관련된 분야는 문화 분야와 삶의 질 일부 분야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대구광역시의 청년정책기본계획은 정책 분야를 기회의 도시, 즐거운 도시, 참여의 도시로 설정하였으며, 여타 지자체와 마찬가지로 일자리와 역량 개발과 관련된 사업들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핵심과제들 중, 청년 사회활동과 관련된 내용은 ‘청년문화 활성화’와 ‘청년 주도의 소통과 참여’ 과제에서 확인할 수 있다. 대구광역시는 청년센터 설치를 통해 청년정책

지원, 활동지원, 성장지원 및 홍보지원 사업을 추가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광주광역시의 청년정책기본계획은 일자리, 지역인재, 복지, 문화 4개 분야로 구성되며 ‘문화’ 분야에 청년활동 관련 사업들이 부분적으로 포함되어 있다. 광주광역시의 경우에도 청년공간을 조성하고 활성화하는 세부사업들이 기본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반면, 주로 청년 사회활동은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하거나, 문화 인재를 육성하는 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여타 지자체와 구별되는 지점은 광주광역시의 경우 청년공간을 다양한 방식으로 조성 운영하겠다는 계획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이다.

종합하면, 지자체마다 청년정책기본계획이 담고 있는 내용은 대체로 유사하면서도 약간씩의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다. 주로 청년들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들, 예컨대 일자리와 고용, 주거,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과 관련된 정책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 반면, 일부 지자체에서는 활동 전반을 위한 생태계 조성이나 토대(예컨대 공간 지원)를 구축하고 정책참여 활동 기회를 제공하는 데 주력하는 반면, 또 다른 일부 지자체에서는 청년활동이 문화와 여가활동에 국한되어 있어 차이점을 확인할 수 있다.

3. 해외 청년 사회활동 지원 정책²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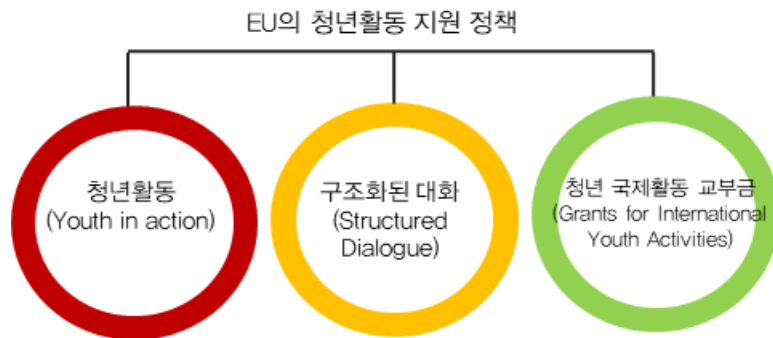
이 절에서는 한국의 청년 사회활동 활성화에 시사점을 제공해 줄 수 있는 해외의 청년 활동 지원정책을 EU와 일본 사례를 통해 살펴보기로 한다. EU는 회원국 청년들의 시민의식 제고와 사회통합을 위해 정책 참여활동 및 협력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이에 EU 차원의 청년활동 지원 정책의 구체적 내용을 살펴본다. 이는 청년 지원정책이 주로 취업 및 창업과 같은 일자리 분야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한국의 청년정책에 시사하는 바가 있으며, 향후 사회활동 지원 방안을 수립하는 과정에서도 참고할 가치가 있다. 한편, 일본은 청년 NEET, 은둔형외톨이 등 소외된 청년집단의 사회적응과 참여를 지원하는 정책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있는 점이 특징적이다. 향후 한국사회에서 사회활동 비참여 청년집단이 NEET 또는 은둔형외톨이가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을 고려할 때, 일본 사례는 이들을 위한 정책지원 방안을 수립하는 과정에 도움이 될 수 있다.

22) 이 부분은 조소연 박사(한국외대)와 강영배 교수(대구대)가 집필한 원고를 김정숙 부연구위원(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수정·보완하였음.

1) EU

현재 유럽연합의 청년정책은 “2010~2018년 EU 청년 전략”(EU Youth Strategy for 2010~2018)을 기반으로 이뤄지고 있다. 동 전략은 ‘청년의 사회참여 활성화’ 및 ‘교육과 일자리에서 청년의 동등한 기회 보장’을 촉진하기 위해 고안된 것으로, 크게 △청년 및 기업가 정신(Employment and entrepreneurship) △사회적 통합(Social inclusion) △참여(Participation) △교육 및 훈련(Education & training) △건강 및 웰빙(Health & well-being) △자원봉사 활동(Voluntary activities) △청년과 세계(Youth & the world) △창의성과 문화(Creativity & culture) 등 8가지 분야들에서 다수의 이니셔티브들을 제시하고 있다.²³⁾

여기에서는 EU의 청년활동 지원 정책에 해당하는 3가지 사례를 소개한다. 첫째, EU 국가들의 사회적 통합과 사회적 연대, 청년들의 시민의식과 상호이해를 증진하기 위한 ‘청년활동’(Youth in action) 둘째, 정책 참여활동을 지원하는 ‘구조화된 대화’(Structured dialogue) 셋째, 유럽 청년들의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청년 국제활동 교부금 제도’(Grants for international youth activities)이다.



【그림 III-2】 EU의 청년활동 지원 정책 사례

(1) 청년활동(Youth in action)

청년활동 프로그램은 국경, 비정규 교육, 이문화 간 대화 내에서 이동성을 증진하고 교육, 사회, 문화적 배경에 관계없이 적극적인 시민의식, 연대감, 관용을 유럽의 청년들에게 독려하기

23) EU Youth strategy https://ec.europa.eu/youth/policy/youth-strategy_en에서 2017년 5월 27일 인출.

위한 것이다. 이 프로그램의 목표는 크게 5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다. 첫째, 청년들의 적극적인 시민의식, 특히 유럽 시민의식을 장려한다. 둘째, EU의 사회적 통합을 촉진하기 위한 연대를 개발하고 청년들의 관용을 증진한다. 셋째, 상이한 국가들의 청년들 간 상호 이해를 증진한다. 넷째, 청년 활동을 위한 지원 시스템의 질과 청년 분야의 시민 사회 조직 능력 개발에 기여한다. 다섯째, 청년 분야에서의 유럽 협력을 장려한다.²⁴⁾ 또한 프로그램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다섯 가지 조치를 추진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표와 같다.

표 III-12 ‘청년활동’ 프로그램 목표달성을 위한 다섯 가지 행동

구분	실천항목	내용
행동 1	유럽 청년	• 유럽 청년들을 위해 청년 교류(youth exchange), 청년 이니셔티브, 청년 민주주의 프로젝트 세 가지 활동 기획 • 청년 교류는 서로 다른 나라의 젊은이들로 하여금 서로의 문화를 만나고 배울 수 있는 기회 제공 • 청년 이니셔티브는 유럽의 관점 강화와 청년들 간의 협력과 경험 교환을 위해 유럽의 지역, 지방 정부 및 국가 수준에서 설계된 그룹 프로젝트를 지원하고 여러 나라에서 실시하는 유사한 프로젝트 네트워킹 지원 • 청년 민주주의 프로젝트는 지역, 지방 정부 또는 국가 공동체 청년들의 국제 사회 수준에서의 민주적인 참여를 지원
행동 2	유럽 자원 봉사	• 유럽 자원봉사의 목적은 유럽연합 내외부의 다양한 자발적인 활동에 청년 참여 지원 • 청년들은 비영리, 무보수 활동을 통해 개인 또는 그룹으로 참여
행동 3	세계의 청년	• 세계의 청년을 위한 프로젝트는 유럽 연합과 협력 국가들과의 협력, 세계의 다른 국가들과의 협력으로 나누어 진행 • 유럽 연합과 협력 국가들과의 협력에서는 청년 교류 및 청년 분야의 훈련 및 네트워킹 프로젝트 관련 사업을 지원 • 세계 다른 국가들과의 협력에서는 청년 및 청년 활동가, 파트너십 및 청년 단체 네트워킹을 교류하고 훈련하도록 하여 우수 사례를 교환할 수 있도록 진행
행동 4	청년 지원 시스템	• 유럽에서 활동하는 청년 분야 단체들(비정부기구)에 대한 지원 • 청년 및 청년 단체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의 교육 및 네트워킹 • 청년 분야의 혁신적 접근 방식의 도입과 구현 그리고 홍보를 위한 프로젝트 • 청년 및 청년 업무 및 청년 단체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을 위한 디지털 정보 접근성 향상 • 장기적 프로젝트 개발 파트너십을 위한 기금 마련 • 기타 활동으로 유럽 청년포럼 지원, 프로그램의 구조와 가치 향상에 대한 지원

24) Youth in action 2007-2013, http://eacea.ec.europa.eu/youth/programme/about_youth_en.php#info에서 2017년 7월 25일 인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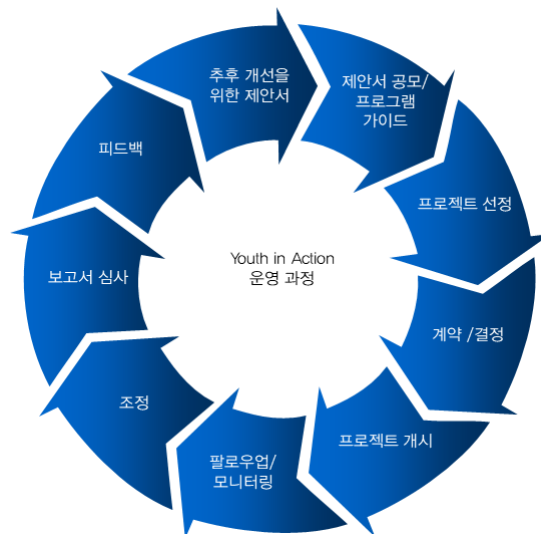
구분	실천항목	내용
행동 5	청년 분야에서의 유럽 협력 지원	• 청년 및 청년 정책 관련 활동가들 간의 협력, 세미나, 대화의 장 마련 지원 • 기타 청년 분야의 연구 활동, 국제기구와 협력하는 활동 지원

출처: Youth in action 2007-2013에 대한 설명 중 Actions 내용

http://eacea.ec.europa.eu/youth/programme/about_youth_en.php 2017년 7월 12일 인출

청년활동 프로그램은 13세에서 30세 사이의 유럽 청년·청년단체 활동가들을 대상으로 하며 개인의 경우 신청 마감일을 기준으로 연령 제한에 따라 참여 여부가 결정되며, 단체의 경우 설립 후 최소 1년이 경과한 비영리 단체로 청년을 대상으로 유럽과 유럽 이웃국가에서 활동하는 단체여야 한다.²⁵⁾

청년활동 프로그램 운영 과정은 [그림 III-3]과 같다. 청년활동 프로그램을 통해 지금까지 약 8,000개의 프로젝트가 지원을 받았으며, 매년 약 15만 명의 청년 및 청년 활동가들이 프로그램 참여기회를 제공받고 있다. 2011년 프로그램 참여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프로그램 운영 결과는 다음과 같다.²⁶⁾



【그림 III-3】 청년활동(Youth in Action) 운영 과정

출처: Youth in action programme: project life cycle

http://eacea.ec.europa.eu/youth/programme/project_life_cycle_en.php에서 2017년 7월 12일 인출.

25) Youth in action programme: who can participate.

http://eacea.ec.europa.eu/youth/programme/who_participate_en.php에서 2017년 7월 12일 인출.

26) Youth in action programme. https://ec.europa.eu/youth/success-stories/youth-in-action_en에서 2017년 7월 12일 인출.

표 III-13 청년활동 프로그램 참여자 대상 설문조사 결과

조사대상	조사 내용	만족도
청년 참여자	외국어 능력 향상	91%
	다문화 사회에 대한 이해	87%
	지역 사회 또는 사회봉사 방법 숙지	84%
	자신의 개인적 또는 직업적 미래를 위한 기회를 발견하는 방법 숙지	75%
	청년활동 프로그램을 통해 직업 전망에 대한 이해 향상	67%
청년 활동가	국가 차원에서 조직 된 프로젝트를 통해 얻지 못했던 기술과 지식을 습득	92%
	본인의 업무에서 국제 차원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인 점	86%
청년 단체	청년활동에 참여하여 프로젝트 관리 기술 향상	90%
	문화 다양성에 대한 인식 증가	89%

출처: Youth in action programme. https://ec.europa.eu/youth/success-stories/youth-in-action_en에서 2017년 7월 12일
인출 후 내용을 표로 정리

(2) 구조화된 대화(Structured dialogue): EU의 청년 정책참여 활동 지원

‘구조화된 대화’는 유럽 청년들이 지역적·국가적·유럽정부 차원의 민주적 절차에 보다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청년활동(Youth in Action) 프로그램을 통해 2010년부터 ‘구조화된 대화’ 관련 프로젝트들에 대한 지원이 시작되었고, 2014년부터는 에라스무스 플러스 프로그램을 통해서도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를 통해 수많은 유럽 청년들은 공적생활 참여에 대한 감각을 키우고, 중요한 청년 이슈들에 대하여 스스로 의견을 피력할 수 있는 기회들을 누리고 있다(European Youth Forum, 2014. 10.: 5).

‘구조화된 대화’는 유럽 청년들의 목소리를 정책수립 과정에 반영하기 위해 청년들과 정책결정자들 사이의 상호소통 채널로 볼 수 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청년 이슈와 관련하여 시민사회와의 협력을 확대하고, 청년들로부터 직접 의견을 구하기 위한 하나의 자문 과정으로서 ‘구조화된 대화’를 운영하고 있다²⁷⁾.

‘구조화된 대화’는 총 18개월에 걸친 작업 주기(work cycle)로 운영된다. 각각의 주기마다 청년 고용, 사회통합 등 청년과 관련된 다양한 주제별 우선과제를 선정하여 이에 초점을 맞춰

27) Structured Dialogue, https://ec.europa.eu/youth/policy/implementation/dialogue_en에서 2017년 5월 27일 인출.

컨설팅을 진행한다. 주기별 주제는 EU 청년장관 등이 결정한다.²⁸⁾ 지금까지 진행되었던 구조화된 대화의 제1차~제5차 주제는 다음 <표 III-14>와 같다.

표 III-14 구조화된 대화 제1차~제5차 사이클 주제

사이클	기간	의장국	주제	상태
1차	2010.1.1.~ 2011.6.30.	스페인, 벨기에, 헝가리	청년 고용	완료
2차	2011.7.1.~ 2012.12.31.	폴란드, 덴마크, 키프로스	유럽에서 민주적 삶에 대한 청년들의 참여	완료
3차	2013.1.1.~ 2014.6.30.	아일랜드, 리투아니아, 그리스	사회통합	완료
4차	2014.7.1.~ 2015.12.31.	이탈리아, 라트비아, 룩셈부르크	정치참여에 대한 청년 임파워먼트	완료
5차	2016.1.1.~ 2017.6.30.	네덜란드, 슬로바키아, 몰타	다양한, 연결된, 그리고 통합된 유럽에서 모든 젊은이들이 참여 가능하게 하기	완료

출처: European Foundation for Intercultural Learning 홈페이지

<http://efil.efs.org/2017/04/13/eu-structured-dialogue-5th-cycle/>에서 2017년 9월 29일 인출 후 내용 정리

EU는 범 유럽 차원의 청년 정책 협력을 도모하면서 청년과 정책결정자들의 만남인 ‘구조화된 대화’를 추진하는 한편, 개별 국가 범위에서 해당 지역(또는 다수의 유럽 국가) 내 청년 및 청년 단체들의 주도 하에 개최되는 다양한 ‘구조화된 대화’ 행사들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관련 프로젝트들을 지원해 오고 있다. 2010년부터 2013년까지는 ‘청년활동(Youth in action)’ 프로그램을 통해 국가별 ‘청년활동’ 기구들이 해당 국가에서 진행하는 ‘구조화된 대화’ 프로젝트들을 지원했고, 2014년부터는 에라스무스 플러스(Erasmus Plus) 프로그램을 통해 ‘구조화된 대화’ 프로젝트들을 지원하고 있다.²⁹⁾

에라스무스 플러스는 교육, 훈련, 청년, 스포츠 분야의 다양한 협력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유럽 청년들의 역량 및 기술 개발, 민주적 생활 참여, 노동시장 참여, 시민의식, 이문화적 대화(intercultural dialogue), 사회통합과 연대 강화, 청년 관련 사업의 질 개선, 지역·국가적 수준의 정책 개혁 보완, 국제적인 차원의 청년 활동 개선, 청년지도자 및 관련 기구들의

28) Structured Dialogue, https://ec.europa.eu/youth/policy/implementation/dialogue_en에서 2017년 5월 27일 인출.

29) Youth in action programme, https://ec.europa.eu/youth/success-stories/youth-in-action_en에서 2017년 7월 12일 인출.

청년 지원 역량 강화 등을 목표로 한다.³⁰⁾ 이러한 목표 달성을 위해, 에라스무스 플러스 프로그램은 3가지 주요 행동을 취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 표와 같다.

표 III-15 에라스무스 플러스 프로그램의 3가지 주요 행동

구분	내용
행동 1	개인의 학습 이동성(Learning Mobility of Individuals)
행동 2	혁신을 위한 협력과 모범 실천 교류 (Cooperation for Innovation and the Exchange of Good Practices)
행동 3	정책 개혁 지원(Support for Policy Reform)

출처: Erasmus+: Youth in Action, <http://erasmusplus.rs/erasmusplus-youth-in-action/>에서 5월 29일 인출

이 중 세 번째 행동에 해당하는 ‘정책개혁 지원’의 일환으로, 에라스무스 플러스 프로그램은 구조화된 대화 프로젝트에 지원하고 있다. 현행 에라스무스 플러스 프로그램은 ‘정책 개혁을 위한 지원’ 하에 ‘EU청년전략’(EU Youth Strategy) 관련 대화, 토론 등의 국가 회담과 국제 세미나, ‘EU 청년 컨퍼런스’를 준비하기 위한 국가 회담과 국제 세미나, ‘유럽 청년 주간’(European Youth Week)³¹⁾에서 다뤄지는 청년 정책 주제에 대한 토론과 정보교환 행사, 청년 컨설팅 활동들(온라인 컨설팅, 온라인 설문조사 등), ‘민주적 생활참여’를 주제로 한 회담, 세미나, 토론 등을 지원한다.³²⁾

(3) 청년 국제활동 교부금 제도

청년 국제활동 교부금은 유럽청년재단(European Youth Foundation)이 운영하는 프로그램이다. EYF는 유럽평의회 청소년부(Youth Department)의 산하기관으로 다양한 청년 활동들에 대하여 재정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유럽 청년들 사이의 협력을 장려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EYF는

30) Erasmus+: Youth in Action, <http://erasmusplus.rs/erasmusplus-youth-in-action/>에서 5월 29일 인출.

31) EU가 청년들에게 자신의 견해를 밝히고 공유하며, EU의 프로그램들에 대해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청년행사로 매년 개최 (출처: https://ec.europa.eu/youth/news/2017/dont-miss-european-youth-week-2017_it에서 2017년 5월 26일 인출). 우리나라에서도 청년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한 일부 지자체에서는 청년주간 행사를 매년 개최하고 있음.

32) Erasmus+: Structured Dialogue.

https://ec.europa.eu/programmes/erasmus-plus/opportunities-for-organisations/support-for-policy-reform/structured-dialogue_en에서 2017년 5월 29일 인출.

청년 NGO, 네트워크, 유럽회의의 청년 정책 및 사업과 관련하여 청년 사업 분야에서 활동하는 기타 NGO들이 수행하는 다양한 활동들에 대하여 재정지원을 제공한다. 반드시 국제적인 수준에서의 청년활동에 한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대체로 유럽 또는 세계적인 차원에서 이뤄지는 청년 프로젝트들에 대한 재정지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를 위하여 국제 청년 단체 또는 네트워크, 특정 국가 또는 지역 기반의 비정부 청년 단체 또는 네트워크, 유럽회의나 유럽연합 회원국들의 청년 사업과 관련이 있는 비정부 조직체들의 활동과 운영을 지원한다. EYF가 지원하는 청년 활동에는 교육적·사회적·문화적·인도주의적 활동들, 유럽 평화와 협력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활동들, 유럽 청년간 협력과 더 나은 이해를 촉진하는 활동들, 유럽과 개발도상국에서 청년 상호부조를 활성화하는 활동들, 청년 이슈에 대한 연구, 기록관련 활동들이다.³³⁾

<표 III-16>과 같이 EYF가 지원하는 교부금 유형은 크게 5가지로, 주로 청년(청년지도자) 및 청년단체들의 참여와 이문화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기 위한 활동들을 지원하거나, 국제활동을 진행하는 청년 개인 또는 단체들간의 네트워크를 지원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III-16 유럽청년재단의 청년 국제활동 지원 교부금 유형

유형	내용
국제 활동	• 개요: 청년들의 참여, 이문화 이해 학습을 촉진하기 위한 유럽의 청년 또는 청년 지도자 회담 등을 지원 • 지원 요건: 해당 활동에 참여하는 참가자들의 구성이 유럽평의회 가입국 최소 7개국 이상을 대표할 것. 국제적으로 결성된 팀(팀원들은 4개국을 대표)이 운영하는 활동일 것. 참가자의 75% 이상은 30세 미만일 것, 성별 및 지역별 균형을 확보할 것. 전체적인 프로세스에서 성인지적 관점(gender perspective)을 고려할 것 • 지원 규모: EYF의 지원 금액은 해당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전체 비용의 약 2/3이며, 최대 지원 금액은 2만 유로 • 2017년 지원 현황: 2017년 5월을 기준으로, EYF는 27개 프로젝트들에 대하여 총 44만 6,000유로를 지원³⁴⁾
연간 사업 계획	• 개요: NGO들의 전략 또는 액션플랜의 일부에 포함되는 차년도 활동, 국제 활동, 시범 활동, 그리고 발행(웹 개발 포함) 등과 같은 일련의 활동들을 지원 • 연례 사업 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 향후 수행할 여러 활동(반드시 한 개 이상의 국제활동 포함), 활동들 사이의 연관관계, 개별 활동이 전체 사업 목적에 기여할 수 있는 기대 결과, 유럽평의회 청년 부문에서 추구하는 우선과제/미션/비전과의 연관성, 국제 활동 비용의 1/3이상에 대한 공동 재정조달, 전체 프로세스에서 성인지적 관점에 대한 고려

33) European Youth Foundation – Grants for international youth activities.

<https://eurodesk.eu/program/european-youth-foundation-grants-international-youth-activities>에서 2017년 5월 26일 인출.

유형	내용
	• 지원 규모 및 방식: 최대 지원 금액은 5만 유로이며, 분할로 지급(기존에는 지원 계약 체결 시 40%를 지원하고, 성공적인 중간/최종 보고서 제출 시 30%씩을 지급했으나, 2017년부터는 계약 체결 시 60%를 지원하고, 중간보고서 제출 시 25%, 성공적인 최종보고서 제출 시 나머지 15%를 지급) • 2017년 지원 현황: 2017년 5월을 기준으로, EYF는 35개 프로젝트들에 대하여 총 134만 8,000유로 지원³⁵⁾
구조적 교부금	• 구조적 교부금 개요: 국제적인 비정부 청년기구 또는 국제 NGO 네트워크들에 대하여 이들 단체 및 네트워크의 유럽 내 활동들과 관련한 일반 관리운영비의 일부를 2년 동안 지원하는 것으로, 지원 대상은 지난 3년 동안 최소 3개 이상의 국제 활동들에 대해 지원 경험이 있는 국제 청년 NGO 및 국제 청년 NGO 네트워크에 한정 • 지원 규모: 구조적 교부금의 지원 한도는 연간 2만 5,000유로로 2년 간 지원(2년 동안 총 최대 5만 유로를 지원) • 2016-2017년도 지원 현황: 2016-2017년도에 구조적 교부금 항목 하에서 EYF는 40개 단체들에 대하여 총 131만 9,294유로를 지원³⁶⁾
일회성 구조적 교부금 (연장 불가)	• 일회성 구조적 교부금 개요: 지역의 청년 네트워크가 유럽적인 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단발성으로 관리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지원 대상은 지난 3년 동안 최소 3개 이상의 국제 활동들에 대해 지원 경험이 있는 NGO들에 한정 • 지원 규모: 일회성 구조적 교부금의 최대 지원 한도는 1만 유로
시범 활동 (pilot activity)	• 개요: 지역의 특별한 사회적 과제와 관련한 중재 활동들을 지원 • 지원 요건: 특정 지역의 청년들이 직면한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활동일 것, 유럽평의회와 청년 프로그램에서 초점을 맞추고 있는 활동일 것, 지역 청년들에게 기대되는 효과를 구체적으로 제시할 것, 새롭고 혁신적인 활동이거나, 기존의 모범사례를 기반으로 한 활동일 것 • 지원 규모: 최대 지원액은 1만 유로 • 지원 현황: 2017년 3월 29일을 기준으로 EYF는 26개 프로젝트들에 대하여 총 21만 2,000유로를 지원³⁷⁾

출처: European Youth Foundation,

<https://www.coe.int/en/web/european-youth-foundation/international-activity>,

<https://www.coe.int/en/web/european-youth-foundation/annual-work-plan>,

<https://www.coe.int/en/web/european-youth-foundation/structural-grant>,

<https://www.coe.int/en/web/european-youth-foundation/pilot-activity>에서 2017년 5월 30일에 인출

34) Council of Europe(2017. 5. 9) “EYF grants awarded for international activities in 2017 as for May 2017”

<https://rm.coe.int/annual-table-ia-2017-rev09052017/168071052d>에서 2017년 5월 30일에 인출.

35) Council of Europe (2017. 5. 9) “EYF-supported annual work plans 2017 as for May 2017”

<https://rm.coe.int/annual-work-plans-2017-rev09052017/168071052e>에서 2017년 5월 30일 인출.

36) Council of Europe (2017. 5. 9) “STRUCTURAL GRANTS 2016-2017”

<https://rm.coe.int/1680707cdd>에서 2017년 5월 30일 인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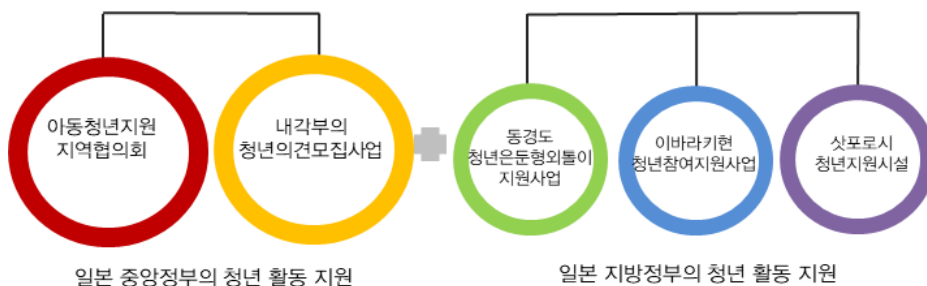
37) Council of Europe (2017. 5. 9) “Pilot activities supported by the EYF in 2017 (as at 29 March 2017)”

<https://rm.coe.int/1680702ff7>에서 2017년 5월 30일 인출.

2) 일본

일본에서는 1990년대 이후 성인기 이행에 어려움을 경험했던 청년의 수가 다수 증가하면서 사회적 쟁점이 되었다. 청년들의 성인기 이행의 문제는 그 과정에서 사회시스템이 적절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함으로써 나타난 결과로 간주되었다(特定法人NPOビックイッシュ基金若者政策提案検討委員会, 2015: 2).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본 정부는 청년정책의 종합적 추진을 위한 법적 장치를 마련하였는데, 바로 「아동·청년육성지원추진법(子ども若者育成支援推進法)」이 그것이다. 이 법은 아동 및 청년을 둘러싼 사회 환경의 악화, NEET(청년무업자), 은둔형외톨이(히키코모리) 등과 같은 청년들이 안고 있는 문제들이 심각해지면서 종래의 교육, 복지, 고용 등 개별 분야별 지원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문제제기로 인해 2010년 제정되었다. 청년들의 성인기 이행기 지연되면서 NEET(청년무업자), 은둔형외톨이(히키코모리)의 연령도 자연스럽게 증가하게 되면서, 이 법에서는 청년의 연령을 40세 미만인 자로 정의하고 정책 대상을 30대 연령층까지 확대하였다(김정숙·김기현·황세영, 2015: 31).

한편, 일본의 지방자치단체와 시민단체는 청년의 사회참여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 지원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각 지역의 특색과 상황을 고려한 다양한 정책과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지역에서도 NEET(청년무업자)와 은둔형외톨이(히키코모리)를 위한 지원 정책이 다양하다. 우리나라에서는 일본만큼 NEET와 은둔형외톨이 인구가 많지 않은 상황이지만 향후 이들 집단이 증가할 가능성을 고려할 때, 일본의 지원 정책은 우리나라가 참고할 만한 사례로 볼 수 있다. 여기에서는 일본 청년들의 사회활동 관련 실태를 간략하게 살펴본 후, 일본 중앙정부와 지자체에서 운영되고 있는 청년활동 지원 정책 사례를 소개한다. 이 절에서 정리할 일본의 청년활동 지원정책 사례를 그림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 III-4】 일본의 청년활동 지원 정책 사례

(1) 일본 청년들의 사회활동 참여 실태

일본 지역사회에서는 연중 마츠리(祭り)를 비롯하여 자치회 모임, 다양한 지역 행사가 열린다. 전통적으로 일본에서는 어린 시절부터 이러한 지역행사에 참여하는 것을 지역주민의 의무이자 도리라고 여기는 문화가 자리 잡고 있다. 최근에는 지역사회 활성화의 관점에서 청년의 지역사회 참여가 주목을 받고 있다. 하네타노(羽田野)(2014)는 지역사회 차원에서 청년들의 참여는 지역사회 활성화에 크게 도움이 됨에도 불구하고 청년들의 지역사회 참여율은 매우 낮다고 본다. 실제로 그는 2011년 후쿠이시(福井市) 청년들의 지역사회 참여활동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조사 결과, 20대 청년 가운데 현재 지역사회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4%에 지나지 않았다. 가끔씩 참여한다고 응답한 비율도 16%에 그치고 있으며, 전혀 참여할 의사가 없다고 응답한 비율은 무려 62%에 달했다. 그는 청년들이 지역사회 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청년들이 지역사회에 관심이 없다기 보다는 ‘참가하는 방법을 몰라서’라고 보고 있다. 실제로 그의 조사에서도 응답자의 37%가 참가하는 방법을 몰라 지역사회 행사에 참여하지 못한다고 응답하였다. 이러한 응답률은 40대 7.1%, 50대 4.5%, 60대 4.5%에 비해 매우 높은 것으로, 청년들에게 지역사회활동에 참여하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참고로 관심이 없어서 지역사회활동에 참여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비율이 25.9%였으며, 직장 때문에 참여하지 못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17.9%에 그치고 있었다(羽田野, 2014: 97-103).

다음으로, 일본 시즈오카시(静岡市)(2016)³⁸⁾는 2015년「지역 아동 및 청년의 생활실태」를 조사하였다. 이 조사에서 ‘최근 1년간 당신이 살고 있는 지역에서 동아리, 단체, 자치회 등의 행사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하여 청년층(18세-39세)의 28.0%가 참여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이는 초등학생(83.6%), 중학생(76.3%), 고등학생(56.5%)에 비해 크게 낮은 참여율에 해당하며,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지역사회 참여율이 낮아짐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에 대한 호감도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조사대상 청년층의 77.2%(좋다+매우 좋다)가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에 대해 호감을 가지고 있다고 응답해, 지역사회에 대한 참여율의 저하가 지역사회에 대한 관심 저하를 의미한다고 보긴 어렵다.

한편, 최근 일본에서 NPO는 청년들의 취업처로서뿐만 아니라 사회참여의 장(場)으로서의

38) <http://www.city.shizuoka.jp/000159765.pdf>에서 2017년 8월 21일 인출.

역할도 수행하고 있다. 내각부의 집계에 따르면, 2006년 9월말 현재 전국의 NPO법인수는 약 2만9천개에 달하며, 1998년 특정비영리활동촉진법(特定非営利活動促進法)이 시행된 이래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1990년대 후반 이후, NPO는 청년들의 고용 또는 사회 참여를 위한 가교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어 왔으며(小野晶子, 2005; 田中喜文·宮本大, 2004; 藤本隆史, 2004).

키타무라(北村安樹子)(2007a)는 NPO를 통해 사회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청년들의 실태를 조사하였다. 그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20대 청년 가운데 NPO에 유급이자 상근으로 근무하는 비율이 16.4%, 유급이자 비상근으로 근무하는 비율이 8.8%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비율은 30대, 40대, 50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으며, 스텝이 아닌 참여자로서의 경험률에 있어서도 10대와 70대를 제외한 30, 40, 50대 보다 낮은 참여율을 보여주고 있다.

표 III-17 NPO 스텝 및 참여자 연령분포(관계자 유형별)(중복응답)

		해당자가 있는 경우	연령 분포						
			19세 이하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스텝	유급, 상근	48.5	0.0	16.4	20.7	18.3	24.5	10.7	1.7
	유급, 비상근	37.5	1.4	8.8	17.3	18.1	15.2	14.3	2.9
	무급	61.5	1.0	6.9	21.4	21.4	35.4	29.0	9.7
참가자		76.7	5.7	26.6	45.1	45.1	54.4	44.9	18.5

출처: 北村安樹子(2007a: 8).

다음으로 39세 이하 청년들이 NPO에 참여하게 된 경로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스텝의 경우 ‘창단멤버’가 19.2%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친구 및 지인의 소개’가 16.6%로 높았다. 참가자의 경우는 스텝 및 지인의 소개가 23.5%였으며, 이전 참가자의 소개가 19.0%였다. 그리고 키타무라(北村安樹子)(2007b)는 NPO에서 근무하는 청년들의 실태를 조사하였는데, 조사결과 응답자의 2/3가 연수입이 200만 엔 미만이라고 응답하였다.³⁹⁾ 이러한 결과를 통해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은 NPO에 스텝 또는 참가자로 참여하는 경로가 공적 경로보다는 사적인 경로인

39) 참고로 일본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2007년 직장인 1인당 평균 연 수입은 437만 엔이었다.
<http://datsu-ryman.com/item4.html> 자료 참고(2017년 8월 21일 인출)

경우가 많으며, 20대 청년들의 경우 NPO 참여에 그다지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 이유로는 NPO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받는 급여 수준으로는 생계를 유지하기가 힘들다는 점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일본 청년들의 여가활동 실태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일본의 대표적인 광고기획사 가운데 하나인 덴츠(電通)(2013. 3. 5.)⁴⁰⁾는 2012년, 15세-29세 청소년 및 청년층들의 여가 및 소비활동 실태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청년층(대학생, 사회인)들의 주요 취미활동으로는 인터넷 이용이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고(대학생 32.5%, 사회인 29.1%), 그 다음으로 음악감상(대학생 23.3%, 사회인 20.3%), 애니메이션 감상(대학생 21.7%, 사회인 19.1%), 독서(대학생 19.6%, 사회인 20.2%), 만화 보기(대학생 19.1%, 사회인 18.4%) 등으로 나타났다.

표 III-18 일본 청년들의 여가활동 실태조사 결과(중복응답)

순위	대학생		순위	사회인	
				내용	비율
1	인터넷 이용	32.5	1	인터넷 이용	29.1
2	음악감상	23.3	2	음악감상	20.3
3	애니메이션 감상	21.7	3	독서	20.2
4	독서	19.6	4	애니메이션 감상	19.1
5	만화	19.1	5	만화	18.4
6	패션	15.5	6	국내여행	17.2
7	게임기를 이용한 게임	14.6	7	패션	16.0
8	카라오케	14.1	8	쇼핑	15.3
9	쇼핑	13.4	9	연애 또는 친구	15.1
10	연애 또는 친구	13.2	10	게임기를 이용한 게임	14.4

출처: <http://www.dentsu.co.jp/news/release/2015/>에서 2017년 8월 17일 인출

다음으로, SMBC컨슈머파이낸스(コンシューマーファイナンス)(2015)⁴¹⁾에서 실시한 20대 청년들의 여가활동에 관한 조사에 따르면, 조사대상 청년들(20-29세)의 63.6%는 여가시간에 집

40) <http://www.dentsu.co.jp/news/release/pdf-cms/2013021-0305.pdf>에서 2017년 8월 17일 인출.

41) http://www.smbc-cf.com/news/news_20160802_883.html 2017년 10월 7일 인출.

바깥에서 친구들과 같이 시간을 보내기 보다는 집에서 혼자 지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주로 휴일이나 쉬는 시간에 집에서 하는 일로는 인터넷 이용이 72.4%로 압도적으로 높은 비율을 나타냈으며, 그 다음으로 쇼핑(47.6%), 동영상 관람(42.1%), 녹화해둔 TV 프로그램 시청(40.3%), 수면(40.1%)에 대부분의 시간을 할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의 조사결과를 통해 알 수 있는 점은 일본의 청년들은 주로 혼자, 그리고 자신의 집에서 인터넷 등과 같은 매체를 활용하면서 여가생활을 즐기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2) 일본 청년 사회활동 지원 정책 사례⁴²⁾

① 중앙정부 차원

i) 아동·청년지원지역협의회(子ども・若者支援地域協議会) 사업⁴³⁾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배경은 지역사회에서 사회생활을 정상적으로 영위하기 힘든 청년들이 증가하고 있고, 아울러 이들 청년들이 한 가지 문제가 아닌 복합적인 문제들을 안고 있기 때문에 현재의 시스템으로는 지원에 한계가 있다는 점이다. 이에 일본 정부는 2007년도부터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상담원(Youth advisor) 양성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아울러 2009년 제정된「아동·청년육성지원추진법」 제19조에서 지방지단체는 지역사회에 아동청년지원지역협의회(이하, 협의회)를 둘 것을 명시하고 있다. 2015년 4월 현재 전국에 80개소의 아동·청년지원지역협의회가 설치되어 있다.

협의회 사업의 목적은 아동 및 청년들이 안고 있는 다양한 문제상황에 맞게 적절한 지원을 함으로써 이들이 취업, 학교복귀 또는 그 전 단계에서 사회활동에 참여하는 등 사회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데 있다. 이 사업의 주요 참여대상은 NEET(무업자), 은둔형외톨이, 등교거부 등으로 인해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영위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동 및 청년이다. 협의회는 청년의 자립지원에 특화된 전문 상담원을 배치하고 있으며, 이들 전문 상담원을 ‘유스어드바이저’라고 부르며, 유스어드바이저가 되기 위해서는 일본 정부가 개발한 ‘전문 연수 및 양성 프로그램’ 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42) 여기에서 정리한 내용은 일본 중앙정부에서 발간한 문서 및 지자체 홈페이지에 게시된 내용을 참고하여 정리한 것이며, 관련 문서와 홈페이지 주소는 해당 사례별로 각주 처리하였다.

43) http://www8.cao.go.jp/youth/suisin/pdf/law_s1.pdf의 내용을 정리한 것임(2017년 5월 23일 인출).

内閣府(2016)의 자료는 이 협의회 사업을 통해 지역사회의 관계기관 및 전문기관간의 유기적 연계, 복합적인 문제를 안고 있는 청년들의 방문 건수 증가,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청년들 가운데 복합적인 문제를 안고 있는 청년들에 대한 실태 파악이 가능해진 점 등을 성과로 들고 있다.

ii) 내각부의 청년의견모집사업⁴⁴⁾

「아동 및 청년육성지원추진법(子ども・若者育成支援推進法)」 제12조에 따르면, 국가는 아동 및 청년육성 지원정책을 수립하여 실시함에 있어 아동 및 청년을 포함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노력을 강구해야 한다. 내각부는 상술한 법 조항을 근거로 청년의견모집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구체적 사업내용은 다음과 같다. 전국의 중학생 이상 30세 미만의 청년 가운데 300명을 유스(Youth)특명보고원(特命報告員)⁴⁵⁾으로 임명한 후, 이들로부터 청년정책 수립 및 청년의 사회참여 의식을 촉진하기 위한 의견 등을 청취한다. 또한 이들 유스특명보고원 가운데 희망자 및 중앙부처 관련정책 책임자가 직접 대면하여 의견을 교환하는 유스 라운드 테이블(Youth Round Table)을 개최하기도 한다. 이 사업에서는 매년 주제를 정하여 이 주제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는데, 2016년에는 청년 고용, 향후 교육 및 학습의 방향성, 청년의 인생계획(Life Plan)이 주제였으며, 2015년에는 인권개발운동, 농업 및 농촌의 다면적 기능 등이 의견수렴 주제였다.

② 지방정부 차원

i) 동경도 청년 은둔형외톨이 지원 사업⁴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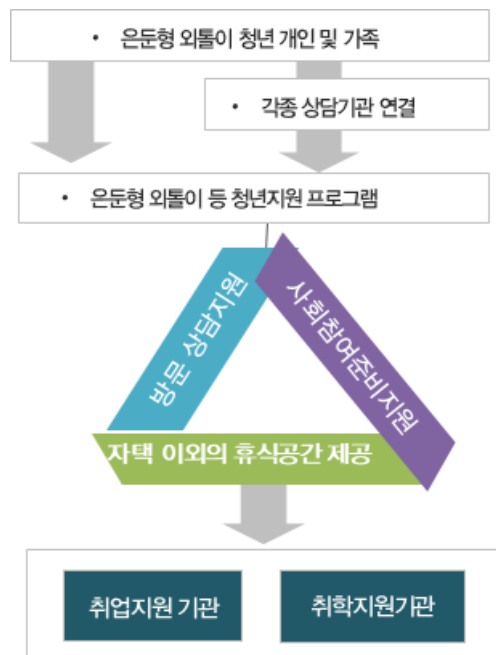
동경도는 2008년부터 NPO와 공동으로 ‘은둔형외톨이 청년지원프로그램’을 운영하였는데, 이 프로그램의 운영 경험을 토대로 사업을 확대한 것이 청년 은둔형외톨이 지원사업이다. 그리고 동경도는 2010년까지 3년간의 사업성적을 토대로 다양한 NPO 법인이 실시 가능한 ‘은둔형외톨이 등 청년지원프로그램’ 모델을 개발하였는데 지원 프로그램에는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포함하고 있다. 첫째, 방문상담 및 지원사업으로, 자택 등을 방문하여 상담, 정보제공 등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 사업에서는 지원대상자의 요구 또는 필요에 따라 외출 동반

44) 내각부의 청년의견모집사업 홈페이지 내용 참고(<http://www.youth-cao.go.jp/index.html>에서 2017년 10월 7일 인출)

45) 유스특명보고원은 중학생에서 30세 미만의 청년을 대상으로 하며, 인터넷을 통해 공개 모집한다. 선발된 이들은 청소년·청년 정책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개진할 기회를 갖는다.

46) 동경도 홈페이지(<http://www.hikikomori-tokyo.jp/wakamono/>)에 게시된 내용을 토대로 정리(2017년 5월 17일 인출)

서비스도 제공한다. 둘째, 자택 이외의 휴식공간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자택 이외에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거나 긍정적인 자기인식 개선을 위한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셋째, 사회참여 준비 지원 서비스로, 이 서비스는 은둔형외톨이 청년들에게 자원봉사활동 등과 같은 사회참여활동 기회를 제공한다. 이러한 프로그램을 통하여 은둔형외톨이 청년들의 생활습관을 개선하고, 의사소통능력을 향상시키고 있다. 이와 아울러 본인이 사회에 필요한 존재라는 인식과 지신감 회복을 위한 프로그램도 제공하고 있다.



출처: <https://www.hikikomori-tokyo.jp/wakamono/pdf/program.pdf>에서 2017년 8월 29일 인출

【그림 Ⅲ-5】 일본 동경도 은둔형외톨이청년지원 프로그램 개념도

ii) 이바라키현(茨城県)의 청년참여지원사업⁴⁷⁾

이 사업은 지역의 청년활동을 지원함과 동시에 청년들 간 또는 세대 간 네트워크를 구축함으로써 지역의 활성화와 청년활동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주된 사업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획·제안 챌린지 사업’이다. 이 사업은 청년들이 제안, 실행하는 지역과제를 해결하

47) 이바라키현 홈페이지(<https://www.pref.ibaraki.jp/bugai/josei/seishonen/documents/zissen-houkokusyo4.pdf>)에 게시된 내용을 토대로 정리한 것임(2017년 5월 23일 인출).

거나 또는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활동, 청년단체의 활성화, 조직 강화 기획 및 제안을 지원하며, 대상은 청년이 중심이 되어 활동하는 단체 등이다. 지원 금액은 단체별 10만 엔 정도로 30개 단체에 지원한다. 둘째, ‘기획·제안 플래쉬업(Flash up) 사업’이다. 이 사업은 ‘기획·제안 챌린지 사업’의 제안 가운데 청년단체가 제안한 사업이 제대로 실행될 수 있도록 전문가의 조언, 지도,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이때 전문가 그룹에는 청년활동 관련 학자, 현장전문가 등 5인이 포함되며, 지원방법은 그룹별 미팅, 지원검토회의, 강좌 등을 포함한다. 셋째, ‘유스 & 탑 미팅(Youth & Top meeting) 사업’이다. 이 사업은 청년단체의 리더와 지방자치단체 또는 기업의 대표자가 한데 모이는 원탁회의 또는 교류회를 개최하며, 이를 통해 상호 의견교환 및 친목 도모를 위한 것이다. 사업대상은 청년단체 리더 등 30명이며, 사업내용은 ‘청년활동이 가지는 3가지 매력’이란 주제로 지방자치단체 및 기업의 대표, 청년단체 리더가 원탁에 둘러앉아 의견을 교환하고, 원탁회의가 종료한 후 교류회를 개최하다. 마지막으로, ‘청년포럼사업’을 들 수 있다. 이 사업은 지역 내 활동하는 청년단체간 네트워크, 활동의 활성화 등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대상은 약 18세 이상에서 30세 까지의 청년으로, 지역 내 청년으로 구성된 실행위원회가 기획 및 운영을 담당한다.

iii) 삿포로시(札幌市) 청년지원시설(Youth+)⁴⁸⁾

삿포로시는 청년의 사회활동참여와 교류를 위한 거점으로 삿포로시 청년지원시설(이하, 청년지원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청년지원시설은 1개소의 청년지원종합센터와 3개소의 지원시설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용대상자는 39세 미만의 청년들이다. 청년지원시설이 제공하는 서비스는 크게 다섯 가지이다. 첫째, 임대 서비스이다. 음악, 스포츠, 댄스, 연극 등과 같은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 있으며, 유료로 운영된다. 둘째, 이벤트 및 자원봉사 활동이다. 청년들이 주체적으로 행사(음악, 연극, 요리, 축제 등)를 기획, 준비하기도 하고, 지역 축제 등과 같이 청년들이 참여할 수 있는 자원봉사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도 한다. 셋째, 청년단체간 네트워크 구축 사업으로, 지역 내 청년단체들과 협력하여 활동을 전개하기도 하고, 삿포로 시내의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사업을 진행한다. 넷째, 상담서비스로 각 시설에 전문자격을 갖춘 상담사를 배치하여 진로 및 취업에 관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청년들의 활동에 필요한 무료 공간을 제공하기도 한다.

48) 삿포로시 홈페이지(<http://www.sapporo-youth.jp/>)에 게시된 내용을 토대로 정리한 것임(2017년 8월 28일 인출).



출처: <http://www.sapporo-youth.jp/> 2017년 8월 28일 인출.

【그림 III-6】 일본 삿포로시 청년지원시설 사업소개

3) 소결

지금까지 EU와 일본의 청년활동 지원 정책들을 살펴보았다. EU와 일본의 정책 지원 사례들을 정리하고 시사점을 도출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EU에서는 회원국들의 청년들이 상호 교류하고, 다양한 사회 문화적 배경을 지닌 청년들 간의 연대감과 소통, 협력을 제고하기 위한 활동 지원 정책을 갖추고 있었다. 특히 EU는 회원국 청년들의 교류를 증진하고, 청년들이 민주주의 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적극적으로 보장해 주고 있는 점이 특징적이었다. EU는 사회적 통합과 연대, 시민의식과 상호 이해를 촉진하는 다양한 청년활동 및 청년 개인과 단체들간의 네트워크와 교류를 지원해 주고 있었다.

구체적으로 EU는 ‘청년활동’(Youth in action) 프로그램을 통해 유럽 청년들의 교류, 민주주의 참여활동을 촉진하고, 자원봉사 활동을 장려하며, 세계 청년들과 협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청년 단체들 간의 교육 및 네트워킹과 청년 및 청년정책 활동가들의 활동도 지원한다. 한편 ‘구조화된 대화’(Structured dialogue)를 통해 유럽 청년들의 목소리가 정책 결정 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청년 국제활동 교부금’ 제도를 통해 EU 내 일부 지역, 국가 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활동들도 지원하고 있다. 즉 EU는 청년들의 활동이 지역사회를 변화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으며, 청년들은 이러한 활동을 통해 시민의식을 키우고 사회에 참여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다고 믿는다.

이처럼 EU의 청년활동 지원 정책은 궁극적으로 청년 활동에 대한 지원을 통해 시민으로서의 의식을 배우고,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도록 하는 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청년활동 지원정책이 주로 문화적 영역에 국한되어 고, 청년정책이 고용과 일자리에 치우쳐져 있는 한국의 청년정책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한편, 일본에서는 한국과 유사하게 청년들의 성인기 이행이 지연되면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앙정부, 지자체 그리고 민간단체 차원에서 청년들의 적극적인 사회활동 참여를 지원하고 장려하는 방식의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특히 일본 청년들이 열린 공간에서 타인과 더불어 활동하기보다는 폐쇄된 공간에서 혼자, 온라인 활동에만 주력하고 있는 경향들이 강해지면서 중앙정부와 지자체들은 청년들이 교류할 수 있는 장(場)을 마련하고, 자원봉사활동 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하는 사업들을 전개하고 있다.

또한 일본의 청년 활동 지원정책은 주로 은둔형외톨이, NEET 등과 같은 사회적 약자들을 주요 대상으로 설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지닌다. 이들은 주로 초등학교 시절부터 등교거부, 이지메, 낮은 학업성취도, 취업 실패 등으로 인해 청년기에 접어든 이후에도 사회생활을 기피하는 경향을 보이는데, 중앙정부와 지자체 차원에서 이들을 지원하는 다양한 사업들이 운영되고 있었다. 특히 해당 지원 사업은 이들을 위한 전문상담원 제도와 직접 찾아가는 방문상담과 외출동반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등 NEET와 은둔형외톨이 집단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을 눈여겨 볼만 하다. 마지막으로, 청년의 사회활동 지원 정책은 청년들의 ‘참여’와 ‘기획’ 역량을 제고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정책 참여활동 뿐만 아니라 그들이 스스로 사회 변화를 주도할 수 있는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이처럼 일본 정부의 NEET와 은둔형외톨이를 위한 맞춤형 지원과 청년들의 사회활동 지원 사례는 우리나라에 의미 있는 시사점을 제공해 준다. 전자의 경우, 향후 한국사회에서 증가할 가능성이 있는 소외 청년 집단을 위한 지원 방향을 마련하는 데 의미가 있다. 후자는 청년활동에 대한 지원이 청년 문화활동을 위한 지원이나 청년 커뮤니티에 대한 단순한 재정 지원을 넘어 이들이 시민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지역사회를 개선하고 혁신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청년활동의 지원 영역을 확대하는 데 시사점을 제공한다. 이는 EU의 청년활동 지원 정책과도 일맥상통하는 내용으로 볼 수 있다.

제 IV 장

20대 청년 사회활동 실태 설문조사 결과

1. 설문조사 개요
2. 사회활동 실태
3. 사회활동 관련 인식 및 사회활동
활성화를 위한 정책욕구
4. 사회활동 참여의 집단 간 차이 및
사회활동 참여가 비인지적 역량,
대인신뢰 및 공동체의식에 미치는
영향
5. 소결

제 IV 장

20대 청년 사회활동 실태 설문조사 결과*

20대 청년 사회활동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20대 청년들의 사회활동 실태를 반영하는 조사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청년 사회활동 실태를 온라인 조사를 통해 실시하였다. IV장에서는 먼저 실태조사 개요를 제시하고, 설문조사 결과를 크게 3가지로 구분하여 분석결과를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 분석결과는 ① 사회활동 참여/비참여 실태, ② 사회활동 관련 인식 및 활성화를 위한 정책 욕구, ③ 사회활동 참여의 집단 간 차이와 사회활동 참여가 청년의 비인지적 역량, 대인신뢰, 공동체 의식에 미치는 효과로 구분된다.

1. 설문조사 개요

1) 표본의 구성 및 조사방법

(1) 표본의 구성

20대 청년 사회활동 실태 파악을 위해 2017년 현재 전국의 20~29세 청년들을 대상으로 사회활동 경험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모집단은 2017년 1월 1일 이후부터 만 19세~28세(20세~29세)에 해당하는 청년들이다. 본 연구에서는 확률에 의한 표본추출을 적용한 할당표집을 실시하였다.

표본할당은 2015년 통계청의 인구 총조사를 토대로, 20~29세 청년 분포를 확인하고 대학진학 여부, 연령(만19~23세, 만24~28세), 성별, 권역(수도권, 비수도권) 인구분포를 확인한 후 표본할당의 틀로 삼았다. 구체적으로, 수도권은 서울, 인천, 경기를 비수도권은 그 외 지역으로 구분하였다.

* 이 장은 김정숙 부연구위원(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집필하였음.

비수도권은 다시 충청/강원권(대전, 충북, 충남, 세종, 강원), 호남/제주권(광주, 전남, 전북, 제주), 영남권(부산, 대구, 울산, 경남, 경북)으로 구분하고 권역별 인구 분포를 고려하여 비수도권의 표본 할당에 적용하였다. 표본 할당에 적용된 통계청의 인구 총조사 기준 만19~28세 청년 인구의 분포 비율은 다음과 같다.

표 IV-1 배경변인별 만 19~28세 청년 인구 분포

권역	대학 진학자 집단				대학 비진학자 집단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만19~23세	만24~28세	만19~23세	만24~28세	만19~23세	만24~28세	만19~23세	만24~28세
수도권	708,330	697,132	667,721	708,419	171,234	122,373	138,875	100,477
비수도권	826,387	638,502	680,463	547,980	151,496	120,334	111,615	97,005
집단별 계	5,474,934(84.4%)				1,013,409(15.6%)			
총계	6,488,343 (100.0%)							

출처: 통계청(2017. 1.5.). 2015년 인구 총조사 (성, 연령 및 교육정도별 인구 결과를 재구성).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PM1501&conn_path=3#에서 2017년 7월 20일 인출

본 연구에서는 응답자의 주요 배경변인, 즉 권역, 성별, 대학진학 여부, 연령별 분석에 필요한 최소 표본수 등을 고려하여 전체 목표 표본수를 1,200명으로 설정하였다. 목표 표본 1,200명을 기준으로 <표 IV-1>에서 제시한 만19~28세 인구의 권역별 분포 비율을 적용하였다. 이를 토대로, 웹서베이 조사를 위해 할당된 표본수는 다음과 같다.

표 IV-2 설문조사를 위한 만 19~28세 표본의 할당 표본수

권역	대학 진학자 집단				대학 비진학자 집단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만19~23세	만24~28세	만19~23세	만24~28세	만19~23세	만24~28세	만19~23세	만24~28세
수도권	132	130	125	132	27	21	26	19
비수도권	153	118	127	102	29	18	22	19
집단별 계	1,019(84.9%)				181(15.1%)			
총계	1,200(100.0%)							

(2) 조사방법

설문조사는 전문조사기관을 통해 대규모 온라인 패널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한 웹서베이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조사는 응답자의 이메일을 통해 URL을 발송하고, 해당 URL에 접속하여 응답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으며, 2017년 8월 1일부터 16일까지 이루어졌다.

2) 조사 내용

20대 청년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사회활동 실태조사의 주요 조사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기본적인 사회활동 참여 실태 파악을 위해 사회활동 참여 유형, 주된 사회활동 참여 유형, 사회활동 참여 경로, 사회활동 목적, 사회활동 단체 규모 및 특성, 활동 기간, 활동의 적극성, 월평균 활동비, 사회활동 참여 효과, 사회활동과 진로와의 관련성 등을 파악했다. 또한 사회활동에 참여하고 있지 않은 이유, 향후 사회활동 참여 의향과 원하는 사회활동 유형, 사회활동 참여 시 가장 필요한 지원 내용도 포함하였다.

다음으로 실태조사에서는 청년 사회활동 관련 인식 및 활성화를 위한 정책육구 관련 내용도 포함하였다. 구체적으로, 청년 사회활동 참여가 중요하다는 의견에 대한 동의 정도, 청년 커뮤니티 지원 사업에 대한 참여 의향 및 참여 의향의 이유, 청년기본조례 제정에 대한 인지 여부, 청년을 위한 공간(시설) 제공 시 가장 필요한 공간, 청년 사회활동 활성화 관련 정책 육구 등을 조사함으로써, 향후 정책방안을 마련하는 데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하였다.

마지막으로, 청년 사회활동 참여가 청년들의 비인지적 역량과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비인지적 역량 관련 내용(심리·정서, 관계형성, 협력, 개인시민성), 대인신뢰와 공동체 의식에 관한 내용도 조사내용에 포함하였다. 청년 사회활동 참여 효과는 다양한 변수를 통해 살펴볼 수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전문가 자문조사를 토대로 사회활동 참여가 인지적 역량보다는 비인지적 역량, 대인신뢰 및 공동체 의식에 미치는 효과에 주목해 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과제의 설문조사의 영역 및 주요 조사 항목은 <표 IV-3>과 같다.

상술한 조사 항목을 반영하여, 20대 청년 사회활동 참여 및 비참여 실태, 사회활동 관련 인식 및 정책지원 육구, 비인지적 역량, 대인신뢰 및 공동체 의식 등을 파악하고자 실시된 설문조사의 문항개발 근거는 다음과 같다.

표 IV-3 20대 청년 사회활동 실태조사 영역 구성 및 주요 조사 항목

설문 영역 및 주요 항목		
사회활동 참여 실태	• 사회활동 참여 유형, 사회활동 참여 경로, 활동 목적, 활동단체 규모 및 특성, 활동 기간, 활동 적극성, 활동 참여 효과에 대한 인식, 사회활동과 진로와의 관련성 등	
사회활동 비참여 실태	• 사회활동 비참여 이유, 사회활동 참여 의향, 원하는 사회활동, 사회활동 참여 시 가장 필요한 지원	
사회활동 관련 인식 및 정책 욕구	• 청년 사회활동 참여 중요성에 대한 동의 • 청년 커뮤니티 지원사업에 대한 참여 의향 및 참여 의향의 이유, 청년기본조례 제정 인지 여부, 청년 공간(시설) 지원 시 가장 필요한 공간유형 • 청년 사회활동 활성화를 위한 정책 욕구	
비인지적 역량	심리·정서	• 자아존중감, 자아효능감, 정서조절능력
	관계형성	• 의사소통, 공감 및 배려
	협력	• 집단속진, 팔로워십, 갈등문제해결
	개인시민성	• 권리 책임의식, 민주적 절차의식, 정치적 자아효능감
대인신뢰, 공동체의식		• 대인신뢰, 공동체의식
인구학적 배경		• 성별, 연령, 대학진학여부, 권역, 종사상 지위, 가정배경(부모의 경제적 수준 등) 등

○ 사회활동 참여 및 비참여 실태

사회활동 참여 실태에는 사회활동 참여 유형, 사회활동 참여 경로, 사회활동 목적, 사회활동 단체 규모 및 특성, 활동 기간, 활동의 적극성, 활동 참여 효과에 대한 인식, 사회활동과 진로와의 관련성 등을 살펴보는 문항들로 구성되었다.

이 중, 사회활동 유형은 Salamon & Anheier(1996)가 구분한 바 있는 비영리조직 국제분류(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Nonprofit Organizations)와 세계가치관조사(World Values Survey)의 Wave 6(2010~2014년, 한국자료)⁴⁹⁾ 조사주기에 포함된 자원결사체 문항을 참고하였고 20대 청년들의 사회활동 특성을 고려하여 연구진이 문항을 추가하여 구성하였다. 구체적으로, 비영리조직 국제분류에는 문화와 오락, 교육과 연구, 건강, 사회서비스, 환경, 발전과 주거, 법률서비스·권익보호·정치조직, 자선·자원봉사, 국제활동, 종교, 직업단체와 노조, 기타 등 12개

49) 세계가치관조사의 Wave 6(2010~2014년) 한국 설문지 참조.

<http://www.worldvaluessurvey.org/WVSDocumentationWV6.jsp>에서 2017년 4월 12일 인출.

영역이 포함되었다. 세계가치관조사에 포함된 자원결사체는 종교나 교회단체, 스포츠·레크리에이션 단체, 예술·음악 혹은 교육문화적 활동, 노동단체, 정당, 환경보호단체, 전문가 협회, 인권 혹은 자선단체, 소비자 보호 단체, 자활모임·공제모임, 기타 단체 11개이다. 사회활동 참여 계기, 활동 목적, 활동 기간, 활동의 적극성, 활동 효과 등의 문항은 한도현 외(2007)가 조사한 「성남지역 시민의 사회참여 활동에 관한 조사연구」의 설문지에 포함된 문항을 참고하여, 수정 보완하였다.

그 외, 사회활동 관련 참여 목적, 활동 시기 및 기간, 단체 규모, 회원구성 및 성비, 월평균 활동비 규모, 활동 장소 및 장소 비용 부담 여부, 단체의 성격, 활동의 적극성 및 만족도, 활동과 진로와의 관련성 등 기타 문항들은 연구진들이 자체적으로 개발하였다.

또한 사회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청년들이 사회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이유, 향후 사회활동 참여 의향, 원하는 사회활동 유형, 사회활동 참여 시 가장 필요한 지원 등의 문항이 포함되었고, 연구진이 자체 개발하였다.

○ 사회활동 관련 인식 및 정책욕구

사회활동 관련 인식 문항들은 청년 사회활동 참여의 중요성 및 그 이유, 청년 커뮤니티 지원 사업에 대한 참여 의향 및 참여 의향의 이유, 청년기본조례 제정 인지 여부 및 청년시설 이용 의향 등을 살펴보기 위해 투입한 것으로 연구진이 자체 개발하였다. 또한 청년 사회활동 관련 정책욕구 문항에는 사회활동 지원의 필요성, 청년을 위한 공간(시설) 설치 운영 시 가장 필요한 공간, 청년 사회활동 활성화를 위해 가장 필요한 지원 등에 관한 문항이 포함되었으며, 연구진이 자체 개발하였다. 이들 문항의 분석 결과는 향후 보고서에 포함될 정책제언의 근거로 활용하고자 하였다.

○ 비인지적 역량

우선 심리·정서 문항들은 자아존중감(문항 27번 1~2번 문항), 자기효능감(3~5번 문항), 정서조절능력(6~7번 문항) 등으로 구성하였다. 이들 문항은 최인재·모상현·강지현(2011)의 연구에서 사용되었던 문항을 사용하였다. 다음으로 관계형성(문항 28번 1~6)과 협력(문항 29번 1~8) 문항들은 장근영 외(2016)가 수행한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 및 국제비교 연구 III: IEA ICCS 2016 총괄보고서」에서 사용한 설문문항(50)을 사용하여 투입하였다. 구체적으로, 관계형성은 의사소통(문항 28번 1~3번 문항), 공감 및 배려(4~6번 문항) 등으로, 협력은 집단추진(문항

50) 이 연구에서 관계형성과 협력 하위문항들은 5가지 청소년 하위역량 중 ‘대인관계역량’에 포함된 것들이다.

29번 1~3번 문항), 팔로워쉽(4~5번 문항), 갈등문제해결(6~8번 문항) 등으로 구성하였다.

마지막으로 개인시민성(문항 30번 1~8번 문항)은 김태준 외(2016)가 수행한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 및 국제비교 연구 III: IEA ICCS 2016-사회참여역량 측정 및 분석연구」에서 사회참여역량의 하위요인으로 사용된 문항들을 활용하였다. 구체적으로, 권리 책임의식(1~3번 문항), 민주적 절차의식(4~5번 문항), 정치적 자아효능감(6~8번 문항) 등으로 구성하였다.

○ 대인신뢰 및 공동체의식

대인신뢰(문항 31번)와 공동체의식(문항 32번)은 20대 청년들의 사회활동 경험과 청년들의 대인신뢰 수준 및 공동체의식 간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투입한 것으로, 한도현 외(2007)가 조사한 「성남지역 시민의 사회참여 활동에 관한 조사연구」의 설문지에 포함된 문항 및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17. 3.)의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4차년~7차년 조사에 포함된 공동체의식 문항 중 일부를 발췌하여 사용하였다.

지금까지 설명한 설문조사에 대한 개요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IV-4 설문조사 개요

주요 요소	내용	비고
모집단	• 전국의 20세~29세 청년	
표집틀	• 확률에 의한 표집	
표본수	• 1,200명	
표집방법	• 층화다단계 할당표집 - 대학진학(재학 및 졸업생) 및 비진학 집단 - 권역 (수도권/비수도권) - 성별 (남/여) - 연령(20~24세/25~29세)을 고려한 비례 할당 • 조사방법 : 온라인 자기기입식 조사(web-survey)	
조사시기	2017년 8월 1일~16일	
조사내용	• 사회활동 참여/비참여 실태 • 사회활동 관련 인식 및 정책욕구 • 비인지적 역량, 대인신뢰, 공동체 의식 • 인구학적 배경변인	

3) 자료 분석 방법

설문조사를 통해 수집된 데이터는 연구 목적에 따라 기본적인 실태파악 및 배경변인에 따른 비교를 위해 기술통계 분석, 교차분석(χ^2) 등을 통해 분석되었다. 또한 사회활동 경험이 20대 청년들의 비인지적 역량, 대인신뢰 및 공동체의식에 미치는 영향 등을 구명하기 위해 중다회귀분석 방법을 적용하였다.

4) 실태조사 응답자의 배경 특성

<표 IV-5>에는 20대 청년 사회활동 실태조사에 응한 응답자의 인구학적 배경 특성이 제시되어 있다.

표 IV-5 실태조사 응답자의 인구학적 배경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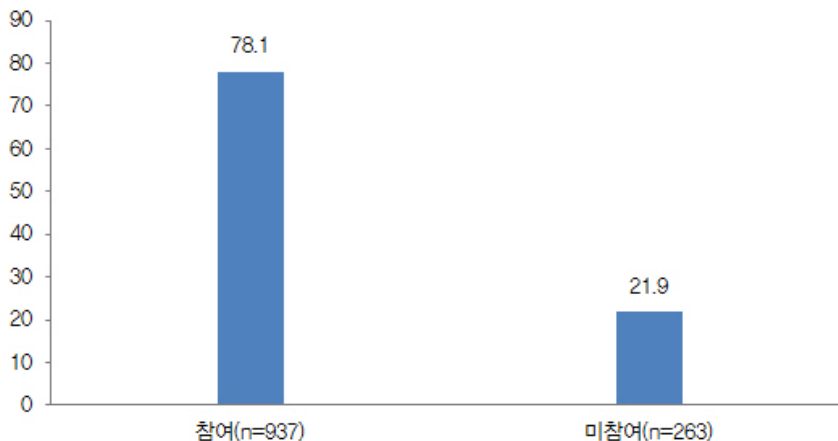
구분			사례수(명)	비율(%)
전체			1,200	100.0
성별	남자		628	52.3
	여자		572	47.7
권역	수도권		612	51.0
	비수도권		588	49.0
대학 진학 여부	대학 비진학		181	15.1
	대학 진학	재학, 휴학, 졸업유예	563	46.9
		졸업	456	38.0
연령 집단	20세~24세		641	53.4
	25세~29세		559	46.6
종사상 지위	비경제활동인구/구직자		316	26.3
	자영업/기타		84	7.0
	임시/일용직(파트타임 포함)		403	33.6
	상용직(정규직, 비정규직 포함)		397	33.1
부모소득	300만원 미만		340	28.3

구분		사례수(명)	비율(%)
	300~500만원 미만	377	31.4
	500~700만원 미만	216	18.0
	700만원 이상	138	11.5
	무응답	129	10.8

주: 비경제활동인구(육아/가사, 학교통학, 입시/직업훈련기관 통학, 취업준비, 진학준비, 심신장애, 그냥 쉬었음)

2. 사회활동 실태

여기에서는 사회활동 실태에 대한 분석결과를 참여/비참여로 구분하여 제시한다. 본격적인 분석에 앞서, 우선 온라인조사에 참여한 20대 청년 1,200명의 사회활동 참여, 비참여 실태와 이들이 현재 동시에 참여하고 있는 사회활동 유형 개수는 다음과 같다. [그림 IV-1]과 같이 사회활동 참여자 비율은 78.1%였으며, 비참여자는 21.9%로 나타났다. 또한 사회활동 참여자(n=937)를 대상으로, 이들이 현재 동시에 참여하고 있는 사회활동 참여 개수를 살펴본 결과 사회활동 참여 개수가 1개인 경우가 33.7%로 가장 많았고, 2개(29.8%), 3개(18.7%), 4개 이상은 17.8%로 파악되었다(<표 IV-6> 참조).



【그림 IV-1】 사회활동 참여 및 비참여 실태

표 IV-6 사회활동 참여 개수

(단위: 명 (%))

구분/내용	1개	2개	3개	4개	5개	6개 이상
전체(n=937)	316(33.7)	279(29.8)	175(18.7)	91(9.7)	41(4.4)	35(3.7)

1) 사회활동 참여 실태

(1) 사회활동 참여 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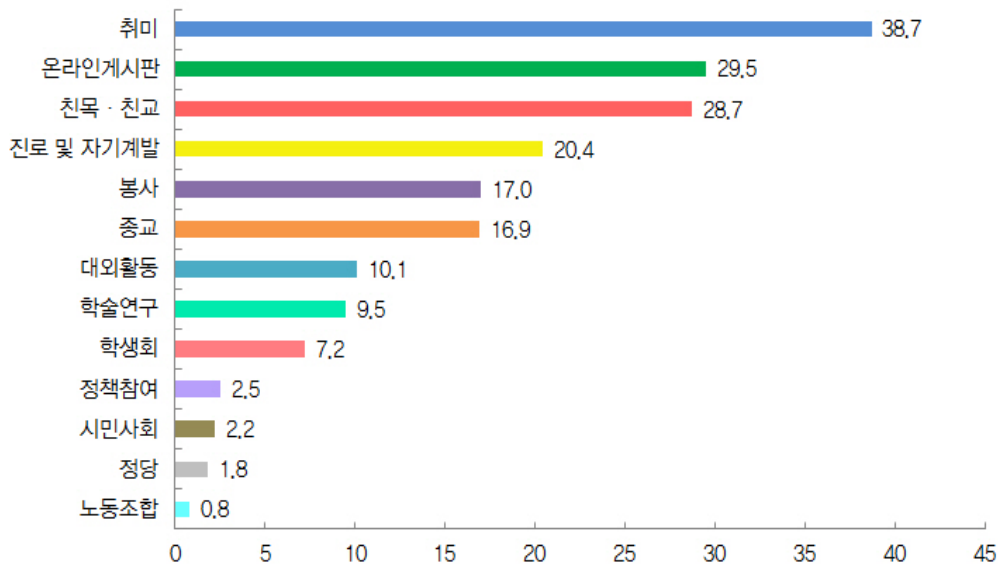
조사 시점 6개월 전부터 20대 청년들이 참여하고 있는 사회활동 참여 유형(중복응답)을 조사한 결과는 <표 IV-7>과 같다. ‘취미’ 관련 활동에 대한 응답 비율이 38.7%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온라인 게시판’ 활동이 29.5%, ‘친목·친교’ 활동이 28.7%, ‘진로 및 자기계발’ 활동이 20.4% 순서로 파악되었다. 아울러 전형적인 사회활동인 봉사활동(17.0)과 종교활동(16.9%)에 대한 참여 역시 비교적 높은 응답 비율을 보였다.

표 IV-7 사회활동 참여 유형(중복응답)

(단위: 명(%))

구분/내용		취미	친목 친교	종교	봉사	진로 및 자기 계발	학생회	학술 연구	대외 활동	시민 사회	온라인 게시판	정당	정책 참여	노동 조합
전체		464 (38.7)	345 (28.7)	203 (16.9)	204 (17.0)	245 (20.4)	87 (7.2)	114 (9.5)	121 (10.1)	26 (2.2)	354 (29.5)	22 (1.8)	30 (2.5)	9 (0.8)
성별	남자	249 (39.6)	170 (27.1)	107 (17)	117 (18.6)	135 (21.5)	50 (8.0)	74 (11.8)	72 (11.5)	18 (2.9)	179 (28.5)	14 (2.2)	17 (2.7)	9 (1.4)
	여자	215 (37.6)	175 (30.6)	96 (16.8)	87 (15.2)	110 (19.2)	37 (6.5)	40 (7.0)	49 (8.6)	8 (1.4)	175 (30.6)	8 (1.4)	13 (2.3)	0 (0.0)
연령	20~ 24세	252 (39.3)	168 (26.2)	110 (17.2)	136 (21.2)	140 (21.8)	63 (9.8)	70 (10.9)	81 (12.6)	18 (2.8)	182 (28.4)	10 (1.6)	17 (2.7)	3 (0.5)
	25~ 29세	212 (37.9)	177 (31.7)	93 (16.6)	68 (12.2)	105 (18.8)	24 (4.3)	44 (7.9)	40 (7.2)	8 (1.4)	12 (30.8)	12 (2.1)	13 (2.3)	6 (1.1)
대학 진학	비진학	66 (36.5)	40 (22.1)	29 (16.0)	20 (11.0)	16 (8.8)	0 (0.0)	2 (1.1)	3 (1.7)	3 (1.7)	59 (32.6)	3 (1.7)	3 (1.7)	1 (0.6)
	진학	398 (39.1)	305 (29.9)	174 (17.1)	184 (18.1)	229 (22.5)	87 (8.5)	112 (11.0)	118 (11.6)	23 (2.3)	295 (28.9)	19 (1.9)	27 (2.6)	8 (0.8)

기실 20대 뿐만 아니라 모든 연령집단에서 취미와 친목·친교 활동 참여는 일반적인 모습으로 볼 수 있는 반면, 20대의 특성이 반영된 결과는 진로와 자기계발 활동 및 온라인게시판 활동으로 볼 수 있다. 20대는 고등학교 또는 대학 졸업 후 취업 준비 활동을 활발하게 하는 시기이므로, 이들이 진로와 자기계발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은 상술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또한 온라인 게시판 활동이 비교적 높게 나타난 것은 이들이 경제적, 시간적으로 오프라인 활동에 참여할 여력이 있지 않다는 점, 그리고 뉴미디어에 익숙하여 이를 활용한 활동에 적극적인 점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그림 IV-2】 사회활동 참여 유형(중복응답)

(2) 주요 사회활동 참여 유형

20대 청년들이 참여하는 사회활동 유형 중, 가장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투여하는 주요 활동 유형을 조사한 결과, 앞서 제시한 중복응답 결과 순위와 동일했다. 그러나 유형별 응답 비율에서는 차이가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취미'(22.8%) 활동과 '온라인 게시판'(22.4%) 활동에 대한 응답 비율이 차이가 없을 정도로 거의 유사했다. 여기에서 주목할 점은 취미 활동의 비율은 크게 낮아진 반면, 온라인 게시판 활동 비율은 중복응답 비율과 비교할 때 감소하긴 했지만 감소폭이

크지 않다는 점이다. 이는 ‘온라인 게시판’ 활동이 20대 청년들의 주요 사회활동 중 하나임을 재차 확인할 수 있게 해준다. 또한 ‘친목·친교’(15.1%) 활동과 ‘진로 및 자기계발’(9.5%)의 참여 비율은 중복응답에서 나타난 비율과 비교할 때 그에 비해서는 낮았다.

한편, 20~24세는 취미와 온라인게시판 활동 비율이 21.0%로 동일한 반면, 25~29세는 해당 모임 활동이 24~25%로 참여 비율이 약간 더 높았다. 또한 대학진학 집단은 취미와 온라인게시판 활동이 21~22%로 비슷한 반면, 비진학 집단은 온라인게시판 활동이 30.5%로 가장 높게 나타나 차이가 뚜렷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IV-8 주요 사회활동 참여 유형

(단위: 명(%))

구분/내용	취미	친목 친교	종교	봉사	진로 및 자기 계발	학생회	학술 연구	대외 활동	시민 사회	온라인 게시판	정당	정책 참여	노동 조합	χ^2
전체(n=937)	214 (22.8)	141 (15.1)	111 (11.8)	44 (4.7)	89 (9.5)	27 (2.9)	47 (5.0)	35 (3.7)	8 (0.9)	210 (22.4)	3 (0.3)	6 (0.7)	2 (0.2)	-
성별	남자	117 (23.4)	73 (14.5)	54 (10.8)	27 (5.4)	44 (8.8)	18 (3.6)	30 (6.0)	18 (3.6)	5 (1.0)	106 (21.2)	3 (0.6)	4 (0.7)	12.774 (d.f.= 12)
	여자	97 (22.2)	68 (15.5)	57 (13.1)	17 (3.9)	45 (10.3)	9 (2.1)	17 (3.9)	17 (3.9)	3 (0.7)	104 (23.9)	0 (0.0)	2 (0.5)	
연령	20~ 24세	107 (21.0)	65 (12.8)	63 (12.4)	32 (6.3)	52 (10.2)	21 (4.1)	25 (4.9)	25 (4.9)	6 (1.2)	107 (21.0)	2 (0.4)	3 (0.6)	25.052* (d.f.= 12)
	25~ 29세	107 (25.0)	76 (17.9)	48 (11.2)	12 (2.8)	37 (8.6)	6 (1.4)	22 (5.1)	10 (2.3)	2 (0.5)	103 (24.1)	1 (0.2)	3 (0.7)	
대학 진학	비진학	35 (27.3)	22 (17.1)	18 (14.1)	5 (3.9)	7 (5.5)	0 (0.0)	1 (0.8)	0 (0.0)	1 (0.8)	39 (30.5)	0 (0.0)	0 (0.0)	26.268* (d.f.= 12)
	진학	179 (22.1)	119 (14.8)	93 (11.6)	39 (4.8)	82 (10.1)	27 (3.3)	46 (5.7)	35 (4.3)	7 (0.9)	171 (21.1)	3 (0.4)	6 (0.7)	

* $p < .05$

(3) 사회활동 참여 계기⁵¹⁾

20대 청년들이 사회활동에 참여하게 된 계기에 대한 조사결과는 <표 IV-9>에 제시되어 있다. 사회활동에 대해 ‘스스로 관심이 있어 정보를 검색 후 참여’하게 되었다는 응답이 72.0%로 압도적으로 높았고, ‘지인의 권유’가 17.0%로 파악되었다. 반면, ‘부모님 권유’가 5.9%, ‘해당 모임의 홍보물 등을 보고 관심을 생겨서’는 5.1%에 불과하였다.

51) 이후의 사회활동 참여 실태 결과는 ‘주요 사회활동 참여 유형’을 토대로 응답한 내용을 분석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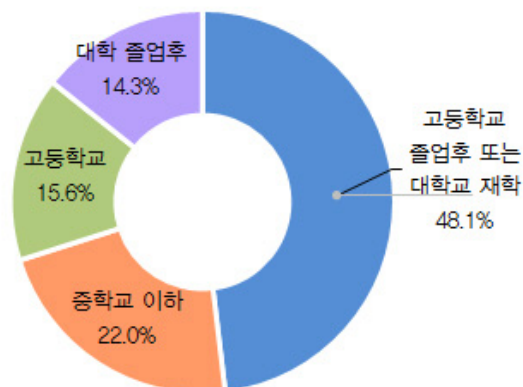
표 IV-9 사회활동 참여 계기

(단위: 명(%))

구분/내용		스스로 관심이 있어 정보검색	지인 권유	부모님 권유	해당모임 홍보물 관심	χ^2
전체(n=937)		675(72.0)	159(17.0)	55(5.9)	48(5.1)	—
성별	남자	369(73.7)	80(16.0)	24(4.8)	28(5.5)	3.619 (d.f=3)
	여자	306(70.2)	79(18.1)	31(7.1)	20(4.6)	
연령	20~24세	363(71.3)	83(16.3)	35(6.9)	28(5.5)	2.603 (d.f=3)
	25~29세	312(72.9)	76(17.7)	20(4.7)	20(4.7)	
대학 진학	비진학	92(71.9)	21(16.4)	11(8.6)	4(3.1)	3.057 (d.f=3)
	진학	583(72.1)	138(17.1)	44(5.4)	44(5.4)	

(4) 사회활동 시작 시기

[그림 IV-3]에는 청년들이 사회활동을 시작한 시기에 대한 조사결과가 제시되어 있다. 사회활동을 시작한 시기에 대한 응답은 '고등학교 졸업 또는 대학 재학'이 48.1%로 가장 높았으며, '고등학교 이하'(고등학교+중학교 이하)는 37.6%였으며, '대학 졸업 후'라고 응답한 비율은 14.3%였다. 조사대상 중 62.4%가 고등학교 졸업 이후 사회활동을 시작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림 IV-3】 사회활동 시작 시기

<표 IV-10>에는 사회활동 시작 시기를 집단별로 비교한 결과가 제시되어 있다. 성별, 연령, 대학진학 여부에 따라 사회활동을 시작하는 시기에 차이가 있었다. 구체적으로, 남자 집단에 비해 여자 집단이 중학교 이하 시기에 사회활동을 시작하는 비율이 높은 반면, 고등학교 졸업 또는 대학 재학 시기에 시작하는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았으며, 오히려 대학 졸업 이후 활동을 시작하는 비율이 약간 높게 나타났다. 연령집단의 경우, 20~24세 집단은 집단의 특성 상 고등학교 졸업 또는 대학 재학 시기가 50.3%로 가장 높은 반면, 25~29세 집단은 ‘고등학교 졸업 또는 대학 재학’(45.6%) 시기에 대한 응답 비율도 높지만, ‘대학 졸업 후’(24.1%)라는 응답 비율이 20~24세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다. 대학 비진학 집단은 ‘고등학교 이하’에 대한 응답 비율이 50%가 넘는 반면, 진학 집단의 경우, 대학 재학 및 졸업 후에 대한 응답 비율이 약 64%로 나타나 집단 간 차이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표 IV-10 사회활동 시작 시기

(단위: 명(%))

구분/내용		중학교 이하	고등학교	고등학교 졸업 또는 대학 재학	대학 졸업 후	χ^2
전체(n=937)		206(22.0)	146(15.6)	451(48.1)	134(14.3)	—
성별	남자	98(19.5)	89(17.8)	256(51.1)	58(11.6)	13.725** (d.f=3)
	여자	108(24.8)	57(13.1)	195(44.7)	76(17.4)	
연령	20~24세	125(24.5)	97(19.1)	256(50.3)	31(6.1)	65.604*** (d.f=3)
	25~29세	81(18.9)	49(11.4)	195(45.6)	103(24.1)	
대학 진학	비진학	37(28.9)	32(25.0)	59(46.1)	0(0.0)	33.000*** (d.f=3)
	진학	169(20.8)	114(14.1)	392(48.5)	134(16.6)	

** α .01, *** α .001

(5) 사회활동 참여 기간

<표 IV-11>에는 20대 청년들의 사회활동 참여 기간에 대한 조사결과가 제시되어 있다. 전체 집단의 경우, 2년 이상 참여하고 있는 응답 비율이 52.0%로 가장 높았으며, ‘6개월 이상~1년 미만’이 17.7%, ‘6개월 미만’이 15.5%, ‘1년 이상~2년 미만’이 14.8%로 유사하였다. 이를 토대로, 20대 청년들의 사회활동 참여 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가 절반 이상을 넘는 것으로 나타나,

이들의 사회활동 참여 기간이 비교적 장기간에 걸쳐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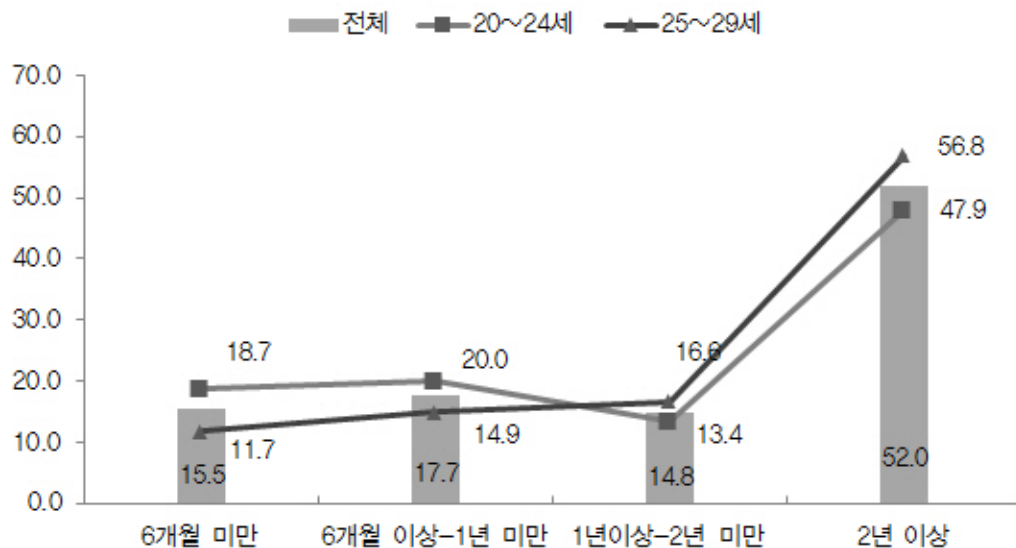
한편, 사회활동 참여 기간은 연령집단에 따라 차이가 있었는데, 20~24세, 25~29세 집단 모두 '2년 이상'에 대한 응답 비율이 가장 높지만, 25~29세 집단의 경우 '2년 이상'에 대한 응답 비율이 56.8%로 절반 이상인 반면, 6개월 미만(11.7%)과 6개월 이상~1년 미만(14.9%)에 대한 응답 비율이 낮았다. 반면, 20~24세 집단은 6개월 미만(18.7%)과 6개월 이상~1년 미만(20.0%)에 대한 응답 비율도 비교적 높게 나타나 차이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표 IV-11 사회활동 참여 기간

(단위: 명(%))

내용/구분		6개월 미만	6개월 이상-1년 미만	1년 이상-2년 미만	2년 이상	χ^2
전체(n=937)		145(15.5)	166(17.7)	139(14.8)	487(52.0)	—
연령	20~24세	95(18.7)	102(20.0)	68(13.4)	244(47.9)	15.847** (d.f=3)
	25~29세	50(11.7)	64(14.9)	71(16.6)	243(56.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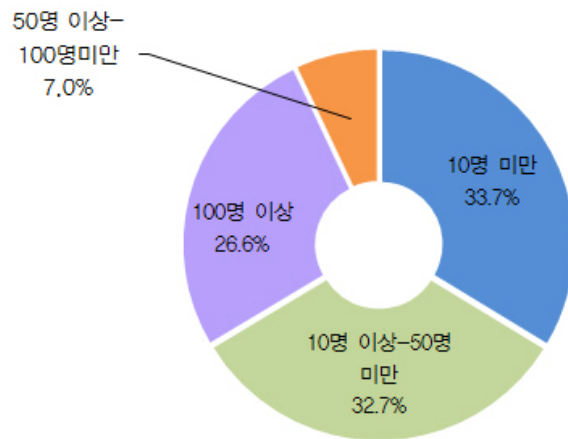
** α .01



【그림 IV-4】 사회활동 참여 기간

(6) 사회활동 모임 규모

사회활동 모임 규모에 대한 조사결과는 [그림 IV-5]와 같다. 청년들이 참여하고 있는 모임 규모는 10명 미만이 33.7%로 가장 높았으며, 10명 이상~50명 미만이 32.7%로 그 다음 순서로 나타났다. 약 65% 이상이 50명 미만 규모의 모임 또는 단체에서 사회활동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00명 이상인 경우는 26.6%로 나타났다. 추가 분석 결과 '100명 이상'에 응답한 사람들 (n=249) 중, 65.9%는 온라인게시판 활동 참여자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림 IV-5】 사회활동 모임 규모

<표 IV-12>에는 사회활동 모임 규모를 집단별로 비교한 결과가 제시되어 있다. 성별의 경우, 남자 집단의 경우 10명 이상~50명 미만의 모임 규모에 대한 응답이 37.9%로 가장 높은 반면, 여자 집단의 경우 10명 미만의 모임 규모에 대한 응답이 37.2%로 가장 높았고 100명 이상 모임에 참여하는 비율도 남자 집단에 비해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나 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 한편 비진학 집단의 경우, 100명 이상 모임 규모에 대한 참여가 35.9%로 가장 높은 반면, 진학 집단의 경우에는 10명 미만과 10명 이상~50명 미만이 약 33~34%로 유사하게 나타나 차이가 있었다.

표 IV-12 사회활동 모임 규모

(단위: 명(%))

구분/내용		10명 미만	10명 이상-50명 미만	50명 이상-100명 미만	100명 이상	χ^2
전체(n=937)		316(33.7)	306(32.7)	66(7.0)	249(26.6)	—
성별	남자	154(30.7)	190(37.9)	42(8.4)	115(23.0)	20.044*** (d.f=3)
	여자	162(37.2)	116(26.6)	24(5.5)	134(30.7)	
대학 진학	비진학	34(26.6)	37(28.9)	11(8.6)	46(35.9)	8.290* (d.f=3)
	진학	282(34.8)	269(33.3)	55(6.8)	203(25.1)	

* $p<.05$, *** $p<.001$

(7) 사회활동 모임 결성 방법

<표 IV-13>에 따르면, 사회활동 모임 결성 방법은 다른 개인(44.9%) 또는 다른 단체/집단(36.3%) 이 결성한 기성 모임에 청년들이 참여하는 경우가 약 80%로 압도적으로 높았으며, 본인이 직접 또는 다른 지인과 함께 활동 모임을 결성한 경우는 18.3%인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과 연령별로 사회활동 모임 결성 방법에 차이가 있었는데, 남자와 여자 집단 모두 다른 개인 또는 단체/집단이 결성한 모임에 참여하는 응답 비율이 높았으나, 남자 집단이 여자 집단에 비해 본인이 직접 또는 다른 지인과 함께 모임을 결성한 비율(20%)이 약간 더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는 연령집단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확인할 수 있었는데, 25~29세 집단(19.4%)이 20~24세 집단(17.3%)에 비해 직접 모임을 결성하는 비율이 높았다.

표 IV-13 사회활동 모임 결성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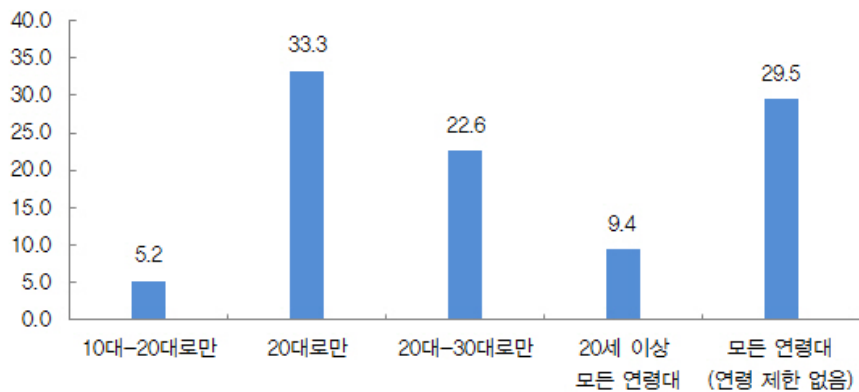
(단위: 명(%))

구분/내용		다른 개인	다른 단체/집단	내가 직접	다른 지인과 함께	모름	χ^2
전체(n=937)		421(44.9)	340(36.3)	23(2.5)	148(15.8)	5(0.5)	—
성별	남자	201(40.1)	197(39.3)	16(3.2)	84(16.8)	3(0.6)	11.404* (d.f=4)
	여자	220(50.5)	143(32.7)	7(1.6)	64(14.7)	2(0.5)	
연령	20~24세	207(40.7)	210(41.2)	13(2.6)	75(14.7)	4(0.8)	14.263** (d.f=4)
	25~29세	214(50.0)	130(30.4)	10(2.3)	73(17.1)	1(0.2)	

* $p<.05$, ** $p<.01$

(8) 단체(모임) 회원들의 연령대

[그림 IV-6]에는 단체(모임) 회원들의 연령대에 대한 조사결과가 제시되어 있다. 20대 회원들로만 구성된 경우 33.3%, 20~30대 회원들로만 구성된 경우는 22.6%로 절반 이상의 응답자들이 20~30대 청년 회원들로만 구성된 모임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 외, 모든 연령대로 구성된 경우는 29.5%로 비교적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그림 IV-6】 단체(모임) 회원들의 연령대

<표 IV-14>에는 단체(모임) 회원들의 연령대에 대한 집단별 비교결과가 제시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20~24세 집단은 20대 회원들로만 구성된 모임에 참여하는 비율이 가장 높은 반면, 25~29세 집단은 20~30대로만 구성된 모임과 모든 연령대로 구성된 모임에 참여하는 비율이 약 31%대로 유사한 것으로 나타나 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비진학 집단의 경우에는 모든 연령대의 회원들로 구성된 모임에 대한 응답 비율이 43.8%로 가장 높았으며, 진학 집단의 경우 20대 회원들로만 구성된 모임에 대한 응답 비율이 35.8%로 가장 높아 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

표 IV-14 단체(모임) 회원들의 연령대

(단위: 명(%))

구분/내용		10대-20대 로만	20대로만	20대-30대 로만	20세 이상 모든 연령	모든 연령대 (연령 제한없음)	χ^2
전체(n=937)		49(5.2)	312(33.3)	212(22.6)	88(9.4)	276(29.5)	—
연령	20~24세	38(7.5)	202(39.7)	80(15.7)	44(8.6)	145(28.5)	48.833*** (d.f=4)
	25~29세	11(2.6)	110(25.7)	132(30.8)	44(10.3)	131(30.6)	
대학 진학	비진학	8(6.2)	22(17.2)	31(24.2)	11(8.6)	56(43.8)	22.402*** (d.f=4)
	진학	41(5.1)	290(35.8)	181(22.4)	77(9.5)	220(27.2)	

*** $p<.001$

(9) 단체(모임) 회원들의 성비

단체(모임) 회원들의 성비에 대한 조사결과는 <표 IV-15>와 같다. 남녀 회원 비율이 유사하다는 응답이 37.9%로 남자 회원 다수(29.7%) 또는 여자 회원 다수(27.3%)인 경우도 응답 비율이 비교적 높았다. 회원 성비 구성의 차이는 성별과 대학 진학 여부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남자 집단의 경우에는 '남자 회원 다수'에 대한 응답 비율이 48.7%로 가장 높았으며, 여자 집단의 경우에도 '여자 회원 다수'에 대한 응답 결과가 49.5%로 가장 높았다. 비진학 집단의 경우에는 세 가지 보기 항목에 대한 응답 비율이 약 30%로 거의 유사하게 나타난 반면, 진학 집단의 경우에는 '남녀 회원 비율 유사'에 대한 응답 비율이 39.1%로 가장 높아서 차이가 있었다.

표 IV-15 단체(모임) 회원 성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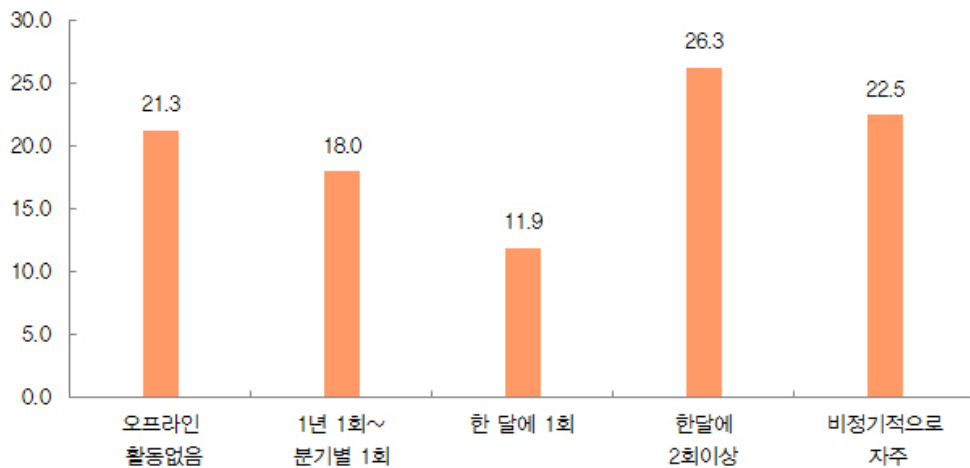
(단위: 명(%))

구분/내용		남자 회원 다수	여자 회원 다수	남녀 회원 비율 유사	잘 모름	χ^2
전체(n=937)		278(29.7)	256(27.3)	355(37.9)	48(5.1)	—
성별	남자	244(48.7)	40(8.0)	195(38.9)	22(4.4)	280.257*** (d.f=3)
	여자	34(7.8)	216(49.5)	160(36.7)	26(6.0)	
대학 진학	비진학	38(29.6)	39(30.5)	39(30.5)	12(9.4)	7.924* (d.f=3)
	진학	240(29.7)	217(26.8)	316(39.1)	36(4.4)	

* $p<.05$, *** $p<.001$

(10) 오프라인 활동 빈도

[그림 IV-7]에는 오프라인 활동 빈도에 대한 조사 결과가 제시되어 있다. 오프라인 활동은 ‘한 달에 2회 이상’에 대한 응답 비율이 26.3%로 가장 높았으며, ‘비정기적으로 자주’(22.5%), ‘오프라인 활동 없음’(21.3%)이 그 다음 순서로 높게 나타났다. 이를 통해, 조사 참여 청년들 중 약 50%는 한 달에 2회 이상 또는 더 많은 빈도로 사회활동을 위한 오프라인 모임에 참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오프라인 활동 없음’ 비율은 주로 온라인 게시판 활동 참여자들의 응답 결과로 볼 수 있다.



【그림 IV-7】 오프라인 활동 빈도

<표 IV-16>에는 오프라인 활동 빈도에 대한 집단별 차이 분석 결과가 제시되어 있다. 오프라인 활동 빈도는 성별, 연령에 따라 차이를 나타냈는데, 여자 집단이 남자 집단에 비해 ‘오프라인 활동 없음’에 대한 응답 비율이 높았고, 남자 집단이 여자 집단에 비해 ‘월 2회 이상’과 ‘비정기적으로 자주’에 대한 응답 비율이 더 높았다. 20~24세 집단은 25~29세 집단에 비해 ‘월 2회 이상’, ‘비정기적으로 자주’에 대한 응답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 연령별 오프라인 활동 빈도에 차이가 있었다.

표 IV-16 오프라인 활동 빈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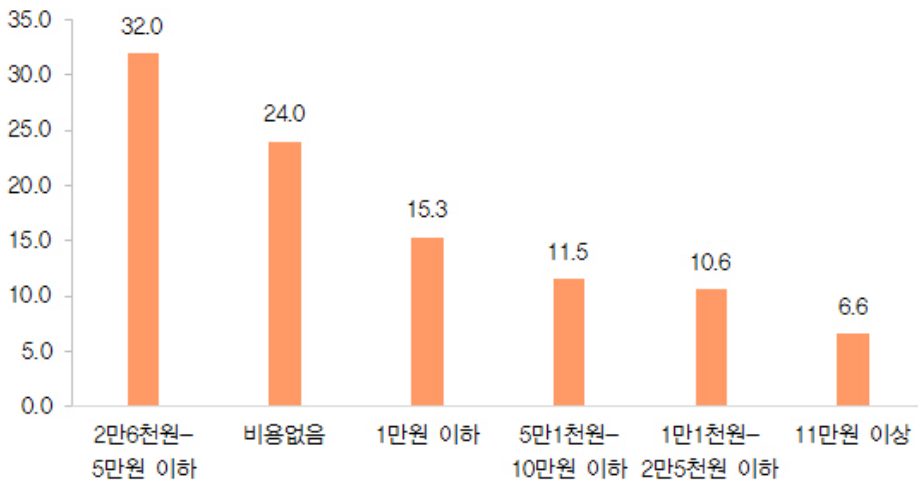
(단위: 명(%))

구분/내용		오프라인 활동 없음	1년 1회- 분기별1회	월 1회	월 2회 이상	비정기적으 로 자주	χ^2
전체(n=928)		198(21.3)	167(18.0)	110(11.9)	244(26.3)	209(22.5)	—
성별	남자	91(18.3)	85(17.1)	58(11.7)	149(30.0)	114(22.9)	10.712* (d.f=4)
	여자	107(24.9)	82(19.0)	52(12.1)	95(22.0)	95(22.0)	
연령	20~24세	110(21.9)	73(14.5)	57(11.3)	140(27.8)	123(24.5)	10.611* (d.f=4)
	25~29세	88(20.7)	94(22.1)	53(12.5)	104(24.5)	86(20.2)	

* α .05; 모음/무응답 응답결과 제외 후 분석

(11) 월평균 활동비

[그림 IV-8]에는 월평균 활동비에 대한 조사결과가 제시되어 있다. 분석 결과, 가장 많은 응답자들이 월평균 활동비로 '26,000원~50,000원'을 사용한다고 답했고(32.0%), '비용 없음'에 대한 응답이 24.0%로 그 뒤를 이었다. 그 외 '1만원 이하'는 15.3%, '51,000원~100,000원 이하'라는 응답은 11.5%인 것으로 나타났다. 요약하면, 청년들의 월평균 활동비는 25,000원 이하 25.9%, 26,000원~50,000원 32%, 51,000원 이상 18.1%, 비용 없음에 대한 응답 비율은 24%로 다양했다.



【그림 IV-8】 월평균 활동비

(12) 활동 장소 유무

<표 IV-17>에는 활동 장소 유무에 대한 조사결과가 제시되어 있다. 활동 장소가 있다(48.3%)는 응답보다 없다(51.7%)는 응답이 약간 더 높게 나타났다. 활동 장소 유무를 집단 별로 비교한 결과, 성별에 따른 차이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구체적으로, 남자 집단에 비해 여자 집단이 활동 장소가 없다는 응답이 훨씬 더 높아 여자 집단이 남자 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활동에 필요한 장소를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있음을 예상해 볼 수 있다.

표 IV-17 활동 장소 유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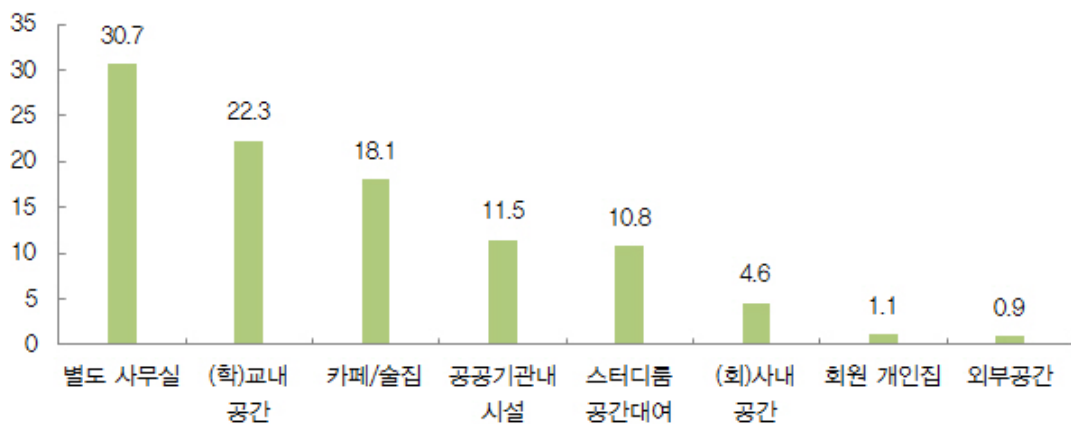
(단위: 명(%))

구분/내용		있다	없다	χ^2
전체(n=937)		453(48.3)	484(51.7)	—
성별	남자	276(55.1)	225(44.9)	19.609*** (d.f=1)
	여자	177(40.6)	259(59.4)	
연령	20~24세	253(49.7)	256(50.3)	.825 (d.f=1)
	25~29세	200(46.7)	228(53.3)	
대학진학	비진학	56(43.8)	72(56.2)	1.254 (d.f=1)
	진학	397(49.1)	412(50.9)	

*** $p<.001$

(13) 활동 장소 유형

[그림 IV-9]에는 활동 장소 유형에 대한 조사결과가 제시되어 있다. 앞서 별도의 사회활동 장소가 있다고 응답한 청년(n=453)들을 대상으로 활동 장소 유형을 조사한 결과, 활동 장소로 ‘별도 사무실’이 있는 경우가 30.7%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고, 교내 공간(22.3%), 카페/술집(18.1%), 공공기관 내 시설(11.5%), ‘스터디룸 공간 대여’(10.8)의 순서로 확인되었다.



【그림 IV-9】 활동 장소 유형

<표 IV-18>에는 활동 장소 유형을 집단별로 비교한 결과가 제시되어 있다. 활동 장소 유형은 연령과 대학 진학 여부에 따른 차이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구체적으로, 20~24세 집단 중에는 대학 재학자의 비율이 높을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는데 그 결과 교내 공간(30.4%)과 별도 사무실(30.0%)을 활동 장소로 이용한다는 응답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25~29세 집단의 경우, 별도 사무실(31.5%)과 카페/술집(22.5%), 스터디룸 공간대여(17.0%)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한편, 비진학 집단의 경우에는 별도 사무실(44.6%)과 카페/술집(32.2%) 이용 비율이 매우 높은 반면, 진학 집단은 별도 사무실(28.7%)과 교내 공간(24.9%) 이용 비율이 높아 차이가 있었다.

표 IV-18 활동 장소 유형

(단위: 명(%))

구분/내용		별도 사무실	카페/ 술집	공공기관 내 시설	스터디룸 공간대여	(학)교내 공간	(회)사내 공간	회원 개인집	외부공간	χ^2
전체(n=453)		139(30.7)	82(18.1)	52(11.5)	49(10.8)	101(22.3)	21(4.6)	5(1.1)	4(0.9)	—
연령	20~24세	76(30.0)	37(14.7)	29(11.5)	15(5.9)	77(30.4)	14(5.5)	4(1.6)	1(0.4)	37.311*** (d.f=7)
	25~29세	63(31.5)	45(22.5)	23(11.5)	34(17.0)	24(12.0)	7(3.5)	1(0.5)	3(1.5)	
대학 진학	비진학	25(44.6)	18(32.2)	5(8.9)	5(8.9)	2(3.6)	1(1.8)	0(0.0)	0(0.0)	24.027** (d.f=7)
	진학	114(28.7)	64(16.2)	47(11.8)	44(11.1)	99(24.9)	20(5.0)	5(1.3)	4(1.0)	

** α .01, *** α .001

(14) 활동장소이용 비용 부담 여부

<표 IV-19>에는 활동장소 이용 비용 부담 여부에 대한 조사결과가 제시되어 있다. 활동장소 이용에 대한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는 응답 비율이 52.1%, 비용을 부담하고 있지 않다는 비율이 47.9%로 나타나,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는 응답 비율이 약간 더 높게 나타났다. 활동장소이용 비용 부담 여부를 집단별로 비교 분석한 결과, 남자 집단(56.2%)이 여자 집단(45.8%)에 비해 비용 부담 응답 비율이 높았으며, 25~29세 집단(59.5%)이 20~24세 집단(46.2%)에 비해 비용 부담 응답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집단 간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표 IV-19 활동장소이용 비용 부담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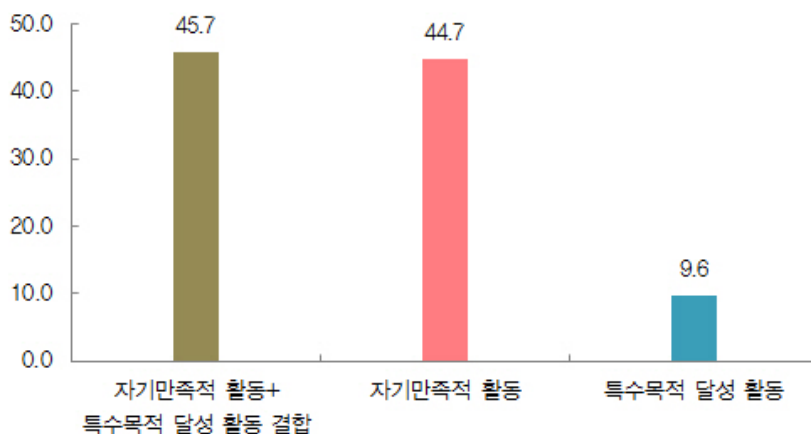
(단위: 명(%))

구분/내용		예	아니오	χ^2
전체(n=453)		236(52.1)	217(47.9)	—
성별	남자	155(56.2)	121(43.8)	4.671* (d.f=1)
	여자	81(45.8)	96(54.2)	
연령	20~24세	117(46.2)	136(53.8)	7.864** (d.f=1)
	25~29세	119(59.5)	81(40.5)	
대학 진학	비진학	34(60.7)	22(39.3)	1.901 (d.f=1)
	진학	202(50.9)	195(49.1)	

* α .05, ** α .01

(15) 사회활동의 성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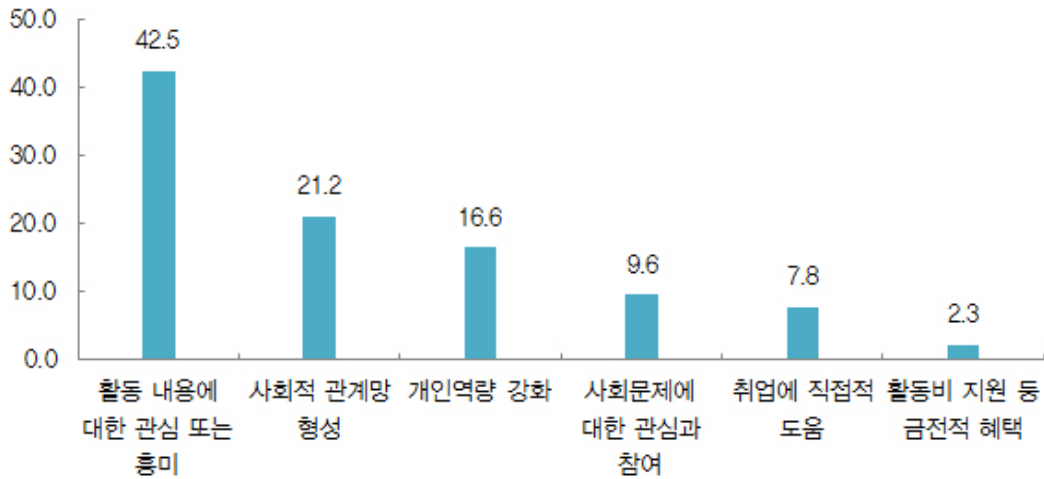
[그림 IV-10]에는 20대 청년들이 참여하고 있는 사회활동의 성격에 대한 조사결과가 제시되어 있다. '자기만족적 활동과 특수목적 달성 활동이 반반'이라는 응답이 45.7%로 가장 높았으며, '자기만족적 활동'이 44.7%로 그 뒤를 이었다. 반면 '특수목적 달성 활동'은 9.6%에 불과하였다. 이를 토대로, 20대 청년들의 사회활동은 '자기만족적 활동' 및 '자기만족적 활동과 특수목적 달성을 위한 활동이 결합된 활동'이 주를 이루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사회활동의 성격에 대한 집단 간 비교 분석을 실시한 결과, 집단 간 유의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IV-10】 사회활동 성격

(16) 사회활동을 하는 주된 목적(1순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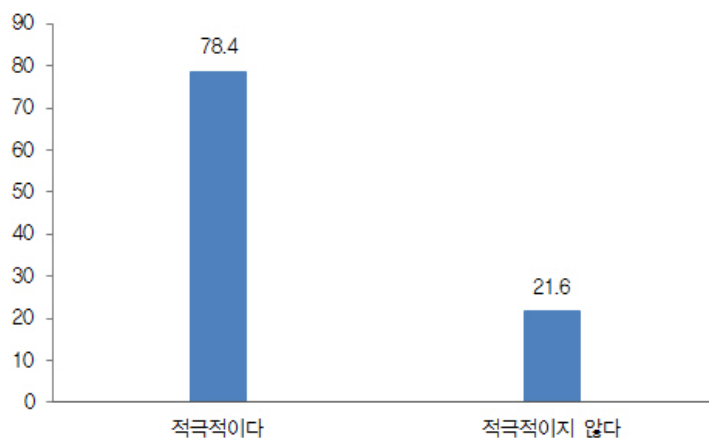
[그림 IV-11]에는 20대 청년들이 사회활동을 하는 주된 목적(1순위)에 대한 조사결과가 제시되어 있다. '활동 내용에 대한 관심 또는 흥미'라는 응답이 42.5%로 가장 높았으며, '사회적 관계망 형성'(21.2%), '개인역량 강화'(16.6%), '사회문제에 대한 관심과 참여'(9.6%)의 순서로 높게 나타났다. 이들은 주로 활동 자체에 대한 관심과 흥미 때문에 사회활동에 참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취업에 직접적 도움'은 7.8%, '활동비 지원 등 금전적 혜택'은 2.3%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림 IV-11】 사회활동을 하는 주된 목적(1순위)

(17) 사회활동 참여의 적극성

[그림 IV-12]에는 사회활동 참여의 적극성에 대한 조사결과가 제시되어 있다. 조사 응답자들의 대다수는 사회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78.4%)고 응답한 반면, 참여에 적극적이지 않은 비율도 21.6%로 낮지 않았다. 사회활동 참여의 적극성에 대한 집단 간 차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림 IV-12】 사회활동 참여의 적극성

(18) 사회활동에 대한 만족도

<표 IV-20>에는 사회활동에 대한 만족도 결과가 제시되어 있다. 사회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청년들의 사회활동에 대한 만족도 역시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만족한다(만족한다+매우 만족한다)는 응답이 92.9%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사회활동에 대한 만족도를 집단별로 비교한 결과, 성별에 따른 차이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구체적으로, 두 집단 모두 만족한다는 응답이 압도적으로 높지만, 여자 집단(5.0%)에 비해 남자 집단(8.7%)의 '만족하지 않는다'는 응답 비율이 다소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표 IV-20 사회활동에 대한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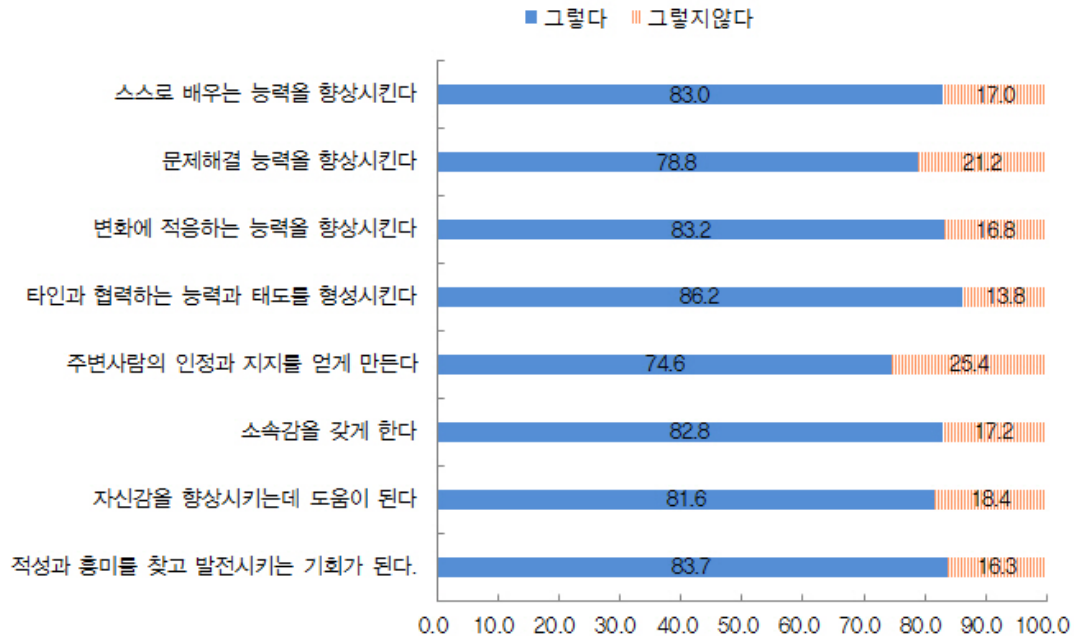
(단위: 명(%))

구분/내용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만족하지 않는다	만족한다	매우 만족한다	χ^2
전체(n=937)		8(0.9)	58(6.2)	704(75.1)	167(17.8)	—
성별	남자	7(1.4)	37(7.3)	361(72.1)	96(19.2)	8.649* (d.f=3)
	여자	1(0.2)	21(4.8)	343(78.7)	71(16.3)	

* $p < .05$

(19) 사회활동 참여의 효과에 대한 인식

[그림 IV-13]에는 사회활동 참여의 효과에 대한 인식 결과가 제시되어 있다. 8가지 참여 효과에 대해 '그렇다'는 응답 비율이 '그렇지 않다'는 응답 비율보다 높게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8가지 참여 효과 항목 중, '타인과 협력하는 능력과 태도를 향상시킨다'에 대한 긍정적인 응답이 86.2%로 가장 높았으며 '적성과 흥미를 찾고 발전시키는 기회가 된다'(83.7%), '변화에 적응하는 능력을 향상시킨다'(83.2%)에 대한 응답이 뒤를 이었다. 반면 '주변사람의 인정과 지지를 얻게 만든다'는 응답은 74.6%로 참여 효과 항목 중 긍정적인 응답 비율이 가장 낮았으며, '문제해결 능력을 향상시킨다'는 응답도 78.8%로 다른 항목에 비해 상대적으로 긍정적 응답 비율이 낮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를 통해, 청년들은 다른 사람과 협력하는 능력과 태도를 갖추게 되는 점을 사회활동 참여의 가장 긍정적 효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IV-13】 사회활동 참여의 효과에 대한 인식

<표 IV-21>에는 사회활동 참여 효과에 대한 인식을 집단별로 비교한 결과가 제시되어 있다. ‘사회활동은 스스로 배우는 능력을 향상시킨다’는 항목을 제외하고, 모든 참여 효과 항목에 대해 집단 간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사회활동은 적성과 흥미를 찾고 발전시키는 기회가 된다’에 대해 여자 집단(86.0%)이 남자 집단(81.7%)에 비해 긍정적인 응답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으며, 진학 집단(84.8%)이 비진학 집단(76.5%)에 비해 긍정적인 응답 비율이 더 높아 차이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다음으로, ‘사회활동이 자신감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 소속감을 갖게 한다, 주변 사람의 인정과 지지를 얻게 만든다, 타인과 협력하는 능력과 태도를 형성시킨다, 변화에 적응하는 능력을 향상시킨다’는 문항에 대해서는 성별 차이만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사회활동이 주변 사람의 인정과 지지를 얻게 만든다’는 문항을 제외한 나머지 항목에서 여자 집단이 남자 집단에 비해 긍정적 응답 비율이 더 높았다. ‘주변 사람의 인정과 지지를 얻게 만든다’는 참여 효과 항목에 대해서는 남자 집단(75.9%)이 여자 집단(73.2%)에 비해 긍정적 응답 비율이 약간 더 높게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사회활동은 문제해결 능력을 향상시킨다’에 대해서는 연령집단과 대학 진학 여부에 따른 차이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20~24세 집단의 긍정적 응답 비율 80%로 25~29세 집단의 긍정적 응답 비율 77.3%에 비해 높았다. 이는 20대 초반 집단이 후반 집단에 비해 사회활동을 통한 문제해결 능력 향상 효과를 더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또한 진학 집단(80.2%)이 비진학 집단(69.5%)에 비해 사회활동을 통한 문제해결 능력 향상에 대해 더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21 사회활동 참여의 효과에 대한 인식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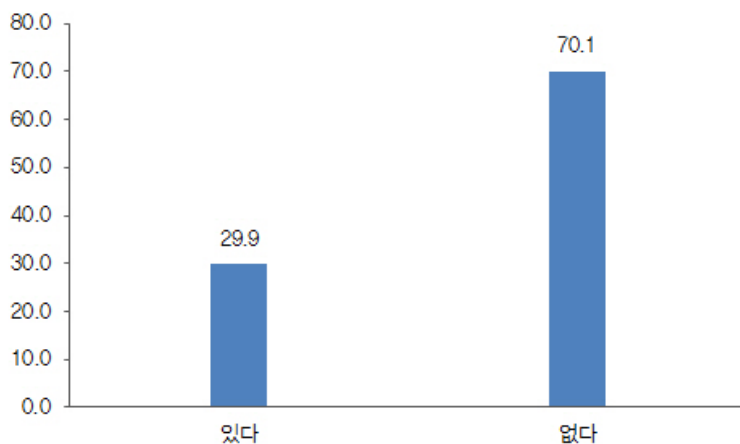
구분/내용		사회활동은 적성과 흥미를 찾고 발전시키는 기회가 된다				χ^2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성별	남자	20(4.0)	72(14.3)	306(61.1)	103(20.6)	11.545** (d.f=3)
	여자	4(0.9)	57(13.1)	297(68.1)	78(17.9)	
대학 진학	비진학	6(4.7)	24(18.8)	84(65.6)	14(10.9)	10.716* (d.f=3)
	진학	18(2.2)	105(13.0)	519(64.2)	167(20.6)	
구분/내용		사회활동은 자신감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				χ^2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성별	남자	18(3.6)	78(15.5)	302(60.3)	103(20.6)	10.795* (d.f=3)
	여자	3(0.7)	73(16.7)	283(64.9)	77(17.7)	
구분/내용		사회활동은 소속감을 갖게 한다				χ^2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성별	남자	28(5.6)	61(12.2)	271(54.1)	141(28.1)	19.666*** (d.f=3)
	여자	4(0.9)	69(15.8)	258(59.2)	105(24.1)	
구분/내용		사회활동은 주변 사람의 인정과 지지를 얻게 만든다				χ^2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성별	남자	27(5.4)	94(18.7)	290(57.9)	90(18.0)	11.592** (d.f=3)
	여자	12(2.8)	105(24.0)	264(60.6)	55(12.6)	
구분/내용		사회활동은 타인과 협력하는 능력과 태도를 형성시킨다				χ^2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성별	남자	19(3.8)	56(11.2)	291(58.1)	135(26.9)	15.178** (d.f=3)
	여자	3(0.7)	51(11.7)	289(66.3)	93(21.3)	

구분/내용		사회활동은 변화에 적응하는 능력을 향상시킨다				χ^2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성별	남자	19(3.8)	72(14.3)	315(62.9)	95(19.0)	8.763* (d.f=3)
	여자	5(1.1)	61(14.0)	300(68.8)	700(16.1)	
구분/내용		사회활동은 문제해결 능력을 향상시킨다				χ^2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연령	20~24세	12(2.4)	90(17.6)	321(63.1)	86(16.9)	8.142* (d.f=3)
	25~29세	10(2.3)	87(20.4)	286(66.8)	45(10.5)	
대학 진학	비진학	6(4.7)	33(25.8)	78(60.9)	11(8.6)	10.599* (d.f=3)
	진학	16(2.0)	144(17.8)	529(65.4)	120(14.8)	

* $p<.05$, ** $p<.01$, *** $p<.001$

(20) 사회활동과 향후 진로와의 관련성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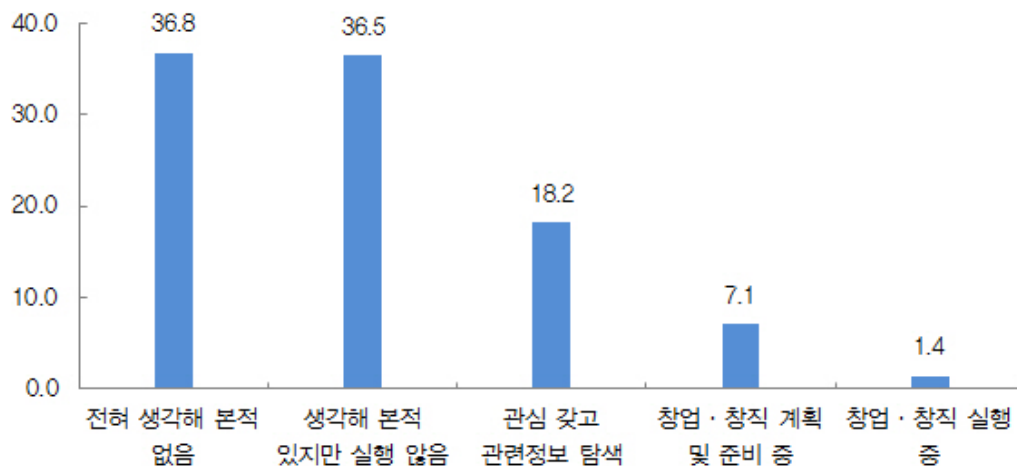
[그림 IV-14]에는 사회활동과 향후 진로와의 관련성 여부에 대한 조사결과가 제시되어 있다. 분석 결과, 사회활동이 향후 진로와 관련이 있다는 응답은 29.9%였으며, 없다는 응답은 70.1%로 나타나 사회활동과 진로와의 관련성은 낮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사회활동과 향후 진로와의 관련성에 대한 집단 간 차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림 IV-14】 사회활동과 향후 진로와의 관련성 여부

(21) 사회활동을 통한 창업·창직 고려 또는 실행

사회활동과 향후 진로와의 관련성이 있다고 응답한 청년들을 대상으로 사회활동을 통한 창업·창직을 고려 또는 실행한 적이 있는지에 대해 조사하였다. [그림 IV-15]에는 사회활동을 통한 창업·창직을 고려하거나 실행한 적이 있는가에 대한 조사결과가 제시되어 있다. ‘전혀 생각해 본적이 없다’는 응답이 36.8%였으며, ‘생각해 본 적은 있지만 실행하지 않았다’는 응답이 36.5%로 비슷한 비율을 보였다. 한편, ‘관심을 갖고 관련 정보를 탐색’(18.2%)하거나, ‘창업·창직을 계획 및 준비 중’(7.1%)이거나 ‘이미 창업·창직을 실행 중’(1.4%) 응답 비율은 낮아 사회활동을 통해 창업·창직을 실행 중인 비율은 낮은 수준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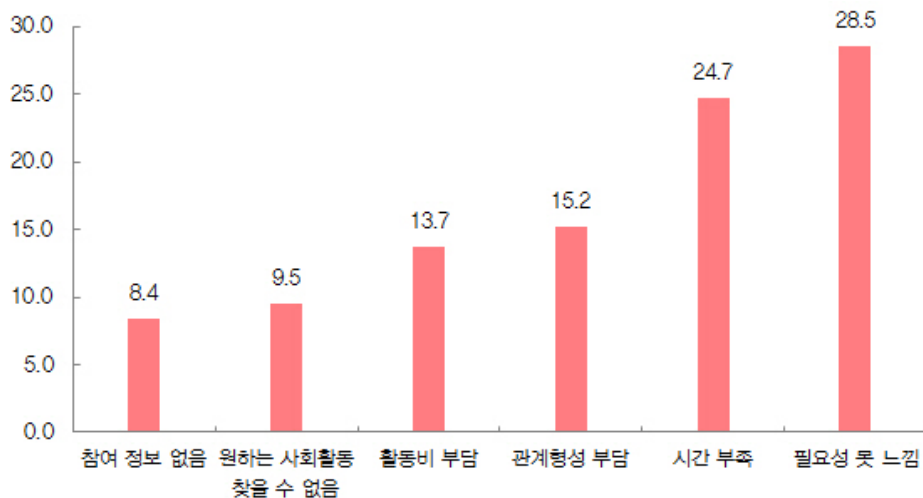
【그림 IV-15】 사회활동을 통한 창업·창직 고려 또는 실행

2) 사회활동 비참여 실태

여기에서는 실태조사 응답자 중, 사회활동에 참여하지 않은 263명을 대상으로 사회활동에 참여하지 않은 이유와 향후 참여 욕구에 대한 조사결과를 제시하였다.

(1) 비참여 이유

[그림 IV-16]에는 사회활동 비참여 이유에 대한 조사결과가 제시되어 있다. ‘사회활동의 필요성을 못 느껴서’라는 응답이 28.5%로 가장 높았으며, ‘시간이 부족’하다는 응답이 24.7%로 그 뒤를 이었다. 또한 ‘관계형성에 대한 부담’(15.2%)과 ‘활동비에 대한 부담’(13.7%)도 사회활동 비참여의 이유로 나타났다. ‘원하는 사회활동을 찾을 수 없다’(9.5%)거나 ‘사회활동 참여에 대한 정보를 찾을 수 없다’(8.4%)고 응답한 경우에는 사회활동에 대한 참여 의향을 가지고 있지만, 참여 정보와 방법을 알지 못해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여서, 향후 이들을 위한 참여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홍보를 강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시간 부족과 활동비에 대한 부담 때문에 사회활동에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가 약 38%로 나타난 점은 20대 청년들 중 적지 않은 수가 사회활동에 참여할 상황에 놓여 있지 못함을 의미한다. 한편, 사회활동 참여에 대한 필요성을 못 느낀다는 응답이 28.5%인 점과 관계형성에 대해 부담스럽게 인식하는 응답 비율이 15.2%로 나타난 점은 향후 이들이 사회활동을 통한 관계 형성 자체를 거부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에서 우려스러운 결과로 볼 수 있다.



【그림 IV-16】 사회활동 비참여 이유

<표 IV-22>에는 사회활동 비참여 이유를 집단별로 비교분석한 결과가 제시되어 있다. 배경변수 중, 종사상 지위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구체적으로, 사회활동 비참여 이유 중, ‘시간 부족’은 주 40시간 이상 일을 하는 상용직 집단(50.8%)에서 가장 높은 응답 비율을 보였으며, ‘활동비 부담’에 대한 응답은 비정규직/구직자 집단(38.9%)과 임시/일용직

(33.3%) 집단에서 높게 나타났다. 또한 ‘관계형성에 대한 부담’과 ‘필요성 못 느낌’에 대해서는 비경활/구직자 집단의 응답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는 향후 비경활/구직자 집단이 관계형성에 대한 부담 때문에 사회활동 자체에 참여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원하는 사회활동을 찾을 수 없다’는 응답 역시 비경활/구직자 집단에게서 가장 높았는데, 향후 이들이 원하는 사회활동이 무엇인지 조사하고, 그것을 토대로 맞춤형 활동 정보를 제공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참여 정보가 없음’에 대한 응답 비율은 상용직 집단에게서 가장 높게 나타나, 이들 집단을 위한 사회활동 참여정보에 대한 안내도 제공될 필요가 있다.

표 IV-22 사회활동 비참여 이유

(단위: 명(%))

구분/내용		시간 부족	활동비 부담	관계형성 부담	원하는 사회활동 찾을 수 없음	필요성 못 느낌	참여 정보 없음	χ^2
전체(n=263)		65(24.7)	36(13.7)	40(15.2)	25(9.5)	75(28.5)	22(8.4)	—
종사상 지위	비경활/구직자	14(21.5)	14(38.9)	20(50.0)	10(40.0)	35(46.7)	6(27.3)	26.114* (d.f=3)
	자영업/기타	1(1.5)	3(8.3)	0(0.0)	2(8.0)	3(4.0)	1(4.5)	
	임시/일용직	17(26.2)	12(33.3)	10(25.0)	7(28.0)	15(20.0)	6(27.3)	
	상용직	33(50.8)	7(19.5)	10(25.0)	6(24.0)	22(29.3)	9(40.9)	

* $p<.05$

(2) 사회활동 참여 의향

<표 IV-23>에는 향후 사회활동 참여 의향에 대한 조사결과가 제시되어 있다. 참여 의향이 있는 경우(의향 있음+매우 의향 있음)는 72.3%, 참여 의향이 없다(전혀 의향 없음 + 의향 없음)는 응답은 27.7%로 나타나 참여 의향이 있다는 비율이 더 높았다. 다만, 참여 의향이 없다는 응답도 27.7%로 비교적 높게 나타난 점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다. 사회활동 참여 의향을 집단 간 비교한 결과, 비진학 집단(77.3%)이 진학 집단(70.9%)에 비해 참여 의향이 있다는 응답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나, 현재 사회활동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비진학 집단을 대상으로 사회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정보나 방법을 제공하는 노력이 필요함을 확인할 수 있다.

표 IV-23 사회활동 참여 의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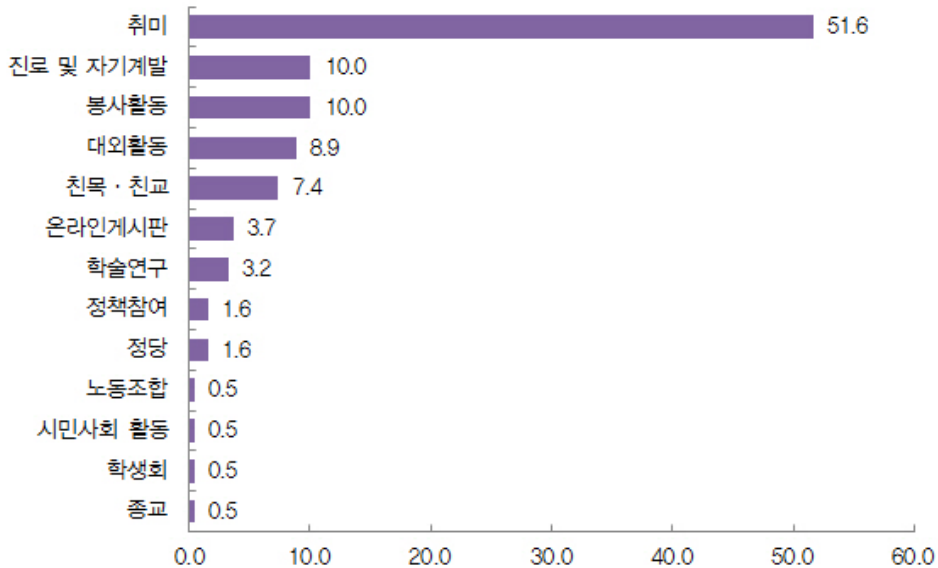
(단위: 명(%))

구분/내용		전혀 의향 없다	의향 없다	의향 있다	매우 의향 있다	χ^2
전체(n=263)		15(5.7)	58(22.0)	168(63.9)	22(8.4)	—
대학 진학	비진학	6(11.3)	6(11.4)	35(66.0)	6(11.3)	7.881* (d.f=3)
	진학	9(4.3)	52(24.8)	133(63.3)	16(7.6)	

* $p < .05$

(3) 참여하고 싶은 사회활동 유형 (1순위)

[그림 IV-17]에는 사회활동 비참여자 중 사회활동 참여 의향을 밝힌 190명을 대상으로 향후 참여하고 싶은 사회활동 유형(1순위)에 대한 조사결과가 제시되어 있다. 이들 중 절반 이상(51.6%)은 취미 관련 사회활동에 참여하고 싶다고 응답했으며, 진로 및 자기계발(10.0%), 봉사활동(10.0%), 대외활동(8.9%), 친목·친교(7.4%)이 그 뒤를 이었다. 현재 사회활동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지만 향후 사회활동 참여 의향을 밝힌 응답자들이 가장 활동하기를 원하는 분야로 취미를 꼽은 것은 20대 청년들이 여가생활의 일환으로 취미활동을 누리고 있지 못한 상황에 있음을 방증한다.



【그림 IV-17】 참여하고 싶은 사회활동 유형(1순위)

<표 IV-24>에는 참여하고 싶은 사회활동 유형을 집단 간 비교분석한 결과가 제시되어 있다. 성별 간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구체적으로 남자 집단(55.2%)과 여자 집단(48.5%) 모두 가장 참여하고 싶은 사회활동 유형으로 ‘취미’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으나 남자 집단이 여자 집단보다 응답 비율이 높았다. 또한 남자 집단의 경우 ‘봉사활동’(14.0%)이, 여자 집단의 경우 ‘대외활동’(15.2%)과 ‘진로 및 자기계발’(12.3%)이 그 다음 순서로 높게 나타나 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

표 IV-24 참여하고 싶은 사회활동 유형(1순위)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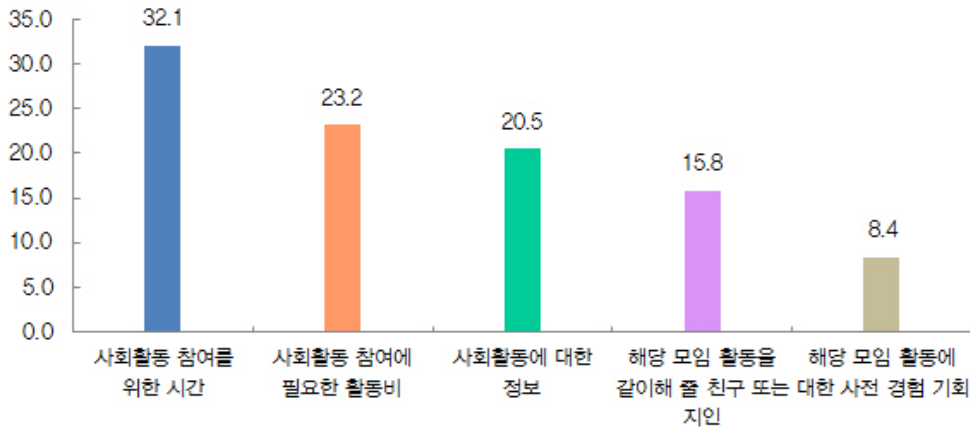
구분/내용		취미	친목 친교	종교	봉사 활동	진로 및 자기 계발	학생 회	학술 연구	대외 활동	시민 사회 활동	온라 인게 시판	정당	정책 참여	노동 조합	χ^2
성 별	남자	47 (55.2)	5 (5.9)	0 (0.0)	12 (14.0)	6 (7.1)	1 (1.2)	4 (4.7)	1 (1.2)	1 (1.2)	4 (4.7)	2 (2.4)	2 (2.4)	0 (0.0)	22.051 * (d.f=12)
	여자	51 (48.5)	9 (8.6)	1 (1.0)	7 (6.6)	13 (12.3)	0 (0.0)	2 (1.9)	16 (15.2)	0 (0.0)	3 (2.9)	1 (1.0)	1 (1.0)	1 (1.0)	
연 령	20~ 24세	45 (45.9)	7 (7.1)	1 (1.0)	8 (8.2)	8 (8.2)	1 (1.0)	2 (2.0)	13 (13.3)	1 (1.0)	5 (5.1)	3 (3.1)	3 (3.1)	1 (1.0)	18.146 (d.f=12)
	25~ 29세	53 (57.6)	7 (7.6)	0 (0.0)	11 (12.0)	11 (12.0)	0 (0.0)	4 (4.3)	4 (4.3)	0 (0.0)	2 (2.2)	0 (0.0)	0 (0.0)	0 (0.0)	
대 학 진 학	비진학	20 (48.8)	7 (17.1)	0 (0.0)	5 (12.3)	3 (7.3)	0 (0.0)	1 (2.4)	1 (2.4)	0 (0.0)	3 (7.3)	0 (0.0)	1 (2.4)	0 (0.0)	13.995 (d.f=12)
	진학	78 (52.3)	7 (4.7)	1 (0.7)	14 (9.4)	16 (10.7)	1 (0.7)	5 (3.4)	16 (10.7)	1 (0.7)	4 (2.7)	3 (2.0)	2 (1.3)	1 (0.7)	

* $p < .05$

(4) 사회활동 참여 시 가장 필요한 것

[그림 IV-18]에는 사회활동 비참여자를 대상으로, 사회활동 참여 시 가장 필요한 것에 대한 응답 결과가 제시되어 있다. 이들이 사회활동 참여를 위해 가장 필요하다고 인식한 것은 ‘사회활동 참여를 위한 시간’이 32.1%로 가장 높았으며, ‘사회활동 참여에 필요한 활동비’가 23.2%로 그 뒤를 이었다. 사회활동 참여를 위해 가장 필요한 1, 2순위가 시간과 활동비인 점은 이들이

현재 사회활동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 데에는 시간적 여유와 활동비에 대한 부담이 주된 원인이 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그 외 ‘사회활동에 대한 정보’(20.5%)와 ‘해당 모임 활동을 같이해 줄 친구 또는 지인’(15.8)에 대한 응답 비율도 비교적 높게 나타나, 향후 비참여자를 위한 사회활동 지원 시 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그림 IV-18】 사회활동 참여 시 가장 필요한 것

3. 사회활동 관련 인식 및 사회활동 활성화를 위한 정책욕구

여기에서는 실태조사에 참여한 20대 청년을 대상으로, 청년 사회활동에 대한 인식과 사회활동 활성화를 위한 정책욕구에 대한 조사결과를 제시하였다.

1) 청년들의 사회활동 참여 필요성

<표 IV-25>에는 청년들의 사회활동 참여 필요성에 대한 동의 정도에 대한 조사결과를 제시하였다. 응답자의 85.9%가 청년들의 사회활동 참여가 필요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청년들의 사회활동 참여 필요성에 대한 인식 차이는 대학 진학 여부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구체적으로 비진학 집단(82.3%)보다 진학 집단(86.5%)의 동의 수준이 약간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25 청년들의 사회활동 참여 필요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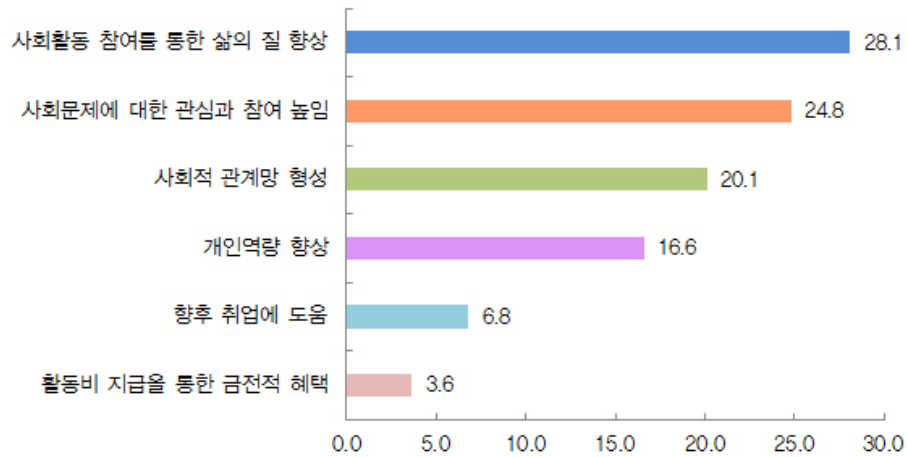
(단위: 명(%))

구분/내용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동의하지 않는다	동의한다	매우 동의한다	χ^2
전체(n=1,200)		33(2.8)	137(11.3)	788(65.7)	242(20.2)	—
성별	남자	18(2.9)	67(10.6)	398(63.4)	145(23.1)	7.343 (d.f=3)
	여자	15(2.6)	70(12.2)	390(68.2)	97(17.0)	
대학진학	비진학	9(5.0)	23(12.7)	124(68.5)	25(13.8)	8.669* (d.f=3)
	진학	24(2.4)	114(11.1)	664(65.2)	217(21.3)	
권역	수도권	18(2.9)	81(13.3)	390(63.7)	123(20.1)	4.504 (d.f=3)
	비수도권	15(2.6)	56(9.5)	398(67.7)	119(20.2)	

* $p < .05$

2) 청년들의 사회활동 참여가 필요한 이유(1순위)

[그림 IV-19]에는 청년들의 사회활동 참여 필요성에 대해 동의한 청년들(n=1,030)을 대상으로 청년들의 사회활동 참여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 조사한 결과가 제시되어 있다. 청년들의 사회활동 참여가 필요한 이유로 '사회활동 참여를 통한 삶의 질 향상'이라는 응답이 28.1%로 가장 높았으며, '사회문제에 대한 관심과 참여 높임'(24.8%)과 '사회적 관계망 형성'(20.1%)이 그 뒤를 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20대 청년들이 사회활동 참여를 통해 삶의 질 향상, 사회문제에 대한 관심과 참여, 사회적 관계망 형성 등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이는 향후 청년들을 위한 사회활동 지원의 근거로서의 의미도 지니고 있다. 즉, 청년들의 사회활동은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활동이자, 사회문제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높일 수 있는 시민으로서 누려야 할 권리이며, 사회적 관계망을 형성하고 그를 통해 사회적 지지를 얻을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림 IV-19】 청년들의 사회활동 참여가 필요한 이유(1순위)

<표 IV-26>에는 청년들의 사회활동 참여가 필요한 이유에 대한 집단 간 비교결과가 제시되어 있다. 대학진학 여부에 따른 차이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는데, 구체적으로 비진학 집단과 진학 집단 모두 사회활동 참여의 이유로 ‘삶의 질 향상’에 대한 응답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비진학 집단의 경우, ‘사회적 관계망 형성’(23.5%)에, 진학 집단의 경우 ‘사회문제에 대한 관심과 참여 높임’(25.4%)에 대한 응답 비율이 그 다음 순서로 높게 나타나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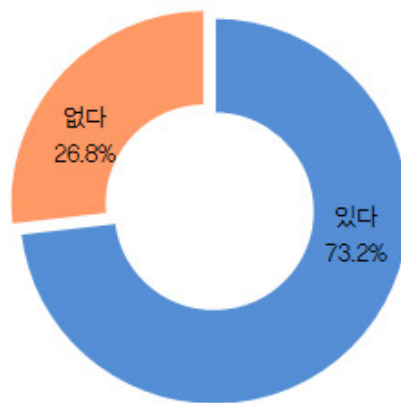
표 IV-26 청년들의 사회활동 참여가 필요한 이유(1순위) (단위: 명(%))

구분/내용		삶의 질 향상	사회적 관계망 형성	활동비, 금전적 혜택	향후 취업 도움	개인 역량 향상	사회문제 관심과 참여 높임	χ^2
전체(n=1,030)		289(28.1)	208(20.1)	37(3.6)	70(6.8)	171(16.6)	255(24.8)	—
성별	남자	146(26.9)	120(22.0)	21(3.9)	40(7.4)	81(14.9)	135(24.9)	5.386 (d.f=5)
	여자	143(29.4)	88(18.0)	16(3.3)	30(6.2)	90(18.5)	120(24.6)	
대학진학	비진학	38(25.5)	35(23.5)	12(8.1)	7(4.7)	26(17.4)	31(20.8)	13.297* (d.f=5)
	진학	251(28.5)	173(19.6)	25(2.8)	63(7.2)	145(16.5)	224(25.4)	
권역	수도권	136(26.5)	106(20.8)	19(3.7)	33(6.4)	90(17.5)	129(25.1)	1.826 (d.f=5)
	비수도권	153(29.6)	102(19.6)	18(3.5)	37(7.2)	81(15.7)	126(24.4)	

* $p < .05$

3) 청년 커뮤니티 지원 사업 참여 의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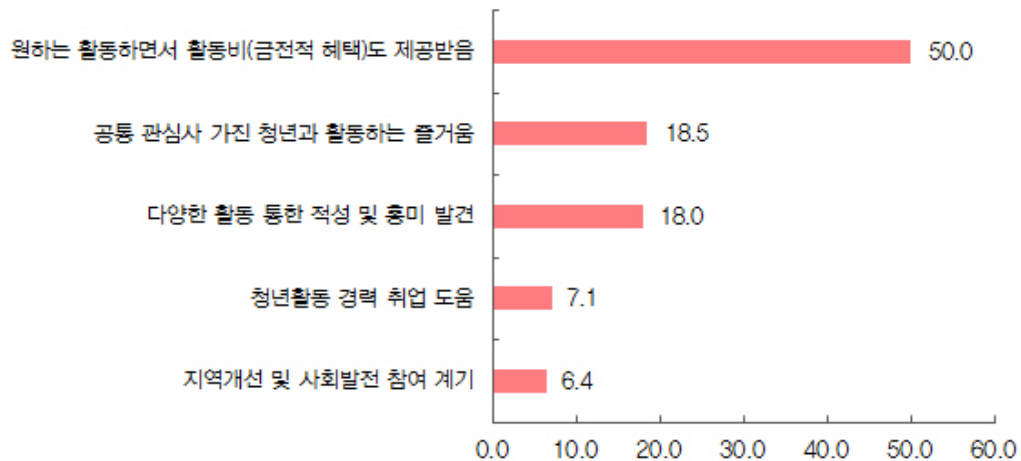
[그림 IV-20]은 청년 커뮤니티 지원 사업 참여 의향에 대한 조사결과를 보여준다. 응답자의 73.2%는 그들이 거주하는 지자체에서 청년 커뮤니티 지원 사업을 운영할 경우 참여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했다. 반면, 참여 의향이 없다는 응답 비율도 26.8%로 나타나 청년 커뮤니티 지원 사업에 관심이 없는 응답자도 상당수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림 IV-20】 청년 커뮤니티 지원 사업 참여 의향

4) 청년 커뮤니티 지원 사업에 참여하고 싶은 주된 이유

[그림 IV-21]은 청년 커뮤니티 지원 사업에 참여 의향을 보인 878명을 대상으로, 청년 커뮤니티 지원 사업에 참여하고 싶은 주된 이유에 대한 조사결과를 보여준다. 청년 커뮤니티 지원사업에 참여하고 싶은 주된 이유에는 '원하는 활동을 하면서 활동비(금전적 혜택)도 제공받음'이 50.0%로 가장 응답 비율이 높았으며, '공통의 관심사를 가진 청년과 활동하는 즐거움'(18.5%)과 '다양한 청년활동을 통한 적성과 흥미 발견'(18.0)이 그 뒤를 이었다. 이를 통해, 청년들이 지자체의 청년 커뮤니티 지원 사업에 참여하고 싶은 주된 이유는 그들이 좋아하는 활동을 하면서도 활동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는 점이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IV-21】 청년 커뮤니티 지원 사업에 참여하고 싶은 주된 이유

<표 IV-27>에는 청년 커뮤니티 지원 사업에 참여하고 싶은 주된 이유를 집단 별로 비교 분석한 결과가 제시되어 있다. 성별과 권역에 따라 청년 커뮤니티 지원 사업에 참여하고 싶은 주된 이유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남자 집단의 경우, ‘원하는 활동을 하면서도 활동비도 제공받음’에 대한 응답 비율이 48.8%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 이유로 ‘공동 관심사를 가진 청년과 활동하는 즐거움’(20.0%)을 꼽은 반면, 여자 집단의 경우, 절반 이상이 ‘원하는 활동을 하면서도 활동비도 제공받음’(51.6%)에 응답하였고, ‘다양한 활동을 통한 적성 및 흥미 발견’(20.8%)이 그 뒤를 이어 인식의 차이를 보였다.

한편, 수도권 거주 청년들은 ‘원하는 활동을 하면서도 활동비도 제공받음’에 대한 응답 비율이 53.3%로 가장 높았고, ‘공동 관심사를 가진 청년과 활동하는 즐거움’(20.2%)이 그 뒤를 이은 반면, 비수도권 거주 청년들은 ‘원하는 활동을 하면서도 활동비도 제공받음’에 대한 응답 비율이 47.0%로 높긴 하지만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반면, ‘다양한 활동을 통한 적성 및 흥미 발견’(20.8%)에 대한 응답 비율이 그 뒤를 이어 차이가 있었다.

표 IV-27 청년 커뮤니티 지원 사업에 참여하고 싶은 주된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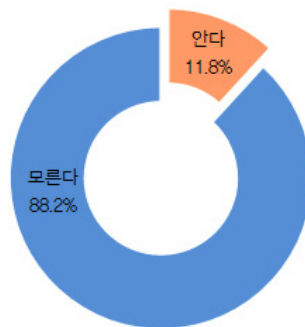
(단위: 명(%))

구분/내용		지역개선 및 사회발전 참여 계기	원하는 활동하면서 활동비 제공받음	공통 관심사 가진 청년과 활동하는 즐거움	활동 통한 적성 및 흥미 발견	활동 경력 취업 도움	χ^2
성별	남자	29(6.2)	229(48.8)	94(20.0)	73(15.6)	44(9.4)	12.755* (d.f=4)
	여자	27(6.6)	211(51.6)	68(16.6)	85(20.8)	18(4.4)	
대학진학	비진학	6(4.6)	61(46.9)	22(16.9)	33(25.4)	8(6.2)	6.054 (d.f=4)
	진학	50(6.7)	379(50.7)	140(18.7)	125(16.7)	54(7.2)	
권역	수도권	27(6.1)	235(53.3)	89(20.2)	67(15.2)	23(5.2)	11.454* (d.f=4)
	비수도권	29(6.6)	205(47.0)	73(16.7)	91(20.8)	39(8.9)	

* $p < .05$

5) 청년기본조례 제정 인지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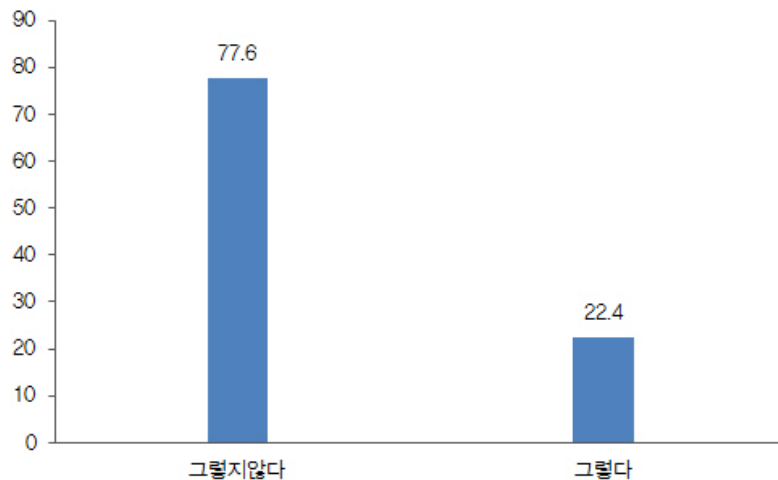
[그림 IV-22]는 청년기본조례 제정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조사결과를 보여준다. 이 문항은 응답자들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서의 청년기본조례 제정 여부를 조사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최근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청년기본조례가 제정되고 있는 전반적 상황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지를 조사하기 위한 목적에서 문항으로 포함되었다. 분석 결과, 응답자의 88.2%는 청년기본조례 제정 여부에 대해 알고 있지 못했으며, '안다'고 응답 비율은 11.8%에 불과해, 청년기본조례 제정에 대해 인지하지 못하는 청년들이 대다수임을 알 수 있다.



【그림 IV-22】청년기본조례 제정 인지 여부

6) 지자체의 청년 사회활동 지원에 대한 인식

[그림 IV-23]에는 지자체의 청년 사회활동 지원에 대한 청년들의 인식 결과가 제시되어 있다. 청년 사회활동에 대한 지자체의 지원이 충분한가에 대해 ‘그렇지 않다’는 부정적 응답 비율이 77.6%로 높게 나타났으며, ‘그렇다’는 긍정적 응답 비율은 22.4%로 파악되었다.



【그림 IV-23】 ‘청년 사회활동에 대한 지자체의 지원이 충분함’에 대한 동의 정도

<표 IV-28>에는 지자체의 청년 사회활동 지원에 대한 인식을 집단 간 비교분석한 결과가 제시되어 있다. 성별과 권역에 따른 차이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는데, 우선 여자 집단은 남자 집단에 비해 지자체의 청년 사회활동 지원이 충분하지 않다는 부정적 응답 비율(여자: 81.3%, 남자: 74.3%)이 더 높았다. 또한 수도권에 비해 비수도권 청년들이 지자체의 청년 사회활동 지원이 충분하지 않다는 부정적 응답 비율(비수도권: 81.1%, 수도권: 74.4%)이 더 높아서 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 실제로 수도권에 비해 비수도권의 청년 활동 지원 사업의 수나 종류는 다양하지 않다. 특히 이러한 결과는 비수도권의 경우 몇 개 광역시를 제외하면 현재 청년 활동에 대한 지원 사업이 거의 운영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표 IV-28 지자체의 청년 사회활동 지원에 대한 인식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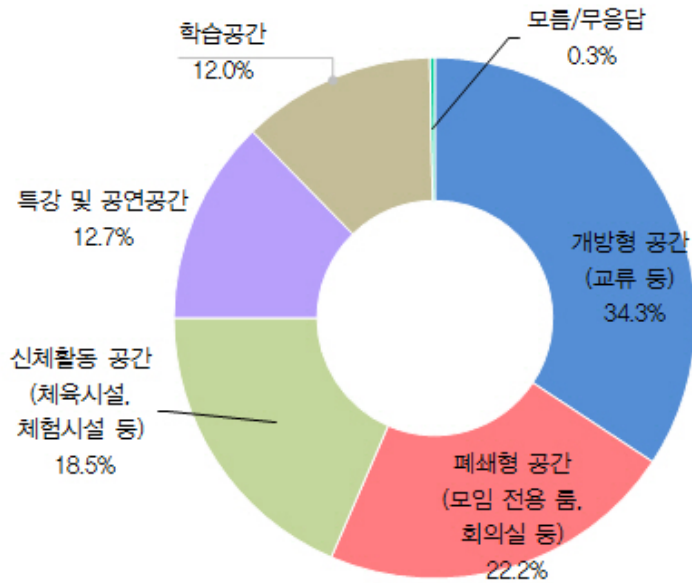
구분/내용		내가 살고 있는 지자체는 청년 사회활동을 위한 지원을 충분히 하고 있다				χ^2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n=1,200)		158(13.2)	774(64.4)	259(21.6)	9(0.8)	—
성별	남자	92(14.6)	375(59.7)	155(24.7)	6(1.0)	13.481** (d.f=3)
	여자	66(11.5)	399(69.8)	104(18.2)	3(0.5)	
권역	수도권	67(10.9)	388(63.5)	152(24.8)	5(0.8)	11.105* (d.f=3)
	비수도권	91(15.5)	386(65.6)	107(18.2)	4(0.7)	

* $\alpha < .05$, ** $\alpha < .01$

7) 청년을 위한 별도 공간(시설) 설치·운영 시 가장 필요한 공간

[그림 IV-24]에는 청년을 위한 별도 공간(시설)을 설치 운영할 때 가장 필요한 공간에 대한 조사결과가 제시되어 있다. ‘개방형 공간’이 가장 필요하다는 응답이 34.3%로 가장 높았으며, 모임 전용 룸이나 회의실 등 ‘폐쇄형 공간’이 22.2%, ‘신체활동 공간’이 18.5%로 그 뒤를 이었다. 이를 통해, 청년들은 자유롭게 교류하고 작업할 수 있는 개방형 공간을 가장 필요로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IV-29>에는 청년을 위한 별도 공간(시설) 설치·운영 시 가장 필요한 공간을 집단별로 비교 분석한 결과가 제시되어 있다. 분석 결과, 대학 진학 여부에 따른 차이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구체적으로, 비진학 집단은 ‘개방형 공간’(33.7%)과 ‘신체활동 공간’(23.8%)에 대한 요구가 큰 반면, 진학 집단은 ‘개방형 공간’(34.3%)과 ‘폐쇄형 공간’(22.8%)에 대한 요구가 높아 차이가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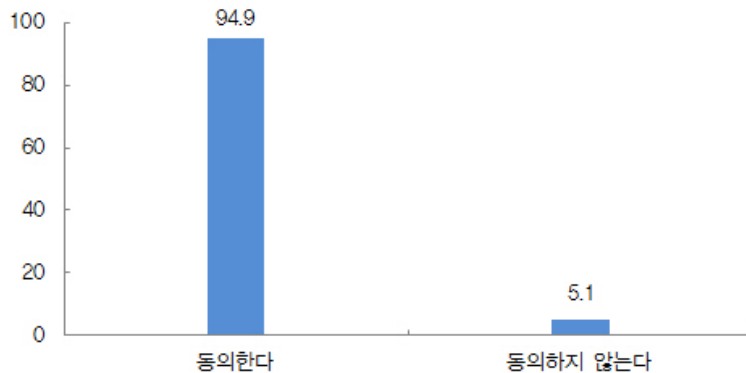
【그림 IV-24】 청년을 위한 별도 공간(시설) 설치·운영 시 가장 필요한 공간

표 IV-29 청년을 위한 별도 공간(시설) 설치·운영 시 가장 필요한 공간 (단위: 명(%))

구분/내용		학습 공간	폐쇄형 (회의실)	개방형	특강 및 공연	신체활동 (체육시설)	모름/ 무응답	χ^2
전체(n=1,200)		144(12.0)	268(22.2)	411(34.3)	152(12.7)	222(18.5)	3(0.3)	—
성별	남자	75(11.9)	150(23.9)	223(35.5)	70(11.1)	109(17.4)	1(0.2)	5.804 (d.f=5)
	여자	69(12.1)	118(20.6)	188(32.9)	82(14.3)	113(19.8)	2(0.3)	
대학진학	비진학	12(6.6)	35(19.3)	61(33.7)	29(16.0)	43(23.8)	1(0.6)	11.857* (d.f=5)
	진학	132(13.0)	233(22.8)	350(34.3)	123(12.1)	179(17.6)	2(0.2)	
권역	수도권	68(11.1)	149(24.4)	198(32.4)	73(11.9)	122(19.9)	2(0.3)	6.623 (d.f=5)
	비수도권	76(12.9)	119(20.3)	213(36.2)	79(13.4)	100(17.0)	1(0.2)	

8) 중앙정부 및 지자체의 청년 사회활동 지원 필요성에 대한 동의

[그림 IV-25]는 중앙정부 및 지자체의 청년 사회활동 지원 필요성에 대한 동의 정도의 응답 결과를 보여준다. 응답자의 94.9%가 청년 사회활동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데 동의하였으며, 동의하지 않는 비율은 5.1%에 불과하였다.



【그림 IV-25】 중앙정부 및 지자체의 청년 사회활동 지원 필요성에 대한 동의

<표 IV-30>에는 중앙정부 및 지자체의 청년 사회활동 지원 필요성에 대한 동의 수준을 집단별로 비교분석한 결과가 제시되어 있다. 지원 필요성에 대한 동의 수준에서 성별 차이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구체적으로, 남자 집단(93.5%)에 비해 여자 집단(96.5%)이 중앙정부 및 지자체의 청년 사회활동 지원이 필요하다는 데 대한 동의 수준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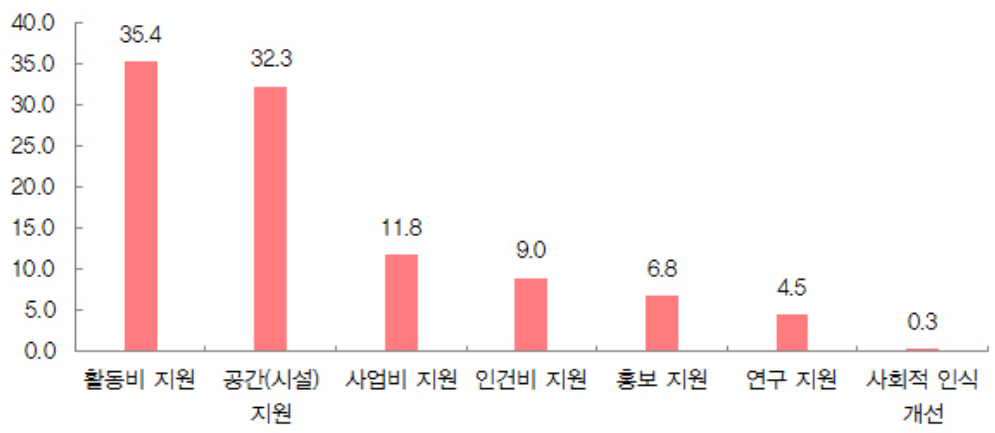
표 IV-30 중앙정부 및 지자체의 청년 사회활동 지원 필요성에 대한 동의 (단위: 명(%))

구분/내용		내가 살고 있는 지자체는 청년 사회활동을 위한 지원을 충분히 하고 있다				χ^2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동의하지 않는다	동의한다	매우 동의한다	
전체		8(0.7)	53(4.4)	820(68.3)	319(26.6)	—
성별	남자	7(1.1)	34(5.4)	411(65.5)	176(28.0)	9.571* d.f=3
	여자	1(0.2)	19(3.3)	409(71.5)	143(25.0)	

* $p<.05$, ** $p<.01$, *** $p<.001$

9) 청년 사회활동 활성화를 위해 가장 필요한 지원(1순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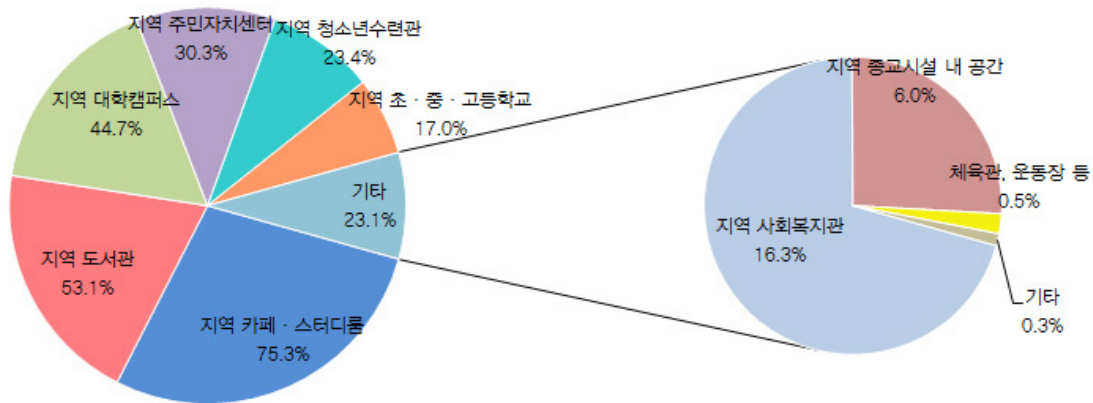
[그림 IV-26]에는 청년 사회활동 활성화를 위해 가장 필요한 지원이 무엇인지에 대한 응답결과가 제시되어 있다. 가장 필요한 지원은 ‘활동비 지원’이라는 응답 비율이 35.4%로 가장 높았으며, ‘공간(시설) 지원’이 32.3%로 그 뒤를 이었다. 이를 통해, 청년들의 사회활동 참여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사회활동에 필요한 활동비와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시설)이 가장 필요한 지원임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IV-26】 청년 사회활동 활성화를 위해 가장 필요한 지원(1순위)

10) 청년을 위한 공간(시설)을 무료제공·할인 지원 시 이용하고 싶은 공간(중복응답)

[그림 IV-27]에는 청년을 위한 공간(시설)을 무료 제공 또는 할인 지원 시 이용하고 싶은 공간에 대한 중복응답 결과가 제시되어 있다. ‘지역 카페 및 스터디 룸’을 이용하겠다는 응답 비율이 75.3%로 가장 높았으며, ‘지역 도서관’(53.1%)과 ‘지역대학 캠퍼스’(44.7%), ‘지역 주민자치센터’(30.3%)를 이용하겠다는 응답이 그 뒤를 이었다. 이는 현재에도 지역 카페와 스터디 룸을 이용하는 청년들의 선호도와 성향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카페나 스터디룸 외에 지역 도서관, 대학 캠퍼스, 주민자치센터를 이용하겠다는 응답도 비교적 높아서 청년활동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공간 지원 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함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IV-27】 공간(시설) 무료제공·할인 지원 시 이용하고 싶은 공간(중복응답)

11) 청년들의 사회활동 참여의 지역사회개선·사회발전 기여 정도에 대한 동의

<표 IV-31>에는 청년들의 사회활동 참여가 지역사회 개선 및 사회발전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는 의견에 대한 동의 정도에 대한 분석결과가 제시되어 있다. 응답자의 90.2%가 청년들의 사회활동 참여가 지역사회 개선 및 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는 데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동의 정도에 대한 집단 간 차이를 분석한 결과, 성별 차이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구체적으로, 남자 집단(89.1%)에 비해 여자 집단(91.3%)이 청년들의 사회활동 참여가 지역사회 개선 및 사회발전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는 의견에 약간 더 높은 비율로 동의하였다.

표 IV-31 청년 사회활동 참여의 지역사회개선·사회발전 기여 정도에 대한 동의 (단위: 명(%))

구분/내용		청년 사회활동 참여가 지역사회 개선 및 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				χ^2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동의하지 않는다	동의한다	매우 동의한다	
전체(n=1,200)		9(0.8)	109(9.0)	902(75.2)	180(15.0)	—
성별	남자	5(0.8)	63(10.1)	448(71.3)	112(17.8)	10.969* (d.f=3)
	여자	4(0.7)	46(8.0)	454(79.4)	68(11.9)	
대학진학	비진학	2(1.1)	13(7.2)	147(81.2)	19(10.5)	5.125 (d.f=3)
	진학	7(0.7)	96(9.4)	755(74.1)	161(15.8)	
권역	수도권	2(0.3)	61(10.0)	464(75.8)	85(13.9)	5.155 (d.f=3)
	비수도권	7(1.2)	48(8.1)	438(74.5)	95(16.2)	

* $p < .05$

4. 사회활동 참여의 집단 간 차이 및 사회활동 참여가 비인지적 역량, 대인신뢰 및 공동체의식에 미치는 영향

지금까지 20대 청년들의 사회활동 참여/비참여 실태, 청년 사회활동 관련 인식 및 사회활동 활성화를 위한 정책욕구를 살펴보았다. 여기에서는 청년들의 사회활동 참여가 배경변인별로 차이가 있는지, 사회활동 참여 여부에 따라 비인지적 역량, 대인신뢰, 공동체의식에 차이가 있는지 분석한 후에, 청년들의 사회활동 참여가 이들의 비인지적 역량, 대인신뢰 그리고 공동체의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심층적으로 분석해 본다.

1) 사회활동 참여의 집단 간 차이

<표 IV-32>에는 배경변인별 청년 사회활동 참여에 대한 차이 분석 결과가 제시되어 있다. 대학진학 여부, 종사상 지위, 부모소득에 따라 사회활동 참여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대학 진학자(79.4%)에 비해 비진학자(70.7%)들의 사회활동 참여율이 더 낮았으며, 종사상 지위의 경우 자영업/기타 지위 집단의 사회활동 참여율이 88.1%로 가장 높은 반면, 비경제활동인구

및 구직자 집단의 참여율이 68.7%로 가장 낮았다. 주 40시간 이상 일하는 상용직(정규직/비정규직)의 경우에도 사회활동 참여율이 78.1%로 4개 집단 중, 두 번째로 참여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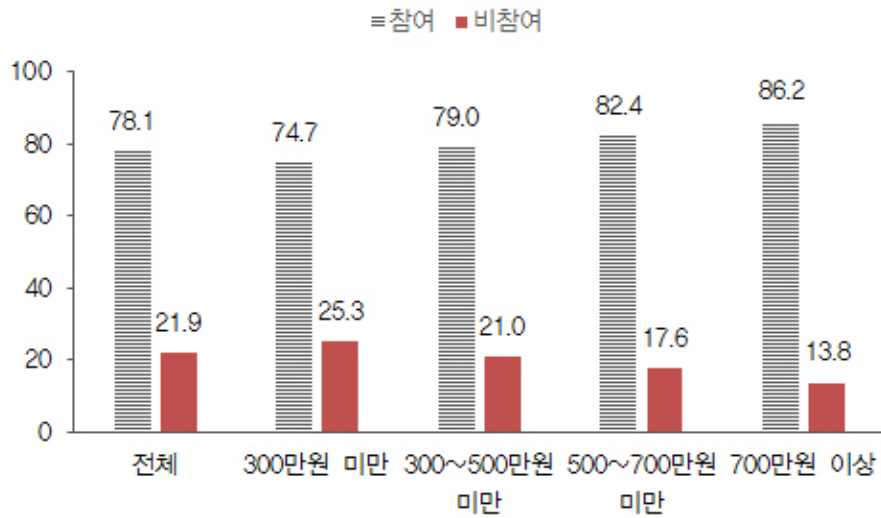
한편, 사회활동 참여는 부모소득 수준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부모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사회활동 참여율도 점점 더 높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청년들의 사회활동 참여 여부가 부모의 경제적 수준의 차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부모의 경제적 수준에 따라 청년들의 사회활동 참여에 차이가 나타날 수 있는 것은 앞서 사회활동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 청년들이 '사회활동 참여를 위해 가장 필요한 것'으로 시간과 활동비를 지정한 것과 관련이 있다. 학비와 생활비를 직접 벌어야 하는 청년의 경우에는 사회활동에 참여할 시간과 금전적 여유가 없을 가능성을 예상해 볼 수 있으며, 부모로부터 금전적 지원을 받고 있는 청년들의 경우 사회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양호한 여건에 놓여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향후 부모의 경제적 수준에 따른 사회활동 참여 격차가 심화되지 않도록 경제적으로 취약한 청년 집단에 대한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표 IV-32 배경변인별 사회활동 참여 여부

(단위: 명(%))

구분/내용		참여	비참여	χ^2
대학진학	비진학	128(70.7)	53(29.3)	6.756** (d.f=1)
	진학	809(79.4)	210(20.6)	
종사상 지위	비경제활동인구/구직자	217(68.7)	99(31.3)	27.873*** (d.f=3)
	자영업/기타	74(88.1)	10(11.9)	
	임시/일용직	336(83.4)	67(16.6)	
	상용직(정규직/비정규직)	310(78.1)	87(21.9)	
부모소득	300만원 미만	254(74.7)	86(25.3)	9.686* (d.f=3)
	300~500만원 미만	298(79.0)	79(21.0)	
	500~700만원 미만	178(82.4)	38(17.6)	
	700만원 이상	119(86.2)	19(13.8)	

* $p<.05$, ** $p<.01$, *** $p<.001$; 상용직은 주 40시간 이상 종사자를 의미함



【그림 IV-28】 부모소득에 따른 사회활동 참여의 차이

2) 사회활동 참여 여부에 따른 비인지적 역량, 대인신뢰 및 공동체의식의 차이

여기에서는 사회활동 참여 여부에 따라 청년들의 비인지적 역량, 대인신뢰 및 공동체 의식 수준에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해 보겠다.

(1) 사회활동 참여 여부에 따른 비인지적 역량의 차이

먼저 사회활동 참여에 따라 비인지적 역량의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한 결과는 <표 IV-33>과 같다.

우선 사회활동 참여 여부에 따라, 심리·정서 하위 역량 수준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구체적으로, 사회활동 참여 집단이 비참여 집단에 비해 자아존중감⁵²⁾, 자아효능감⁵³⁾, 정서조절능력⁵⁴⁾ 수준이 모두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회활동 참여 여부에 따른 관계형성

52) 자아존중감은 '나는 대부분의 다른 사람들과 같이 일을 잘할 수 있다'와 '나는 내 자신에 대해 만족한다'에 대해 전혀 그렇지 않다(=1), 그렇지 않다(=2), 그렇다(=3), 매우 그렇다(=4)로 응답하도록 한 2개 문항의 평균값을 산출하여 분석에 활용하였다(Cronbach's α =.597).

53) 자아효능감은 '나는 잘 할 수 있는 일들이 많다', '나는 노력하면 대부분의 일들을 잘 할 수 있다', '나는 어려운 일이 있어도 잘 극복할 수 있다'에 대해 전혀 그렇지 않다(=1), 그렇지 않다(=2), 그렇다(=3), 매우 그렇다(=4)로 응답하도록 한 3개 문항의 평균값을 산출하여 분석에 활용하였다(Cronbach's α =.803).

역량에도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사회활동 참여 집단이 비참여 집단에 비해 관계형성 하위 역량인 의사소통능력⁵⁵⁾, 공감 및 배려능력⁵⁶⁾ 수준이 모두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다음으로, 사회활동 참여 여부에 따른 협력 역량에서도 유의한 집단 간 차이를 발견할 수 있었다. 사회활동 참여자들이 비참여자들에 비해, 협력 역량의 하위 역량인 집단축진 능력⁵⁷⁾, 팔로워십⁵⁸⁾, 갈등문제해결능력⁵⁹⁾ 수준이 모두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사회활동 참여 여부에 따른 개인시민성 역량에서도 집단 간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런데 앞선 3가지 비인지적 역량에 대한 분석 결과와 달리, 개인시민성 역량 중 권리책임의식⁶⁰⁾은 집단 간 차이가 없었으며, 민주적 절차의식⁶¹⁾과 정치적 자아 효능감⁶²⁾ 수준에

54) 정서조절능력은 ‘나는 슬프거나 힘들 때에도 좌절하지 않는다’, ‘나는 화가 나거나 기분이 상할 때에도 나의 감정을 조절할 수 있다’에 대해 전혀 그렇지 않다(=1), 그렇지 않다(=2), 그렇다(=3), 매우 그렇다(=4)로 응답하도록 한 2개 문항의 평균값을 산출하여 분석에 활용하였다(Cronbach's α =.645).

55) 의사소통능력은 ‘나는 상대방의 말이 이해가 안 되면 정확하게 알기 위해 질문을 한다’, ‘나는 상대방의 몸짓이나 표정을 살피며 듣는다’, ‘나는 상대방과 의견 차이가 있을 때 그것에 대해 좀 더 깊이 이야기 나눌 수 있다’에 대해 전혀 그렇지 않다(=1), 그렇지 않다(=2), 그렇다(=3), 매우 그렇다(=4)로 응답하도록 한 3개 문항의 평균값을 산출하여 분석에 활용하였다(Cronbach's α =.645).

56) 공감 및 배려능력은 ‘나는 다른 사람이 문제를 겪고 있을 때, 그 사람의 입장에서 이해하려고 노력한다’, ‘나는 상대방이 나의 말과 행동을 어떻게 받아들이지 생각하면서 말하고 행동한다’, ‘나는 나와 생각이 다르더라도 다른 사람들의 생각과 선택을 존중한다’에 대해 전혀 그렇지 않다(=1), 그렇지 않다(=2), 그렇다(=3), 매우 그렇다(=4)로 응답하도록 한 2개 문항의 평균값을 산출하여 분석에 활용하였다(Cronbach's α =.704).

57) 집단축진 능력은 ‘나는 그룹활동을 할 때 지인의 장점이나 능력을 적극적으로 알려준다’, ‘나는 그룹활동을 할 때 활용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제시한다’에 대해 전혀 그렇지 않다(=1), 그렇지 않다(=2), 그렇다(=3), 매우 그렇다(=4)로 응답하도록 한 3개 문항의 평균값을 산출하여 분석에 활용하였다(Cronbach's α =.649).

58) 팔로워십은 ‘나는 그룹활동을 할 때 지인이 다양한 관점에서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나는 그룹활동을 할 때 나의 역할에 최선을 다한다’, ‘나는 내가 속한 그룹에서 가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 능력을 최대한 발휘한다’에 대해 전혀 그렇지 않다(=1), 그렇지 않다(=2), 그렇다(=3), 매우 그렇다(=4)로 응답하도록 한 3개 문항의 평균값을 산출하여 분석에 활용하였다(Cronbach's α =.730).

59) 갈등문제해결능력은 ‘나는 그룹의 문제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내용을 지인들과 공유한다’, ‘나는 그룹에서 발생한 문제를 지인들과 자주 이야기한다’, ‘나는 그룹활동을 할 때 중요한 사항이나 문제점이 생기면 지인들과 함께 해결한다’에 대해 전혀 그렇지 않다(=1), 그렇지 않다(=2), 그렇다(=3), 매우 그렇다(=4)로 응답하도록 한 3개 문항의 평균값을 산출하여 분석에 활용하였다(Cronbach's α =.762).

60) 권리책임의식은 법이 불공정하다면 사람들은 정치적 항의를 할 수 있어야 한다. 사람들은 언제나 정부를 공개적으로 비판할 자유를 가져야 한다. 모든 사람들은 항상 그들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져야 한다에 대해 전혀 그렇지 않다(=1), 그렇지 않다(=2), 그렇다(=3), 매우 그렇다(=4)로 응답하도록 한 3개 문항의 평균값을 산출하여 분석에 활용하였다(Cronbach's α =.750).

61) 민주적 절차 의식은 중요한 문제를 결정할 때는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물어보는 것보다는 한두 사람이 빠르게 처리하는 것이 좋다. 어떻게 해서든 잘 살 수 있도록 해주면 되었지 민주주의를 꼭 해야 한다는 법은 없다에 대해 전혀 그렇지 않다(=1), 그렇지 않다(=2), 그렇다(=3), 매우 그렇다(=4)로 응답하도록 한 2개 문항을 리코딩한 후, 평균값을 산출하여 분석에 활용하였다(Cronbach's α =.708).

62) 정치적 자아 효능감은 정치적 이슈 및 문제를 토론할 때, 나는 항상 토론에 참여한다. 나는 정치에 참여할 것이다. 나는

서 통계적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구체적으로, 사회활동 참여자들이 비참여자들에 비해, 민주적 절차의식은 약간 더 낮은 반면, 정치적 자아 효능감 수준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회활동 참여자들이 비참여자들에 비해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낮은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사회활동 참여 집단이 비참여 집단에 비해 민주적 절차의식이 왜 더 낮은지 구체적인 이유를 파악하기는 어렵다. 다만, 사회활동 참여가 개인시민성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는 다음에서 회귀분석을 통해 구체적으로 판단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표 IV-33 사회활동 참여 여부에 따른 비인지적 역량의 차이

구분/내용		심리·정서 역량: (1) 자아존중감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t
사회 활동	참여	937	3.004	.559	6.446***
	비참여	263	2.743	.584	
구분/내용		심리·정서 역량: (2) 자아효능감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t
사회 활동	참여	937	3.049	.524	4.999***
	비참여	263	2.866	.530	
구분/내용		심리·정서 역량: (3) 정서조절능력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t
사회 활동	참여	937	2.844	.603	3.745***
	비참여	263	2.688	.566	
구분/내용		관계형성 역량: (1) 의사소통능력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t
사회 활동	참여	937	3.118	.450	4.073***
	비참여	263	2.998	.417	
구분/내용		관계형성 역량: (2) 공감 및 배려능력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t
사회 활동	참여	937	3.134	.449	2.700**
	비참여	263	3.055	.415	

우리나라가 당면하고 있는 정치이슈들을 잘 이해하고 있도에 대해 전혀 그렇지 않다(=1), 그렇지 않다(=2), 그렇다(=3), 매우 그렇다(=4)로 응답하도록 한 3개 문항의 평균값을 산출하여 분석에 활용하였다(Cronbach's α = .727).

구분/내용		협력 역량: (1) 집단촉진 능력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t
사회 활동	참여	937	2.924	.558	5.008***
	비참여	263	2.730	.547	
구분/내용		협력 역량: (2) 팔로워십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t
사회 활동	참여	937	3.086	.465	6.264***
	비참여	263	2.882	.473	
구분/내용		협력 역량: (3) 갈등문제해결능력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t
사회 활동	참여	937	3.024	.481	4.822***
	비참여	263	2.863	.467	
구분/내용		개인 시민성 역량: (1) 권리책임의식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t
사회 활동	참여	937	3.373	.490	.883
	비참여	263	3.345	.438	
구분/내용		개인 시민성 역량: (2) 민주적 절차 의식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t
사회 활동	참여	937	2.823	.754	-2.535*
	비참여	263	2.949	.695	
구분/내용		개인 시민성 역량: (3) 정치적 자아 효능감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t
사회 활동	참여	937	2.663	.605	6.557***
	비참여	263	2.388	.588	

* $p < .05$, ** $p < .01$, *** $p < .001$



【그림 IV-29】 사회활동 참여 여부에 따른 비인지적 역량의 차이

(2) 사회활동 참여 여부에 따른 대인신뢰 및 공동체의식의 차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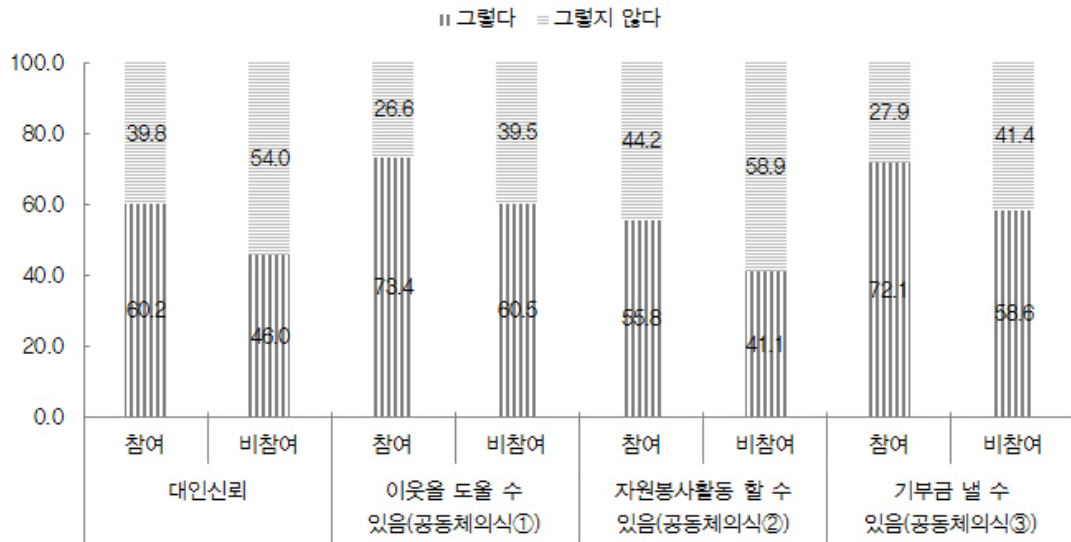
<표 IV-34>에는 사회활동 참여 여부에 따른 대인신뢰 및 공동체 의식의 차이 분석 결과가 제시되어 있다. 사회활동 참여 여부에 따라 대인신뢰와 공동체의식에 집단 간 차이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구체적으로, 사회활동 참여 집단이 비참여 집단에 비해, 대인신뢰 수준이 높았으며, 공동체 의식에 해당하는 3가지 문항에 대한 긍정적 응답 비율도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34 사회활동 참여 여부에 따른 대인신뢰 및 공동체의식 차이

(단위: 명(%))

구분/내용		나는 대부분의 사람을 신뢰할 수 있다				χ^2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사회활동	참여	12(1.3)	361(38.5)	534(57.0)	30(3.2)	25.754*** (d.f=3)
	비참여	12(4.6)	130(49.4)	118(44.9)	3(1.1)	
구분/내용		공동체 의식(1) 주변에 어려움에 처해 있는 이웃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도울 수 있다				χ^2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사회활동	참여	24(2.6)	225(24.0)	575(61.4)	113(12.0)	20.244*** (d.f=3)
	비참여	10(3.8)	94(35.7)	143(54.4)	16(6.1)	
구분/내용		공동체 의식(2) 공휴일에 쉬지 못하더라도 자원봉사활동을 할 수 있다				χ^2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사회활동	참여	73(7.8)	341(36.4)	445(47.5)	78(8.3)	25.089*** (d.f=3)
	비참여	36(13.7)	119(45.2)	101(38.4)	7(2.7)	
구분/내용		공동체 의식(3) 어려운 이웃/국가를 돕기 위해 기부금을 낼 수 있다				χ^2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사회활동	참여	42(4.5)	219(23.4)	576(61.5)	100(10.6)	19.414*** (d.f=3)
	비참여	20(7.6)	89(33.8)	137(52.1)	17(6.5)	

*** $p<.001$



【그림 IV-30】 사회활동 참여 여부에 따른 대인신뢰 및 공동체의식

3) 사회활동 참여가 비인지적 역량, 대인신뢰 및 공동체의식에 미치는 영향

여기에서는 청년들의 사회활동 참여가 그들의 비인지적 역량, 대인신뢰, 공동체의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중다회귀분석 결과를 제시하였다. 회귀분석에 투입된 변수와 측정방법, 투입 변수들의 기술통계치 결과는 <표 IV-35>와 같다.

표 IV-35 투입변수, 측정 방법 및 기술 통계치

구분	변수명		변수설명	측정 방법	기술 통계치	
					m	s.d.
종속 변수	비인지적 역량	심리정서	심리정서 역량 관련 7개 문항	4점 리커트, 7개 문항 평균	2.922	.492
		관계형성	관계형성 역량 관련 6개 문항	4점 리커트, 6개 문항 평균	3.104	.401
		협력	협력 역량 관련 8개 문항	4점 리커트, 8개 문항평균	2.971	.445
		개인시민성	개인시민성 역량 관련 8개 문항	4점 리커트, 8개 문항평균	2.940	.380
	대인신뢰		대부분 사람들을 신뢰할 수 있다	4점 리커트	2.590	.582
	공동체의식		공동체의식 관련 3개 문항	4점 리커트, 3개 문항평균	2.676	.581

구분	변수명	변수설명	측정 방법	기술 통계치	
				m	s.d.
독립 변수	성별	성별	남=1, 여=0	.523	.500
	연령집단	연령	20~24세=0, 25~29세=1	.466	.499
	대학진학	대학진학 여부	비진학=0, 진학=1	.849	.358
	권역	거주 지역	비수도권=0, 수도권=1	.510	.500
	부모소득	①300만원 미만 ②300~500만원 미만 ③500~700만원 미만 ④700만원 이상	4점 리커트	2.142	1.008
	종사상 지위	①비경활/구직자 ②자영업/기타 ③임시/일용직 ④상용직	더미변수 (비경활/구직자=0)	2.734	1.177
	사회활동 참여	참여 여부	비참여=0, 참여=1	.781	.414

<표 IV-36>에는 청년들의 사회활동 참여 여부가 그들의 비인지적 역량, 대인신뢰 및 공동체의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가 제시되어 있다. 분석 결과, 여타 독립변수를 모두 통제한 상태에서 사회활동 참여는 비인지적 역량에 해당하는 하위 4개 변수, 대인신뢰, 공동체의식 모두에 유의미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우선 비인지적 역량 중 심리정서 역량에는 성별, 연령집단, 대학진학 여부, 부모소득, 종사상 지위, 사회활동 참여 변수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남자일수록, 연령이 25~29세 대비 20~24세일수록, 대학진학자일수록, 부모소득이 높을수록, 비경활/구직자 대비 임시/일용직일수록, 비경활/구직자 대비 상용직일수록, 사회활동 비참여자 대비 참여자일수록 심리·정서 역량이 더 높았다. 관계형성 역량에는 성별, 연령집단, 대학진학 여부, 권역, 종사상 지위, 사회활동 참여 변수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남자일수록, 연령이 25~29세 대비 20~24세일수록, 대학진학자일수록, 비수도권 대비 수도권 거주자일수록, 비경활/구직자 대비 상용직일수록, 사회활동 참여자일수록 관계형성 역량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협력 역량의 경우, 남자일수록, 연령이 25~29세 대비 20~24세일수록, 진학자일수록, 비경활/구직자 대비 임시/일용직, 상용직일수록 협력 역량이 더 높았다. 반면, 개인시민성 역량에는 대학진학 여부와 종사상 지위, 사회활동 참여 변수만이 유의미한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나 여타 비인지적 역량 결과와 차이가 있었다. 즉, 진학자일수록, 비경활/구직자 집단일수록, 사회활동 참여자일수록 개인시민성이 높게 나타났다. 앞서 사회활동 참여 여부에 따른 개인시민성 차이 분석에서, 개인시민성 중 권리책임의식에서는 집단 간 차이가 없었고, 민주적 절차의식 수준은 비참여 집단이 참여 집단에 비해 높았으며, 정치적 자아효능감 수준은 반대로 참여 집단이 비참여 집단에 비해 높았다. 그런데 여타 독립변수를 통제한 상태에서 사회활동 참여가 개인시민성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한 결과, 유의한 정적 효과를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IV-36 비인지적 역량, 대인신뢰 및 공동체의식에 대한 회귀분석

변수	비인지적 역량				대인신뢰	공동체의식
	심리정서	관계형성	협력	개인시민성		
상수	2.396(.062)***	2.887(.052)***	2.590(.056)***	2.870(.049)***	2.137(.076)***	2.372(.076)***
성별	.171(.029)***	.102(.024)***	.079(.026)**	.010(.023)	.104(.035)**	.011(.035)
연령집단 (20~24세=0)	-.076(.031)*	-.080(.026)**	-.065(.028)*	.000(.025)	-.012(.038)	-.027(.038)
대학진학 여부 (비진학=0)	.220(.041)***	.094(.034)**	.163(.038)***	.093(.033)**	.191(.051)***	.063(.051)
권역 (비수도권=0)	.044(.029)	.075(.024)**	.042(.026)	.026(.023)	-.041(.035)	-.030(.035)
부모소득	.040(.015)**	.012(.012)	.014(.013)	-.001(.012)	.013(.018)	.033(.018) [†]
종사상지위 (비경활/구직=0)						
자영업/기타	-.024(.062)	-.007(.052)	.043(.057)	-.099(.050)*	.099(.076)	.016(.076)
임시/일용직	.085(.038)*	.014(.031)	.105(.034)**	-.064(.030)*	.073(.046)	.059(.046)
상용직	.091(.039)*	-.022(.032)	.086(.035)*	-.150(.031)***	.087(.048) [†]	.046(.048)
사회활동 (비참여=0)	.160(.036)***	.081(.030)**	.086(.035)*	.074(.029)*	.208(.044)***	.216(.044)***
N	1,071	1,071	1,071	1,071	1,071	1,071
R2	.101	.055	.070	.040	.052	.035
Adj R2	.093	.047	.063	.032	.044	.027

() 은 비표준화 회귀계수의 표준오차. [†] $p < .10$, * $p < .05$, ** $p < .01$, *** $p < .001$

다만 종사상 지위에서 비경활/구직자 집단이 여타 집단에 비해 개인시민성이 높게 나타난 점과 관련하여 추가 분석을 실시한 결과, 개인시민성 역량의 평균은 비경활/구직자(3.003) > 임시/일용직(2.963) > 자영업/기타(2.911) > 상용직(2.872) 집단의 순서로 높았다. 좀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개인시민성 하위 역량 중 집단 간 차이가 나타났던 ‘민주적 절차 의식’에서는 비경활/구직자(3.038) > 자영업/기타(2.821) > 임시/일용직(2.819) > 상용직(2.741)의 순서로, ‘정치적 자아 효능감’에서는 임시/일용직(2.673) > 자영업/기타(2.611) > 상용직(2.569) > 비경활/구직자(2.553)의 순서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앞서 사회활동 비참여 집단이 참여 집단에 비해 민주적 절차 의식이 높게 나타난 것은, 사회활동 참여가 가장 낮았던 비경활/구직자 집단이 비참여 집단의 다수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볼 수 있겠다.⁶³⁾

다음으로, 대인신뢰에는 성별, 대학진학 여부, 종사상 지위, 사회활동 참여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즉, 남자일수록, 대학진학자일수록, 비경활/구직자 대비 상용직일수록, 사회활동 참여자일수록 타인에 대한 신뢰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공동체의식에는 부모소득과 사회활동 참여 변수만이 유의한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부모소득이 높을수록, 사회활동 참여자일수록 공동체의식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회귀분석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사회활동 참여가 청년들의 비인지적 역량 수준을 향상시키고, 대인신뢰 및 공동체의식을 제고하는 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한 것은 의미가 크다. 특히 앞서 <표 IV-35>의 기술통계치 결과에서, 청년들의 비인지적 역량, 대인신뢰, 공동체의식 수준 중 비인지적 역량과 비교할 때 유독 대인신뢰(2.690)와 공동체의식(2.676) 수준이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청년들의 대인신뢰나 공동체의식 수준이 비교적 낮아, 전체 사회의 사회적 자본 수준을 높이기 위한 측면에서 이들의 대인신뢰나 공동체의식 수준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이에, 청년들의 대인신뢰 수준 및 공동체의식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청년 사회활동에 대한 지원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상술한 중다회귀분석 결과는 향후 청년 사회활동 지원의 필요성에 대한 객관적 근거로도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63) 다만 이들이 여타 집단에 비해 어떤 이유로 민주적 절차 의식 수준이 높은 지에 대해서는 추가 문항을 통한 분석이 필요하다.

5. 소결

지금까지 20대 청년들을 대상으로 실시했던 사회활동 실태조사의 분석결과를 살펴보았다. 다음 표에는 지금까지 살펴본 사회활동 참여/비참여 실태, 청년 사회활동 관련 인식 및 사회활동 활성화를 위한 정책욕구, 사회활동 참여의 집단 간 차이와 사회활동 참여가 비인지적 역량, 대인신뢰와 공동체 의식이 미치는 영향에 대한 주요 분석결과를 정리하고 시사점을 정리하였다.

표 IV-37 20대 청년들의 사회활동 실태 설문조사 주요 결과 및 시사점

조사 내용		주요 분석결과	시사점
① 사회 활동 참여 실태	참여 유형	• 20대 청년들이 주로 참여하고 있는 사회활동 유형은 취미>온라인게시판>친목친교>진로 및 자기계발의 순서로 높게 나타남	• 20대뿐만 아니라 타 연령대에서도 취미나 친목친교활동은 나타날 수 있으나, 온라인게시판, 진로 및 자기계발 활동은 청년 사회활동의 특성으로 볼 수 있음
	참여 계기	• 스스로 관심이 있어 정보를 검색하다가 사회활동에 참여하게 된 경우가 대다수를 차지하였음(72%)	• 청년들의 사회활동 참여는 자발적 의지에 의해 주로 이루어짐
	시작 시기	• 고등학교 졸업 이후가 대다수를 차지하였음(62.4%)	• 청년들의 사회활동 참여는 대학입시가 끝난 이후 주로 이루어짐. → 청소년시기에서부터 활동 참여 연계가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음
	참여 기간	• 사회활동 참여 기간은 2년 이상 응답이 52.2%를 차지하였음	• 사회활동 참여 기간이 비교적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지고 있음
	모임 규모	• 모임 규모는 50명 미만이 가장 높은 응답 비율(66.4%)을 보임	• 청년들의 사회활동 모임 규모가 소~중규모임
	모임 결성 방법	• 모임 결성은 다른 개인 또는 단체가 결성한 경우가 많았음(약80%)	• 청년들은 주로 기성단체에 가입하여 사회활동을 하고 있음
	회원 연령대	• 20대 또는 20~30대로만 구성된 비율이 55.9%를 차지하였음	• 20대 청년들은 20~30대 청년들로 구성된 모임에서 주로 사회활동을 하고 있음

조사 내용		주요 분석결과	시사점
	회원 성비	• 남녀 회원 비율이 유사한 경우 (37.9%)가 가장 많았으며, 남성회원만(29.7%), 여성회원만(27.3%) 구성된 경우도 있어 다양하였음	• 회원들의 성비 구성은 다양한 것으로 나타남
	오프라인 활동 빈도	• 한 달에 2회 이상(26.3%), 비정기적으로 자주(22.5%), 월 1회 (11.9%) 등으로 나타남	• 조사 참여 청년들 중 60.7%는 사회활동을 위한 오프라인 모임에 월 1회 이상 자주 참여하고 있음
	월평균 활동비	• 26,000원~50,000원 미만(32%), 25,000원 이하(25.9%), 51,000원 이상(18.1%)로 조사됨	• 월평균 사회활동 참여를 위해 5만원 미만의 비용을 지출하고 있는 비율이 절반 이상을 차지함
	활동장소 유무	• 활동 장소가 없다는 응답(51.7%)이 있다는 응답(48.3%)보다 높았음	• 청년들의 활동 장소 확보 비율은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임→활동 공간 지원이 필요함
	활동장소 유형	• 별도 사무실(30.7%), 교내 공간 (22.3%), 카페/술집(18.1%)으로 조사됨	• 청년들의 사회활동 공간이 별도사무실을 임대하거나, 교내 공간(대학 재학생 국한) 또는 카페/술집으로 제한되어 있음
	장소이용 부담 여부	• 비용부담을 한다는 응답이 52.1%로 나타남	• 활동장소가 있다고 응답한 청년들 중, 절반 이상이 장소이용료를 부담하고 있음
	사회활동 성격	• 자기만족적 활동+특수목적 달성 활동 결합(45.7%), 자기만족적 활동(44.7%)이 대다수를 차지함	• 청년들은 특수목적적 활동을 하면서도 자기만족적 활동이 결합된 활동 또는 자기만족을 위한 활동을 주로 하고 있음
	활동 목적	• 활동 내용에 대한 관심 또는 흥미 (42.5%) > 사회적 관계망 형성 (21.2%) > 개인역량 강화(16.6%)의 순서로 높았음	• 청년들은 사회활동 그 자체에 대한 관심과 흥미로 사회활동에 참여하고 있음
	참여의 적극성	• 응답자의 78.4%가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었음	• 약80%의 청년들은 본인들의 사회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음
	활동 만족도	• 약93%가 자신들의 사회활동에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 청년들의 사회활동 만족도는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남

조사 내용		주요 분석결과	시사점
② 사회 활동 비참여 실태	참여 효과에 대한 인식	타인과 협력하는 능력과 태도를 향상시킨다(86.2%)에 대한 동의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주변 사람의 인정과 지지를 얻게 만든다(74.6%)에 대한 동의 비율이 다른 항목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았음	청년들은 사회활동을 통해 타인과 협력하는 태도와 능력이 향상된다고 인식하고 있었음
	활동과 진로와의 관련성 여부	관련성 있다는 응답(29.9%)이 없다는 응답(70.1%)에 비해 낮은 것으로 조사됨	청년들의 사회활동과 진로와의 관련성은 비교적 낮은 것으로 보임
	활동을 통한 창업·창직 고려	전혀 생각해 본 적 없음(36.8%), 생각해 본 적은 있지만 실행하지 않음(36.5%)로 창업, 창직에 대한 고려 수준은 낮음	사회활동을 통해 창업, 창직을 고려하거나 실행하는 청년들은 많지 않음
	비참여 이유	- 필요성 못 느낌(28.5%), 시간 부족(24.7%), 관계형성 부담(15.2%), 활동비 부담(13.7%)으로 나타남 - 특히 ‘관계형성 부담’과 ‘필요성 못 느낌’에 대한 응답은 비경활/구직자 집단에서 가장 높았음/ 시간 부족은 상용직 집단에게서 가장 높았음/활동비 부담도 비경활/구직자 집단에게서 가장 높게 나타남	비경활/구직자 집단이 향후 관계성 자체를 기피할 가능성이 있으며, 상용직 청년들에게는 사회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시간을 사회적으로 제공해주는 노력이 필요함. 또한 비경활/구직자 집단에게는 활동비 지원이 필요함
	향후 참여 의향	참여 의향이 있다는 응답이 72.3%로 높게 나타남	청년 사회활동 비참여자 중 향후 사회활동 참여 희망자가 다수임→이들을 위한 지원 필요
	참여 희망 사회활동 유형	절반 이상(51.6%)이 취미활동에 참여하고 싶다고 응답함. 그 외 진로 및 자기계발(10.0%), 봉사활동(10.0%), 대외활동(8.9%)이 그 뒤를 이었음	청년들의 사회활동 참여 희망 분야가 취미라는 것은 이들이 여가생활의 일환으로 취미활동을 제대로 누리고 있지 못한 상황임을 시사함
	사회활동 참여 시 필요 사항	사회활동 참여를 위한 시간(32.1%), 사회활동 참여 활동비(23.2%), 사회활동 정보(20.5%)로 조사되었음	청년들의 사회활동 참여를 위한 경제적 지원 필요(시간 확보 및 활동비 지원)

조사 내용		주요 분석결과	시사점
③ 사회 활동 관련 인식 및 사회활동 활성화를 위한 정책 욕구	청년 사회활동 참여 필요성	청년들 중 85.9%가 청년들의 사회활동 참여가 필요하다고 응답함	청년들 다수가 사회활동 참여가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음
	참여 필요 이유	- 사회활동 참여를 통한 삶의 질 향상(28.1%), 사회문제에 대한 관심과 참여 높임(24.8%), 사회적 관계망 형성(20.1%)을 이유로 제시함 - 진학자 집단: 삶의 질 향상 > 사회문제 관심과 참여 높임/ 비진학자 집단: 삶의 질 향상 > 사회적 관계망 형성	- 청년들은 사회활동 참여가 필요한 이유로 삶의 질 향상, 사회문제에 대한 관심과 참여 제고, 사회적 관계망 형성을 인식하고 있음 → 이를 통해 청년들의 사회활동 참여 욕구의 근거를 파악할 수 있음 → 비진학 청년들의 경우, 활동을 통한 사회적 관계망 형성 욕구가 있음
	청년 커뮤니티 지원사업 참여 의향	73.2%가 참여 의향이 있다고 응답함	청년들의 청년 커뮤니티 지원사업에 대한 참여 의지가 높음
	지원사업 참여 의향 이유	원하는 활동을 하면서 활동비도 제공받을 수 있어서(50.5%)라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남	청년들은 원하는 활동을 하면서도 활동비까지 지원해 주는 점을 청년 커뮤니티 지원사업의 긍정적 측면으로 인식하고 있음
	청년기본조례 인지 여부	88.2%가 청년기본조례를 인지하고 있지 못한 것으로 나타남	청년을 대상으로 한 청년기본조례 홍보 필요
	지자체의 청년사회활동 지원에 대한 인식	- 충분하지 않다는 응답이 77.6%로 나타남 - 특히 비수도권 거주 청년들이 수도권 거주 청년들에 비해, 지자체의 지원이 충분하지 않다는 부정적 응답이 더 높게 나타남	- 지자체의 청년 사회활동 지원이 활성화될 필요가 있음 - 특히 비수도권 지자체는 청년들을 위한 지원 사업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청년 공간(시설) 설치 운영시 필요 공간	개방형 공간(교류)(34.3%), 폐쇄형 공간(22.2%), 신체활동 공간(18.5%) 순서로 조사되었음	지자체에서 청년들을 위한 별도 공간 설치 운영 시 교류공간, 폐쇄형 공간, 신체활동 공간 고려 필요
	청년 사회활동 지원 필요성에 대한 동의	94.9%가 중앙정부 및 지자체의 청년 사회활동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식	청년들을 위한 사회활동 지원 활성화 방안 마련 필요

조사 내용		주요 분석결과	시사점
	활성화 위해 가장 필요한 지원	• 활동비 지원(35.4%), 공간(시설) 지원(32.3%) 순서로 조사됨	• 활동비 지원, 공간지원 방안 마련 필요
	청년 공간(시설) 지원 시 이용하고 싶은 시설(중복응답)	• 지역 카페, 스터디룸(75.3%), 지역도서관(53.1%), 대학캠퍼스(44.7%), 주민자치센터(30.3%)으로 조사됨	• 청년들이 주로 이용하는 카페/스터디룸 외에, 도서관, 대학캠퍼스, 주민자치센터 등 다양한 공간 지원 방안 마련 필요
	청년 사회활동이 지역사회 사회발전에 기여하는 정도	• 90.2%가 청년들의 사회활동이 지역사회/전체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고 인식하였음	• 청년들 스스로 청년들이 사회활동이 전체 사회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고 인식함
④ 사회활동 참여 집단 간 차이 & 사회활동 참여가 비인지적 역량, 대인신뢰, 공동체의식에 미치는 영향	사회활동 참여 집단 간 차이	• 종사상 지위 중, 비경험/구직자 집단의 활동 참여율이 가장 낮았으며, 부모소득 수준이 낮을수록, 비진학 청년일수록 사회활동 참여 비율이 낮았음	• 비경험/구직자 집단, 부모 소득수준이 낮은 집단, 비진학 청년집단에 대한 활동 지원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사회활동 참여 여부에 따른 비인지적 역량, 대인신뢰, 공동체의식 차이	• 참여자들이 비참여자들에 비해 비인지적 역량 수준이 높았음(개인시민성 역량 중, 권리책임의식, 민주적 절차 의식 제외) • 참여자들이 비참여자들에 비해, 대인신뢰 수준이 높았음 • 참여자들이 비참여자들에 비해, 공동체의식 수준이 높았음	• 사회활동 참여 집단이 비참여 집단에 비해, 비인지적 역량, 대인신뢰, 공동체의식 수준이 높아 활동 참여의 긍정적 효과를 확인할 수 있음
	사회활동 참여가 비인지적 역량, 대인신뢰, 공동체의식에 미치는 영향	• 여타 독립변인을 통제한 상태에서, 사회활동 참여는 비인지적 역량, 대인신뢰, 공동체의식 수준에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정적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파악되었음	• 청년 사회활동에 대한 지원은 청년들의 비인지적 역량, 대인신뢰, 공동체의식을 높여줄 수 있음→이는 사회 전체적으로 사회적 자본 수준을 제고하는 데에도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음 • 이러한 결과는 향후 청년 사회활동에 대한 지원의 객관적 근거가 될 수 있음

조사 내용		주요 분석결과	시사점
20대 청년 사회활동 실태 설문조사 결과 제 IV 장 5 집단 간 차이분석의 주요 결과	사회활동 참여 실태	• 대학 진학 집단에 비해 비진학 집단 청년들의 온라인 게시판 활동 비율이 높았음 • 사회활동 장소 측면에서, 20~24세 집단은 별도 사무실, 교내 공간 활용 비율이 높은 반면, 25~29세 집단은 별도 사무실, 카페/술집 활용 비율이 높았음 • 사회활동 참여 효과에 대한 인식은 여성이 남성에 비해, 진학 집단이 비진학 집단에 비해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비율이 높았음 • 전반적으로 사회활동 참여 목적, 사회활동 참여 효과에 대한 인식 측면에서 연령, 권역(수도권 vs. 비수도권) 간 차이를 확인할 수는 없었음	
	사회활동 비참여 실태	• 사회활동 비참여 이유에서는 종사상 지위 집단 간 차이가 나타났음. 구체적으로, '시간 부족'은 상용직 집단에게서 가장 높았고, '활동비 부담'은 비경활/구직자 집단과 임시/일용직 집단에게서 높았음. '관계형성 부담', '원하는 활동을 찾을 수 없음', '필요성 못 느낌'은 비경활/구직자 집단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참여 정보 없음'은 상용직 집단에게서 가장 높게 나타나 향후 집단별 맞춤형 지원이 필요함 • 사회활동 비참여자 중, 비진학 집단이 진학 집단에 비해 향후 참여 의향이 더 높게 나타나 비진학 집단의 요구수준에 부합하는 사회활동 지원이 요구됨	
	사회활동 관련 인식 및 사회활동 활성화를 위한 정책욕구	• 청년들의 사회활동 참여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 진학 집단과 비진학 집단 모두 '삶의 질 향상'을 주된 이유로 꼽았으나, 비진학 집단은 '사회적 관계망 형성'을 진학 집단의 경우, '사회문제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높일 수 있음'을 그 다음 이유로 제시하여 차이가 나타났음 • 지자체의 청년 사회활동 지원에 대한 인식에서는 비수도권 청년들이 수도권 청년에 비해 지자체의 지원이 충분하지 않다는 인식 비율이 더 높았음 • 청년을 위한 별도 공간 (시설) 설치 운영 시 가장 필요한 공간에 대해, 진학 집단은 '개방형 교류공간'과 '폐쇄형(회의실)'을, 비진학 집단은 '개방형 교류공간'과 '신체활동(체육시설)'에 대한 요구수준이 높아 차이가 있었음	

제 V 장

사회활동 참여 청년 면담조사 및 청년정책 담당자 FGI 결과

1. 면담조사 및 FGI 개요
2. 청년 대상 면담조사 결과
3. 청년정책 담당자 대상 FGI 결과
4. 소결

제 V 장

사회활동 참여 청년 면담조사 및 청년정책 담당자 FGI 결과*

20대 청년들의 사회활동의 내용을 심층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사회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청년들의 활동을 크게 다섯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면담조사를 실시하였다. 면담조사에 포함된 청년활동 유형은 크게 청년활동 ① 비참여 집단, ② 청년 커뮤니티 활동 집단, ③ 지역사회기반 청년단체 및 청년 당사자조직 활동 집단, ④ 소규모 목적지향적 활동(대외활동) 집단 ⑤ 정책참여활동 집단이다. 다음에서는 상술한 5개 활동 유형에 해당하는 청년들의 경험을 분석하여 제시한다.

한편, 사회활동에 참여하는 청년들 중 다수는 지자체의 청년지원 사업, 공공기관의 대외활동, 지자체의 정책참여활동 과정 중에 다양한 공공기관의 담당자와 상호작용하며 교류하고 있다. 청년들은 개인 또는 단체 자격으로 지자체, 중앙정부와의 협업을 경험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지자체 또는 지자체의 청년정책 담당자들이 청년들의 사회활동에 대해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으며, 청년 사회활동 지원 과정에서 무엇을 경험하고 있는지, 청년 사회활동의 파급효과와 의미, 사회활동 활성화 방안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FGI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를 분석하여 제시한다.

1. 면담조사 및 FGI 개요

1) 면담조사 개요

(1) 면담조사 내용

* 이 장은 김정숙 부연구위원(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집필하였음.

본 연구에서는 20대 청년들의 사회활동의 의미를 심층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면담조사를 실시하였다. 면담에서 다루었던 주제는 크게 네 가지로 1) 사회활동 (비)참여 경로와 목적, 2) 사회활동을 통한 경험, 3) 사회활동의 의미, 4) 사회활동 관련 정책욕구 등이다. 특히 면담조사에서 다루고자 했던 내용은 설문조사를 통해 밝혀진 분석결과에 대한 심층적인 논의와 해석이다. 본 연구에서 실시한 면담조사에서는 20대 청년들이 처한 변화된 사회경제적, 문화적 환경에서 사회활동이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청년들은 사회활동을 통해 무엇을 경험하고 배우고 있는지, 그리고 청년 사회활동 활성화를 위한 정책욕구는 무엇인지를 심층적으로 분석하고자 했다. 면담조사를 통해 분석된 청년들의 사회활동 정책욕구는 향후 본 연구의 정책제언에 반영하고자 한다. 구체적인 면담 내용은 <표 V-1>과 같다.

표 V-1 면담조사 내용

면담 주제	구체적 내용	
	참여 집단	비참여 집단
사회활동 (비)참여 경로와 목적	• 사회활동 참여 경로 • 사회활동 참여 이유와 목적 • 사회활동 기간 및 단체 유형 등	• 사회활동 비참여 이유 • 현재 상태
사회활동을 통한 경험 (참여집단)	• 사회활동의 내용 - 어떤 일을 하고 그 일을 통해 무엇을 성취했는가? - 사회활동 참여 과정에서의 힘든 점과 보람 • 사회활동이 이루어지는 시공간 - 언제, 어디에서 주로 사회활동을 하는가? - 사회활동을 통해 누구를 만나고, 무엇을 교류하는가? - 사회활동에 임하는 자세 - 청년 사회활동을 바라보는 주변인들의 시선 • 사회활동의 사회적 관계 - 청년들 간의 관계, 청년 활동 단체 대 기성세대간의 관계, 청년 vs. 일반인들 간 관계	
사회활동의 의미 (참여집단)	• 사회활동 경험과 그 의미 - 사회활동을 통해 배운 점, 사회활동 과정에 대한 개인적 성찰 내용 - 사회활동을 통해 얻은 것 • 사회활동이 향후 진로나 삶에 끼친 영향력 등	
사회활동 관련 정책욕구(전체)	• 사회활동 과정에서 경험했던 정책지원 욕구 • 청년 사회활동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지원	

(2) 면담진행 절차

우선 면담조사 참여자 선정은 크게 세 가지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첫째, 온라인 실태조사 조사업체의 패널DB를 통해 본 연구의 목적에 부합하는 대상을 선정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여기에는 사회활동 비참여자, 소규모 목적지향적 활동(대외활동) 참여자들이 해당하며, 면담참여에 동의한 청년들을 최종적으로 포함시켰다. 둘째, 지자체의 청년 커뮤니티 지원사업 담당자들의 협조를 통해 참여자를 섭외한 경우이다. 여기에는 청년 커뮤니티 활동 참여자들이 포함되는데, 이들은 서울시, 대구시, 광주시에서 실시하고 있는 청년 커뮤니티 지원사업에 참여 경험이 있는 청년들이다. 셋째, 연구진이 직접 섭외한 경우이다. 여기에는 지역사회기반 청년단체, 청년 당사자조직 참여 청년, 정책참여활동 청년들이 포함된다. 상술한 내용을 정리하면 <표 V-2>와 같다.

표 V-2 **면담조사 참여자 선정 과정**

면담조사 참여자 집단 구분	방법
① 비참여 집단 ④ 목적지향적 활동(대외활동) 참여 집단	- 조사업체 패널DB 활용하여 선정
② 청년 커뮤니티 지원사업 참여 집단	- 서울시(청년참), 대구시(다모디라), 광주시(청년모힘) 청년 커뮤니티 지원사업 담당자 협조 통해 섭외
③ 지역사회기반 청년단체 & 청년 당사자 조직활동 ⑤ 정책참여활동	- 연구진 섭외

면담조사는 연구진이 직접 실시하였으며 2017년 8월~9월 동안 이루어졌다. 주로 면담조사 참여자의 거주지 인근 회의실이나 면담조사 참여자들이 활동하는 사무실 등에서 이루어졌다. 면담시간은 면담 참여자 당 대부분 1시간 정도 소요되었으며 단체 참여자인 경우 2명을 동시에 면담하기도 하였다. 모든 면담내용은 면담참여자의 동의하에 녹음하고, 녹음 자료는 모두 전사하여 면담주제에 따라 내용을 분류하였다.

(3) 면담조사 참여자

면담조사 참여자는 총 37명이다. 배경변인별로 구분해 보면, 남자 20명, 여자 17명이며, 대학 진학자는 33명(자퇴 2명 포함), 비진학자는 4명이다. 수도권(서울, 경기) 참여자는 14명, 비수도권 참여자는 13명이었다. 연령은 대부분이 20대(34명)이지만, 지자체 청년 커뮤니티 지원 사업 대상자가 대부분 39세까지의 청년을 포함하고 있어 30대 2명이 포함되었으며, 지역사회기반 청년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는 30대 청년 1명도 포함되어 3명의 30대가 면담조사 참여자로 포함되었다. 면담조사 참여자 개요는 <표 V-3>과 같으며, 면담 참여자의 개인정보가 노출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이름을 모두 가명으로 처리하였다.

표 V-3 **면담조사 참여자 개요**

집단 구분	번호	이름	지역	성별	연령(만)	대학진학 여부	비고
사회활동 비참여자 (비경제활동인구/ 구직자) (4명)	(1)	임영희	서울	여	24	비진학	기혼
	(2)	김성호	서울	남	27	진학	
	(3)	김민준	대구	남	20	진학	
	(4)	정소라	대구	여	23	진학	
청년 커뮤니티 지원사업 참여자 (15명)	(1)	황은정	서울	여	26	진학	서울 〈청년참〉
	(2)	김지영	서울	여	25	비진학	
	(3)	신영철	서울	남	22	비진학	
	(4)	김우영	서울	남	32	진학	
	(5)	권수혜	서울	여	22	진학	
	(6)	박이성	서울	남	29	진학	
	(7)	조하영	서울	여	28	진학	대구 〈다모디라〉
	(8)	전진명	대구	여	20	진학	
	(9)	송민아	대구	여	24	진학	
	(10)	권경아	대구	여	35	진학	
	(11)	손윤석	대구	남	24	진학	광주 〈청년모임〉
	(12)	류수영	광주	여	22	진학	

집단 구분	번호	이름	지역	성별	연령(만)	대학진학 여부	비고
	(13)	문성훈	광주	남	23	진학	
	(14)	유혜리	광주	여	22	진학	
	(15)	최선호	광주	남	23	진학	
지역사회기반 청년단체 및 청년당사자 조직 (10명)	(1)	이호영	대전	남	29	진학	
	(2)	정민기	대전	남	29	진학	
	(3)	김지혜	대전	여	22	진학	
	(4)	박민희	대전	여	30	진학	
	(5)	김길성	대전	남	26	진학	
	(6)	지현호	강릉	남	29	진학	
	(7)	이혜영	강릉	여	28	진학	
	(8)	최재호	강릉	남	24	진학	
	(9)	김하성	경기	남	23	진학	
	(10)	백현수	경기	남	21	진학	
소규모 목적지향적 활동(대외활동) (4명)	(1)	신승수	서울	남	20	진학	
	(2)	안영호	서울	남	22	진학	
	(3)	김호찬	서울	남	25	진학	
	(4)	권민영	대구	여	22	진학	
정책참여활동 (4명)	(1)	김훈	비수도권*	남	23	진학	
	(2)	김아현		여	25	진학	자퇴
	(3)	정지민		여	24	비진학	
	(4)	태민우		남	26	진학	자퇴

출처: 지역을 명시할 경우 이들의 개인정보가 드러날 수 있어 비수도권으로 표기함

2) FGI 개요

지자체의 청년정책 담당자들은 청년 사회활동에 대해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으며, 사회활동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어떤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지 나아가 사회활동 활성화를 위한 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광역 지자체 청년정책 담당자를 대상으로 FGI를 실시하였다. 이들은

청년정책 실무자이자 전문가들로 청년 사회활동 활성화 방안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점뿐만 아니라 실효성 있는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데 의미 있는 견해를 전달해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전문가 FGI는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우선 특별시, 광역시, 경기도 청년정책 담당자를 대상으로 오프라인 FGI를 실시하였으며, 그 외 지자체 담당자의 경우는 서면 FGI로 대체하였다. FGI에 참여한 지자체 청년정책 담당자들은 총 10명이다. 서울시를 포함해 몇 개 광역 지자체를 제외하면, 지자체 청년정책 담당자의 수가 매우 제한적이어서 본 연구에서는 FGI 참여자에 대한 기본 정보는 제시하지 않고 전체 참여자 수와 조사 내용만 제시하였다. FGI 참여자 및 조사 내용은 다음 표에 제시되어 있다.

표 V-4 FGI 참여자 및 조사내용

구분	참여자	조사내용
FGI (1차)	• 특별시, 광역시 등 청년정책 담당자 6명 참석	• 지자체 내 청년 사회활동 지원사업 실태 및 현황 • 청년 사회활동 지원사업 운영 과정에서의 어려움 • 청년 사회활동 지원사업의 효과 • 청년 사회활동 활성화를 위한 단기적, 중장기적 과제
FGI (2차)	• 그 외 지역 청년정책 담당자 대상 으로 서면조사 실시 • 4명 참여	
전체	총 10명 참여 (FGI 참석자는 A~J로 표기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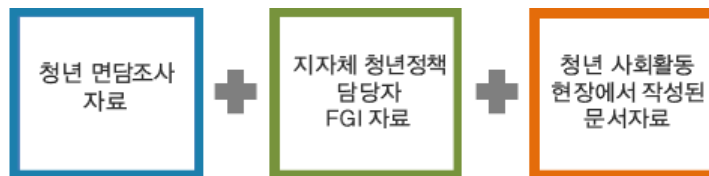
3) 분석 방법

연구자는 면담조사 자료와 FGI 조사 자료가 수집되는 즉시 분석을 하였으며, 자료수집이 마무리된 이후에는 집중적인 자료 분석에 들어갔다. 이는 질적연구에서 자료분석은 자료수집이 모두 종료된 후에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자료가 수집되는 날부터 조사기간 전체에 걸쳐 이루어지는 점(Silverman & Marvasti, 2008: 190)을 고려한 것이다. 자료분석에서는 면담조사 전사내용, FGI 전사내용, 문서자료⁶⁴⁾ 등을 종합적으로 사용하였다.

64) 본 연구에서는 서울시, 대구시(광주)의 경우, 사업 초기 단계로 사업 참여자를 대상으로 한 후기보고서 미발행)에서 청년 커뮤니티 지원 사업 종료 후 발간한 디렉토리북과 네트워크북을 수집하였고 지역사회기반 청년단체들이 발간한 문서 자료 등을 수집하였으며, 분석과정에서 이 자료들을 부분적으로 활용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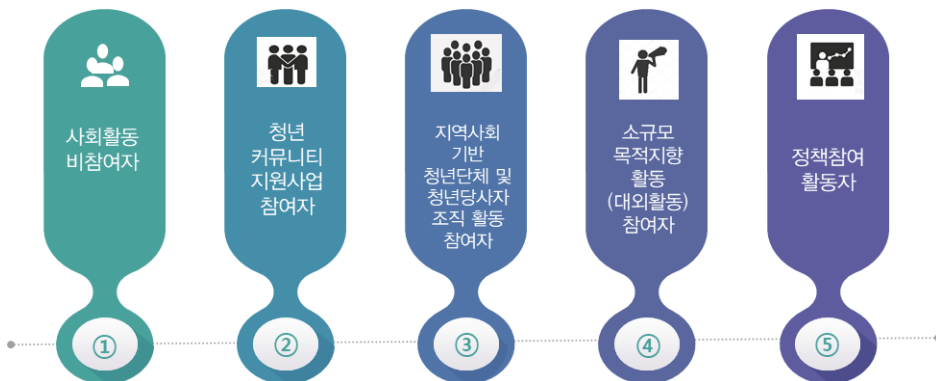
이처럼 연구자가 청년 사회활동의 심층적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 다양한 청년활동 참여자를 포함시키는 한편, 청년의 사회활동을 바라보는 지자체 청년정책 담당자의 관점을 동시에 조사하면서, 문서 자료 등을 다양하게 활용하고자 한 것은 질적연구 분석결과에서의 타당도를 확보하기 위한 절차라고 할 수 있다. 질적연구에서 타당도(validity)는 사회현상에 대한 분석이 그 현상을 정확하게 설명하는 정도를 의미하며, 신뢰도(reliability)는 다른 연구자가 동일한 현상을 연구했을 때 동일한 범주로 분류하게 되는 일관성의 정도를 의미한다(Hammersley, 1990: 57; Silverman & Marvasti, 2008: 258에서 재인용). 질적연구에서 타당도는 자료출처(data sources)의 포괄성이나 복수의 자료(참여관찰, 면담, 문서 등)를 활용함으로써 확보될 수 있다(Hammersley & Atkinson, 1995: 184; Mason, 1996/1999: 273-277).

연구자는 전사한 자료를 반복적으로 읽으면서 각 사회활동 유형별로 핵심적 주제로 부각되어야 할 주요 내용이 무엇인지 지속적으로 고려하였으며, 최종 분석 내용을 정리할 때는 면담조사 참여자의 입장에서 관련 언설을 분석하고 해석하고자 하였다.



【그림 V-1】 분석과정에서 활용한 자료

2. 청년 대상 면담조사 결과



【그림 V-2】 면담조사 참여자 유형

1) 사회활동 비참여자

	[면담조사 참여자] • 비경제활동인구 및 구직자 집단
---	--

(1) 사회활동 비참여 이유: 여건 부족 vs. 필요성 못 느낌

사회활동에 참여하고 있지 않은 청년들은 비경제활동인구이거나 구직 중에 있는 이들이었다. 이들이 사회활동에 참여하고 있지 못한 것은 크게 시간 부족이나 경제적 이유 등 ‘여건 부족’과 사회활동 참여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함’으로 구분되었다. 여건 부족에는 육아(임영희)와 구직 준비로 인한 시간 부족, 경제적 부담, 심리적 부담(김성호, 정소라) 등이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특히 구직 중인 청년들은 본인이 구직 중이라는 사실, 즉 미취업 상태에 있다는 사실이 다른 사람들과의 교류를 꺼리게 되는 주된 이유 중 하나로 제시했다. 이들은 하루 종일 집이나 도서관 등에서 이력서를 쓰고 서류 작성을 하던 중에 취업에 성공한 친구나 지인들에 대한 소식을 접하게 될 때마다 우울하거나 답답한 기분이 든 경우가 많았다고 설명했다. 본인은 아직 취업에 성공하지 못했다는 사실이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거나 타인과 교류하고 싶은 기회마저 차단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사회활동에 참여하지 않은] 가장 큰 이유는 제 마음이 불편했던 것이 가장 큰 이유인거 같아요. 구직활동을 하면서 아무래도 자존감이라든지 진짜 친한 사람과 만나는 거 아닌 이상 다른 사람들과 활동을 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심적으로 불편해서 활동을 안 했던 거 같아요. 또 다른 이유는 활동을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어떤 모임이 있는지를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구직 활동을 다른 사람들 보다 길게 한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흘러서 사람을 만나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찾아보려고 했지만, 하고 싶은 모임에 대한 정보라든지 어떤 모임들이 있는지를 잘 모르니 자연스럽게 포기를 하게 되는 마음이 생기게 되었어요(김성호, 남, 27세).

그런데 활동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그 결과 어떤 사회활동이 있고 어떻게 참여해야 하는지 알지 못하게 되면서 사회활동 자체를 포기하게 되는 악순환에 빠지게 된다. 김성호의 사례는

현재 구직 중에 있는 많은 청년들에게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다. 유사하게 구직 중이던 정소라 역시 구직 중에 있는 청년들이 처한 어려움을 잘 보여준다.

활동을 하려면 시간도 들고 돈도 드니까요. 집 근처에서 만나는 게 아니면 교통비도 들고 가는 데 시간이 애매하면 뭘 사먹어야 되는데 카페 들어가면 5,000원 그렇게 들어가는데 취업이 안 된 상태에서 용돈 타서 쓰는 건 눈치 보이고 그래서 눈치 안 보려고 알바를 하면 알바하는 데 시간을 뺏기고 악순환이에요. 그래서 아예 [사람] 만날 일을 만들지 않는 거죠. (중략)

질문: 활동을 할 때와 구직 후에 활동을 하지 않을 때 차이점은 뭔가요?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혼자 있다 보니까 더 사람이 소심해지고 자기 스스로 생각할수록 비관적으로만 생각하고 뭔가 사회를 더 알아봐야지 이런 건 더 없어졌던 것 같아요. 자기 스스로 비관적으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다른 사람을 만나면 뭔가 얘기 듣는 것도 있고 안 좋은 얘기라도 내가 듣는 게 있고 지식이 더해지는데 저 혼자 있으면서 계속 나아질 수 있을까, 취업할 수 있을까 이런 식으로 안 좋게만 생각하고 그리고 사회활동을 안 하니까 사람이 게을러지는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정소라, 여, 23세).

한편 현재 휴학 중인 김민준은 활동 전반에 대한 자발적 체념자에 가까워 보였다. 그는 현재 휴학 중이었는데, 휴학 중에 아무런 활동을 하고 있지 않았다. 도서관과 집을 오고 가는 일 외에 타인을 만나 대화하거나 교류하는 활동은 거의 없었으며, 이런 생활 패턴은 중고교 시절 이후부터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었다. 그가 하루 동안 하는 일은 TV보기, 인터넷 게임, 도서관에서 책읽기가 전부였다. 심지어 가족들과 대면하거나 대화하는 일도 거의 없는 상태였다. 그는 어머니와 여동생과 함께 살고 있었는데, 그가 사회활동 참여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고 답한 건 사회활동에 참여할 수 없는 강제된 상황에 대한 체념적 적응으로 보인다. 그는 면담 당시 매달 어머니로부터 5만원의 용돈을 받고 생활하고 있었다. 5만원의 용돈은 성인 남성 1명이 한 달 동안 사용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돈이다. 주로 간식과 교통비에만 용돈을 사용한다는 그는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활동 자체가 없었다. 그는 주로 ‘관심이 없어서’나 ‘아마도 귀찮아서’, ‘제가 의지가 없어서’, ‘어떻게 되겠지’ 등의 무기력한 답변을 주로 제시했다. 그렇다고 그는 그가 처한 상황에 대한 큰 불평이나 불만을 가지고 있지도 않았다.

(2) 사회활동 의향과 활동 참여의 걸림돌

김민준을 제외한 나머지 3명은 모두 사회활동 참여 의향을 가지고 있었다. 앞서 이들이 사회활동에 참여하지 못하는 이유로 제시했던 내용들이 활동 참여의 걸림돌로 작용했다. 활동 참여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다는 점,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활동에 참여하기는 쉽지 않다는 것이다.

길어지는 구직 활동 생활을 하면서 사회활동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혼자 있는 것이 힘들어지고 누군가와 만나서 서로의 이야기를 하고 그 속에서 답답했던 마음도 풀고 그러고 싶다는 마음이 있어요. 또 다양한 활동을 하면서 쌓여 있던 스트레스도 풀고 새로운 것을 하고 싶다는 욕심도 생겼어요. 아무래도 정보가 없다는 것이 걸림돌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활동을 참여하고 싶어도 어떤 활동들이 있는지 그리고 거기서 어떠한 활동들을 하고 있는지, 참여 방식은 어떤지 그런 정보들이 없으니 활동 참여에 어려움을 겪는 것 같아요. 그리고 경제적인 문제도 걸림돌인 거 같아요. 진짜로 경제적으로 뭔가 해결이 안 되면 참여하기가 어려운 게 사회활동이라는 것을 느꼈어요(김성호, 남, 27세).

그런데 몇 개 지자체에서는 청년활동 지원사업을 운영 중에 있다. 이들 비참여자들에게 지자체의 지원사업에 대해 알려준 후 참여 의향을 질문한 결과, 본인들은 참여의지가 있지만 청년들 전반이 이들 사업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청년들의 취업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일자리에 대한 경쟁이 심화된 사회적 분위기에서 사회활동에 대한 지원을 한다고 한들 청년들의 활발한 참여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것이다. 덧붙여서, 정소라는 지자체의 지원 사업들이 여러 가지 증빙서류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도 참여를 꺼리게 되는 이유 중 하나로 설명했다.

[사업] 의도도 좋은데 현실적으로 제가 아닌 다른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 고시원에서 시험 준비하는 분들, 그런 활동에 참여하고 싶고 끼고 싶지만 나는 남들보다 뒤처지면 안 되고 어른들의 압박감도 있고 그런 기대심 때문에 제쳐두는 경우도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알고 있어도 참여는 하고 싶지만 아무리 돈을 지원해줘도 그런 사람들한테는 그게 나쁜 건 아니지만 시간 낭비일 수도 있고 그럴 것 같아요. 제가 그 사람들 입장이라면(임영희,

여, 24세).

그걸[지원사업 참여] 하려면 또 사람을 모아야 되고 시간을 맞춰야 되고 그게 번거로워서...
또 보통 참여 하면 돈을 어떻게 썼는지 [증빙을] 제출해야 하지 않아요? (정소라, 여, 23세).

(3) 정책 지원 욕구

사회활동 참여 의향을 보인 3명은 청년들의 사회활동 참여를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욕구를 제시하였다. 이들은 앞서도 제시했던 활동을 위한 경제적 지원뿐만 아니라, 활동에 필요한 공간 지원, 거주지 인근에서 참여 가능한 프로그램 확대, 활동 관련 정보 제공 및 홍보 등에 대한 지원이 필요함을 제안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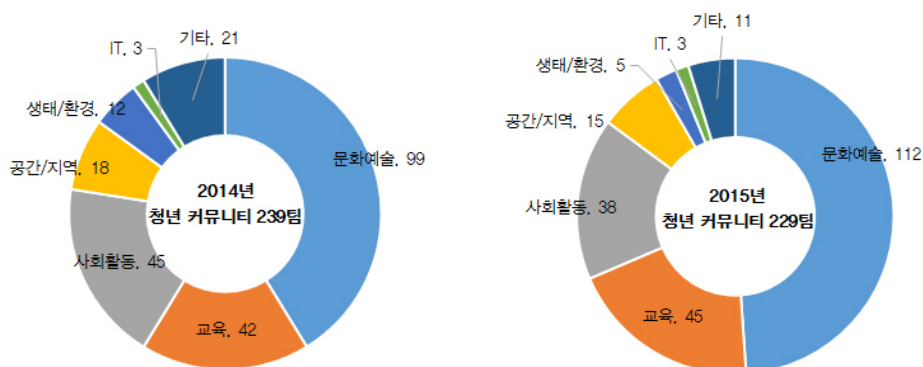
정책지원 욕구	내용
경제적 지원	청년들이 참여하는데 있어서 경제적인 문제를 해소하는 것이 가장 큰 지원이라고 생각해요(김성호, 남, 27세).
공간 지원	활동을 위해서는 아무래도 공간이 필요한데 공간을 대여하기 위해서는 일정 부분 공간사용료를 내야하고 그 비용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공공기관이나 다양한 장소 등을 무료 또는 저렴한 비용으로 대여를 해 주면 사회 활동을 위한 공간 문제를 해결 해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김성호, 남, 27세).
거주지 인근 참여 프로그램 확대	시간이 없어서 멀리 못 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다양한 활동 프로그램이 있으면 좋겠어요]... 동네에 있으면 바쁘긴 해도 동네에 있기 때문에 한 번 가보자고 그럴 수 있거든요. 제가 한두 시간밖에 없어요. 뭐 하지? 했을 때 한두 시간 그 사이에 동네에 있었으면 갔을 텐데 멀리 있어서 못 가는 경우가 있잖아요(임영희, 여, 24세).
정보 제공 및 홍보	어떠한 활동들이 있는지 정보를 볼 수 있는 사이트 등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대부분 사회활동 참여를 하기 위해서는 발품 팔아서 정보를 찾거나 지인들에게 물어보고 참여를 하는 것이 많다고 생각해요(김성호, 남, 27세).
인력 지원	- 청년 사회활동이 잘 운영이 되는지 어려움은 없는지 모니터링 하고 도움을 줄 수 있는 인력이 있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참여하고 싶는데 어려움을 느끼는 사람에게는 이런 인력이 활동 모임에 대한 정보와 참여를 도와주고, 운영하는데 어려움이나 도움이 필요한 모임에는 지원 방안이나 운영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조인 등을 주어 원활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도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김성호, 남, 27세). - 주변에서도 지금까지 진짜 제 나이라고 생각하면 5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한 거잖아요. 그 사람들은 자존감이 엄청 낮겠죠. 이런 저런 얘기도 많이 들었을 거고 내가 뭘 할 수 있나 이런 생각도 분명히 들 것이고 그런데 사람들마다 장단점이 있듯이 그런 장점을 살려줄 수 있는 도와주는 사람 지원? 방문해서 심리치료도 해주고 그런 지원이 있으면 좋겠어요(임영희, 여, 24세).

아울러 이들은 청년 사회활동 활성화를 위해 인력지원을 제안했는데, 김성호는 일반적인 청년 활동을 모니터링하고 지원하는 청년활동 지원 인력의 필요성을 제안했다. 임영희는 비참여자들의 특성을 고려한 지원을 제안했다. 즉, 비참여자들 중 다수는 비경제활동인구와 구직 중인 청년들이 많고 이들은 오랜 시간 동안 타인과의 교류가 없어 심리적으로 위축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그것을 극복하는 데 도움을 지원하는 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2) 청년 커뮤니티 지원사업 참여자

	[면담조사 참여자] • 서울시 청년 커뮤니티 지원사업 <청년참> 참여자 • 대구시 청년 커뮤니티 지원사업 <다모디라> 참여자 • 광주시 청년 커뮤니티 지원사업 <청년모힘> 참여자
---	---

서울시, 대구시, 광주시 등에서 실시되고 있는 청년 커뮤니티 지원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청년들은 다양한 활동을 지향한다. 서울특별시 청년허브에서 발간한 「청년참 디렉토리 북」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5년까지 청년참 사업에 참여한 청년 커뮤니티의 활동 분야는 [그림 V-3]과 같다(서울특별시 청년허브, 2016: 123~125). 문화예술 분야가 전체 커뮤니티에서 다수를 차지하며, 그 다음이 교육 및 사회활동으로 나타났다. 여기에서 말하는 사회활동은 사회문제를 발견하여 공유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찾는 다양한 활동을 의미한다.



출처: 서울특별시 청년허브(2016). 청년참 2015 디렉토리북: 서로 만나 지탱하는 힘 pp. 123~125.

[그림 V-3] 청년 커뮤니티 활동 분야(서울시 ‘청년참’ 사례)

대구시와 광주시에서는 아직 사업 초기라 서울시와 같은 사업 보고서를 발간하진 못했으나, 유사한 청년 커뮤니티 활동들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여기에서는 청년 커뮤니티 지원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청년들의 활동 경험을 심층적으로 살펴본다.

(1) 활동 참여 동기

면담에 참여했던 청년 커뮤니티 지원사업 참여 청년들은 대부분 청년 커뮤니티 지원사업에 참여하기 전 이미 마음이 맞는 몇몇 청년들과 활동들을 진행하고 있었다. 활동을 하고 있던 중에, 지원사업의 존재를 알고 지원하게 된 경우들이 대다수였다. 연구자가 만났던 청년들은 디제잉 활동, 캘리그래피 동아리, 심리역할극 활동, 미술감상 소모임, 한글알림이 활동, 공모전 준비모임, 여행 동아리 등 다양했다. 이들은 기존의 활동을 하면서도 지원금까지 제공해준다는 점에서, 청년 커뮤니티 지원사업에 참여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다.

이들이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게 된 동기는 다양했다. 대구시의 청년 커뮤니티 지원사업 ‘다모디라’에 지원했던 송민아는 졸업 후 공무원 준비를 하고 있던 중에 문득 본인이 사회적으로 아무런 경험이 없다는 인식에 이르게 되었다. 그런 상태에서 공무원 시험에 합격한다고 해도, 우물안 개구리가 될 것 같아서 평소에 자신을 표현하고 싶은 욕구와 시험에 대한 스트레스를 풀고 싶은 욕구를 해소하기 위해 심리역할극 활동을 시작하게 됐다. 전진명은 전공 학과에서 본인이 원하는 관계를 맺지 못하자 대학 밖으로 시선을 돌리게 되었고 현재 활동 모임에 참여하게 되었다.

지금 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공무원을 하겠다고 공부하는데 경험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알바를 하거나 온실 속의 화초처럼 다 부모님이 지원해주셨고 사회적으로 경험하면서 사람들 만난 게 적은 상태였고. 그 와중에 공부를 시작하니까 공무원이 되어서도 우물안의 개구리가 되고 사고가 작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한편으로는 스트레스 풀이를 찾기도 했고 나를 표현하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송민아, 여, 24세).

20대 초반이니까 만나는 사람이 다 같잖아요. 만나는 건 친구들밖에 없고. 학과생활도 잘 안 해서 선배들도 후배들도 잘 모르니까 제 생각에만 막혀있는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걸 하면서 여러 사람을 만났게 됐고 나와 다른 그런 걸 보면서 세상을 알아간다는 느낌을 많이 가져요(전진명, 여, 20세).

이들이 대학 생활 중에 느끼는 사회적 관계의 한계 혹은 대학 졸업 후에 느끼는 사과의 한계는 서울에서 대학생살을 했던 황은정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났다. 황은정이 대학 진학 후 직면했던 어려움은 많은 청년들이 경험하는 것들일 수 있다. 그런데 대다수의 청년들은 그 어려움을 현실로 받아들이고 많은 청년들이 걸어가는 길을 걸어가는 반면, 황은정은 친목 이상의 삶의 방향이나 목적에 대한 고민을 함께 나누는 활동을 하고 싶어서 참여하기 시작했다. 그는 그 활동을 통해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누구나 경험하는 불안감을 일정 부분 해소할 수 있게 되었다.

고등학교 졸업 후 대학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뭘 배워야 할지 처음에는 학부제여서 모르겠다, 누굴 만나야 할지도 모르겠다, 총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답 없음. 그래서 선택했던 건 그냥 휴학. 아주 많은 청년들이 그 상태에 빠져요 (중략) 그런데 부모님의 압박도 있었고, 대학은 나와야 하지 않겠니? 하는 압박이 있었기 때문에 또 선택이 없네. 계속 불안했어요. 너무 불안해서 모임에 가게 되었어요. 붙잡을 수 있는 게 있어야 해서 실제로 활동하면서 도움이 되었어요. 그렇지만 대학 4년을 다녔음에도 여기서 어떤 거를 작당하고 싶은 동료들을 못 만났어요. 동아리를 안 하긴 했지만 학번이 높아서 안 받아 주더라구요 교수님 친구들 사이에 친목 이상을 발견하지 못해서 어려움이 있었어요(황은정, 여, 26세).

권수혜(여, 22세)는 지방에서 서울로 대학을 진학했는데, 서울로 진학한 주된 이유가 서울에는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확실히 많이 있을 것으로 예상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대학 진학 후에는 학생회 활동이나 다양한 대외활동을 하면서 타 대학 학생들과 출판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되면서 청년 커뮤니티 지원 사업에 참여했다.

한편, 문화예술 기획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박이성은 문화예술 관련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직장인이다. 박이성과 함께 활동하는 청년들은 본인들의 전공 영역인 문화예술 분야에서 선뜻 시도하기 어려운 새로운 문화예술 공연을 기획하고 있다. 이들은 주로 “청년, 노동, 예술, 문화 등”의 키워드로 새로운 영역에 도전하는 예술가들에게 공연 기회를 제공하는 기획 활동을 하고 있다. 이들이 서울시 청년 커뮤니티 지원사업(청년참)에 참여하게 된 것은 이 사업이 특정한 형식의 활동을 요구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청년]참은 정확히 기억은 안 나아요. SNS 광고 같은 데서 발견했는지 아니면 주변 소개로 했는지 루트는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아요. 알게 되어서 지원해보자 해서 처음으로 지원하게 되었어요. 그 전에 2년 동안은 지원 사업을 오히려 내지말자는 생각에 가까웠어요. 지원사업이면 [형식에] 맞춰서 얹매이게 되고 애초에 [모임을] 만든 의도가 자유롭게 해보자라는 거여서 [취지에] 어긋난다고 생각했어요. [청년]참 같은 경우는 열려있는 프로젝트라 생각해서 지원했어요(박이성, 남, 29세).

청년들은 청년 커뮤니티 지원사업에 참여하기 전에 다양한 소규모 모임 활동에 참여하고 있었다. 때로는 사고와 관계의 확장을 위해, 대학에서는 해소되지 않는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새로운 실험적 활동을 시도해 보기 위해 이들은 다양한 활동들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었다. 원하는 활동을 하면서도 활동비를 지원해 주는 청년 커뮤니티 지원 사업은 이들에게 누군가로부터 ‘지지받고 있는 느낌’(김지영, 여, 25세)을 갖게 만드는 사업으로 인식되고 있었다.

(2) 청년 커뮤니티 지원사업이 활동에 미친 영향

① 관계 지속과 신뢰를 쌓을 수 있는 물리적 시간 제공

청년 커뮤니티 지원 사업이 청년들의 기존 활동에 미친 영향을 살펴본 결과, 커뮤니티 회원들 간의 관계를 지속하고, 그들 간 신뢰를 쌓을 수 있는 물리적 시간을 제공해 주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청년참이 좋았던 건 100만원의 지원이 있으면 의무적으로 써야하는데 의무적으로 만나는 게 중요해요. 자발적 의지만으로는 바빠서. (중략) 저희는 모임이 3년차가 되면서 ‘밥 먹을 수 있는 게 감사하고 너희 얼굴 보는 게 행복해’ 하면서 모임이 소박하게 바뀌었어요. 그때는 몰랐지만 큰 힘이 됐던 거 같아요. 지속적으로 만날 수 있는 거리만 있어도(김지영, 여, 25세).

20대 초반에 맺을 수 있는 관계는 넓은 편이 아닌데, 대학, 교회, 어떤 식의 모임들이 신뢰가 쌓이지 못 하는 건 지속성이 없어서인 거 같아요. 지속성이 받쳐주면 가능한데, 청년참이 도움 되는 게 의무적으로 만나게 하고 일정 기간 관계가 담보가 되고 그 안에서 여러 번의 기회가 주어지잖아요. 최소한의 물리적 시간이 있어야 하거든요. 신뢰가 만들어 지는데 이런 환경이 쉽지 않잖아요(황은정, 여, 26세).

② 시행착오와 실수가 허용되는 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

청년 커뮤니티 지원 사업은 청년들에게 시행착오와 실수가 허용되는 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다. 청년들은 지금까지 치열한 경쟁관계 속에서 삶을 살아 왔고, 어떤 일을 하다 제대로 못해 냈을 때 모든 책임은 본인이 져야했다. 제대로 해내지 못했다는 죄책감도 본인의 몫인 경우가 많았다. 그런데 이 사업은 못 했다고 불이익이 있지도 않고, 잘 했다고 칭찬을 받지도 않는다. 이 사업에서는 청년들에게 활동을 통해 성공적인 수익 모델을 찾도록 요구하지도 않고, 실수를 했다고 해서 패널티를 부과하지도 않는다. 오히려 활동 경험을 통해 스스로 배우고 성장하는 기회를 얻는다.

매번 아쉬운 점이 많아요. 하지만 여건 사업을 하는 공간도 아니고 직장도 아니니 실수가 허용되잖아요, 커뮤니티니까. 그 실수를 통해 배우고 성장해가는 느낌이 굉장히 좋죠. 부담감은 없되 새로운 것을 할 수 있어요(박이성, 남, 29세).

저희와 함께 하는 예술가들도 여기가 깨끗하게 차려진 공간이 아니어서 시험 삼아 해볼 수 있고, 처음 시도해 볼 수 있고... 이런 시도들을 할 수 있는 공간이라 저희와 같이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동지 같은 느낌을 받아요(조하영, 여, 28세).

(3) 활동을 통해 배운 점과 얻은 것

청년들은 자신들이 하고 있는 활동을 하는 데 활동비까지 지원해 주는 청년 커뮤니티 사업을 든든한 지원군으로 인식했다. 이들은 지원사업 참여를 통해 참여 전에는 얻지 못했던 다양한 것들을 배웠고 얻었다고 말했다.

① ‘비밀 언덕’, ‘안전지대’ 그리고 ‘자양분’

우선 활동 자체와 커뮤니티 회원들과의 만남을 통해, 청년들은 긍정적인 변화와 에너지를 얻고 있었다. 또한 청년들은 활동을 함께 하는 사람들을 통해 정서적 지지와 지원을 받고 있다고 인식했다. 이들에게 커뮤니티와 활동은 언제나 ‘비밀 언덕’이 되어 주었고, ‘안전지대’가 되어 주었다. 또한 향후 직업을 갖고 생활인이 되더라도 지금 하고 있는 활동이 자양분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다.

사람들 만나고 이야기하고 활동하는 것 자체가 힘이 되었어요. 한 때는 혼자서 방에만 틀어박혀 있던 때도 있었는데 몸은 편했지만 마음은 불편했거든요. 지금 활동하면서 개인적인 안 좋은 일이 있어서 기분 안 좋다가도 활동하러 와서 이야기하다보면 기분이 좋아지기도 하고 개인적으로는 그런 소통의 자리가 긍정적인 변화와 에너지를 줬던 것 같아요(손윤석, 남, 24세).

안전지대를 마련하는 과정. 제가 어떤 걸 해도 응원해 주는 사람이 있다는 거. 시답잖은 걸 해보고 싶다 해도 재미있겠다 말해주는 안전지대. 엄청 큰 힘인 것 같아요(권수혜, 여, 22세).

조금 쉬는 느낌이지만 나중에 진로에 자양분 정도는 되지 않을까? 허비하는 느낌은 아니고 귀한 시간이라고 생각해요(송민아, 여, 24세).

② 다양한 사람, 다양한 관점, '다름'의 가치에 대한 인정과 존중

청년들은 활동을 통해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면서 사고의 확장과 다양성에 대한 인정을 배웠다고 언급했다. 세상에는 자신의 생각과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고, 그들의 관점이 자신의 관점과 다르다고 해서 무시하거나 배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배우게 된다. 이들은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면서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하게 된다. 사회활동은 청년들에게 개방적인 사고와 태도, 유연함을 갖게 만드는 계기로 작용했다.

최대한 편견 없이 사람을 보려고 하는 거. 저도 그러는 과정에 있는 것 같은데 세상에는 다양한 삶이 있고, 자신만의 세계가 있다(권수혜, 여, 22세).

생각하지 못했던 걸 다른 사람 만나고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구나 하는 걸 배워요. 생각이 많아졌어요. 생각하는 방법이라고 해야 하나?(문성훈, 남, 23세).

③ 다양한 선택지의 발견, 새로운 활동을 할 수 있는 연결고리

새로운 생각, 새로운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서 이들은 사회적 스탠다드를 굳이 쫓아가며 살아가지 않아도 된다는 인식에 이른다. 청년들은 활동 전에, 본인 삶에 주어진 선택지는 한 가지라고 생각했던 반면, 활동을 한 이후에는 그 선택지가 다양해졌다고 인식했다.

현재 하고 있는 활동은 새로운 활동을 할 수 있는 연결고리가 되면서, 선택지가 더 풍성해지는 경험을 했다. 사회활동을 통해, 본인 삶에서도 다양한 길과 선택지가 존재한다는 것을 인식하게 된 것은 현재 많은 청년들이 직면하고 있는 불안감을 극복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새로운 선택지, 새로운 진로를 모색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활동하기 전에는] 내 앞에 정해진 길은 하나가 있고 그거로 가야 하는구나. 다들 그렇게 사나깐. 일종의 취준(취업준비) 토익 토플 공부하고 취직해서 결혼해서 애기 낳고 노후 준비하고 완전 정해진 모델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활동하게 되면서 달라진 게 이런 길 저런 길 이렇게 사는 사람 저렇게 사는 사람도 있구나 길이 하나가 아니구나. 그 과정이 [정해진] 답을 찾는 과정이 아니라 선택지를 발견하는. 뭘 해야 옳은 게 아니고 이런 것 저런 것 선택할 수 있구나! 하다가 아니면 버리고 다른 걸 선택할 수 있구나(권수혜, 여, 22세).

이런 활동 전에 대구에 이만큼 다양한 단체가 있는지를 몰랐어요. 청년이 활동할 수 있는 영역이 있는지도 몰랐고 활동하는 단체가 이렇게 많은지도 몰랐고. 알고 나니까 대구가 인프라가 다른 지역에 비해 크게 뒤처지는 것도 아니고 그냥 청년으로서 크게 관심이 없던 것 뿐이었구나 라는 느낌을 받았고, 이 활동하다보면 이게 잘되면 다른 활동이 생기고 또 다른 활동이 생기는 식이더라구요. 여기서 알게 된 인연으로 여기를 알게 되고 저길 또 알고 점점 많아지다 보니 활동하면서 얻는 게 많구나. 스펙쌓기로 하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다가가서 대화하고 소통하니까 더 큰 효과를 가져오는구나 했어요(손윤석, 남, 24세).

④ 의사소통 기술

청년들은 커뮤니티 활동을 통해 이견을 조율하고, 상대방의 의견을 경청하는 능력이 향상되었다고 말한다. 활동을 처음 시작할 때에는 의견을 조율하는 과정 자체가 고통스러웠다고 한다. 청년들은 사회활동에 참여하기 전에는 상대방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어떤 주제에 대해 심층적으로 논의하고 토론하면서 합의점에 이르는 과정을 경험해 본 적이 거의 없었다. 그 때문에, 활동 초기에는 때로는 날이 선 상태에서 상대방을 비난하는 방식으로 회의에 임하거나 토론하는 경우가 많았다. 또 일부는 자신의 목소리만 고집하는 데 집중했고, 정제된 방식으로 대화하는 방법을 알지 못해 힘들어했다. 그런데 활동을 지속하면서, 청년들은 의사소통을 잘 하는 노하우를 얻게 되었고 이견을 조율하는 방법도 터득하게 되었다.

관계에 대한 부분. 상호관계에 대한 부분이 훨씬 그때는 고통스러워서 그만둬야겠다 생각했는데 지나고 나서 보니 이런 식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과의 조율이나 이런 부분을 배우는구나 생각이 들었어요(권경아, 여, 35세).

⑤ 책임감

청년들은 커뮤니티 활동을 자발적으로, 스스로가 좋아서 참여하고 있었는데 그 때문에 활동에 대한 책임감을 더 강하게 느끼고 있었다. 누군가의 강요에 의해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활동이 좀 더 개선되기를, 구성원들끼리 활동을 더 잘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더 고민하게 된다고 말한다.

제가 대표라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애착이 좀 있어요. 제가 운영해야 하고 지원금 받은 걸로 동아리를 더 활성화 시키고 유지 시키고 하는 거에 애착이 있어서 제가 회장도 하는 거죠. 애착과 책임감?(최선희, 남, 23세)

이건 저희가 만든 거라서 소속감을 더 충실히 해야지 하는 마음이 있어요. 내가 열심히 해야지, 이게[모임이] 커지니까. 더 책임감이 더 강한 것 같아요(유혜리, 여, 22세).

⑥ 적극적인 삶의 태도

청년들은 활동을 통해 적극적인 삶의 태도를 스스로 터득하고 있었다. 청년들은 어떤 활동을 하더라도 얻는 것이 있다고 말한다. 그 활동이 성공했을 때에는 성공 경험을 통해 배우는 것이 있는 반면, 실패했을 때에도 '다음에는 이런 것을 하지 말아야겠다'는 교훈을 얻게 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새로운 일에 도전하는 일 자체를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깨닫고, 적극적인 삶의 태도와 자세를 갖게 된 점을 활동을 통해 배운 점으로 지적했다.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걸 두려워하지 않는 거, 새로운 일에 도전하는데 두려워하지 않는 게 생겼어요. (중략) 궁극적으로 내가 움직이지 않으면 이뤄지는 게 없으니 행사 참여할 때 다른 해보지 않았던 생각. 약간 불편할 수 있는 정치적 이슈도 열심히 생각하는 거, 회피하지 않고 또 자기만의 생각을 만드는 데 중점을 두고 있어요(권수혜, 여, 22세).

⑦ 기타

서울특별시 청년허브에서 발간한 「2014 청년참 디렉토리북」에는 청년 커뮤니티 지원사업에 참여한 청년들의 활동 후기가 담겨 있다. 이 후기에 제시된 내용들 중에는 앞서 제시한 6가지 범주의 내용 외에, 이들이 청년 커뮤니티 활동을 통해 배운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다. 주로 공동체주의, 협업에 대한 배움, 지금까지 정책의 대상으로서 삶을 살아오다가 시민의 자발적 참여로 사회에 기여했다는 경험까지 다양했다.

배운 점		구체적 내용
공동체 협업 사람	협업에 대한 배움	• 함께 의논하고 배우는 과정은 그것 자체로도 큰 매력이 있기에 커뮤니티를 이끌어가는 원동력이 된다(커뮤니티 ‘플레이어’ 후기, p. 60).
	함께 사는 마음가짐 & 함께 하는 사람	• 세상 속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어떠한 마음가짐이 필요한지 알게 된 기회가 된 의미 있는 시간들이었다(커뮤니티 ‘추억만들기’ 후기, p. 112). • 친절한 이웃을 지속시키는 가장 큰 원동력은 사람이다. 많은 사람들이 함께 콘텐츠를 만들어 나가고 각자가 갖고 있는 능력들로 서로의 프로젝트에 도움을 주기도 하는 점이 많아 좋은 효과들을 보고 있다(커뮤니티 ‘친절한 이웃’ 후기, p. 83). • 콘텐츠 만들기는 절대로 혼자 할 수 없다. (중략) 만들DA의 활동을 통해 모든 멤버들은 타인과의 연대, 협동심, 공동체주의를 배운다(커뮤니티 ‘만들DA’ 후기, p. 77). • 함께 웃음을 나누기도 하고, 때로는 부딪히기도 하면서 생기는 ‘함께 하는 에너지’가 우리를 지속하게 만든다. (중략) 이 활동도 사람으로 시작해 사람을 바라보고 사람을 위해 시작되었다(커뮤니티 ‘마중물’ 후기, p. 76).
시민으로서 기여했다는 경험		• 지역에 있는 공공의 공간을 꾸려나가는 데 있어 수동적으로 받는 것에만 그치는 게 아니라, ‘시민’으로써 기여했다는 경험이 신선하게 다가왔다(커뮤니티 ‘경의선 숲길지기’ 후기, p. 131).

출처: 서울특별시 청년허브(2014). 「2014 청년참 디렉토리북: 넘겨야 보이는 것들」.

(4) 정책 지원 욕구

청년 커뮤니티 활동에 참여한 청년들은 다음과 같은 정책 지원 욕구를 제시하였다. 이 의견들은 향후 청년 사회활동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청년 커뮤니티 지원 사업에 참여한 청년들은 공간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도시 내 유휴 공간들을 이용할 수 있는 방안, 청년들이 무료 또는 저렴한 가격에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확대해 줄 것을 제안했다. 또한 현재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청년활동 지원 사업들이 유사한

형식과 내용을 갖추고 있는 경우들이 많은데, 사업 기획 단계에서부터 청년들의 참여를 보장함으로써 더 다양하고 자유로운 형식의 사업이 늘어나기를 희망했다. 청년 커뮤니티 활동을 통해 청년활동가로서의 진로를 발견한 한 청년에 따르면, 지자체의 지원 사업을 통해 청년활동가가 지역사회에서 역량을 키우고 그것이 지역사회 발전에 환원될 수 있는 일종의 선순환 사업들이 늘어나기를 희망했다. 이처럼, 청년들이 사회활동에 거는 기대와 정책 욕구는 청년이 관여하고 있는 활동의 유형과 지향점에 따라 다양함을 알 수 있다. 즉, 청년 개인이 자기만족적인 커뮤니티 활동을 영위해 가는 데 필요한 정책지원에서부터 청년 개인이 자신의 정체성을 청년활동가, 지역활동가로 규정하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역량을 개발시킬 수 있는 활동 지원 및 정책욕구까지 다양하였다.

정책지원 욕구	내용
공간 지원	• 서울시 차원에서 쓸 수 있는 공간들이 있는데 커뮤니티 안에서 쓸 수 있는 공간들이, 사람들에게 매력적으로 다가 갈 수 있는 공간이 있을 것 같아요. 공간을 쓸 수 있는 제도적인 것들이 더 있었으면 좋겠어요(김우영, 남, 32세). • 공간에 대한 지원이요. 청년들한테는 요금을 안 받았으면 좋겠어요. 다 부담스러운 부분이고 그래서 없어지는 동아리도 많아요. 대학 내에서도 계속 동아리방 축소해요. 지자체에서라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열린 공간을 마련해 주면 좋지 않을까? 요금을 청년에게만 안 받았으면 좋겠어요. 약간 이기적일수도 있는데 대학생들이 돈이 없잖아요(류수영, 여, 22세).
지원사업의 형식과 내용의 다양성	• 지원해주는 형식 자체가 늘 같아요. 행사성, 프로그램성 지원이 많은데 그런 식의 행사를 열어준다든가 프로그램 교육시켜준다든가 그런 지원은 소모성이라 생각하거든요. 하고나서 크게 남는 게 없다고 생각해요. (중략) 파악해 보니 강의형식, 포럼형식, 그리고 사업공모, 딱 3가지로 추려져요. 이것밖에 없어서 아쉬운 부분이 있죠. 공모 주제부터 참여하게 해서 기획하게 해서 기획자들의 역량으로 지원받게 하고 이런 식으로 좀 더 에너지가 있게. 제한하지 말고 열어놓으면 다양해질 것 같아요(권경아, 여, 35세). • 일본에서는 이 친구가 개인적으로 성장할 수 있게 돈을 지원하는 게 아니라 사회에 던지고 나와서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혹은 사회로 환원될 수 있도록. 활동하다가 갑자기 취업하고 그러면서 활동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활동가가 사회에 중요한 어느 역할이 되게 환원이 되면서 계속적으로 활동하게 되는 그런 방향으로 개인성장에 맞춰 지원하는 게 있더라구요. 그런 방향으로 발전해야 하지 않나(권경아, 여, 35세).
청년활동을 지원하는 인력	• [청년] 문화에 관심이 있는 실무자가 있으면 좋을 것 같고 그런 사람들을 [구에서] 계약직으로 써도 괜찮을 것 같아요. 1년이고 2년이고 활동할 수 있는 열정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저희 구에는 이벤트 축제가 많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 의견을 내고 싶고 직접 찾아가서 얘기도 하려고 하고 기획서 보여드려도 되냐고 하면 그런 기회가 없어요(김우영, 남, 32세).

정책지원 욕구	내용
활동에 대한 피드백 및 조언	저희 모임은 공모전을 주로 준비하잖아요. 그런데 공모전 동아리도 그렇고 축구나 음악 동아리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어려운 게 준비하면서 ‘이렇게 하는 게 맞나?’ 하는 의문점이 드는데 방향을 잡아줄 수 있는 조언을 해주는 사람들이 있으면 (좋겠어요). 축구 같은 경우에도 마음에 맞는 사람들끼리 하면 배우는 거 재미는 있는데 그래도 알려주는 사람 있으면 실력도 늘고 더 재미있게 할 수 있잖아요. 조언 해 주는 사람이 있으면 좋지 않을까?(최선호, 남, 23세).
비진학자를 위한 활동정보 홍보	20세 이후에 학교에 적을 두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활동 참여에 대한] 정보 체계가 없는 건데 그거에 대해서는 자기가 찾는 거라지만 홍보가 필요할 것 같아요(신영철, 남, 22세, 비진학).
사회활동에 대한 인식 개선	어르신 분들이 이걸[사회활동] 취업에 관련 없으니 하지 말라는 생각을 안 가졌으면 좋겠어요. 이것도 한 사람이 성장하는 데 어떤 부분으로 적용될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어떻게 작용해서 가치관과 경험에 시너지가 될지도 모르잖아요. 단편적으로 봐서 취업에 관련 없고 득이 될게 없다는 식으로는 생각을 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유혜리, 여, 22세).

또한 청년들은 청년활동을 활성화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으로, 지역사회 내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는 청년 개인/단체와 지자체 청년정책 담당자 사이에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는 인력(예를 들어 청년활동 코디네이터)을 지자체에서 고용한다면, 청년의 눈높이와 욕구에 부합하는 정책들이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아울러 활동을 하면서 활동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활동에 대한 조언과 피드백을 제공해 줄 수 있는 멘토 또는 (준)전문가를 연계해 주는 바람도 드러났다. 이는 지역사회 내 인력(예: 재능기부 방식)을 발굴하여 연계할 경우 가능할 것이다.

대학 비진학자인 한 청년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대학 비진학 청년들을 위한 활동 정보가 체계적으로 전달될 수 있기를 희망했다. 실제로 서울시, 대구시, 광주시 모두 커뮤니티 지원 사업에 참여하는 청년들 중 대다수가 대학 진학자들이었다. 대학 진학자들의 경우 선후배를 통해 커뮤니티 지원 사업에 대한 정보를 얻기도 하고, 기존 활동에 참여하면서 다양한 루트를 통해 정보를 얻고 있었지만, 비진학자들의 경우 이러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경로가 다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에, 비진학자를 위한 활동 지원, 그리고 이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청년들은 많은 기성세대들이 청년들의 사회활동 참여에 대한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기성세대들은 청년들의 사회활동이 취업에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는 활동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었다. 그렇지만, 상술한 바와 같이 커뮤니티 활동은 청년들에게 다양한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었다. 따라서 지자체에서라도 청년 사회활동의 의미와 가치를 인정하고, 이에 대한 지원을 늘리는 것이 필요하다.

3) 지역사회기반 청년단체 및 청년당사자 조직 활동 참여자

	[면담조사 참여자] • 대전시 청년단체 회원 • 강릉시 청년단체 회원 • 청년당사자 조직 회원
---	--

(1) 활동 참여 동기

지역사회기반 청년단체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청년들은 지역사회의 청년들의 삶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면서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다. 대전에서 청년단체 활동을 하고 있는 이호영은 청년을 위한 일자리가 부족한 ‘지역사회에서 청년들이 삶을 살아가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가?’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게 되었다. 지역사회에 살고 있는 청년들을 위해 필요한 지원이 무엇일까를 고민하던 중에, 소셜 창업을 통해 청년들이 지역사회에서 자립할 수 있는 일종의 생태계를 조성하는 일이 중요함을 알게 되었다. 또 활동 공간이 부족한 청년들에게 공간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면서 청년 사회활동에 본격적으로 참여하게 되었다.

대전하면 보통 과학이나 청년의 도시로 보는 경우가 많아요. 대전인구 3명 중에서 한 명이 19-39세 나이에 해당됩니다. 열 명중에 한 명이 대학생인 도시입니다. 대학이 19개나 있거든요. 과학과 청년이 있는 젊은 도시라고 하지만 항상 이런 꼬리표가 달리거든요. 왜 대전 사람들은 스스로 “재미가 없다”, “문화가 없다”라고 생각할까라는 것에 문제의식을 가졌죠. 일단은 청년이 도시에 정착할 수 없다는 거죠. 대전이 연구소, 관공서, 행정기관, 공기업 이런 게 많은 곳이기 때문에 일자리 문턱이 높고 창업하려고 해도 어려워요. 대부분 기술창업이나 전문창업은 도와주는데 저희처럼 소셜 창업을 도와주거나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이 거의 없거든요. (중략) 도시와 일자리로 바라봤을 때 그렇지만 더 들어가서 보면 공간이 없어요. 강의실 빌리려고 하면 신청서 써야 해요. 얼마 전에 기사를 보니 스터디를 카페에서 하는데 널 돈이 없어서 못한다는 기사도 봤어요. 또 취업하고 나서 수입대비 렌트비용, 주거비용이 50%가 넘는다는 거죠. 그만큼 공간의 주도권이 없다는 거죠. 어른들이 카페에 가서 왜 돈 쓰냐고 하는데 실제 청년들의 공간에 있어서 사치를 부리는 게 그나마 카페인거죠. 거기서 마저도 카페 사장이 정해놓은 규칙에 따라서 움직일 수밖에 없죠(이호영, 남, 29세).

또 다른 지역사회기반 청년단체 활동을 하고 있는 이혜영은 지역사회에서 삶을 살아가는 청년들이 서로 교류하면서 청년을 주제로 대화하고, 사회적 이슈나 문제에 참여하고 목소리를 내기 위해 청년단체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다.

초기에는 청년들이 강릉에서 만나거나 할 게 없었어요. 그런 걸 이야기할 기회도 없어서 초기에는 모이는 거랑, 모임을 만드는 거. 서로 자주 만나서 놀고 대화하고 서로의 존재를 확인하는 것이 처음 1기 때의 활동이었어요. 그러다가 활동이 두 가지로 크게 나뉘는데요. 하나는 사회참여 활동. 사회 이슈 그리고 사회 문제, 연대해야 할 것들이 있을 때 목소리를 내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하나의 파트. 또 하나는 청년이니까 강릉 청년이라는 이름으로 모여서 청년에 대한 이야기를 하자, 이렇게 두 가지로 크게 활동하고 있어요(이혜영, 여, 28세).

두 단체 모두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지역사회에서 살고 있는 청년들의 삶에 주목하면서 청년활동을 시작하게 된 것으로 볼 수 있지만, 대전에서 활동하는 청년들의 경우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 내에서 경제적 자립을 모색하는 경우라면, 강릉에서 활동하는 청년들은 모두 별도의 직업이 있는 상황에서 청년들 간 교류와 사회참여를 위한 목적으로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점이 있다. 마지막으로, 청소년⁶⁵⁾의 노동권의 보호를 위한 노동조합 활동을 하고 있는 김하성과 백현수는 노동조합이자 시민사회단체로서의 성격을 지닌 당사자 조직에서 활동하고 있다. 세 개 단체 모두 회원들 간의 친목과 교류 활동 외에 목적 지향적 활동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유사하지만, 활동의 내용과 성격에 있어서는 차이점이 꽤 있다.

(2) 활동을 통해 배운 점과 얻은 것

① 협력적 생존 방식, 공동체적 삶의 방식

면담에 참여한 청년들은 현재 단체 활동을 통해 협력적 생존 방식 또는 공동체적 삶의 방식에 대해서 배우고 있다고 말했다. 지금까지 이들은 타인과 경쟁하면서 보다 나은 결과물을 만들어내고 그에 따른 차등적 보상을 받는 경쟁적 시스템 속에서 삶을 살아 왔다. 특히 대전에서 활동하고

65) 주지하다시피 청소년기본법 상 청소년의 법적 나이는 만9세~24세에 해당한다. 때문에, 면담참여자 중 김하성과 백현수는 만 24세 이하에 해당하기 때문에 법적으로 청소년에 해당한다. 그런데 단체가 청소년 노동권익단체로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향후 24세 이상 되는 회원들의 자격과 활동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를 두고 내부적으로 논의 중에 있다.

있는 청년들은 지역사회 내의 공동 주거공간에서 삶을 살아가거나, 마을만들기 사업이나 지역사회 재생을 통해 지역사회 주민들과 함께 공생하는 삶의 방식을 선택하면서, 이전의 경쟁적 삶의 방식으로는 함께 살아가는 것이 힘들다는 것을 인식했다. 또한 이들은 협력적 생존을 이미 경험한 터라,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믿고 있다. 그렇지만, 협력적 생존 방식으로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는 다른 한편으로 단체 내에서 발생하는 크고 작은 갈등들을 해결하고 풀어야만 한다. 갈등에 대한 해결 방식을 스스로 체화하기도 전에 쫓기듯 다른 일에 관여해야 하지만, 이들은 이러한 삶의 방식이 본인들에게는 의미가 있다고 판단한다.

활동을 통해서 협력적으로 생존한 경험이 베이스로 깔리게 되요. 건강하게 성장하는 지점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성장해 온 방식이 경쟁적으로 성장했잖아요. 남을 이기는 게 성장한 거였어요. 결국에는 그 정체성은 타인과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협력적으로 살기로 했으니까 싸우더라도 해결하죠. 저라는 사람을 계속 드러내고 부딪치고 힘들 때가 많아요. 계속 저를 스스로 돌아봐야 아니까요(이호영, 남, 29세).

크게 느끼는 것은 삶의 방식에 대한 고민이에요. 취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떤 일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견 좁은 의미 같아요. 무슨 직업을 택할 것인가 보다는 더 큰 어떤 방식으로 삶을 살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된 거죠. 주변 사람들과 어떻게 하면 어울려 살 수 있을까하는 개인의 영역에서 공동체 영역으로 생각하는 시각이 생겼다는 것이죠(김길성, 남, 26세).

② 갈등 조율 역량

이들 단체들은 단체 회원들간의 친목과 교류 활동을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동시에 뚜렷한 활동 목표를 가지고 있다. 당사자 조직 활동을 하고 있는 이들은 노동인권교육이나 캠페인을 펼치기도 하고,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기도 한다. 강릉에서 활동하는 단체 역시 사회현안이나 문제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하고 지역사회 시민단체와 연대할 사안이 있을 경우 참여하기도 한다. 그 과정에서 단체 회원들 간 의견이 부딪히기도 하고 갈등이 발생한다. 이럴 경우, 갈등을 원만히 조율하고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 갈등 후 다시 보지 않을 사이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이들도 활동 초기에는 갈등을 어떤 방식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민주적 방식으로 의견을 수렴해 가는 것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했다고 설명한다. 갈등과 이견을 조율해 나가는 과정을 반복적으로 경험하면서, 이들은 사안별로 어떤 방식으로 논의하고

풀어가야 하는지에 대한 노하우와 역량을 쌓고 있다고 말했다. Palmer(2016/2011: 92)에 따르면, “개인주의는 이기주의로 전락할 수 있고 공동체주의는 개인의 사고 능력을 붕괴할 수 있는 위험이 있다.” 그는 “이 두 가지를 창조적 긴장 속에서 수용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 ‘마음의 민주적 습관’에 열쇠가 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각자의 단체 활동을 통해 Palmer가 강조한 ‘마음의 민주적 습관’을 배워가는 중에 있다고 볼 수 있다.

농담처럼 국어 수학도 필요 없고 초등학교 때부터 사람들이 회의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이야기해요. 특히 단체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더 그런 게 심한 것 같아요. 민주주의와 회의에 대해서 오해가 기본적으로 있어 보여요. (중략) 활동하면서 민주주의에 대한 회의 진행 같은 거에 대해서 관념이 변한 건 모두 모여서 다 자기 하고 싶은 말만 한다고 해서 그게 민주적인 건 아니라는 걸 느꼈어요.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고 논의해야 하는 구조, 층위가 다르잖아요. 이걸 2-3명만 이야기해도 되고 이걸 다 같이 모여야 하고 이런 걸 구분하는 연습 같은 거를 활동하면서 느는 것 같아요. (중략) 자기 할 말을 잘 한다거나, 말하기 전에 듣고 조정한다거나, 싸우기 보다는 합의를 한다거나 하는 능력에 단체경험이 도움이 된다고 봐요(김하성, 남, 23세).

청년단체니까 다른 단체보다 서로 배울 수 있는 게 많아요, 배운다는 게. 다른 단체들을 많이 겪어보진 않아서 말하기 어렵지만 서로가 다른 성장환경에서 자라서 사회활동을 처음 시작하는 거잖아요. 회사 빼고, 대학교 빼고는 이 단체에서 처음 경험하잖아요. 그런 면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맞춰가는 걸 더 많이 배우는 것 같아요. 다른 데서 맞춰가는 걸 배워온 것 보다는 완전히 생으로 만난 거니까 거기서 맞춰가는 게 더 많죠(최재호, 남, 24세).

③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다는 자부심과 보람

이들은 각자의 활동을 통해 본인의 삶뿐만 아니라 타인에게, 또 지역사회에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다는 스스로의 평가와 주변 사람들의 피드백을 통해 자부심과 보람을 얻고 있었다. 물론 이들이 활동을 통해 이런 자부심과 보람을 느끼는 것은 이들이 선택한 활동이 본인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하고 싶었던 활동인데다, 본인들의 삶의 방향이나 지향점과 일치하기 때문이다. 대전에서 공동체적 삶을 실험하고 있는 김길성은 일이 중심이 아닌 사람이 중심이 되어 일을 하는 방식에서 의미를 찾고 있었으며, 당사자 활동을 하고 있는 백현수는 노동권의

캠페인이나 교육, 부당대우 등 문제 해결을 통해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었을 때 보람을 느낀다고 했다.

기존 삶의 지표는 어떤 경제적인 것에 맞춰 있는데 어떻게 나은 삶을 살 것인가에 대한 방향이 아니라 어떻게 더 많은 수입을 얻느냐에 따라 인생을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경제적으로 잘 사는 방법이 공식처럼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중략) 일하는 방식에서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하는 일이 의미가 있다고 느껴지는 게 커요. 흔히들 기계부품이 아니라 매뉴얼에 따라서 수행하는 부품이 아니라 상호간에 조정을 통해서 공동의 목표를 만들어 나가고 만들어 나가는 일이 사회적으로 주목도 받고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준다는 게 큰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일. 자선사업은 아니지만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하고 싶었어요(김길성, 남, 26세).

매 순간 보람을 느껴요(웃음) 활동이라는 것 자체가 하고 싶은 걸 하다 보니 그것에 만족감을 느끼는 게 크죠. 직장에서는 사회에서 자기 목소리 낼 시간도 기회도 없잖아요. 활동을 할 때는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내가 답답한 게 있으면 사회에 말할 수 있잖아요. 뭔가 나의 답답함이든 친구의 답답함이든 대변해줄 때 보람을 느끼고 제 문제만 해결하는 게 아니라 친구의 문제도 해결해주면 보람을 느껴요(백현수, 남, 21세).

④ 지역에 대한 정체성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활동을 진행하고 있는 대전시, 강릉시 청년들은 모두 지역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활동을 지속하면서, 지역에 대한 관심, 지역을 개선시킬 수 있는 아이디어와 마을 문제에 대한 해결책까지 마을 주민들과 공유할 수 있게 되었다. 대전시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이호영은 지역사회 활동을 통해 ‘사회적 자본’을 쌓는 법을 배웠다고 평가하고 있다. 지역사회 구성원들 간의 신뢰, 호혜성은 구호나 형식적 활동을 통해서가 아니라, 지역사회 내에 뿌리 내리는 활동들, 지역 주민들과 상호작용하는 과정을 통해 자연스럽게 얻게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지역에서 활동을 하면서 지역에 대한 정체성이 생겼어요. 지역에서 지내다 보니까 마을에 대한 관점이 생겨요. 지역에서 정착하고 미래를 꿈꾸다 보니 옆집 아저씨에게 인사를 하게 되고 옆집 개이름은 무엇인지 알게 된 거죠. 저희는 사회적 자본을 쌓는 법을 배웠다

고 정의를 내려요. 그 덕분에 창업도 되고, 주민도 되고 빛파크라는 이름으로 마을 디자인 사업도 진행해요. 마을 개선이나 마을 문제 해결하는 솔루션도 마을 상인들한테 제공하고 있어요(이호영, 남, 29세).

⑤ 다양한 사람, 세대와 계층에 대한 이해

지역사회기반 활동을 하는 청년들 역시 청년 커뮤니티 사업에 참여한 청년들과 마찬가지로 활동을 통해 다양한 사람을 만나고, 생각과 관점의 차이를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다고 말한다. 또 다양한 세대와 계층에 속한 사람들을 만나면서 다른 세대에 대한 이해, 계급성에 대해 성찰 하면서 타인의 눈과 위치를 통해 자신의 위치(position)를 새롭게 인식할 수 있는 안목을 갖게 되었다. 이는 사회활동에 참여하지 않았다면 경험하지 못했을 내용들이다.

다양한 사람들이 있구나 느꼈어요. 제가 대학교까지 FM대로 지냈어요. 고등학교 때 공부 열심히 하고 동아리 생활도 안하고 지냈어요. 활동하면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났어요. 이런 생각도 저런 생각도 할 수 있구나 알게 됐어요. 좋았던 것도 힘들었던 것도 다 사람들과 관련되었어요. 일도 있지만 제일 기억 남는 것은 사람. (중략) 그런 사람들 보면서 제가 어떤 사람인지 보게 되니 재미있었어요(김지혜, 여, 22세).

실제 커뮤니티 안에서 40대가 활동을 하세요. 그 나이대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서 좋아요. 어떤 생각을 하는지, 우리를 어떻게 보는지 알 수 있어요. 다양한 연령대를 만날 수 있으니 좋은 것 같아요. 세대 간 격차를 이해하는데도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중략) 또 다양한 사람들을 경험할 수 있어요. 청년세대라고 하면 대체로 20대 대학생들이라고 생각하잖아요. 대학을 못 간 사람들, 미혼모 이런 분들도 조사를 하면서 만나봤어요. 나이가 있지만 취업도 가능하지만 가정환경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등등. 다양한 사회적 면모를 파악할 수 있는 것들이, 이런 커뮤니티 안에서 사람들을 만나거나 관계를 안 맺었으면 결코 몰랐을 사람들이잖아요. 개별적으로 만나기 힘든 사람들이고 만났다 하더라도 심적인 동화 내지는 이해가 어려웠는데 이런 기반을 통해서 이 사람들을 보니 그런 사람들이 있고, 그 사람들을 이해하고 그들과 나와서 관계성을 고민하게 되는 기회를 갖게 됐어요. 이런 활동을 하면서 삶이 다양하다는걸 알았고 활동하는 것과는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지는 않지만 제 연구 분야가 인적자원(HR)이에요. 다양한 사람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되었어요(박민희, 여, 30세).

(3) 활동을 하면서 힘든 점

① 활동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고민

i) 생존의 문제

이들이 활동을 진행해 가면서 직면한 가장 큰 어려움은 생존의 문제였다. 특히 지역사회에서 공동체적 삶을 살아가는 것을 실험 중인 대전시 청년들은 생존에 대한 어려움이 가장 크다고 말했다. 정부나 지자체의 청년 지원사업은 대부분 기존 창업모델을 확산하는 데 있는데다, 사회적 경제를 비롯한 소셜 관련 창업에 대한 지원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이들은 청년들이 지역사회 내에 뿌리내릴 수 있는 다양한 실험사업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대부분의 지원사업이 사업성 경비에 대한 지원은 있으나, 사람을 지원하는 인건비 지원이 거의 때문에 당장의 경제적 문제에 어려움이 발생했다.

또 다른 한편, 사회적 경제와 관련된 분야의 지원사업에 신청하기 위해서는 법인이나 협동조합의 형태로 등록되어야 하는데, 그 절차를 밟는 것도 쉽지는 않았다. 그러나 대전시 청년들은 향후 단체를 기반으로 다양한 활동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어서 단체 유지와 회원들의 생존을 위해 법인 등록 절차를 준비하고 있었다. 대전시 청년단체의 경우는 회원 개인의 생존이 활동의 지속가능성과 직결되기 때문에 경제적 문제에 대한 고민이 가장 큰 것으로 보였다.

먹고 사는 문제요. 이런 삶을 어떻게 지속할까에 대한 것이 가장 고민이에요. 그래서 지역에 필요한 청년들이 목소리를 내주는 게 필요 하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행정에서는 지역과 공동체적 관점을 묶어서 청년에게 지원하겠다는 생각이 없어요. 사람이 지역에서 성장할 수 있는 모델을 지원해 줘야 하는데, 만들어진 모델을 퍼뜨리는 데에만 지원을 해주죠. 저도 이해는 되요, 성과를 내야하니까요. 그러니까 기준자체가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성과를 평가하는 기준이 바뀌어야하죠. 이건 개인의 잘못이 아니라 청년 전체를 관통하는 정책적 관점이 바뀌어야 해요(이호영, 남, 29세).

ii) 일과 삶의 불분명한 경계

한편, 당사자 조직 활동을 하고 있는 청년들의 경우는 '청년활동가'라는 미명 하에 일과 삶의 경계가 불분명한 생활을 이어가고 있었다. 이 단체의 회원은 58명으로 이들은 매달 정기적으

로 회비를 납부하는 진성회원들이다. 그런데 이들이 내는 회비로는 단체 활동을 꾸려나가는 데에도 한계가 많았다. 대부분의 회원들이 청소년들이기 때문에 회원들의 회비만으로는 상근자 1명에 대한 월 인건비를 제공하기에도 무리가 있다. 상황이 이러하다 보니, 활동가들은 자비(自費)와 봉사로 활동을 이어가는 경우가 많다. 지금까지 시민사회단체 등에서 활동하는 활동가들이 그들의 노동에 대한 대가를 지불받지 못하면서도 마땅히 '활동가'는 희생과 봉사로 또는 자신이 좋아서 하는 활동이니 열악한 환경을 감내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일종의 관행에 대해 김하성은 비판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었다. 당사자 조직에서 활동하는 청년들 역시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활동하는 청년들이 직면한 생존의 문제와는 수준이 다르지만 '활동의 지속가능성'이란 측면에서는 동일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활동가 자체는 힘든 일인 것 같아요, 어쨌든. 지원도 많이 없어서 열악한 환경에서 일을 해야 해요. 상근은 저 혼자인데 노동단체인데도 최저임금도 받지 못해요(백현수, 남, 21세).

활동가라는 표현을 저도 쓰지만 썩 좋아하지 않아요. 제가 생각하기엔 일종의 태도를 지칭하는 느낌으로 되어 있어요, 활동가라는 말이. 활동가는 일과 삶의 경계가 사라지는 것을 감수하는 태도[를 지칭하는 것 같은]. 제가 많은 활동가 분들, 저희도 그렇지만 구체적으로 정해진 업무시간 이외에도 일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회의한다든가 회원을 따로 만나서 그분들의 이야기를 듣는 시간들이 많아요. 그것도 엄밀히 따지면 일인데 이런 건 일이 아니고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일이고,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니까 굳이 임금노동이 아닌 것처럼 생각하게 되는 태도들이 있다고 생각해요. 모든 것을 다 임금으로 따져서 계산할 순 없지만 어느 정도는 일과 삶의 경계를 정해놓고 해야 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김하성, 남, 23세).

iii) 외연 확장의 어려움

강릉시에서 활동하는 청년들뿐만 아니라, 당사자 조직 활동을 하는 청년들 역시 단체의 외연 확장에 대한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강릉시 청년단체의 경우 지역에서 삶을 살아가는 청년들의 참여와 관심이 부족하다는 점에서, 당사자 조직 활동을 하는 청년들은 노동조합의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에 회비를 내는 진성회원들이 늘어야 활동을 활발하게 진행할 수 있다. 그런데 회비가 최저임금인 6,000원 수준인데 청소년들에게는 그 회비도 부담스럽다는 것이다.

그 때문에 회원을 늘리는 것에 대한 고민을 늘 하고 있다. 특히 강릉시 청년단체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맡고 있는 이해영은 자신들은 곧 30대가 될 것이고 그럴 경우 결혼, 출산, 육아 등으로 지금만큼 활동을 활발히 이어가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했다. 그 때문에 20대 초중반 청년들이 단체 활동에 참여할 수 있기를 희망했다. 그러나 이들은 지역사회 청년들이 청년활동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기에는 취업준비 등 개인적으로 너무 바쁘고 고된 삶을 살고 있다고 진단한다. 이 때문에, 활동의 동력을 얻는 데 여러 가지로 한계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항상 저희가 토론회 같은 걸 하는 이유가 그런 주제로 관심 있는 친구들끼리 만나고 모임 회원도 늘고, 일도 나누려고 하는데, 생각만큼 회원이 늘지 않아요. 같이 활동할 수 있는 다른 청년들도 생겼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중략) 예전에는 왜 청년들이 참여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너무 바빠요. 바쁘고 이런 말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삶이 고돼요. 저희뿐만 아니라 한국이 다 그렇잖아요(이해영, 여, 28세).

② 지자체와의 협업 과정에서의 어려움

이들 단체들은 다른 활동에 참여하는 청년들과 비교할 때, 비교적 지자체 공무원이나 청년정책 담당자들과의 상호작용이 빈번한 편이었다. 지역사회 청년조례제정에 관여하거나, 지자체 청년 지원 사업에 참여하거나, 지역사회 내 행사에 청년단체 일원으로 참여하는 등 교류나 협업의 기회가 많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이들은 다양한 수준에서 관점과 입장 차이를 경험하고 있었고, 활동을 전개하는 데 현실적인 제약이 있다고 인식했다.

i) 지원 사업 신청자격의 높은 기준

강릉시에서 활동하고 있는 청년들은 현재 강릉시와 강원도에서 청년기본조례가 제정되지 않고 있어 청년정책 관련 의견을 제안할 창구 자체가 구조적으로 부재한 상태에 있었다. 그래서 이들이 지역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활동은 문화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업에 지원하는 정도인데, 그마저도 지원할 수 있는 자격 기준이 높아서 선뜻 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이들이 여러 사업에 지원하고자 할 때 직면하는 어려움은 신청자격 기준이 너무 엄격하다는 것이다.

지자체 문화재단 같은 이런 사업에선 청년들이 참여할 수 있는 사업이 많긴 해요. 강릉 시 같은 경우 청년 문화예술인 육성사업이 많기는 한데 조건이 뭐냐면 무슨 기준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예술인으로 활동한 경력, 예술단체 등록이 있어야 하거나... 우리는 예술단체도 아니고 예술인이 있는 것도 아니예요. 지역사회 문화 관련 사업을 하고 싶는데 제한할 수 있는 기준이 부합이 안 되어서 할 수 없다거나 이런 것들이 계속 들어가요. 기준이 높더라고요. 단체성격이 콘텐츠가 있거나 수익 모델이 있거나 뭘 주는 활동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당사자 모임이잖아요(이혜영, 여, 28세).

실제로 강릉문화재단과 서울문화재단에 공지된 지역사회 지원사업의 신청자격을 비교해 보니 차이가 있었다. 서울문화재단의 경우, 청년예술인을 대상으로 한 지원사업 유형이 많았고, ‘서울을 바꾸는 예술’을 주제로 한 공모에 청년들을 타겟으로 한 공모지원이 별도로 있을 정도로 청년들의 활동과 참여에 대한 지원이 다양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반면, 강릉문화재단의 경우 사업의 종류도 다양하지 않았지만 대부분 지원사업의 신청자격 기준은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을 보유한 단체”로 규정하고 있었다. 서울문화재단의 경우에는 사업 지원 시에는 사업자등록증이나 고유번호증이 없더라도 대표자 개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구분	사업명	내용
서울	2017 서울문화재단 서울을 바꾸는 예술: 청년편(Y) ⁶⁶⁾	• 지원대상: 20~39세 청년예술인, 청년기획자 개인 혹은 2인 이상으로 구성된 단체 • 단체의 경우 - 사업자등록증 혹은 고유번호증이 없는 임의단체의 경우, 대표자 개인으로 지원신청이 가능하며 선정 후에는 반드시 고유번호증을 발급해야 함.
강릉	2017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사이사이” ⁶⁷⁾	• 지원대상: 도내 문화예술교육 운영 역량을 가진 문화예술단체·기관 •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을 보유한 단체

66) 서울문화재단 공지사항 50번 공지글(2017. 7. 27.) 참조.

<http://www.slac.or.kr/html/opensquare/notice.asp?perMenuSeq=6&MenuSeq=108&SearchCategory=&SearchKey=A&SearchValue=%EC%B2%AD%EB%85%84>에서 2017년 10월 16일 인출.

67) 강릉문화재단 공지사항 456번 공지글(2017. 2. 3.) 참조.

<http://www.gncal.or.kr/contents.asp?page=102&kind=2&IDX=5617>에서 2017년 10월 16일 인출.

문화재단의 성격상 문화예술 단체를 대상으로 한 지원사업이 주를 이루는 것이 당연하지만, 지역사회를 바꾸는 예술, 지역사회를 개선할 수 있는 아이디어 등을 공모하는 과정에 지역사회 청년들의 참여를 촉진할 수 있도록, 청년단체의 성격을 고려하여 신청자격 기준을 완화하거나 조정한다면 지역사회 청년들의 참여가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다.

ii) 지자체 담당자 및 기성세대와 청년들 간 입장 차이

지역사회에서 활동하는 청년들은 지자체 담당자 또는 기성세대로부터 ‘예의가 없다’거나 ‘너무 나선다’는 편견을 듣기도 했다. 청년들이 적극적으로 지자체 사업이나 행사에 참여하는 것에 대해 지자체 공무원들은 때로 자신들의 영역을 침범하는 것으로 오해하는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 청년들은 행사나 사업에 기여하려는 열정으로 의견을 제시하거나, 개선점에 대해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것이었는데, 그것을 받아들이는 기성세대는 무례하다는 반응을 보이는 것에 대해 오히려 상처를 받는 경우가 많았다. 최재호는 청년들이 어떤 사안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면 기성세대들은 청년들이 시비를 걸거나 새로운 일거리를 떠넘긴다는 불순한 의도로 인식한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간다’는 기성세대의 반응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생각했다. 청년들과 지자체 담당자 또는 기성세대들 사이에 업무를 대하는 관점의 차이, 또는 권력관계에 따른 주도권에 대한 인식이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일정 부분 청년들이 기성세대와 업무적으로 소통하는 방법을 알지 못해 발생한 것일 수도 있지만, 상당 부분은 기성세대가 청년들을 업무의 파트너나 협업의 상대로 존중하고 있지 못한 실태를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기존 방식과 새로운 걸 서로 맞춰 나가는 게 많고 힘든 것 같아요. 저는 조직사회 경험을 군대나 아르바이트밖에 못해봐서 그런지, 관습적으로 저희들이 무례하다고 느끼시는 분이 있어서 외로워요. [왜 무례하다고 생각해요?] 기관의 영역인데 왜 너희들이 하려고 하나? 3년 전에는 대전의 많은 행사를 저희가 했어요. 영상 마케팅 촬영도 하고, [시와 저희가] 공동 기획으로 하니까 인건비가 없다고 말하더라구요(이호영, 남, 29세).

공무원과 기성세대 굳이 구분 짓고 싶지 않아요. 표면적으로 저를 대하는 태도가 다르고 속내는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제가 만난 공무원은 시청에서 딱 한 번이고 나머지는 학교 안에서 직원들을 많이 보잖아요. 학교 직원들도 대학생 상대하는 거를 가장 열린 마음으로 대해야 하는데 태도가 ‘왜 또 귀찮게 왔지?’ 이런 거. ‘일 잘하는데 왜 와서 시비 걸지?’

일을 만들지? 이런 거. 어른들도 비슷해요. 이 동네 어른들도 왜 사서 일을 만드냐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최재호, 남, 24세).

iii) 지자체 사업에 동원되는 경우

지역사회에서 활동하는 청년들은 지자체와의 협업 과정에서 때로는 동원되는 느낌을 받곤 했다. 행사 성격 상, 청년단체 회원이 나와 발언이 필요한 경우 구색을 맞추는 과정의 일환으로 행사에 동원된 느낌을 받는다는 것이다. 과거에는 동원된 느낌을 받아도 그에 대해 직접 발언하기 힘들었지만 최근 지자체에서 청년정책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동원된 듯한 느낌을 받는 행사에서는 그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기도 했다.

지금은 뭘 하면 청년이 좀 나와서 해 달라, 청년대표로 와 달라 이런 제안도 많이 받아요. 뭐하면 발언해 달라 해요. 그런데 액세서리 같은 느낌이 조금 있어요. ‘여기 오늘 동원된 것 같은데 맞아요?’ 옛날에는 그냥 개인으로 왔거나 이 단체 상근자로 왔으면 못할 말인데 청년단체 활동하니까 ‘우리 단체 조금 후려치기 하는 것 같아요’라고 말할 수 있어요(이혜영, 여, 28세).

③ 활동 토대의 척박함: 지방 청년으로 살아간다는 것

서울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당사자 조직 활동 참여자들을 제외할 때, 대전과 강릉에서 청년 활동을 진행하고 있는 청년들은 서울에 비해 상대적으로 활동 토대가 척박한 것에 대한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단적으로, 청년기본조례가 제정되지 않은 강원도 강릉시의 경우 지자체 내에 청년정책 담당자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만큼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청년에 대한 관심이 부족하고 제도적인 토대를 갖추는 데에도 느린 편이다. 그런 토대 위에서 청년활동을 전개해 나간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그렇지만 마스크를 통해 서울시의 청년정책을 자주 접하게 되니, 종종 서울시의 청년정책과 본인들이 살고 있는 지역의 청년정책을 비교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한다. 청년에 대한 기성세대의 관심이 부족하고, 지역 청년들도 청년활동에 대한 참여가 활발하지 않다. 본인들 역시 본업이 있는 상태에서 청년활동에 부가적으로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활동을 전개해 나가는 데 여력이 없다. 이들은 지방에 살고 있는 청년들도 즐겁고 신나게 삶을 살아가기 위해 청년단체 활동을 시작하게 된 것이었지만, 여건이 녹록하지 않은 상태에서 청년활동을 이어가는 것이 쉽지 않다고 인식했다.

경기도 청년들도 자기들을 지방청년이라 생각해요. 서울이 아니면 다 그냥 지방, 지역 청년인거예요. 그것들의 부족함을 가슴에 다 갖고 있어요. 서울 외에는 서울 청년이 아닌 거예요. 우린 다 박원순 시장의 청년이 아닌 거예요. 안타깝죠. 서울에 있는 사업들 부럽죠. 좋은 점도 안 좋은 점도 있는 거 다 알면서도, 안 좋은 점이라도 경험해 보고 싶다는 거죠. 우리 지역에선 청년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도 없고, 활동 하겠다고 하는 청년도 사실 부족한데. 안 좋은 거라도 경험해보고 싶다는...(이혜영, 여, 28세).

(4) 정책 지원 욕구

지역사회기반 청년단체 활동 및 당사자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청년들은 청년 커뮤니티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청년들과 유사한 정책 지원 욕구를 가지고 있기도 했지만, 자신들의 고유한 활동 내용과 관련된 정책 지원 욕구를 제안하였다.

우선 활동에 대한 경제적 지원과 공간 지원, 인력지원의 내용은 유사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활동에 대한 경제적 지원은 ‘활동비 지원’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좀 더 근본적으로 청년들이 자유롭게 다양한 활동 실험을 할 수 있는 기본소득 개념의 지원을 의미한다. 서울시의 청년수당이나 성남시의 청년배당과 유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당사자 조직 활동을 하고 있는 청년들 역시 노동권익 교육이나 캠페인, 정책토론회를 열 수 있는 공간 활용이 자유로울 수 있기를 희망했다. 박민희는 공간 활용은 청년만을 위한 지원에 국한할 것이 아니라, 시민이라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권리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또한 지역사회 내에서 활동하는 청년단체들 간 네트워크, 지자체 내 사업 아이템을 제안하거나 지자체 담당자와 협업할 때 청년단체와 지자체를 연결해 주는 중간자 역할을 해 주는 인력 지원이 있기를 희망했다. 이는 청년 커뮤니티 지원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청년들도 제안한 내용이었다. 청년 개인/단체와 지자체의 가교 역할을 하는 인력이 있을 경우, 지역사회 내 청년단체들 간 네트워크도 가능할 수 있을 것이다.

정책지원 욕구	내용
활동에 대한 지원 (기본소득)	• 저의 경험을 토대로 보면 부모님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경제적으로 독립하거나 다른 일을 할 때 비용이 안 들거나 내가 나 자신을 들여다보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찾는 시간을 사회에서 인정해 주면 된다고 생각해요. 모든 정책의 끝판왕은 기본소득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저는 기본소득을 간접적으로 체험했거든요. 주거비가 낮아지니 30~40만원 번거잖아요 하루아침에. 거기에서 나온 삶의 변화는 단순히 돈을 아낀 것 이상이었어요. 내가 나 자

정책지원 욕구	내용
	신을 돌아보고 내가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어요. (중략) 청년들이 무엇을 할 때 실패를 두려워하는 건 청년들이 경제적으로 실패를 감당할 수 없으니 시작조차 할 수 없는 거죠 가진 것이 없으니(김길성, 남, 26세).
공간 지원	• 금전적 지원이 가장 많이 필요하긴 해요. 그게 어렵다면 공간을 많이 제공해주는 것도 필요해요.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서울시에는 그나마 많지만 아직 많이 부족해요. 경기도만 가도 서울에 비해서 없어요. 특히 청소년은 동네감수성이 있어서 생활반경이 아무래도 20대보다는 적어요. 그런 점에서 동네 별로 공간이 있으면 좋겠대(백현수, 남, 21세). • 모일 공간이 없어요. 직장인은 돈이 있으면 카페에서 모이면 된다고 생각해요. 직장인이 저렴하게 또는 무료로 시민의 자격으로 어떤 공간에 대해 기회 자체가 제한적이예요. 그러한 부분들을 지원해 주었을 때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면 새로운 것이 나온다고 생각해요(박민희, 여, 30세).
활동 단체들 간 네트워킹	• 청년활동이나 청소년활동끼리 네트워크가 안 이뤄지는 것이 저를 포함해서 이 영역의 모든 사람들이 고민해야 할 지점이에요. 비슷한 활동을 여러 곳에서 산발적으로 하는데 잘 엮이기만 해도 활동효과라든가 활동가들의 열악한 노동환경이 개선될 것 같아요(김하성, 남, 23세).
지자체와 청년활동을 연결하는 중간지원 인력	• 지원보다는 제도 쪽을 편하게 만들어놔야 좋겠어요. 지자체와 [문화]재단처럼 일을 할 때 어렵잖아요. 그 일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지자체 내 모임을 위한 교육 같은 거나 지원도 필요해요. 청년과 지자체를 연결시켜 줄 수 있는 중간 역할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지현호, 남, 29세).
광역단위 및 기초단체에서의 청년 지원 사업 이분화	• 현재 지자체의 지원 사업은 성공할 것 같은 모델에 지원하는 데 치중되어 있어요. 지원하는 방식자체가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청년들에게 보조금 주고 지원하는 큰 정책들은 중앙정부나 광역단위에서 하면 충분하고 세부적인 정책들은 지역에 정착해서 지역적 관점에서 고민해 나가는 청년들이 스스로 사업을 만들 수 있게끔 지원해주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거죠. 기초단위의 정책은 거버넌스적 관점이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해요. 안 그러면 복지부에서 쪼개서 일자리 주는 거랑 같아서 크게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이호영, 남, 29세).
예산 비목의 융통성	• 항상 저희가 겪고 있는 문제는 행정적으로 비목이 짜여져 있어서, 사용할 수 없는 부분에서 돈이 필요한 곳이 생겨요. 지원 체계가 새롭거나, 유동적으로 변하거나 기존에 없던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는 여지를 마련해 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비율이 정해져 있어서 재정의 50% 이상은 인건비로 못 쓴다거나, 30% 이상은 기자재로 써야한다던가 등 그런 게 너무 획일적이다 보니 힘들어요(박민희, 여, 30세).
청소년 활동과 청년활동의 연계 필요	• 근본적으로 고등학교 때부터 능동적으로 할 수 있는 활동들이 많이 있도록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다닌 고등학교에도 동아리 없애고 수능 공부 위주로 바뀌었어요. 저는 학교 동아리 활동을 많이 했는데 그때 경험이란 대학 경험이란 그런 경험이 쌓이니까 졸업 전에 이 활동을 할 수 있는 용기가 생겼어요(정민기, 남, 29세).

한편, 이들은 지역사회 내에서 경제적인 자립과 공동체적 삶을 지속할 수 있는 정책 지원이 이루어지길 희망했다. 예컨대,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지역사회 내에서 공동체적 삶을 살아가면서도 청년들이 생존하면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사업의 유형이 다양화될 필요가 있다. 특히 이들이 지역사회 재생이나 개선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유형을 추가한다면, 지역사회에도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삶을 모색하는 청년에게도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행정 업무를 담당하는 지자체 담당자의 입장에서는 청년들이 행정 전반에 대해 무지하다고 인식할지 모르겠으나, 청년 활동 당사자 입장에서는 지자체에서 요구하는 예산 처리 방식이나 예산 비목들이 매우 엄격하고 제한적이라는 인상을 받고 있었다. 이 때문에, 예산 사용에 있어 융통성이 있도록 비목 규정을 완화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청년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청년들은 다양한 유형의 사회활동이 청소년 시기부터 이루어질 수 있기를 희망했다. 물론 현재에도 다양한 유형의 청소년 활동 참여 프로그램들이 존재하지만, 이들이 제안한 활동들은 청소년이 직접 지역사회 사업이나 행사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의견을 개진하는 협업의 경험을 의미한다.

4) 소규모 목적지향적 활동(대외활동) 참여자

 SUPPORTERS	[면담조사 참여자] • 공공기관 대외활동 참여자 (기자단 등) • 민간기업 대외활동 참여자 (서포터즈, 기자단, 공모전 참여 등)
---	--

(1) 활동 참여 동기

최근 20대 대학생들 중 많은 수가 참여하고 있는 대외활동은 일종의 스펙관리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활동 유형이다. 이러한 대외활동에는 블로그 기자단, 서포터즈, 대학 또는 공식 기관에 대한 홍보 활동, 공모전 준비 등 다양한 유형이 포함된다. 면담에 참여한 대외활동 경험이 있는 청년들 중 일부는 경영학 전공자였으며, 또 한 명은 전공(법학)과 관련해서 법무부 블로그 기자단 활동에 참여하고 있었다. 나머지 한 명은 활동 자체에 대한 관심 때문에 다양한 대외활동에 지원하여 활동 중이었다.

이들이 대외활동에 참여하는 이유는 한편으로는 최근 취업이 어려워지면서 청년들에게도 스펙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기 때문에 스펙을 쌓기 위한 목적이 컸고, 다른 한편으로는 대외활동을 통해 실무 경험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기 때문이었다. 물론 이 외에도 이들 청년들은 활동 자체를 즐기는 성향을 가지고 있기도 했다.

제가 대외활동에 참여하는 목적이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저도 지금 스펙 경쟁을 하는 사회에서 제 나름대로 저라는 스펙의 탑을 쌓기 위해서 하는 점도 있고 이런 활동을 하는 게 즐겁고 그 활동을 하면서 얻을 수 있는 게 많으니까 좋아서 하는 것도 있어요(신승수, 남, 20세).

복합적인 것 같아요. 저는 마케팅에 관심이 있으니까 홍보랑 마케팅에 관련된 활동들을 찾아서 하게 됐는데 결국 이런 활동들이 공채 지원할 때 자기소개서를 쓸 때 도움이 되거든요. 근데 가장 좋은 건 [기업에서] 실무경험을 중요시 하니까, 인턴을 하면 가장 좋지만 저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서 좀 더 대외활동에 신경을 많이 썼던 것 같아요(김호찬, 남, 25세).

(2) 활동을 통한 긍정적 경험

대외활동 참여 청년들 역시 앞서 다른 유형의 사회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청년들과 유사하게 활동을 통해 다양한 긍정적 경험을 얻고 있었다. 대외활동에 참여한 안영호는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을 만나 함께 활동할 수 있다는 점, 인간관계 기술이나 갈등을 조율하는 법, 일에 대한 노하우, 자신감 등을 얻는다고 했다. 유사하게, 김호찬 역시 공통의 관심사를 지닌 청년들을 만날 수 있었던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는 혼자 활동하기 보다는 여러 명이 협업했을 때의 결과물의 질이 높아서 협업했을 때 긍정적인 경험이 많다고 말했다. 전공 분야 중 마케팅에 관심이 많아 관련된 대외활동에 참여한 김호찬은 대외활동을 통해 학교에서 배울 수 없는 실무를 경험할 수 있었던 점을 긍정적인 요인으로 꼽았다.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그 사람들과 활동하고 그런 게 있잖아요. 이게 사람에 따라서 어떤 활동을 위한 굉장히 일회성의 관계로 그치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건 사람이고 어쨌든 사람이랑 같이 하는 활동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환경이 어떻든 내가 최선을 다 하겠지만 성과가 잘 나오든 그렇지 않든 결국 남는 건 사람이거든요. 그런 사람들과의 관계를 꾸준히 지속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그리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면 그런 인간관계에서 기술들, 이런 것도 많이 배울 수 있죠. 그리고 우선 제가 즐거워서 하는 활동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얻는 분명한 성취가 있고 또 제가 여러 가지 활동을 하면서 느낀 건 일을 할 때 굉장히 효율적으로 됐어요. 그리고 사람들간의 갈등 조율하는 거, 일을 분배하는 것에 대해서 노하우가 생기죠. 자신감도 생기고 그런 경험도 분명히 있어요(안영호, 남, 22세).

일단 저는 마케팅에 관심이 있었으니까 관련된 활동을 하면서 배울 수 있었다는 점, 수업은 단순히 이론만 제시하고 그걸 외워서 시험만 보는 식이다 보니까 실제로 회사에서 어떤 식으로 마케팅 직무를 하고 있는지 그건 잘 알 수 없잖아요. (중략) 그리고 공통된 관심사를 가지고 모인 거다 보니까 그런 만남에서 이야기하고 그런 것에서 배울 수 있는 점이 있는 것 같아요(김호찬, 남, 25세).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마케팅이 협업 같은 게 되게 많잖아요. 혼자 모든 일을 처리하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랑 같이 일을 하게 되는데 저는 서포터즈 활동하면서 그런 경험이 많아요. 사실 인터넷에서 조모임이 희화화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다 무임승차하고 나 혼자 열심히 해서 힘들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오히려 조모임이 좋거든요. 다 같이 협업을 하다가 일이 잘 안 풀린다고 해도 그렇게 스트레스 안 받는 성격이라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좀 많이 하다 보니까 오히려 부정적인 경험보다 긍정적인 경험이 많이 쌓여요. 그런 경험들이 계속 쌓이다 보니까 오히려 혼자 하는 것보다 여럿이 같이 하는 게 더 좋아졌어요(김호찬, 남, 25세).

(3) 활동 중 부정적 경험

반면 대외활동을 통한 부정적 경험도 없지 않았다. 청년들은 스펙을 쌓기 위해서는 대외활동 경력이 필요했고, 기업에게도 청년을 대상으로 한 대외활동 프로그램이 긍정적으로 인식되었다. 예를 들어, 기업으로서는 대외활동 프로그램을 명목으로 청년들의 새로운 아이디어를 적은 비용으로 얻어가거나 홍보 인력으로 활용할 수 있었다. 또한 타 기업들이 유사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대외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기업 홍보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이 때문에, 민간기업 뿐만 아니라 공기업에서도 다양한 대외활동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다. 그런데 관행적으로 대외활동 사업을 운영 중에 있는 기업들에서 대외활동을 경험한 청년들은 회의적이고 부정적인 반응들을 보였다.

김호찬에 따르면, 대부분의 기업들이 청년들에게 요구하는 대외활동은 블로그 기사를 작성해서 온라인 상에 올리는 활동이었다. 그런데 그는 해당 기업의 공식 블로그를 일반 시민들이 방문하지 않는 이상 기사 작성을 통한 기업 홍보 효과는 낮다고 평가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은 관행적으로 청년들에게 서포터즈, 기자단이란 이름으로 반복적인 기사를 작성하고 올리게 했다. 청년들로서는 기자단, 서포터즈 활동 경력 하나라도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활동 내용에 대한 불만이 있더라도 문제제기를 하기는 어렵다. 기업으로서도 청년을 대상으로 한 대외활동이 청년들에게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인력이 필요하거나, 시간과 에너지가 요구되는 일로 인식된다. 그렇지만, 대외활동 지원사업을 보다 생산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업이 관행적으로 대외활동 지원사업을 운영하는 것은 청년들에게 대외활동에 대한 회의적이고 냉소적인 반응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크며, 그것은 기업에게도 청년에게도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다. 적어도 청년들이 무의미하고 생산적이지 않은 홍보 인력으로 동원되고 있다는 인식을 갖게 하지는 말아야 한다.

단순히 홍보하는 인력으로 쓰는 경우가 많아서 그게 좀 아쉬운 점인 것 같아요. 하면서도 내가 이걸 지금 왜 해야 되지? 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요즘 바이럴 마케팅이 되게 화제잖아요. 이야기가 많이 되는데 저는 서포터즈 활동하면서 바이럴 마케팅이라는 것에 대해서 회의감을 갖게 됐거든요. 그래서 서포터즈 인력을 굴려서 어떤 콘텐츠 글을 작성을 해서 개인 블로그에 SNS에 올려라, 그래서 바이럴이 되게 하겠다는 건데 사실 서포터즈들을 다 파워 블로거, 파워 인스타그램으로 뽑을 수 없기 때문에 글을 올린다고 해도 파급되는 게 전혀 없거든요. 그래도 그런 걸 시키는 걸 보고 사실 기업에서도 별로 기대하지 않고 있고 일단 시키는 거죠. 그럴 바에는 왜 시키는지 잘 모르겠어요. 분명히 다른 생산적인 방향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쓸데없는 낭비되는 쪽의 일들을 시키는 게 많이 아쉬웠죠(김호찬, 남, 25세).

이와 유사하게, 안영호 역시 활동을 통해 얻고자 한 결과물보다 대외활동을 주최한 기관에서 홍보에 동원된 경험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어떤 활동을 하면서 청년들이 얻는 게 있는 것처럼 그걸 주체하는 기관도 어느 정도 손익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기브 앤 테이크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주체기관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홍보죠. 홍보와 관련된 일을 하면서 내가 이것에 참여하는 게 아니라 동원되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근데 그 동원된다는 것이 내가 이 활동을 하면서 얻고자 하는 것보다 크다고 느껴질 때 (중략) 내가 이 프로젝트를 하면서 얻는 성취보다 클 때, 그게 많이 힘들고요. 그건 진짜 맥 빠지는 일이거든요(안영호, 남, 22세).

김호찬은 주로 민간기업의 대외활동에 참여해 본 경험이 있지만, 공공기관에서 주최하는 대외활동에 대한 문제의식도 가지고 있었다. 그는 예금보험공사에서 운영했던 대외활동의 예를 언급했다. 여느 기업과 마찬가지로, 예금보험공사 역시 청년들을 대상으로 블로그 기자단을 운영했다. 그런데 그가 보기에, 예금보험공사의 공식 업무가 언론 업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대외활동은 천편일률적으로 블로그 기자단 또는 서포터즈 활동이라는 것이다. 오히려 예금보험공사가 하는 업무를 시민을 대상으로 알리는 홍보 활동을 청년들에게 기획하게 한다든지, 특정한 프로젝트를 직접 수행하고 완료하는 경험을 통해 청년들이 실무를 경험하도록 하는 기회가 주어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청년들이 대기업 대외활동에 몰리는 이유가 거기서 활동을 수료했다 그러면 [공채 시에] 서류를 면제해 주거나 가산점을 주거나 그런 게 있다 보니까 그래요. 그런데 사실 공기업이나 공공기관은 그렇게 하는 건 사실 힘들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실무 경험을 쌓을 수 있게. 예를 들어 예금보험공사가 기자단을 운영하는데 사실 예금보험공사 하는 일이 언론 일이 전혀 아니잖아요. 약간 금융 그쪽 예금 관리하는 업무를 하는데 그런 업무가 사실 무슨 업무인지 모르는 대학생들이 태반이잖아요. 학교에서 그런 것들을 배우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오히려 그것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줬으면 좋겠어요. (중략) 그래서 저는 공기업이나 공공기관이 대외활동, 사회활동을 주최한다고 하면 사실 공기업이 뭐 하는 곳인지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사람들에게 알리는 대외활동을 하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사실 홍보기자로 활동을 한다고 하더라도 사람들이 거기 블로그에 들어가지 않는 한 모르잖아요. 그리고 제가 기자단 활동을 하면서 느낀 건데 몇 년 이렇게 누적이 되면 쓸 만한 기사들은 앞에 이미 다 썼어요. 더 이상 쓸게 없는데 거기서 어떻게든 짜내서 다시 쓰고 하다 보니까 양질의 기사가 안 나온다고 생각하거든요 (김호찬, 남, 25세).

상술한 이유 때문에, 권민영(여, 22세)은 청년들이 스펙을 쌓기 위해 불가피하게 서포터즈 활동에 참여하고 있지만, 활동에 참여하는 '시간이 아깝다'고 표현했다. 즉 많은 시간을 들여서 활동에 참여하지만 그 경험을 통해 얻는 것이 별로 없다는 것이다. 권민영은 대기업에서 주최하는 공모전 준비 모임에도 참여한 경험이 있고, 협동조합에서 실무자로 활동해 본 경험도 동시에 가지고 있다. 그런데 두 가지 경험을 비교했을 때, 공모전 준비 경험은 시간과 에너지, 돈이 많이 들어가는 반면, 입상하지 못했을 때 감수해야 할 비용이 크다고 평가했다. 공모전에 참여하는 청년들이 많지만 입상자는 매우 소수라는 점 때문에 청년들은 공모전 참여에 대한 리스크가 크다고 인식했다. 반면, 협동조합에서 실무자로 활동한 경험은 직접 기획안을 작성하고,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예산을 집행하는 등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실무경험을 제공했기 때문에 만족감이 컸다고 말했다. 이처럼 청년들은 대외활동에 참여하더라도 단순한 홍보 인력으로 동원되는 방식이 아니라, 특정 프로젝트를 통해 실무를 배우고 경험할 수 있기를 희망했다.

(4) 정책 지원 욕구

대외활동에 참여한 청년들은 기존의 대외활동 형식을 좀 더 다양화하고, 청년들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보장해주는 방식으로 개방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또한 청년활동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거나 어떻게 정보에 접근해야 하는지를 모르는 청년들이 많다고 언급하면서, 청년활동 정보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포탈을 제작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공간 지원은 앞서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청년들이 제안한 내용과 동일하다. 청년들이 무료로 또는 저렴한 비용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 이용 기회가 늘어나길 희망했다.

한편, 이들은 청년들의 사회활동 참여를 활성화하는 방안의 일환으로, 대외활동 지원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에 대해 제안하기도 했다. 필요 이상으로 까다롭고 번거로운 절차 때문에 일부 청년들은 활동 참여를 포기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이다. 사업을 주최하는 기관에서 보다 창의적인 방식으로 열의를 가진 청년들을 선발하는 방안을 주문했다. 또한 현재 대외활동을 지원하는 기관에서는 청년들에게 활동에 소요되는 금액을 선집행, 후입금 방식으로 활동비를 지원하고 있다. 이럴 경우, 생활비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은 대외활동 참여를 전혀 고려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청년들의 경제적 상황을 고려한 활동비 지원이 필요하다.

정책지원 요구	내용
활동 유형과 형식 확대	부정적인 측면이라고 하기 보다는 개선됐으면 좋을 점이 정부기관에서 주체해서 형식을 다 만들어 놓고 하게 하는 대외활동 말고 청년들이 직접 만들어서 하는 대외활동, 예를 들어 법무부에서 기자단도 운영하고 있지만 법질서 소속으로 활동 이름은 기억이 안 나는데 사람들에게 법이 우리와 멀지 않다는 걸 알리는 법사랑 서포터즈라고 하는 그런 활동도 운영하고 있어요. 그런 것처럼 서포터즈들 법무부에서 뭘 하라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하고 싶은 걸 올리면 법무부에서 그것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나중에 시상을 하는 형식이거든요. 그런 게 많아지면 좋겠어요(신승수, 남, 20세).
활동에 대한 홍보	실질적으로 정책 대상이 되는 청년들은 정보에 대해 아는 게 없어요. 그래서 일단 홍보가 중요해요. 이런 활동이 있다고 최소한 알리는 게 가장 정책에 최우선 과제가 아닐까 생각하고요. (중략)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운영하는 대외활동 포털, 사회활동 포털을 만들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범정부 정책홍보 포털은 있는데 왜 정부에서 청년을 지원해 주는 각종 활동들은 각 부처 별로 따로 진행하는지...(신승수, 남, 20세).
공간 지원	서포터즈 활동할 때는 다 저희 학교 학생이 아니다 보니까 스터디룸을 빌려서 하거나 카페에서 했었는데 장소 구하기가 되게 힘들더라고요. 이게 동네마다 있는 것도 아니고 사실 카페에 가도 돈도 돈인데 사실 활발하게 토론하고 아이디어 내는 분위기는 아니잖아요. 시끌시끌하니까 그게 좀 힘들었어요. 그런 공간들을 만들어서 가장 좋은 건 무료로 주는 거, 아니면 저렴한 비용으로(김호찬, 남, 25세).
행정 절차 간소화 및 청년에 대한 배려 (활동비 사후 정산의 문제점)	- 절차가 간소해야 될 것 같아요. 서류나 그 안에 들어가는 거나 실제로 가서 면접까지 봐야 되고 이런 모든 과정들이 저는 필요 이상으로 많이 까다롭고 거추장스럽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 전반적인 시스템 자체가 되게 서열화 되어 있다는 느낌이 들어서 청년들이 접근하려고 해도 이게 써야 되는 게 10개라고 하면 사람들이 포기하거든요. 굳이 많이 작성하지 않아도 정말 열의 있는 사람들을 선발해서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지원 절차가 간소화되면 좋겠어요(안영호, 남, 22세). - 활동비 지원하는 것 자체가 제가 고등학교 때 동아리 활동 지원 센터에서 100만 원 받아보려고 했거든요. 근데 지원을 해 주는 게 사후 정산이래요. 제가 쓰고 영수증을 내면 나중에 주겠다고. 지금 대부분 활동이 그래요. 일단 기자단 활동을 할 때도 모든 활동은 사후 지원이에요. 나중에 제가 쓴 개인 돈으로 먼저 지출을 하고 나중에 그 영수증을 내서 청구를 하면 그 돈을 지원해 주는 방식, 정부기관, 회사, 어느 기관이든 다 그래요. 당장 돈이 부족한 청년들에게 이런 굉장히 문제가 많다고 생각해요(신승수, 남, 20세).
활동에 대한 사후관리 (성장 기회를 제공하는 지원 프로그램 확대)	- 저는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데 실제 활동하는 것만큼 중요한 게 사후 관리거든요. 제 생각에는 근데 이게 여러 가지를 하면서도 끝나고 나서 가끔 허무함이 들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활동이 딱 하나로 끝나는 경우가 많아서요. (중략) 희망자에 한해서 활동이 단기간에 끝나는 게 아니라 정말 그게 나의 삶에 연계될 수 있다면 좀 사후관리가 확실히 돼서 주체하는 기관과 연계를 해서 거기서 다른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든지 그런 게 되면 좀 더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안영호, 남, 22세). - 청년들이 원하는 게 [대외활동을 통해] 나중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경험들을 원하는 거다 보니까 교육 같은 것들을 제공해 주면 어떨지. 실무 경험을 통해 배움의 기회를 얻을 수 있게요(김호찬, 남, 25세).

마지막으로 청년들은 기업이나 공공기관들이 일회성의 대외활동 사업을 운영하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청년들이 하나의 대외활동 참여를 통해 그 다음에 보다 심화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사후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즉 청년들은 대외활동을 통해 배움의 기회 또는 성장의 기회를 얻고 싶어했다. 이는 앞서 청년 커뮤니티 지원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조하영이 청년 사회활동 전반에 대한 정책지원 방안으로 제안한 내용과 유사하다. 그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대외활동들이 대부분 청년들의 삶에 도움이 되지 않는 잡무가 많다고 지적하면서, 청년들이 활동을 통해 ‘쓸모 있는 일과 경험’을 했다고 인식할 수 있도록 사업을 재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러한 제안은 대외활동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공기업이나 공공기관에서 적극적으로 수용할 필요가 있다.

공공기관에서 하는 청년 지원 사업들이 뽑아 놓고 나 몰라라 할 게 아니라 이들이 업무적으로 성장한다든지, 이 분야에서 전문 인력으로 성장할 수 있게 멘토링을 한다든지, 뭔가 관리가 필요하다 생각해요. 기관 입장에서는 서포터즈 이런 식으로 불리거나, 인턴 이렇게 불리면서 잡일만 시켜요. (중략) 스펙을 두려움을 갖고 쌓는 이유가 기업에서 그런 조건들을 요구하기 때문이잖아요. 청년들은 요구되는 조건에 따라 자아를 형성해가요. 그럼 공공기관에서 청년들에게 어떤 자아를 형성할 수 있게 지원할거냐의 기준은 저는 ‘쓸모’라고 생각해요. 그 사람이 사회적으로 ‘쓸모 있는 인간이 될 수 있다, 쓸모 있는 경험을 한다.’라는 게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해요. ‘내가 쓸모 있는 일을 했어’라는 과정에서 보람을 느낄 것 같아요. 공공기관 지원 사업은 청년들이 쓸모 있는 사람이 되게, 성장할 수 있게 그런 스펙, 스펙이라는 말을 아주 싫지만, 스펙을 쌓을 수 있게 유도하는 게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요(조하영, 여, 28세).

5) 정책참여 활동자



[면담조사 참여자]

- 청년정책네트워크 (이하 청정넷)

(1) 활동 참여 동기

정책참여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청년들의 활동 참여 동기는 다양했다. 그리고 이들의 이력

또한 다채롭다. 정지민은 고등학교 자퇴 후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다양한 활동을 통해 배움을 지속하고 있다. 독립 다큐멘터리를 제작하는 창작 활동을 하던 중에 우연히 청년정책을 제안하는 민관 거버넌스에 참여했다가 지역에서 청년기본조례가 제정된 후 정책참여 활동이 공식화되면서 지원단으로 활동하게 되었다. 그는 이 활동이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는 일의 의미를 지닌다고 말한다. 본인과 같이 고등학교를 자퇴하고, 현재 취업이나 창업에 대한 계획이 없으면서 대학에 진학하지 않은 청년은 자신이 살고 있는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청년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을 목격하면서, 본인과 비슷한 처지에 있는 청년들이 지역에서 잘 생활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고 싶은 욕구가 커서 청년정책네트워크에 참여하게 되었다. 청년정책네트워크는 서울지역에서 먼저 민관 거버넌스 기구로 운영되면서 성공적으로 자리를 잡자, 전국적으로 민관 거버넌스 협치 모델로 벤치마킹되고 있다. 이 지역에서도 서울에서 성공적으로 정착한 이 모델을 적용하여 운영 중에 있다.

자기증명의 욕구가 있어요. 저는 17살에 고등학교를 그만두고 나와서 여러 가지 활동 겸 공부 겸 진행하고 있어요. 제가 아빠에게 그런 말을 많이 들었거든요. ‘넌 적응하지 못했어. 사회에 적응하지 못했어’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내가 정말 그런가? 나는 어디서 나의 쓸모를 찾아야하지?’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해요. 그런 점에서 [이 활동이] 내가 나를 증명할 수 있는 길인 것 같다고 생각해요. 다큐 작업을 하거나 지금 청정넷 활동을 할 때 특히 청정넷 활동을 할 때에 정말 화났던 게 작년 공론의 장의 진행자로 들어갔어요. 시장이 그 자리에 왔어요. 시장이 온 자리에서는 패널처럼 앉아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청년들의 모습에는 취업이나 창업을 준비하거나 취업한 청년이 전부였어요. 그 사람이 이야기하는 청년들 중에는 나처럼 고등학교를 자퇴하고 대학교를 가지 않으면서, 4대 보험을 받지 못한 채 다큐를 만드는 정지민이라는 청년은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 정책 범위 안에. 다시 한 번 저 밑바탕에 깔려있던 ‘나의 쓸모가 무엇이 있을까’라는 고민과 맞물리며 ‘왜 나 같은 사람은 정책의 대상에 들어갈 수 없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순간 되게 화가 나기도 했어요. 청정넷에서의 의미를 찾자면 내가 여기 있고, 내가 지금 여기에서 잘 살고 싶고, 4대 보험 받는 일을 못해도 이 만큼의 돈을 벌더라도 몸 아프면 병원에 가고 그렇게 밥을 굶지 않으면서 생활할 수 있는 여건은 만들 수 있지 않을까. ‘만들어 줘’라는 마음이 있어요.(정지민, 여, 24세).

태민우는 유독 주변인들의 죽음을 일찍 경험했다. 친한 친구가 일찍 세상을 떠났고, 군입대

동기가 군대에서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다. 주변인들의 죽음을 접하면서, 본인에게도 많은 시간이 남아 있지 않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그 후 행복하게 살아야겠다고 다짐하면서, 의미 있는 일을 하면서 살겠다는 다짐을 실천하기 시작했다. 군 제대 후, 지역에서 다양한 활동과 실험을 시도하게 되었다. 우연히 서울의 한 공모사업에 신청해서 선정이 되었고, 서울에서 청년허브 활동을 직접 경험하게 되었다. 활동을 통해 직접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체험한 태민우는 본인이 살고 있는 지역에도 서울시의 청년허브와 서울시에서 운영되고 있는 청년활동 사업이 도입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게 되었다. 그 후 민관 거버넌스 모델인 청년정책 네트워크 활동에 참여하게 되었다.

서울에서 청년허브를 본 거죠. 서울에서 활동하는 팀들이 청년참, 청년활 이런 청년활동 지원사업으로 활동비를 지원받더라고요. 우리끼리는 만날 돈이 없는 거예요. 작당모의를 하려면 커피를 마셔야 하는데 돈이 없어요. 커피 한잔 시켜서 열 명이 마셨어요. 서울에 갔더니 세 명만 모였는데 활동 내역을 증명하지 않아도 백만원을 줘요. 그 전 단계에도 카페를 갈 수 있는 돈을 주고 정산을 안 해도 되고 ‘이런 게 어떻게 가능하지’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보니 자연스럽게 청년정책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서울의 청년허브를 우리 지역에도 만들고 싶었어요. 의미를 갖는 단체들끼리 모여서 단체들이 모일 공간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뜻처럼 잘 안됐어요. 서울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내려오 기도 하면서 결합해서 우리도 거버넌스를 만들어보자는 움직임이 있었어요. 거기에 동의 를 해서 합류하게 되었죠(태민우, 남, 26세).

그 외 청년 당사자 조직에서 활동하면서 청정넷 활동에 합류 제안을 받고 참여(김훈, 남, 23세)하거나, 2013년부터 지역의 청년들이 모여 논의하는 청년포럼 활동을 하다가 청정넷 활동에 합류하게 된 사례(김아현, 여, 25세)에 해당했다.

(2) 활동의 의미와 가치, 활동을 통해 얻은 것

① 동료 & 동료를 통한 지지

정책참여활동을 하고 있는 청년들은 이 활동을 통해 동료를 얻은 점, 동료를 통해 정서적 지지와 격려, 에너지를 얻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정지민과 김아현은 이들에게 활동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활동을 함께 하는 사람들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저에게는 어떤 활동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내용만큼이나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중요해요.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좋아요. 지금 청정넷 지원단 하는 멤버들이 전부 다 그렇지는 않지만 오래보고 싶고 오래 같이 고민하고 싶은 친구들입니다. 저에게는 늘 시작점이 사람이 먼저였어요(정지민, 여, 24세).

동료를 통해 주로 소속감, 에너지, 격려, 정서적 지원 같은 것을 얻어요. 사람이 좋아서 하는 일인데 그게 안 좋게 되면 많이 힘들어요(김아현, 여, 25세).

② 자신을 알아가는 자기실험, 자기주도학습의 실천

태민우는 청년활동이 자신을 알아가는 일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청년이 자기 실험을 지속적으로 시도하면서, 자신이 어떤 사람이며, 무엇을 잘 할 수 있고 하지 못하는지 학습해 나갈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태민우는 청년활동의 가치를 강조했다. 그는 이론으로 배웠던 내용들, 책상머리에서만 생각했던 내용들을 활동을 통해 직접 실천하고 실험하면서 얻은 것이 많았고, 실제로 바꾸고 싶었던 현실에 변화를 주기도 했다. 실제 그 변화를 체험했기 때문에 많은 청년들이 청년활동을 통해 그 혜택을 누릴 수 있기를 희망했다. 그는 청년활동을 통해 삶에서의 선택지, 가능성의 폭이 넓어진다는 점에서 의미를 부여했다.

청년활동이라는 게 자기를 알아가는 것 같아요. 청년활동이라 하면 공익활동 비슷한 그런 것 같은데 저는 지금껏 개인적인 입장으로 바라보면 자기가 자기 실험을 계속 해나가는 실험인 것 같고 내가 가능한 범위와 불가능한 범위를 스스로 학습해 나가는 것. 딱딱한 언어로 하면 자기주도학습인 거죠. 자기 실험, 자기주도학습. 이게 청년활동이라 생각해요. 책상에서는 전혀 바뀌지 못하는 것들을 활동을 통해서 많이 얻게 되고 바뀌어요. 이런 것을 주변 사람도 경험하면 좋겠어요. 제가 생각을 바꿔왔던 과정들이, ‘이런 걸 해야겠다.’ 결심했던 과정들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대로 이어져야 할 건 아니지만 청년활동을 하면 만나지 못할 사람들도 많이 만나고 삶의 가능성이 엄청나게 넓어지니까요(태민우, 남, 26세).

③ 공동체 의식

김훈은 청정넷 활동을 통해 공동체 의식을 가지게 되었다고 말했다. 과거에는 나 혼자 어떻게 잘 살 수 있을까를 주로 고민했다면, 활동에 참여하면서 주변 사람들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이다. 주변 사람들 중에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을 경우 함께 고민하고 해결하려고 노력하면서 공동체 의식을 배우고 있다. 그는 활동을 통해 세상은 혼자 사는 곳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곳임을 알게 된다.

활동하는 사람에 대한 고민이 가장 크게 느껴졌어요. 예를 들면 평소에는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했는데 나만 행복하면 되지 이런 생각이었는데, 조금 더 같이 활동 하는 사람들 한 번 더 돌아보고 그 사람들의 고민들이 뭔지 같이 해결하려고 노력해요. 하면서 공동체 의식이라고 할까? 그런 정신을 배운 게 좀 커요. 나만 사는 세상이 아니라(김훈, 남, 23세).

④ 경청, 다양성에 대한 인정과 존중

청정넷에 참여하는 청년들은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정책을 개발하는 과정에 참여하면서 자신과 다른 정치적 관점과 견해를 배제해서는 안 되며, 그들의 의견을 경청해야 한다고 스스로에게 다짐한다. 물론 처음부터 이들이 이와 같은 태도를 가졌던 것은 아니었다. 활동을 통해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함께 활동하는 사람으로부터 피드백을 받으면서 점차 그런 자세와 태도를 갖게 되었다.

공식적으로 올해부터 민관 거버넌스 협치 기구를 운영하고 있는 이 지역에서는 아직까지 네트워크 내 체계적인 구조를 갖추고 있지 못하다. 그 과정에서 어려움이 많지만, 이들은 적어도 이 활동에서 모든 사람들이 견지해야 할 요소, 즉 다양한 가치와 관점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태도를 견지하고자 노력했다. 특히 김아현은 활동에 참여하면서, 태도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활동을 지속하면서, 진보적 또는 보수적 관점을 가지고 있더라도 그 관점을 어떤 태도와 자세로 표현하는가가 더 중요하다는 인식에 이르렀다고 한다. 또한 관점과 사람의 다양성을 인정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청정넷은] 아직 틀이 없어요. 체계가 안 잡혀 있는 게 커요. 아무래도 초창기이다 보니 누군가 주도적으로 하지 않는 이상 자기 할 말만 하다가 끝나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도 사람들의 이야기를 많이 듣자고 생각해요(김훈, 남, 23세).

사실 청정넷 위원 중에 다양한 정치적 관점이 있어요. 그런데 한 청년이 어떤 계기로, 이 사람이 어떤 선택을 하던, 어떤 가치관을 가졌던 이걸 이 청년이 가지고 있는 수많은

서사들이 있고 그 계기로 [여기에] 오게 된 건데 우리가 이런 개개인의 삶을 다양하게 듣자고 모인 자리에서는 이런 계[다른 생각과 관점이] 배제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어요 (중략) 청정넷을 하면서 주로 만나게 되는 사람하고 계속 같이 하는 일들이 많다고 느껴져요. 사람에 대한 존중을 잃지 말아야지 생각을 해요. 계속 태도의 문제를 고민하게 된 덕은 이 활동이 커요. 다양성에 대한 고민이라든지. 관점의 다양성, 사람의 다양성. 세상에 있는 여러 사람들에게 라벨을 일일이 붙이기 어렵지만 소수자라든지 약자들에 대해 생각을 많이 했어요(김아현, 여, 25세).

(3) 활동을 하면서 힘든 점

정책참여 활동이라고 하면 주로 청년들이 자발적, 주도적으로 정책을 개발하고, 지자체에서는 그것을 전적으로 수용하여, 바로 정책화되는 과정을 떠올리게 된다. 그러나 현실은 이들의 선한 의지와 노력만큼 녹록하지 않았다. 이들은 정책제안 과정에서 다양한 유형의 난관에 봉착한 경험들이 있었고, 그것들을 어떻게 개선해 나가야 하는지에 대해 고민하고 있었다.

① 권위적이며 폭력적인 의사소통 방식

물론 민관 거버넌스 협치 모델이 나름대로 정착단계에 접어든 서울에서도 초기에는 다양한 어려움과 불협화음이 있었을 것이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모든 지역에서 청년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청년정책네트워크와 지자체가 협력하여 청년정책을 만들고 다듬어 나간다는 것이 쉽지 않은 과정일 것이다. 그 과정에서 이들이 불편하게 인식했던 지점은 청년들을 바라보는 기성세대의 입장도 있지만, 청년 집단 내부에서의 권위적 태도였다. 지자체별 청년기본조례에서 규정하는 청년들의 연령은 다양하지만 보통은 34세 또는 39세까지를 포괄한다. 그러다 보니, 청년들 내부에서도 입장 차이가 존재할 수 있다. 그런데 연령을 기반으로 권위적 태도를 보이는 관행들이 나타나는 것이다. 20대보다 30대가 연령이 많다는 이유로 20대의 견해와 입장을 무시하거나, 폄하하는 것들이 여기에 해당한다. 정지민은 청정넷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연령에 따른 권위적이고 폭력적인 의사소통 방식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그 무례함은 여성, 20대 등 청년 집단 내부에서의 권력관계에 따라 발생했다. 이 때문에, 정책참여 활동을 하는 청년들 내부에서마저도 동등하고 수평적인 관계가 채 갖추어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정책제안을 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한 문제제기와 비판 등 정책참여 활동에서 전제되어야

하는 이견에 대한 존중과 배려의 태도가 중요함을 인식하게 되었다.

제일 크게 느낀 건 연장자와 나이차로 인한 그런 거였어요. 우리 지역에서 만18세부터 만34세까지를 청년으로 봐요 기본조례에서. 모든 30대가 그렇지는 않지만 어떤 30대 몇몇 분들은 20대들을 가르침을 대상, 훈계의 대상으로 보는 경우가 많았어요. 청년들 사이에서도 가르침의 대상이라는 의식 차이가 있다는 생각을 했어요(정지민, 여, 24세).

생각이 다른 건 받아들일 수 있어요. 상처 되는 일이 아닌데 표현방식이 되게 폭력적일 때가 많아요. 이번 년도에 청정넷에서 많이 경험하고 있어요. 그 이전에는 내가 얼마나 존중받으며 일해 왔는지 올해 많이 느끼고 있어요. 무례한 태도를 많이 봤고 이견 부정할 수 없이 어린 여성에게 더욱 가혹한 것 같아요(정지민, 여, 24세).

② 청년에 대한 보수적 관점과 불신, 정책 파트너로 인식하지 않는 태도

또한 청년정책을 제안하는 과정에서 이들은 지자체의 시의원, 공무원 등 다양한 정책 담당자들을 대면한다. 그 과정에서 이들이 느낀 것은 한국사회의 기성세대가 청년들을 바라보는 인식 자체가 보수적이며, 청년들에 대한 신뢰가 없다는 점이었다. 김아현에 따르면, 현재 시행되고 있는 주민참여예산제나 청정넷에서조차 지자체 담당자들이나 시의원이 시민들에게 보이는 태도는 위압적이고 권위적이었다. 그들은 시민을 정책의 파트너로 인식하고 있지 않았다. 다른 지자체(특히 서울)에서 주민참여예산제를 운영하고 있으므로, 또 청년정책을 민관 거버넌스를 통해 수립하고 있기 때문에 이 지역에서도 “하지 않을 수 없어서” 즉 마지못해 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지자체 담당자들은 그리고 시의원들은 이 제도들이 왜 필요한 것인지에 대해 수궁하고, 제도의 취지나 가치에 대한 이해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청년들에게 기성세대에 대한 실망감이 누적될수록, 정책참여 활동에 대한 관심과 참여는 감소할 가능성이 크다.

(청년을 보는 태도가) 보수적이에요. 그런 맥락에서 청년들에 대한 신뢰가 많이 없구나 했어요. 서울 청년수당은 취업준비 수당이 아니잖아요. 저희도 청년수당으로 시작했는데 너무 공격을 많이 받아서 취업준비수당으로 후퇴한 채로 포장이 되었어요. 여기에서는 청년들에게 시간을 만들어줘야 한다든가, 여유를 만들어 줘야 한다는 논의 자체에 동의가 안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선지급 해달라는 거에 ‘난 너네들 못 믿는다, 어디다 쓸

줄 어떻게 알고'라고 [시의원들이] 말해요. 말 그대로 청년수당이면 어디다 써도 되는 건데, 총포류만 아니면 상관이 없잖아요. 취업준비에 써야 하는데 다른 데 쓸까봐 못 준다는 것 자체가 취업을 위해서라는 인식 자체가 깔려있어서... 그래서 제가 '저는 취업이나 창업할 마음이 없는데 나를 지원해줄 정책은 없는 거냐. 나라는 청년을 이 지역에서는 인정할 수 없는거냐'는 질문을 했는데 대답 같지도 않은 대답이, 똑같은 말이 반복되어 돌아왔어요. 세상이 바뀌었고 삶의 형태가 정말 다양해질 수 있는 것을 이제 인정하는 분위기가 되면 좋겠어요(정지민, 여, 24세).

제가 주민참여예산 위원회도 활동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공무원들이 아직 청년들이나 주민들, 시민들을 대하는 태도는 굉장히 행정적인 입장이고 시혜적인 입장이 큰 거 같아요. 그런 태도가 큰 거 같아요. 주민참여예산에서는 특히 더하고요. 정책의 파트너라기보다는 도구로 보죠. 지난 번 청년정책 제안 행사에서 손짓으로 그만 이야기하라고 해요. 조용히 하라고. 근데 실제로 이런 제스처를 취할 때 제가 당사자가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심하게 말하면 모욕적이라까 좀 무시당하는 기분이 많이 들었어요. (중략) 이게 결국은 [당신들의 제안을] 들어줘야지, 들어 드려야지' 하는 태도와 어떻게든 해야 되니까 한다는 입장이 같이 가요. 그 자리에서 느끼는 바가 컸고 재미있기도 했어요. 자기들이 필요할 때만 쓴다는 느낌을 받으니까요(김아현, 여, 25세).

③ 후발주자로서의 조급함과 지역의 특성이 반영된 정책 부족

정책참여 활동에 참여하는 청년들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은 청년기본조례 제정이나 청년정책 도입 과정에 있어 후발주자인 셈이다. 한국사회에서 청년정책의 측면에 국한할 때, 서울시를 제외한 모든 도시는 후발주자에 해당한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지역이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것만큼은 아니어도, 비슷한 수준에서 청년정책과 사업을 재빠르게 이식해서 운영할 수 있어야 한다는 조급함이 있다. 그 때문에, 지역의 특성이나 지역 청년들의 요구를 면밀히 조사하고 그것을 반영한 정책을 개발하기보다는 잘 하고 있는 지역의 사례를 가져와 지역에 이식하는 것에 익숙하다. 물론 성공사례를 참고하는 것은 필요하고 중요한 일이다. 그런데 그것에 많은 비중을 둘 때, 즉 선행사례를 쫓아가는 것에만 급급할 때, 지역의 특수성과 차별성을 정책에 반영하기 어려워진다. 정책참여 활동을 하고 있는 청년들에게도 그 점이 한계점이자 현실로 인식되고 있었다.

업무강도가 힘들어서 내년에도 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이 있어요. 없는 걸 만드니까 걱정 수준의 업무에 대해 아무도 파악을 못하고 있어요. 이미 선 사례는 존재하고 있어요. 서울은 4년이라는 시간동안 축적이 되어 있는데 우리는 그만큼의 시간 여유가 없어요. 그 수준까지 올라가지는 못해도 걱정 수준만큼은 쫓아가고 싶은 욕망은 다 있으니까 4년의 시간을 모든 시간을 몰아놓고 있는 거죠, 쫓아가고 싶어서. 시간이 필연적으로 걸리는 데 그 여유를 받아들이 수 없는 거죠. 우리가 서울 쫓아가지 못한다는 걸 인정하지 못해요. 왜냐면 쫓아가야 하니까. 그만큼 또 시간의 여유가 청년들에게 있지 않으니깐요. 당장 지원 받아야 하는 사람이 있고, 당장 시행되어야 할 사업도 많아요. 선사례를 뚫어놓으니깐 따라잡아야 할 시간의 양도 줄어들어요. 눈앞에 보이니까 더 힘든 거예요. 눈앞에 보이니까 뭘 수밖에 없는 상황. 그게 힘들죠. 지원단 자체를 내년에도 할 수 있을까 생각해요. 생계에 대한 것도 있고, 업무강도에 관한 것도 있어요(태민우, 남, 26세).

여기는 좀 그런 게 있어요. 지역에서 자생적으로 뭔가 발생하기 힘들고 서울 사례가 있거나 서울의 전문가를 좀 많이 신뢰하는 편이에요. 하지만 겉으로는 ○○형을 꼭 붙여서 내죠. 뭐랄까, 제 지역이지만 좀 웅졸함이랄까? 그런 게 좀 있어요(김아현, 여, 25세).

④ ‘청년’ 범주에 포함되고 있지 않은 소수자 집단에 대한 고려 부족

정책참여 활동 중인 한 청년은 직접 청년을 위한 정책을 만들고 제안하는 과정에서 과연 ‘청년’이란 이름으로 포괄되지 않는 다양한 소수자 집단을 위한 정책을 고려하고 있는지에 대한 문제의식을 제기했다. 기실, 정책참여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청년들 대부분은 대학에 진학한 청년들이었다. 김아현은 과연 고등학교를 졸업한 대학비진학 청년들의 목소리를 담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또는 소수자 집단, 예컨대 성소수자, 장애인, 은둔형외톨이 등에 대한 본격적이고도 심도 있는 논의가 지금까지 제대로 없었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청년 집단 내 제대로 주목받지 못했던 다양한 하위 집단들에 대한 관심과 그들을 위한 지원정책에도 신경 써야 할 시점이 되었다고 강조했다.

대학생 지원이 굉장히 많은데 대학생 지원보다는 고졸 취업 후에 직장을 들어간 청년이라든지. 우리가 바라봐야 할 대상이 많은데 타 지역에서 온 사람들인 대학생에만 집중지원이 이루어져서... 이런 일들을 하는 사람들은 다 연결되어 있어요. 인맥으로 연결되어 있거나, 네트워킹을 통해서 이런 일들을 하게 되죠. 그런데 고졸하고 취직한 분들은 이런 활동이 있는지도 몰라요. 그게 너무 소외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들을 부를 일도 없지요.

정보가 단절되어 있어요. 접근 자체가 보이지 않는 구분들이 너무 많아요. (중략)세계가 구분되어 있는 게 제 생각보다 훨씬 산산조각 나 있어요. 가름선이 너무 많아서 개개인들이 고립될 수밖에 없구나. 어떤 사람은 여기 없다, 고졸비진학 청년들은 없다, 장애인 없다, 성소수자 없다, 우리가 주목하지 않는, 애매한 약자들도 없다, 엄청난 다수자들도 여기 없을 수도 있는 거죠. 이들이 다 다수자가 아닐 수도 있는 거죠, 어떤 위치에서는. (중략) 청년들이 아주 다양한데 청년이라는 이름으로 묶여지잖아요. 구분하려는 작업들이 있기는 하지만 제도 밖 청년들을 들여다봐야 한다고는 하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고 있어요. 그런 것들을 경계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중략) 청년정책이 다양한 사람들을 포괄하지 못하고 있고, 포괄해야 한다는 인식이 점점 강해지고는 있어요. 이를테면, 정책에서 외톨이청년, 은둔형 청년, 히키코모리 이런 말 써 본 적 한번 도 없잖아요? 인식해야 할 때가 왔어요(김아현, 여, 25세).

(4) 정책 지원 욕구

앞서 서술한 바와 같이, 서울을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역이 청년정책을 민관 협치 모델을 통해 만들어가는 후발주자에 해당한다. 그 과정에서 다양한 시행착오와 한계점에 직면한 상태이다. 이들은 좀 더 민주적이고 수평적인 관계 속에서 청년정책을 만들어내고 제안하길 희망했다. 그 일환으로, 이들은 정책제안 과정에 참여하기 위해 필요한 태도와 자세에 대한 교육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물론 그 교육의 주체가 민, 관 또는 제3영역이 되어야 할지에 대해서는 좀 더 많은 논의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그리고 다른 활동 유형에 참여하고 있는 청년들이 제안한 것과 마찬가지로 이들 역시 행정 절차 간소화를 제안했다. 행정 절차에 따라 소모되는 에너지가 많다는 것이다. 많은 청년들이 제기하고 있듯이 청년활동 활성화를 위해, 지자체별로 행정 절차를 어떻게 간소화할 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 방안이 제시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공간 지원 문제는 모든 사회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청년들이 공통적으로 제기한 정책지원 욕구로 볼 수 있다. 이들은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청년을 위한 공간이 주로 취업, 창업에 국한되어 있다는 점에서, 보다 자유로운 교류 및 활동 공간을 마련하고 제공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이들은 청년을 위한 지원 정책이 취업과 일자리에 과도하게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취업과 일자리 정책도 필요하고 중요하지만, 청년들이 취업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것은 아니라는 점, 청년들의 전체 삶 속에서 다양한 활동 지원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기 때문에, 특정한 분야, 예컨대 취업, 문화와 같은 방식으로 분절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에 한계점이

있다고 평가했다.

정책지원 욕구	내용
정책참여 과정에 대한 태도 교육	어떤 태도나 소통방식에 대한 교육이라고 해야 할까요? 아니면 기본적인 원칙들을 지키는 분위기를 형성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정지민, 여, 24세)
행정 절차 간소화	말하기 애매해서 망설였던 것이 행정절차. 어쩔 수 없는 것 같지만 절차에 의해서 소모되는 에너지가 너무 많아요. 절차만 간소화되면서 결제방식이라도 제가 가서 결제를 못해요. 주무관님이 가야해요. 청정넷 활동도 모임을 꾸릴 때 밥을 사면 주무관님이 가서 결제를 해야 해요. 맡길 수도 없어요. 그 카드의 특성상. 가령 어떤 사람이 사업등록증이 없는 청년예술가에게 포스터 제작을 맡기면 시청으로 들어가서 결제를 해야 해요. 통장 사본을 들고 도장을 찍으러 직접 시청에 가야해요. 이런 행정문제로 에너지 소모가 많아요. 신청의 장벽도 있고, 청년들과 함께 사업을 꾸려나가는데 장벽도 있어요. 과정에서 소모가 많아서 이것만 줄어도 모임을 한 번 더 할 수 있을 거예요(태민우, 남, 26세).
공간 지원	공간이 제일 커요. 공무원들이 이야기 하는 대부분이 취업 창업카페예요. 청년 활동에는 창업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사회적인 이야기를 같이 하고, 공동체로 지내면서 오늘은 어떤 밥을 해 먹을지, 내일 무슨 활동 해볼지, 열린 생각을 하는 공간이 필요해요 그게 창업 카페 형식은 아닌 것 같아요(김훈, 남, 23세).
취업 중심의 정책 탈피 & 청년 활동 전반에 대한 지원	- 청년들이 다양하게 활동할 수 있는 지원 정책을 열어 주면 좋겠어요. 청년들이 취업을 위해서만 사는 게 아니라 자기 생활도 있고, 여가 생활도 있는데 정책이 취업 쪽으로 몰려 있으니 그게 안타까워요(김훈, 남, 23세). - 여기는 계속 활동들을 나눠서 지원하거나 특수한 분야에 지원해요. 청년문화 지원하고, 취창업 지원하고 일자리 관련해서 조금 지원하고. 이런 것들이 주를 이뤄요. 다양한 활동, 마을활동이든, 아직 분류하지 못하는 기대해 볼 수 있는 새로운 활동들이든 이런 것들이 나오려면 다양한 활동을 다 지원해야 하는데 문화재단에서만 청년문화를 지원하는 게 아니라 서울 청년허브처럼 청년을 지원하는 중간지원 조직이 있어서 청년활동 수당도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청년활동에 대한 전반적인 지원을 하는 게 좋겠다(김아현, 여, 25세).

3. 청년정책 담당자 대상 FGI 결과

	[면담조사 참여자] • 지자체 청년정책 담당자 10명
---	--

1) 청년 사회활동에 대한 지자체의 인식

지자체별로 청년활동지원사업이 운영되고 있는 방식에서 약간씩의 차이점이 있다. 현재 중앙정부 수준에서 「청년기본법」이 제정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지자체별로 ‘청년기본조례’ 제정을 통해 사업을 진행하고 정책을 수립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평가가 많았다. 지자체 중에서도 청년정책을 담당하는 별도의 ‘관’ 또는 ‘과’가 설치되어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기존 부서에 청년정책팀장과 팀원 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경우도 있어 조직과 인력 측면에서 차이가 있었다. 최근 2~3년 동안 ‘청년기본조례’가 제정되고 행정 체계 내 별도의 조직과 인력이 구성되면서 청년정책 사업이 본격화되고 있는 상황인데, 지자체별로 청년센터와 같은 중간지원 조직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 있다 하더라도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등 다양했다.

그런데 지자체별로 청년들의 사회활동에 대한 인식 수준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였다. 지자체 담당자들은 각종 사업을 수행하면서, 또는 정책 참여의 일환으로 청년들이 제안한 아이디어를 듣고 수용하는 과정에서 청년 개인 또는 단체를 대면하면서 이들의 활동 참여에 대한 인식을 갖게 된다. 그런데 청년 관련 사업들이 도입되었던 초기에는 지자체와 청년 개인 또는 단체 간에 갈등 또는 마찰이 꽤 발생했던 것으로 보고되었다. 지자체 공무원들은 청년들이 직접 정책을 제안하고, 시정에 참여하는 과정을 처음 경험했기 때문에 초기에는 정책 참여활동을 하는 청년들에 대해 당돌하고 거만한 이미지를 갖게 되었고 부정적인 평가가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해를 거듭할수록 지자체 공무원들 스스로 청년들의 정책참여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증가하고 있다는 평가가 있었다.

청년들이 정책 제안하는 부분에 대해서 처음 접하다 보니깐 굉장히 거만하게 말하는 청년들을 만나다 보니 공무원들이 굉장히 거부감이랄까, 거기에 대한 굉장히 많은 비판이 있었어요. 많았었는데, 올해는 청년들이 정책을 제안한다라는 것에 대한 인식이 꽤를 같이

하면서 그리고 또 부서장님하고 부서장들하고 같이 정책제안에 대한 피드백을 실시간으로 진행하면서 청년들이 첫해보다 둘째 해에 굉장히 성숙된 모습을 보여주더라구요. 여러 가지 시장조사나 시에 전반적인 것을 조사를 해서 이렇게 실제 소통하는 과정에 있어서 시의 부서장님도 청년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는 부분이 있었고, 약간의 갈등들이 개선되는 과정 중에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지자체 담당자 C).

다른 지자체에서는 청년들의 활동이 업무에 굉장한 도움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자체 담당자 D에 따르면, 청년들이 제안하는 내용은 기존 행정절차에서 나올 수 없는 새롭고 도움이 되는 내용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청년들이 기존 행정처리 절차나 과정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청년들이 제안한 내용을 기존 형식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다듬는 과정적 어려움은 발생한다. 그렇지만, 청년들과 협업하는 과정에서 새롭고 기발한 아이디어들을 얻고 있기 때문에 청년들의 활동지원에 대한 지자체의 신뢰가 있고 그러한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는 것이다.

중간에는 과정이 힘들어요. 과정은 엄청 힘든데, 결과는 항상 새로운 그림으로 나오는 거예요. 기존의 조직 안에서 했던 틀, 그러니깐 행정절차 이런 것들 안에서 했던 그 틀하고 전혀 다른 비주얼이 나오니깐 계속 몇 차례 3년간, 진행하는 과정에서 경험하면서, ‘아! 청년들이 하는 것들은 뭔가 좀 다르네, 되게 으쌰 으쌰 하는 것도 있고 이게 명확하게 확산되어 있어요(지자체 담당자 D).

2) 청년 사회활동지원 사업 경과에서의 지자체별 차이

지자체별로 청년 사회활동 지원사업의 수준이 상이하고, 활동 참여를 보장하는 체계에서도 차이를 보이는 데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여기에서는 3가지 요인에 대해 정리해본다.

(1) 청년 사회활동지원에 대한 단체장의 인식 차이

Ⅲ장에서 지자체별 청년정책기본계획에 대한 분석을 통해 청년 사회활동 지원 사업의 차이를 확인했던 바와 같이, 청년 사회활동 지원사업의 수준 차이는 청년들의 사회활동에 대한 지자체 단체장의 인식과 마인드에서 비롯되었다. 지자체 담당자 E에 따르면, 이 지자체의 경우 단체장이

청년 고용이나 일자리에 초점을 맞추어 정책을 추진하려는 경향이 강해서 청년 사회활동 지원과 관련된 정책이나 사업은 거의 진행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었다.

저희는 청년 고용과 일자리에 포커스를 맞추다보니까 그 분야의 정책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데 활동지원에 대해서는 전무한 상황입니다. 다른 지자체 장분들과 [저희 지자체 단체장의] 마인드가 달라서 청년활동지원에 대해서는 공감을 못하셔서요. (중략) 청년정책네트워크나 청년위워회도 구성이 안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활동지원에 대한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저희 팀에서 집중적으로 추진해 나가려고 다른 지역에 벤치마킹하려고 다녀오고 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청년들에 대한 지원에 막 긍정적인 부분은 아니시고 해서 좀 구심점이나 추진동력이 없는 상태입니다(지자체 담당자 E).

반면, 지자체 담당자 D가 일하고 있는 지자체는 청년 사회활동을 포함하여 청년정책 전반에 대한 단체장의 인식이 긍정적이었고 청년활동에 대한 지원 체계도 비교적 잘 갖추고 있는 편에 속한다.

저희 시장님은 청년에 대해서는 애초부터 굉장한 진정성을 가지고 시작했어요. 워낙에 청년정책 자체가 없고 토대도 없는데다, 지역의 역량도 여러 가지로 쌓이지 않고, 완전히 백지상태에서 맨땅에 헤딩하듯이 거의 한 3년을 해 왔는데, 저희는 이제 조금 이런 방향으로 가야겠구나 라는 게 보이는 시점이거든요(지자체 담당자, D).

이처럼 단체장이 청년활동에 대해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는가에 따라 청년정책의 방향이나 내용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물론 단체장들이 주로 취업이나 창업, 일자리, 주거 등의 정책에 집중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다. 지자체 단체장들은 임기가 정해져 있는 선출직이기 때문에 정해진 시간 내에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야 한다는 압박감을 가지고 있다. 주지하다시피, 청년 사회활동에 대한 지원은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린다. 청년들의 정책참여를 예로 든다면, 청년들의 정책참여 활동이 실제로 지자체에 도움이 되고 지자체 공무원들 역시 청년들을 정책 파트너로 인식하고 협업하는 데에는 오랜 시간이 소요된다. 서울시의 청년정책네트워크 활동 역시 민관 거버넌스의 성공적인 모델로 평가받고 있지만, 그러한 성과를 내기까지 3~4년의 시간이 소요되었다. 또한 민관 협치 과정에서, 지자체 담당자들의 인식과 태도도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했다. 즉, 청년들의 제안이 실제 정책화 되는

과정에서 청년정책 담당자들의 지원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민관 거버넌스가 성과를 거둘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런데 이 모든 과정들이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데 그 시간을 기다려 줄 단체장과 지자체 공무원들이 많지 않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많은 지자체의 청년정책이 가시적인 성과를 내는 용이한 영역들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음을 알 수 있다.

(2) 청년 당사자 조직 유무 및 역량 차이

청년활동에 대한 지자체 단체장 및 담당 공무원의 인식이 긍정적이고 지자체의 지원이 활발하다 하더라도, 지자체 내에서 활동에 참여할 청년단체나 개인들이 있는지 그들의 활동참여 역량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에 따라 지자체 청년 사회활동 지원사업의 성과가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과 몇 개 광역시를 제외하면, 청년들의 사회활동, 특히 정책참여 활동이 꾸준히 지속되지 않는 경우들이 발생했다. 담당자 H에 따르면, 청년들은 스펙을 쌓기 위한 일환으로 정책참여 활동을 신청하지만, 활발한 참여 활동을 하는 경우는 드문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들의 정책참여율은 높은 편이지만, 개인들의 스펙 활용 목적으로 참여하는 경우가 많아 실질적인 활동 참여율은 50%정도인 것 같습니다. 청년 개인들이 모여 단체를 이루는 경우는 거의 없었으며, 그 활동 또한 지속적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지자체 담당자, H).

저희의 고민은 ‘초동주체 형성’의 개념인데 작년 초반에 ○○○선생님이 저희에게 ‘이것은 지자체의 실험일 수 있다. 초동주체나 핵심주체를 형성하는 것은 사실 10년을 내다보는 실험인 것인지 단순히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다. 서울도 사실은 이제 이만큼 오는 데 3년 걸렸다, 청년허브가 2011년 생겨서 그때부터 형성해간 것이다. 하물며 서울이 그 정도 걸렸는데 지역도시는 더 기다려야한다. 기다려주는 것이 그 지자체의 힘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셨거든요. 그때는 사실 그 말을 이해를 못했는데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실감이 되더라고요(지자체 담당자 D).

지역도시의 경우, 서울시만큼 다양한 청년주체와 단체들이 활동할 수 있는 여건에 있지 않다. 청년당사자 조직인 청년유니온이나 민달팽이유니온의 경우에도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활발한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을 뿐, 지역도시에서는 단체의 규모가 작기 때문에 활동하는

회원들의 수도 많지 않다. 그렇다 보니, 청년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 민간 영역의 파트너로 참여할 청년단체나 조직이 전무한 경우가 발생한다. 이럴 경우, 중간 지원조직을 설치하는 과정에도 어려움이 발생하고, 중간 지원조직이 설치된다 하더라도 그것을 운영할 만한 청년단체나 인력이 부재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 힘들다. 이 때문에, 서울을 제외한 지자체에서는 사실 지역도시에 기반을 두고 있는 청년단체를 발굴하고, 그들을 파트너로 인식하면서 활동역량을 키우는 작업도 함께 할 필요가 있다. 그것이 수반되지 않은 상황에서 전개되는 청년정책 수립 및 사업 운영을 할 경우 청년들의 관심과 참여가 저조할 가능성이 크다. 때문에, 지자체에서 청년정책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청년들의 욕구와 요구를 반영하는 과정뿐만 아니라 그들이 정책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의 마련, 나아가 그들의 활동참여 역량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까지 고려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3) 행정 지원의 차이

마지막으로, 지자체에서 청년 사회활동을 지원하고자 하는 인식이 전제되어 있을 경우, 청년들의 정책참여나 활동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일환으로 이들을 위한 행정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다. 요컨대, 청년 사회활동의 의미를 인식하고 지원하고자 하는 단체장의 의지가 있을 경우, 청년들의 활동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행정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지자체에서 청년들의 정책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담당자들의 협조와 행정 지원이 이루어질 경우, 청년들의 정책참여 활동도 활발해질 가능성이 크다. 반면, 청년활동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이지 않고, 이들을 위한 지자체 담당자의 별도의 행정 지원도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청년들의 정책참여는 활성화되기 어렵다.

지자체 담당자 B는 지역의 청년단체들이 관의 행정 절차를 따르지 않는 점, 행정처리 과정을 무시하려고 하는 태도를 비판적으로 인식했다. 그렇지만 앞서 청년 사회활동 참여집단에 대한 면담조사에서 분석했듯이, 청년들은 지자체의 행정 절차가 다소 복잡해서 불필요한 에너지를 소모하는 측면이 있다고 인식했다. 지자체 담당자와 청년들의 인식에 분명한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청년들이 지원해달 라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어떤 공모사업에 지원하거나 하면, 그런데 참여율은 저조하다고 봅니다. [왜 그렇다고 보시나요?] 그렇게 체계적이지도 않고,

말은 잘 할 줄은 알지만 체계적이지 않고, 연구한 결과를 토대로 하거나 성숙하거나 그런 거는 아니거든요. 행정처리 일례를 들자면, 공모하면서 A, B, C 서류를 좀 줘라 그럼 청년들은 ‘왜 이렇게 많은 걸 요구하나? 우리가 해 온 거 토대로 그냥 해줘라’ 그게 거꾸로 어떤 행정에 대한 불만으로 표출돼서 막 여기저기 민원 넣고, 심지어는 시의원이나 청년단체들 이런 사람들과 규합해서 거꾸로 압력이 들어오고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해서 어쨌든 관 주도의 운영형태를 배척해요. ‘그냥 우리한테 줘라,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이런 요구가 많지요. 그런 부분이 청년단체들과 협업과정에서 어려움입니다(지자체 담당자 B).

반면, 지자체 담당자 D는 청년단체에 대해 관의 행정절차를 그대로 따르도록 요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인식했다. 그 때문에, 청년들의 사회활동 참여나 활성화를 위해서는 관에서 먼저 행정 지원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안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청년정책 담당자들의 부담은 더 늘어나고 있었다. 지자체 담당자 A에 따르면, 하나의 정책이 만들어지기까지 청년들과 지자체 담당자 간, 즉 민-관의 협업 과정이 결코 쉽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그 과정에서 정책담당자들의 협업 의지와 지원이 중요함을 알 수 있다. 그렇지만 이러한 과정을 거치지 않는 한, 청년들의 활동 역량을 제고하기는 요원하며, 실제로 이러한 과정을 거치는 것이 진정한 민관 거버넌스 체제를 구축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저희는 되도록 행정절차 안에서 어떻게 하면 그것들을 해소시켜 줄 수 있을까, 까다로운 조건들, 어떻게 해소시켜 줄 것인가를 계속 검토해가고 있어요. 저희도 초창기에는 그랬던 것 같아요. 애들이 맨날 말만하고... 시간이 지나니깐 사실은 젊은 친구들한테 완벽한 걸 요구하는 것 자체가 좀 웃기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무 경험도 없는데, 경험 없는 사람들에게 경험을 갖도록 기회를 주는 것인 건데, ‘완벽해야 된다’라고 자꾸 요구하니깐 이게 자꾸 미스매치가 되고, 다만 행정은 되게 힘들고 누수가 있었어요. 저도 초창기에 굉장히 청년들한테 어쨌든 줄려고 주도적으로 계속하다 보니까 계속 누수가 생기고, 누수가 생기고 이런 것들을 저희는 어쨌든 시장님이 조금 청년에 대한 강력한 의지가 있으셔서, 그런 것들이 다 좀 무마되고, 관대하게 가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조금 더 규정이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좀 더 까다롭지 않게 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검토들을 하고 있어요(지자체 담당자 D).

청년들이 쉽게 말해서 제안을 하긴 하지만 우리 조직 ‘과’의 유능한 주무관들이 청년들

에게 요구를 받고, 다듬어서 의견을 묻고 하는 이런 프로세스가 있었던 거예요. 또 거기에도 직원이 두 명이 달라붙어서 3개월 4개월 동안 갖은 자료를 만들어서 구상을 해가지고, ‘이거 어떠니? 너희들이 원하는 게 이런 거니?’ 이런 과정을, 주고받는 과정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지자체 담당자 A).

3) 청년 사회활동 활성화를 위한 개선점

(1) 중앙정부 수준

① 「청년기본법」 제정 및 청년정책 총괄기구 신설

지자체 청년정책 담당자들에 따르면, 현재 중앙정부에서 「청년기본법」이 제정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지자체에서 제정한 ‘청년기본조례’만으로는 청년 관련 신규사업을 추진할 때마다 관련법의 부재로 인해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었다. 그리고 중앙정부 수준의 모법이 부재하기 때문에, 조직, 예산, 인력 등이 지자체별로 상이하고 그로 인해 청년 사회활동 관련 정책에서도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단기, 중장기 과제를 수립하고 그 과제를 효율적으로 이행하기 위해서는 「청년기본법」 제정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과거 대통령직속 청년위원회가 폐지된 후 현 정부에서는 청년위원회가 없는 상황에서, 청년정책이 부처별로 부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청년정책을 담당하는 총괄기구가 필요하다는 데 공통된 의견이 제안되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일단 청년기본법이 중앙에서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그 법에 따라서 조례도 제정되고 해야 하는데, 모법이 있어야 만들어 지잖아요. 그래서 지방자치단체도 조직이 확실하게 꾸려지는 거고, 예산도 제대로 챙길 수 있고 한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 거죠. 그걸 토대로 단기적 과제도 만들고 중장기 과제까지 만들어서 탄력을 받는데... 시급한 과제인 것 같습니다(지자체 담당자 A, J).

청년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중앙정부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현재 중앙정부에 청년과 관련한 부처는 물론 위원회조차 없이 각 부처별로 청년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의 청년정책을 총괄하는 기구의 신설이 요구됩니다(지자체 담당자, H).

② 청년 사회활동에 대한 지원: 중앙정부 vs. 지방정부의 역할 분담 및 민관 거버넌스 구축
현재 지자체에 따라 청년수당, 청년배당 등 활동비가 지급되고 있는 경우와 아닌 경우로 나뉜다. 지자체 담당자 C는 지방정부의 재정 상태에 따라 청년들의 출발선이 달라지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청년기본법」이 제정된 후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에 청년 활동지원을 위한 역할 분담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청년들의 활동에서 지역 간 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중앙정부에서 활동수당을 일괄적으로 지급할 경우, 지방정부는 그 외 활동지원 정책과 관련 사업을 운영하는 방식으로 이원화하는 방안이 가능하다.

한편, 지자체 중에서는 모든 청년활동을 지원하는 것보다는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정주하는데 필요한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 있었다. 이는 지역에서 정주하고자 하는 의지를 지닌 청년들에 대한 지원을 늘리고 싶은 지자체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타시에서는 청년수당이라든가 청년통장이라든가 청년개인에 대한 지원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데 저희 시에서는 사실 그런 부분들이 없어서 저희는 지자체가 경쟁적으로 수당이나 통장이라든가 이런 정책을 경쟁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국가차원에서 모든 청년들이 같은 선상에서 출발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그런 관점에서 우리시에서는 보고 있는데, 그러한 지방재정의 차이에 따라 청년들의 출발선의 격차가 나는 것에 대해 우리시에서는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기본법이라든지 총괄부서가 있으면 정리가 되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지자체 담당자, C).

저희 지자체에서는 청년활동을 지원한다고 할 때 무조건적인 지원보다는 청년이 지속적으로 정주하면서 살 수 있는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지자체 담당자, G).

덧붙여, 지자체 담당자 H는 향후 「청년기본법」과 청년정책 총괄기구가 수립되고 난 이후에, 청년 사회활동을 활성화하는 일환으로, 지방정부와 지역 청년정책참여기구 간 거버넌스, 중앙정부와 지방 청년정책참여기구 연합체 간 거버넌스 체계를 공식화하여 청년들의 활동 참여가 현실 정책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장기적으로 청년들이 서로 힘을 모아 자조모임이나 단체를 구성해서 청년들의 일자리, 주거 등에 대한 문제를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에 건의·요청해서 정부와 청년 간 협치 체계

를 구축하면서 청년들에게 닥친 어려움을 스스로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지자체 담당자, H).

(2) 지방정부 수준

① 청년 사회활동 지원사업 확대 및 심화 프로그램 개발: 청년 욕구와 참여에 기반
앞서 언급한 대로, 청년 사회활동 지원사업에 있어서 중앙정부와 지방 정부간 역할분담이 이루어질 경우, 지자체 담당자 A는 지방정부가 청년 사회활동 지원사업을 확대하고 정교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미 청년 커뮤니티 지원사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A 지역의 경우 기존 사업을 잇는 심화된 버전의 추가 사업 발굴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언했다. 아울러 지자체 담당자 H는 지자체에서 청년들에게 제공하는 지원사업의 형식을 이미 확정한 후 청년들에게 사후적으로 의견을 묻는 방식이 아니라, 사업을 기획하는 단계에서부터 청년들의 참여와 욕구조사에 기반하여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저희는 청년활동지원 사업이 여러 개가 있긴 합니다. 약간씩 색깔이 다르지만요. 이 활동지원을 계속해 왔지만은 버전 2가 없다는 겁니다. 청년들이 한 개 지원 사업에 참여를 했어요. 그러면 이게 확산이 되어 가지고 또 다른 참여로 확산이 되어야 하는데 그게 안 되어서 고민이고 아쉬운 점이에요(지자체 담당자, A).

청년활동 지원 시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사항은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청년 당사자의 참여를 보장하고 이 당사자가 동등하게 권한을 갖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 봅니다. 사후에 공청회를 여는 방식이 아니라 사전에 그들의 욕구와 요구를 듣고 그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최대한 맞추어 지원을 해주는 방식으로 바뀌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지자체 담당자, H).

② 중간 지원 조직의 설치와 운영을 위한 지원

현재 지자체별로 중간지원 조직이 설치된 경우와 아닌 경우로 나뉘는데, 지원조직 설치를 위해서는 사업비 편성과 인력이 중요하다. 그런데 지자체 담당자 H에 따르면, 이 지역에서는 중간 지원 조직이 설치되어 있긴 하나, 사업비 편성에 어려움이 있어 제대로 운영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다. 이 문제는 앞서 밝힌 바와 같이, 지방정부의 재정 부족 문제 또는 예산 편성

과정에서의 관련법의 부재로 인한 추진 과정에서의 애로 사항으로 볼 수 있다.

요즘 청년들이 정보통신망의 발달로 인해 SNS 등 정보매체를 통한 교류에 익숙해져 있어 만남을 통한 교류활동에 어색함을 느끼는 경우가 많아 실질적인 참여 활동에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청년 간 중간조직과 민간위탁기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우리 지역에는 중간조직이 있긴 하나 사업비 편성에 난항을 겪어 직원 1명으로 운영되다 보니, 청년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경로 역할을 충분히 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지자체 담당자, H).

③ 민관 협치에 대한 인식 개선과 지원: 청년의 '정치적 효능감 제고'와 상호 신뢰

청년들의 정책참여활동 뿐만 아니라 청년들의 전반적인 사회활동 지원을 위해서는 청년활동에 대한 관의 인식과 태도 전환이 중요하다. 지자체에서는 청년들의 참여가 활발하지 않다는 불만이 있지만, 청년들은 지자체의 행정 전반에 대한 불신도 상당하다는 것이다. 이는 상당 부분 관의 책임도 있어서 관의 성찰과 반성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청년들의 활동참여와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자체와 청년들간 소통과 교류가 중요하다는 의견이 있었고(지자체 담당자, F), 예컨대 청년들의 정책 참여 또는 지자체의 활동지원사업에 대한 청년들의 요구나 의견이 실제 정책화 되도록, 그 결과 청년들이 정치적 효능감을 제공받을 수 있고 행정에 대해 신뢰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안되었다(지자체 담당자, D).

실제 청년들의 목소리를 담을 수 있는 정책도 만들어 줄 수 있으면 좋겠고, 청년들도 행정을 신뢰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청년들이 질문을 하고 답변을 해주면, '확실해요?'라고 되묻는 경우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분위기도 좀 해소하고, 교감하고 소통할 수 있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지자체 담당자, F).

올해는 저희가 직접적인 사업을 통해서 청년들한테 효능감을 주었는데, 단순히 '너네 의견줘 봐. 우리가 한번 들어볼게' 이런 차원에서 있다 보면 청년들이 동원되고 있다는 느낌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 친구들은 동원되어서 우리에게 듣기만 하고 만다는... 계속 이런 것들이 실망감으로,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쌓여가는 형태가 되어 있어서 저희는 되도록 우리가 직접 실행할 수 있는 지원사업들 그게 이제 청년다수에 대한 청년다수에

대한 지원사업의 중간역할로서 청년단체들이 수행할 수 있고 그것을 통해서 역량을 키워
가고 자기 포지셔닝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저희는 그것 지원하는 방향으로 계속
세팅해가고 있고 그것으로 신뢰를, 올해는 좋은 파트너로 신뢰를 해주고 본인들도 이제는
그것을 통해서 해야겠다는 믿음이 형성되어가고 있는 상황이에요(지자체 담당자, D).

덧붙여, 일부 지자체에서는 민관 협치가 원활히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담당 공무원들의 인식
개선도 필요하며, 정책참여 활동에 참여하는 청년들의 역량 강화도 동시에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청년 사회활동의 중요성과 필요성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안되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도 지자체의 청년정책에서 주로 일자리
및 고용정책이 주를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지역마다 편차가 나타나고 있는 청년단체
유무와 참여 역량의 차이로 인해, 일부 지역에서는 청년들의 역량강화를 위한 지원 활동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년단체가 비활성화 되어 있는 지방의 경우에는 청년단체가 자생할 수 있는 기초
환경부터 조성해주는 지원이 체계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한 청년활동지원에 대한 교육도 꼭 같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청년활동이 비활성
화된 지역의 경우 대다수의 정책들이 일자리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공무원들조차 청년
활동과 문화지원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이런 정책적 관점과 시각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는 일선 공무원들에 대한 교육도 병행되어야 청년활동 지원에 대한 정책 또한
활성화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지자체 담당자, I).

4. 소결

지금까지 다양한 유형의 사회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면담조사와 지자체 청년정책 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FGI 분석결과를 살펴보았다. 다음 표에는 지금까지 살펴본 면담조사 및 FGI 주요 분석결과를 요약하고 시사점을 정리하였다.

표 V-5 사회활동 참여 유형별 면담조사 주요 결과 및 시사점

구분	주요 분석결과	시사점	
		맞춤형 요구사항	공통 요구사항
① 사회활동 비참여자 	(1) 사회활동 비참여 이유: 여건 부족 vs. 필요성 못 느낌 (2) 사회활동 의향과 활동 참여의 걸림돌 • 의향 있음 vs. 의향 없음 • 정보 부족, 경제적 문제, 까다로운 행정 절차 등 (3) 정책지원 욕구 • 경제적 지원 • 공간 지원 • 거주지 인근 참여 프로그램 확대 • 정보 제공 및 홍보 • 활동 비참여자를 위한 인력 지원	• 비참여자가 은둔형외톨이, NEET 집단이 될 가능성을 고려하여, 전담인력 지원 방안 마련 필요	• 활동 정보 제공 및 홍보 • 공간지원 • 활동비 지원 • 청년과 지자체 간 가교 역할을 하는 지원 인력
② 커뮤니티 지원사업 참여자 	(1) 활동 참여 동기 • 사회적 경험 확대 • 기존에 참여하고 있던 활동 활성화 차원 • 사회적 관계의 확장 • 직장에서 시도하기 힘든 실험적 활동 (문화예술 기획 등) (2) 청년 커뮤니티 지원사업이 활동에 미친 영향 • 관계 지속과 신뢰를 쌓을 수 있는 물리적 시간 제공 • 시행착오와 실수가 허용되는 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 (3) 활동을 통해 배운 점과 얻은 것 • 비빌 언덕, 안전지대 그리고 자양분 • 다양한 사람, 다양한 관점, '다름'의 가치에 대한 인정과 존중	• 청년활동 지원사업 확대 • 청년활동에 대한 피드백과 조언을 해 줄 수 있는 지역사회 인력 발굴 및 지원(지역사회 구성원들의 재능기부 자원자 DB 구축 후 활용 방안 고려)	• 행정 절차 간소화 • 청년 단체에 대한 지원 • 취업과 일자리 중심의 청년정책 탈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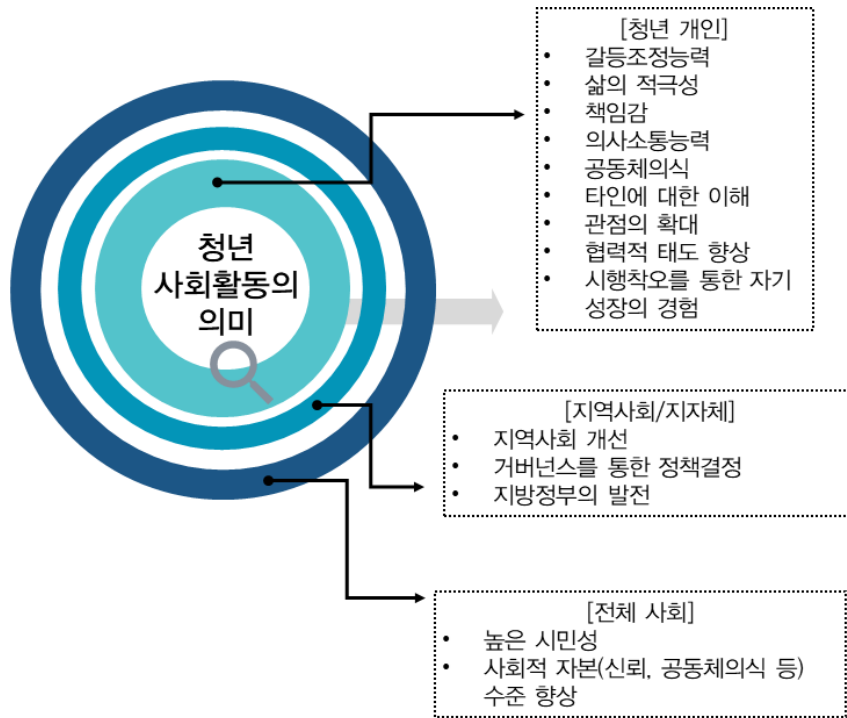
구분	주요 분석결과	시사점	
		맞춤형 요구사항	공통 요구사항
3 지역사회기반 청년단체 및 당사자 조직활동 참여자 	• 다양한 선택지의 발견, 새로운 활동을 할 수 있는 연결고리 • 의사소통기술 • 책임감 • 적극적인 삶의 태도 • 기타: 협업에 대한 배움, 함께 사는 마음가짐, 사람, 시민으로서 기여했다는 경험 등		
	(4) 정책 지원 욕구 • 공간 지원 • 지원사업의 형식과 내용의 다양성 • 청년활동을 지원하는 인력 • 활동에 대한 피드백과 조언 • 비진학자를 위한 활동 정보 홍보 • 사회활동에 대한 인식 개선		
	(1) 활동 참여 동기 • 지역사회 내에 뿌리를 내리며 공동체적 삶을 살아가기 원하는 청년들을 위한 생태계 조성 및 공간 지원 • 지역에서 삶을 살아가는 청년들 간 교류, 사회문제에 대한 참여 • 청소년(만 9~24세)의 노동권익 향상 (2) 활동을 통해 배운 점과 얻은 것 • 협력적 생존 방식, 공동체적 삶의 방식 • 갈등 조율 역량 •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다는 자부심과 보람 • 지역에 대한 정체성 • 다양한 사람, 세대와 계층에 대한 이해 (3) 활동을 하면서 힘든 점 • 활동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고민: 생존의 문제, 일과 삶의 불분명한 경계, 외연 확장의 어려움 • 지자체와의 협업 과정에서의 어려움: 지원사업 신청자격의 높은 기준, 지자체 담당자(기성세대)와 청년들 간 입장 차이, 지자체 사업에 동원되는 경우 • 활동 토대의 척박함: 지방 청년으로 살아간다는 것 (4) 정책 지원 욕구 • 활동에 대한 지원(기본소득) • 공간 지원	• 지역사회 내에서 공동체적 삶을 살고자 하는 청년 개인/단체를 위한 지원사업 확대(기존 취창업 모델이 아닌 새로운 모델 발굴) • 지자체-청년단체 간 상호이해를 위한 교류의 장 마련	

구분	주요 분석결과	시사점	
		맞춤형 요구사항	공통 요구사항
	• 활동 단체들 간 네트워킹 • 지자체와 청년활동을 연결하는 중간 지원 인력 • 광역단위와 기초단체에서의 청년지원사업 이분화 • 예산비목의 융통성 • 청소년활동과 청년활동의 연계 필요		
4 대외활동 참여자 	(1) 활동 참여 동기 • 스펙 쌓기, 실무 경험을 할 수 있다는 기대감 (2) 활동을 통한 긍정적 경험 • 다양한 배경을 지닌 사람들을 만날 수 있음, 인간 관계기술, 의사소통기술, 갈등 조율 능력, 일에 대한 노하우, 자신감 등 • 협업에 대한 즐거움, 실무 경험 (3) 활동을 통한 부정적 경험 • 반복적이고 관행적인 활동→무의미하고 비생산적인 활동→투입 시간 대비 얻는 것이 없고 ‘시간이 아깝다’는 인식 증가 • 대외활동을 발미로 주최 기관의 홍보 수단으로 동원 (4) 정책 지원 욕구 • 활동유형과 형식 확대: 청년들이 직접 활동 기획 • 활동에 대한 홍보 • 공간 지원 • 행정 절차 간소화 및 청년에 대한 배려 (사후정산의 문제점) • 활동에 대한 사후관리 (성장 기회를 제공하는 지원 프로그램 확대)	• 대외활동의 형식과 내용 개편 – 청년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 실무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개편 – 직접 기획하여 참여할 수 있는 기회 제공	
5 정책참여 활동자 	(1) 활동 참여 동기 • 민관 거버넌스 협치 모델에 대한 관심과 참여 • 지역에서 서울의 청년활동 지원사업을 적용해 보고 싶은 바람 (2) 활동의 의미와 가치, 활동을 통해 얻은 것 • 동료 & 동료를 통한 지지 • 자신을 알아가는 자기 실험, 자기주도학습의 실천 • 공동체 의식 • 경청, 다양성에 대한 인정과 존중	• 지자체-청년들간 신뢰와 이해 제고를 위한 상호교류 필요 – 지자체 및 공무원들의 태도 개선 (정책참여 활동의 의미와 가치)	

구분	주요 분석결과	시사점	
		맞춤형 요구사항	공통 요구사항
	(3) 활동을 하면서 힘든 점 • 권위적이며 폭력적인 의사소통방식 • 청년에 대한 보수적 관점과 불신, 정책 파트너로 인식하지 않는 태도 • 후발주자로서의 조급함과 지역의 특성이 반영된 정책부족 • 청년 범주에 포함되고 있지 않은 소수자 집단에 대한 고려 부족 (4) 정책 지원 욕구 • 정책참여 과정에 대한 태도 교육 • 행정 절차 간소화 • 공간 지원 • 취업 중심의 정책 탈피 & 청년활동 전반에 대한 지원	인식/정책 파트너로서의 존중)	

구분	주요 분석결과	시사점
지자체 청년정책 담당자 	(1) 청년 사회활동에 대한 지자체의 인식 • 불신 vs. 신뢰 → 초기에는 상호 이해 부족으로 불신하는 경우들이 다수 나타남 (2) 청년 사회활동 지원사업 경과에서의 지자체별 차이 • 청년 사회활동지원에 대한 단체장의 인식 차이 • 청년 당사자 조직 유무 및 역량 차이 • 행정 지원의 차이 (3) 청년 사회활동 활성화를 위한 개선점 – 중앙정부 수준 • 청년기본법 제정 및 청년정책 총괄기구 신설 • 청년 사회활동에 대한 지원: 중앙정부 vs. 지방정부 역할 분담 및 민관 거버넌스 구축 – 지방정부 수준 • 청년활동지원사업 확대 및 심화 프로그램 개발 • 중간 지원 조직의 설치와 운영을 위한 지원 • 민관 협치에 대한 인식 개선과 지원: 청년의 정치적 효능감 제고와 상호 신뢰	• (3) 청년 사회활동 활성화를 위한 개선점 제안 의견으로 같음

청년 대상 면담조사 및 지자체 청년정책 담당자 대상 FGI 결과를 토대로, 청년 사회활동의 의미를 요약하면 [그림 V-4]와 같다.



【그림 V-4】 청년 사회활동의 의미

제 VI 장



정책 제언

1. 정책 제언의 배경
2. 정책 과제

제 VI 장

정책 제언*

1. 정책 제언의 배경

본 연구는 20대 청년들의 사회활동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III장에서 청년 사회활동 관련 법령, 정책 및 해외 청년 사회활동 정책지원 사례를 분석하였고, IV장에서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사회활동 실태조사 결과를 분석하였다. V장에서는 청년들의 사회활동 경험과 그 의미를 심층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사회활동 비참여자를 포함한 5가지 사회활동 유형별 참여자를 대상으로 한 면담조사 결과를 분석하였으며, 아울러 지자체 청년정책 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FGI 결과를 살펴보았다. VI장에서는 지금까지의 분석결과를 토대로 청년 사회활동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를 제시하였다. 정책과제는 4개 영역에 대해 11개 정책추진과제를 도출하였으며, 일부 정책추진과제에서는 각 세부과제를 포함하여 제안하였다. 본 과제에서 제시한 정책 과제의 근거 및 내용은 <표 VI-1>과 [그림 VI-1], [그림 VI-2]에 제시되어 있다.

<표 VI-1>에 제시된 바와 같이, 본 연구과제의 연구내용 분석 결과와 시사점을 토대로 청년 사회활동 활성화 방안은 크게 4가지 영역으로 구분된다. 첫 번째 영역은 청년 사회활동 지원의 근거에 해당하는 중앙정부의 「청년기본법」 제정과 동법에 청년 사회활동 관련 내용을 포함시키는 것이다. 또한 현재 지자체별 ‘청년기본조례’와 청년정책기본계획에서도 청년 사회활동에 관한 내용이 반영된 경우는 드물다. 두 번째 영역은 청년 사회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공통 지원방안을 들 수 있다. 사회활동 유형별 차이를 뛰어넘어 보편적으로 청년 사회활동 활성화를 위해 지원해야 할 사항에 관한 내용이다. 세 번째 영역은 본 연구에서 실시했던 각 유형별 사회활동 정책 지원육구 조사 결과를 토대로 한 유형별 맞춤형 지원방안에 관한 내용이다. 네 번째 영역은 청년 사회활동 활성화를 위한 시스템 구축과 관련된 정책과제이다.

* 이 장은 김정숙 부연구위원(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집필하였음.

표 VI-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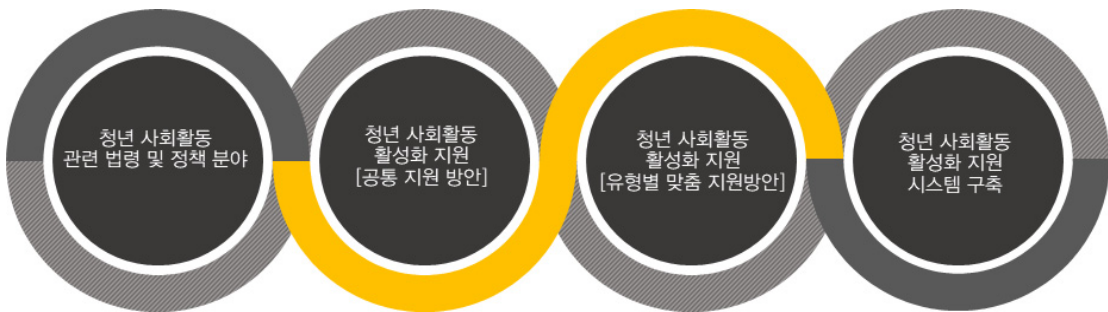
정책과제의 근거와 내용

구분	분석 결과 내용 및 시사점
법령 및 정책 분석/ 청년 사회활동 지원정책 해외사례	[주요 분석결과] • 중앙정부의 「청년기본법」 미제정으로, 지방정부의 청년 사회활동정책 운영의 한계 발생 (관련법 부재, 지방재정의 한계 등) • 지자체의 청년정책기본계획 내용이 취업과 일자리 중심에 치중되어 있으며, 청년 사회활동 관련 내용 부족 • 「청소년활동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활동들 중, 20~24세 청년들의 욕구에 기반한 활동 프로그램 개발 필요 • EU의 청년 사회활동 지원정책은 회원국 청년들의 시민의식을 제고하고 사회 참여 역량을 키우기 위한 활동 정책과 관련되어 있음 • 일본의 청년 사회활동 지원정책은 NEET, 은둔형외톨이 등 청년 사회적 약자를 주요 대상으로 설정하고 있다는 특징이 있음 [시사점] • 「청년기본법」 제정 필요, 청년 사회활동 지원 관련 근거 포함 • 「청소년활동기본법」 정비 • 청년들의 시민권 강화 측면에서, 청년 사회활동 관련 정책 확대 필요 • 청년 중 사회적 취약집단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활동 지원 정책 필요
20대 청년 사회활동 실태조사	[주요 분석결과] • 청년들의 사회활동을 위한 활동비 지원 및 공간(시설) 지원 필요 • 조사대상 청년들 중, 비참여자의 72.3%가 사회활동 참여 의향을 가지고 있음 (활동 시간, 활동비, 활동 정보 제공이 필요하다고 인식) • 사회활동 비참여자 이유 중 ‘관계형성 부담’, ‘필요성 못 느낌’, ‘활동비 부담’은 비경활/구직자 집단에게서 높게 나타났음 • 비진학 청년들은 사회활동을 통해 삶의 질 향상, 사회적 관계망 형성 욕구가 컸으며, 활동 공간 중, 개방형(교류) 공간 및 신체활동 공간에 대한 수요가 높았음 • 청년들은 중앙정부 및 지자체의 청년 사회활동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식 • 비경활/구직자 집단, 부모소득 수준이 낮은 집단, 비진학 청년 집단일수록 사회활동 참여 비율이 낮았음 • 사회활동 비참여 집단 대비 참여 집단 청년들의 비인지적 역량, 대인신뢰, 공동체 의식 수준이 높았음 [시사점] • 청년 사회활동 활성화를 위한 활동비 지원, 공간 지원 방안 마련 필요 • 비참여자 중, 비경활/구직자 집단, 부모 소득수준이 낮은 집단, 비진학 청년 집단에 대한 우선 지원 방안 마련 필요 • 사회활동 참여가 비인지적 역량, 대인신뢰, 공동체 의식 등을 높일 수 있으므로, 청년들의 시민성 제고, 전체 사회의 사회적 자본 수준 제고를 위한 방안으로 청년 사회활동 지원 토대 마련 필요

청년
사회활동
유형별
면담조사
및
청년정책
담당자 FGI

[주요 분석결과 & 시사점]

- 청년 사회활동 활성화를 위한 정책 욕구(공통 지원)
 - 청년 활동정보 제공 및 홍보 활성화
 - 사회활동을 위한 활동비 및 공간 지원
 - 청년과 지자체 간 가교 역할을 하는 지원 인력
 - 청년 단체에 대한 지원 필요
 - 행정절차 간소화
 - 비진학자 등 청년 내 소수집단에 대한 지원과 관심 필요
 - 취업과 일자리 중심의 청년정책 탈피(활동 지원 정책 확대 필요)
- 청년 사회활동 활성화를 위한 정책 욕구(유형별 맞춤 지원)
 - 비참여자를 위한 전담인력 지원
 - 커뮤니티 활동 참여자를 위한 멘토링 인력 지원
 - 지역사회기반 청년단체를 위한 ‘지역사회기반 자립지원사업’ 발굴
 - 공공기관 대외활동 프로그램 재편
 - 정책참여 활동자-지자체 담당자 간 상호교류의 장 마련
- 청년정책 담당자
 - 「청년기본법」 제정 및 청년정책 총괄기구 신설
 - 청년 사회활동에 대한 지원: 중앙정부 vs. 지방정부 역할분담 및 민관 거버넌스 체계 구축
 - 청년 사회활동 지원사업 확대 및 심화 프로그램 개발 등



【그림 VI-1】 청년 사회활동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 4개 영역

I 청년 사회활동 관련 법령 및 정책 분야	1. 「청년기본법」 제정 및 청년 사회활동 관련 내용 추가 1-1. 청년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내용 추가 1-2. 청년발전지원기금(청년 사회활동 지원 포함)에 대한 내용 추가 1-3. 청년 사회활동 참여 보장을 위한 거버넌스 내용 추가 2. 지자체 청년기본조례 및 청년정책기본계획에 청년 사회활동 참여 관련 내용 추가
II 청년 사회활동 활성화 지원: 공통 지원 방안	1. 청년 개인에 대한 지원 : 활동비 지원 2. 청년 사회활동 인프라 지원 2-1. 프로그램 지원: 청년 사회활동지원사업 2.0 2-2. 공간지원: 개방형 교류공간 및 목적지향적 활동 공간 마련 2-3. 인력지원: 청년 사회활동 코디네이터(가칭) 채용 및 활동 멘토 연계 2-4. 행정지원: 청년단체 지원사업 요건 완화 & 행정절차 간소화
III 청년 사회활동 활성화 지원: 유형별 맞춤 지원 방안	1. 사회활동 비참여자 및 대학 비진학자를 위한 맞춤형 지원 2. 공공기관 대외활동 내용 재편 3. 정책참여 활동 활성화 방안 마련 4. 청년 사회활동 지역격차 해소를 위한 지역 청년단체 지원사업 확대
IV 청년 사회활동 활성화 지원 시스템 구축	1. 청년 사회활동 활성화를 위한 사회적 시스템 구축 1-1. 민관 거버넌스 정례화: 「청년주간」에 ‘청년과의 대화’ 개최 1-2. 청년 사회활동에 대한 인식 개선 및 홍보 2. 청년 사회활동 활성화를 위한 지원 프로그램 제공 2-1. 청년단체 활동가 지원: 교육 및 네트워킹 지원, 프로젝트 활동 지원 2-2. 지자체 청년센터 담당자 대상 연수 및 교류 기회 제공 3. 청소년 활동 지원사업과의 연계 시스템 구축

【그림 VI-2】 정책영역 및 정책추진과제

2. 정책 과제

1. 청년 사회활동 관련 법령 및 정책 분야

1. 「청년기본법」 제정 및 청년 사회활동 관련 내용 추가⁶⁸⁾

- 1-1. 청년 사회활동지원에 관한 내용 추가
- 1-2. 청년발전지원기금(청년 사회활동지원 포함)에 대한 내용 추가
- 1-3. 청년 사회활동 참여 보장을 위한 거버넌스 내용 추가

1) 제언 배경

청년정책 담당자들은 지자체에서 청년 사회활동 지원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선 모법에 해당하는 「청년기본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중앙정부 수준에서 관련 법이 제정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지자체에서 청년기본조례를 토대로 정책을 수행하는 데 여러 가지 한계점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6건의 「청년기본법안」에는 청년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내용을 명시하고 있지 않다. 이 법안들에서 다루고 있는 청년 활동은 문화, 국제협력, 자원봉사, 단체 활동 등 영역별 활동에 국한된다. 그런데 분석결과에서도 논의했다시피, 청년 사회활동은 친교와 친목을 목적으로 하는 활동에서부터 자원봉사, 문화예술, 스포츠, 정책참여, 지역사회 개선, 국제협력 및 교류, 사회참여 등 다양하다. 즉, 사회, 경제, 문화, 예술 분야 등을 아우르는 활동들이 가능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년기본법안」에서 명시하고 있는 청년 사회활동들은 제한적이며, 변화된 청년 사회활동들을 포괄하지 못한다. 이 때문에, 「청년기본법안」 내에 청년 사회활동 전반을 지원하는 내용을 추가하는 것이 필요하다. 아울러 청년 사회활동을 진흥하기 위한 기금을 조성하는 내용을 명시하여 청년 사회활동을 활성화하는 토대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청년 사회활동 참여를 보장하는 민관 거버넌스 내용을 명시하여, 청년들의 정책참여 활동을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다.

68) 청년 사회활동 활성화를 위한 법령 및 정책분야에서 제안한 정책과제에는 「청년기본법」에 대한 내용 외에,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대한 개정안을 포함할 수 있다. 그런데, 두 개 법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청소년(9세~24세)과 청년(19~34세, 또는 19~39세)의 연령에서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 「청년기본법」 제정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청소년 및 청년 연령 조정이 전제되어야만 한다. 따라서 법안에서 규정하는 대상의 연령 규정으로 인해 청년 활동 지원 측면에서의 중복이 불가피하다. 여기에서는 「청년기본법」을 중심으로 청년 사회활동 활성화 관련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2) 정책 방향

여기에서는 국회에 발의된 「청년기본법안」 중, 박주민 의원 법안을 중심으로 청년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내용을 추가해 보고자 한다. 박주민 의원이 발의한 「청년기본법안」에는 청년정책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으로 ‘정책결정과정 참여확대’, ‘능력개발’, ‘복지 증진’, ‘고용의 증진과 청년 일자리의 질 향상’, ‘창업 활성화’, ‘주거안정’, ‘부채 경감’, ‘문화 활성화’, ‘권리보호’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여기에 청년 사회활동에 관한 내용을 추가하는 것이 필요하다. 아울러, 강창일의원이 발의한 「청년발전지원기본법안」에 포함된 청년발전지원기금의 내용에 청년 사회활동을 진흥하고 활성화하기 위한 ‘청년 사회활동 지원기금’ 내용을 추가하여 포함시키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청년들의 다양한 사회활동 참여를 보장하는 거버넌스에 관한 내용도 추가하여 정책참여의 통로를 마련하고자 한다.

3) 세부과제

1-1. 청년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내용 추가

박주민의원이 대표 발의한 「청년기본법안」에는 청년의 정책결정과정 참여확대, 청년의 능력개발, 청년복지의 증진 등에 관한 내용을 청년정책기본계획에 포함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그런데 동법 제3조 정의에서 “청년발전”을 “정치·경제·사회·문화 전 분야에 걸쳐 청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만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청년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내용을 추가하는 것이 필요하다.

<표 VI-2>에는 이러한 취지를 반영한 「청년기본법안」 추가안을 제시하였다. 「청년기본법」이 제정된 이후에는 「청년사회활동진흥법」을 별도로 마련하여, 청년 사회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공간), 지원사업, 활동 정보 등에 대한 종합적 관리 및 제공에 관한 내용을 추가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

표 VI-2 박주민의원 대표 발의 「청년기본법안」 청년 사회활동 관련 내용 추가

현행	내용 추가
제6조(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청년정책의 기본방향 2. 청년정책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추진목표 가. 청년의 정책결정과정 참여확대 나. 청년의 능력개발 다. 청년복지의 증진 라. 청년고용의 촉진과 청년 일자리의 질 향상 마. 청년창업의 활성화 바. 청년의 주거안정 사. 청년의 부채경감 아. 청년문화의 활성화 자. 청년의 권리보호 차. 그 밖에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 시책	제6조(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청년정책의 기본방향 2. 청년정책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추진목표 <u>〈신설〉가. 청년 사회활동 지원</u> 나. 현행 가와 동일 다. 현행 나와 동일
제18조(정책결정과정의 참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책결정과정에 청년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8조(신설) (청년 사회활동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년 사회활동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청년 사회활동의 지원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제19조. 현행 제18조 내용과 동일

출처: 박주민의원 대표발의 「청년기본법안」 내용에 청년 사회활동 관련 내용을 추가하여 재구성

1-2. 청년발전지원기금(청년 사회활동지원 포함) 내용 추가

강창일의원이 대표발의한 「청년발전지원기본법안」에는 청년발전지원기금에 관한 내용을 명시하고 있다. 동법안의 ‘청년발전지원기금’에 관한 내용을 토대로, 여기에 청년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여, 박주민의원이 대표발의한 「청년기본법안」에 추가해 볼 수 있다.

강창일의원이 대표발의한 「청년발전지원기본법안」 중 ‘청년발전지원기금’은 “청년정책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일환으로 설치된다. 기금의 구체적 용도에는 “1. 청년단체에 대한 재정적 지원, 2. 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지원, 3. 기본시책의 수행에 따른 지원, 4. 청년정책의 수립·시행 과정에 관한 연구의 지원, 5. 그 밖에 청년발전 또는 청년지원을 위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지원” 내용만을 포함하고 있다.

‘청년발전지원기금’ 설치와 관련하여, 청년들의 혁신적인 아이디어 시험을 지원하기 위해 ‘혁신기금’(Innovations fonds)을 운영하고 있는 독일의 사례를 참고할 만하다. 독일 가족노인여성청년부는 청년들의 정치교육, 문화교육, 청년연맹 관련 활동, 청년 사업 등을 활성화하기 위해 ‘혁신기금’을 통해 관련 프로젝트들에 대한 재정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혁신기금’은 2012년 처음 계획되었고 2014년부터 실시되었다. 독일 연방정부에서 지원하는 청년 프로젝트는 크게 ① 청년 활동 및 사업: 취약 청(소)년 지원에 초점을 맞춘 프로젝트, ② 정치교육 관련 프로젝트: 이주, 난민, 종교 등과 사회통합에 관련된 프로젝트, ③ 문화교육 관련 프로젝트: 사회적 포용에 관한 프로젝트, ④ 국제 청년 사업: 국제적인 청년 교류 활성화에 기여하는 프로젝트, ⑤ 청년 사회사업: 거리의 아이들을 위한 사회, 교육 등 크게 5가지이다.⁶⁹⁾ 지금까지 독일 정부에서 지원한 혁신기금 프로젝트 사례는 다음과 같다. 청년발전기금이 설치될 경우, 청년 사회활동 지원을 위한 기금 활용 방안을 참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표 VI-3 독일 혁신기금 지원 프로젝트 사례

프로젝트명	프로젝트 기간	시행 주, 기관	내용
(정치) 투표를 하기엔 너무 이른 나이? 투표권에 대한 연령 문제 ⁷⁰⁾	2014. 09.~ 2015. 12.	베를린 독일 교육 협회(AdB)	- 투표권에 대한 토론 - 인구통계학적으로 빠르게 변화하는 현 시대에 적합한 투표연령에 대해 논의
(문화) 언어 교환 파트너 자원봉사 ⁷¹⁾	2014.11.~ 2016.10.	에슬링겐/바덴 뷔템베르크 청년 서클(Kreisjugendring Esslingen / BadenWuerttemberg)	장애인들에 대한 편견을 없애고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프로젝트
(국제교류) 다문화 교육을 가시화 시키는 법 ⁷²⁾	2015.1분기~ 2016년 말	노르트라인 베스트팔렌 주 문화, 어린이 및 청소년 교육 연방 협회(Bundesvereinigung Kulturelle Kinder und Jugendbildung (BKJ) Nordrhein-Westfalen)	- 독일과 프랑스 청년 문화 교류 프로그램 - 프랑스의 ‘청년 및 문화 협회(CMJCF)’와 함께 언어적, 문화적, 교육적, 청년 정책 등의 분야에서 교류하는 데에 초점을 두고 진행

69) 독일 혁신기금 홈페이지(<https://www.jugendgerecht.de/innovationsfonds/>)에서 2017년 5월 29일에 인출) 및 독일연방 가족노인여성청년부 홈페이지

<https://www.bmfsfj.de/bmfsfj/aktuelles/alle-meldungen/interessenbekundungs-verfahren---jetzt-noch-bewerben-/109478?view=DEFAULT>에(2017년 5월 30일 인출)에 게시된 자료를 이용하여 작성하였음.

70) Innovationsfonds Politische Bildung.

http://www.allianz-fuer-jugend.de/downloads/Innovationsfonds_Politische_Bildung.pdf에서 2017년 5월 31일 인출.

프로젝트명	프로젝트 기간	시행 주, 기관	내용
(청년활동) “PARTIX”, 민주주의를 촉진하는 아날로그 및 디지털 청년 참여 활동 ⁷³⁾	2014.11.~ 2016.10.	메클렌부르크 포어폼메른 주 기독교 청년 협회(CJD Waren (Müritz) / Christliches Jugenddorfwerk Deutschlands e. V., Mecklenburg-Vorpommern)	• 14~25세 사이의 청소년과 청년을 대상으로 지역 개발에 대한 아날로그 및 디지털 참여를 진흥하여 이들의 정치 참여를 촉진하는 프로그램
(사회) 길거리 아동과 함께하는 연극 프로젝트 ⁷⁴⁾	2014.12~ 2016.12	베를린 청년클럽 만남 및 상담소(Kontakt und Beratungsstelle Berliner Jugendclub e.V.)	• 길거리 아동에게 겨울 기간 동안 4개월 이상의 숙식을 제공하며 진행하는 연극 프로그램

「청년기본법안」에 ‘청년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내용과 사회활동을 위한 ‘청년 시설(공간)의 설치와 운영을 위한 지원’ 내용을 추가하여 다음과 같이 재구성해 볼 수 있다.

표 VI-4 박주민의원 대표 발의 「청년기본법안」 청년발전지원기금 내용 추가

현행	내용 추가
제6장 보칙 제31조(권한의 위임·위탁)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그 사무의 일부를 청년단체 및 청년정책 관련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장<신설> 청년발전지원기금 제31조(기금의 설치 등) ① 청년정책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청년발전지원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2. 개인·법인 또는 단체가 출연하는 현금·물품이나 그 밖의 재산 3.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③ 기금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운용·관리한다.

71) Innovationsfonds_Kulturelle_Bildung.

http://www.allianz-fuer-jugend.de/downloads/Innovationsfonds_Kulturelle_Bildung.pdf에서 2017년 5월 31일 인출.

72) Innovationsfonds_Kulturelle_Bildung.

http://www.allianz-fuer-jugend.de/downloads/Innovationsfonds_Kulturelle_Bildung.pdf에서 2017년 5월 31일 인출.

73) Innovationsfonds_Jugendverbandsarbeit

http://www.allianz-fuer-jugend.de/downloads/Innovationsfonds_Jugendverbandsarbeit.pdf에서 2017년 5월 31일 인출.

74) Innovationsfonds_Jugendsozialarbeit

http://www.allianz-fuer-jugend.de/downloads/Innovationsfonds_Jugendsozialarbeit1.pdf에서 2017년 6월 8일 인출.

현행	내용 추가
	제32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1. 청년 사회활동의 지원 2. 청년 시설(공간)의 설치와 운영을 위한 지원 3. 청년단체에 대한 재정적 지원 4. 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지원 5. 기본시책의 수행에 따른 지원 6. 청년정책의 수립·시행 과정에 관한 연구의 지원 7. 그 밖에 청년발전 또는 청년지원을 위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지원 제7장 현행 제6장과 동일

출처: 강창일의원 대표발의 「청년발전지원기본법안」의 ‘청년발전지원기금’ 내용 중 청년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내용을 추가하여 재구성

1-3. 청년 사회활동 참여 보장을 위한 거버넌스 내용 추가

박주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청년기본법안」 제14조에는 “청년정책 과제를 설정·추진 및 점검하고 제18조에 따른 청년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청년참여회의를 주기적으로 개최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제18조(정책결정과정의 참여)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책결정과정에 청년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그런데 청년의 정책결정과정의 구체적 참여 방법을 명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책결정과정에 청년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는 것만으로는 청년의 정책결정과정에 대한 실질적 참여를 보장하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청년들의 형식적 참여 또는 동원을 통해 청년정책을 결정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정책결정과정의 참여 방법을 전통적인 관료중심 모델이 아닌 거버넌스 모델 도입을 통해 제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서복경(2016: 213~215)은 네 가지 거버넌스 모델을 통해 청년정책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표 VI-5 청년들의 정책결정참여 보장을 위한 거버넌스 모델

모델 구분	내용
결사체 거버넌스	• 방법: 정부가 이해당사자의 결사체 형성을 위한 비용 지불, 그 과정에서 발굴된 역량 있는 조직에 권한 제공을 통한 파트너십 구축

모델 구분	내용
	고려사항: 거버넌스의 주체 수립 및 참여 보장을 통한 정책결과를 도출할 수도 있으나, 정부에 우호적인 특정 블록을 주체로 형성할 경우, 수직적 위계의 하위 파트너로 이용하는 부정적 결과 초래
협력적 거버넌스	- 방법: 정부가 정책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이해당사자들에게 실질적인 권한 부여, 참여 유도, 참여적 자기역량을 배양할 수 있도록 함 - 고려사항: 수평적 파트너십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당사자 참여의 범위가 제한되어서는 안 됨
권한부여 참여 거버넌스	- 방법: 시민들의 상향식 참여 강조, 이 과정에서 정부의 심의, 조정, 감독 기능이 중요함 - 고려사항: 정책결정 과정에서의 참여자 선정, 참여자에 대한 권한과 책임 부여 방법, 효율적이고 공평한 심의 방법 수립이 관건
자율 거버넌스	방법: 시민들의 자치(self-rule)와 공동체의 사회자본이 중요하며, 시민들의 참여 요구에 반응적인 정부 역량이 중요

출처: 서복경(2016: 213~215), “지방정부 거버넌스의 제도와 과정” 『좋은 정부의 제도와 과정』, 서울: 도서출판 오름.

중앙정부는 지방정부와의 거버넌스 과정을 통해 청년정책에 대한 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지방정부는 지역 내 청년단체의 유무와 역량을 고려하여 지역의 상황에 부합하는 거버넌스 모델을 적용하여 청년들의 정책참여 활동을 증진시킬 수 있을 것이다.

1. 청년 사회활동 관련 법령 및 정책 분야

2. 지자체 청년기본조례 및 청년정책기본계획에 청년 사회활동 참여 확대 관련 내용 추가

1) 제언 배경

현재 지자체별로 제정된 청년기본조례에는 청년의 참여 확대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그런데 광역 자치단체에 한정해서 살펴볼 때, 청년기본조례에서 담고 있는 참여 확대 방안의 내용이 조금씩 상이하다. 대체로 서울특별시에서 제정한 청년기본조례의 내용을 준용한 경우가 많은데, 문제는 서울특별시의 청년기본조례에서 명시한 제10조 ‘청년의 참여 확대 등’에 관한 내용을 부분적으로 포함하고 있어 청년 활동 참여에 관한 실질적 지원에 한계점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지자체의 청년기본조례에 ‘청년 참여 확대’에 관한 내용을 명시하거나,

확대함으로써 청년 사회활동을 촉진하고 활성화하는 근거로 삼을 필요가 있다.

또한 지자체에서 수립한 청년정책기본계획에는 주로 일자리의 질과 취업준비에 관한 내용이 주를 이룬다. 청년들의 취업과 고용문제는 중요한 문제이긴 하지만, 청년들의 삶의 질과 사회구성원으로서의 권리 등을 고려할 때, 사회활동 참여와 그를 위한 지원 역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지자체별 청년정책기본계획에도 청년들을 위한 사회활동 지원의 내용이 비중있게 반영될 필요가 있다.

2) 정책 방향

지자체별 청년기본조례의 내용은 대체적으로 유사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면서도 세부 내용으로 들어가면 지자체의 재정 상태나 청년 사회활동에 대한 입장 차이로 인해 지원 내용에서 차이가 있다. 예컨대, 부산광역시의 청년기본조례 “제6조(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2.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사항”에 포함된 내용 중에는 타 지자체와 다른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타 지자체에서는 “정치·사회·경제·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의 참여 확대”를 명시하고 있는 반면, 부산광역시의 경우 정치를 제외한 “사회·경제·문화 등 시정 전반에의 청년참여 확대”만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사회·경제·문화 등 시정 전반에의 청년참여 확대”와 관련된 구체적 지원 방안에 관한 내용도 포함하고 있지 않다. 이에, 청년들의 참여를 특정 분야에 한정할 것이 아니라 시민성을 실현할 수 있는 사회활동 제반 분야에 대한 참여를 보장하고 확대하는 차원에서 지원방안을 명시하는 방향으로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향후 청년기본조례에 청년 사회활동에 관한 내용이 추가될 경우, 청년정책기본계획에도 자연스럽게 관련 내용이 반영될 수 있을 것이다.

3) 세부과제

<표 VI-6>에는 지자체별 청년기본조례에 포함된 ‘청년 참여 확대’ 관련 내용이 정리되어 있다. 서울특별시의 청년기본조례에서 명시한 ‘청년의 참여 확대 등’에 관한 내용은 민주시민으로서의 학습과 경험을 지원하기 위한 포괄적인 참여활동임을 알 수 있다. 그런데 타 지자체의 경우에는 관련 내용이 아예 없거나(부산광역시), 지원 내용에 관한 방향만 명시할 뿐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포함하지 않거나(대구광역시), 시정에의 참여(광주광역시)에 국한하는 등 청년들의

참여 확대 관련 내용이 각각 다름을 확인할 수 있다.

아마도 서울특별시를 제외한 지자체에서는 청년 사회활동을 촉진하는 활동비 지원이 여의치 않아 서울특별시 청년기본조례 제10조 제3항의 내용(③ 시장은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청년 사회활동을 촉진하고 활성화하는 지원·육성 방안을 강구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활동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을 명시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상술한 바와 같이, 「청년기본법」이 제정되고 ‘청년발전지원기금’에 관한 내용을 포함할 경우, 활동비 지원에 관한 내용은 상당 부분 해소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지자체의 청년기본조례에서는 ‘청년 사회활동 확대’ 또는 ‘청년의 활동 참여 확대’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그것이 민주시민으로서의 권리를 지원하기 위한 일환임을 명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아울러, 청년 사회활동에는 다양한 유형의 활동 참여(커뮤니티 활동, 지역사회 참여와 개선 활동, 정책참여, 시정참여 까지 모두 포함)를 포괄하는 것임을 적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표 VI-6 청년기본조례에 포함된 ‘청년 참여 확대’ 관련 내용

구분	관련 내용
서울특별시	제10조(청년의 참여 확대 등) ① 시장은 청년의 참여를 확대하고 민주시민으로서의 학습과 경험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서울시의 각종 위원회와 정책 결정과정에서 청년의 의사를 반영하고 청년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청년 사회활동을 촉진하고 활성화하는 지원·육성 방안을 강구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활동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6.1.7.> ④ 청년 사회활동 지원 방안에는 다음 각호를 포함한다. <신설 2016.1.7.> 1. 청년 사회활동 활성화를 위한 교육·캠페인·프로그램 운영, 활동비 지급 등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2. 청년 사회활동 지원을 위한 활동비 지급 대상 선정 기준·방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수립·시행 3. 청년 사회활동 지원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 등에 위탁
부산광역시	- 관련 내용 없음 ※ 제6조(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2.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사항 가. 사회·경제·문화 등 시정 전반에의 청년참여 확대를 포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내용 미포함
대구광역시	제14조(청년의 참여 확대 등) ① 시장은 청년의 참여를 확대하고 민주시민으로서의 학습과 경험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구분	관련 내용
	② 시장은 시의 각종 위원회와 정책 결정과정에서 청년의 참여를 보장하고 청년의 의사를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광주광역시	제11조(시정예의 참여) ① 시장은 각종 위원회 등 정책 결정 과정에 청년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한다. ② 시장은 매년 각종 위원회에 참여하는 청년 현황을 파악하고 청년 위원의 수를 늘리는 데 노력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2016. 1.7.), 서울특별시 청년기본조례; 자치법규정보시스템(2017. 5. 31.), 부산광역시 청년기본조례; 자치법규정보시스템(2017. 7.1.), 광주광역시 청년정책기본조례.

II. 청년 사회활동 활성화 지원: 공통 지원 방안

1. 청년 개인에 대한 지원: 활동비 지원

1) 제언 배경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다수의 청년들은 청년들의 사회활동 참여 활성화를 위해 활동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식했다. 현재 서울시, 성남시에서는 청년수당, 청년배당의 이름으로 청년활동비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런데 지자체별로 지방재정의 부족으로 또는 활동비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지역 내 청년들에게 활동비를 지원하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청년기본법」이 제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활동비 지원 방안에 대해 본격적으로 논의하기는 어렵지만, 청년들이 사회활동 참여를 위해 ‘활동비 지원’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강하고, 또한 청년 사회활동에 있어서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향후 활동비 지원 문제는 어떤 방향으로든 해결될 필요가 있다.

2) 정책 방향

현재 많은 청년들의 성인기 이행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서, 또 많은 청년들이 주거비, 생활비 등을 해결하기 위해 아르바이트나 불안정 노동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다는 점에서 청년들의 사회활동 참여를 실질적으로 보장해 주기 위한 재정적 지원이 필수적이다. 청년들이 사회활동

참여를 위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것도, 경제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시간을 노동하는 데 쏟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청년들이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다양한 유형의 커뮤니티, 결사체에 참여하여 공동체의 의사결정에 대한 참여와 개입 활동을 보장할 수 있도록 활동비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3) 세부과제

현재 서울시와 성남시에서는 자체적으로 청년활동비를 지원하고 있다. 지방재정 여건이 허락하는 경우 자체적으로 청년을 위한 활동비 지급이 가능하다. 그러나 청년을 위한 활동비 지급이 이루어지고 있지 못한 지자체가 대다수인 상황에서, 청년 사회활동의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한 첫 번째 방안으로, 「청년기본법」이 제정되고 청년 사회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역할분담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즉, 청년 사회활동비 지원은 일괄적으로 중앙정부에서 청년들에게 지급하는 한편, 지방정부는 활동비 지원 이외의 사회활동 인프라 지원을 담당하는 것으로 이원화하는 방안이다(신윤정, 2017: 48). 두 번째는 중앙정부 수준에서 일괄적으로 청년을 위한 사회활동비 지급이 여의치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청년발전지원기금을 마련하여 지방정부를 지원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청년발전지원기금을 통해 전국의 청년들을 위한 사회활동비 지원이 불가능할 수도 있으므로, 지방정부의 재정과 청년발전지원기금을 매칭펀드(5:5 또는 4:6) 방식을 통해 활동비 재원을 마련하여 지급할 수도 있을 것이다. 청년 개인에 대한 활동비 지원을 배제하고, 청년들의 사회활동 참여 활성화를 기대하기 어려운 만큼, 「청년기본법」이 제정된 이후에 이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II. 청년 사회활동 활성화 지원: 공통 지원 방안

2. 사회활동 인프라 지원

- 2-1. 프로그램 지원: 청년 사회활동 지원사업 2.0
- 2-2. 공간지원: 개방형 교류공간 및 목적지향적 활동 공간 마련
- 2-3. 인력지원: 청년 사회활동 코디네이터(가칭) 채용 및 활동 멘토 연계
- 2-4. 행정지원: 청년단체 지원사업 요건 완화 & 행정절차 간소화

1) 제언 배경

현재 지자체별로 청년 사회활동 지원사업이 다양하게 시행되고 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청년 사회활동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소규모 청년 커뮤니티 지원사업, 청년단체의 프로젝트 사업화 지원사업, 공간지원 사업 등을 3~4년 전부터 시행하고 있어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었다. 또 다른 일부 지자체에서는 이들 사업을 시작하는 초기 단계에 있다. 대체로 먼저 청년 사회활동 지원사업을 실시했던 지자체의 사례를 후발 주자들이 벤치마킹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선발주자에 해당하는 지자체에서는 현재와 같은 지원사업을 넘어서는 업그레이드 된 사업 프로그램에 대한 개발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제안한 바 있다. 향후 청년들의 사회활동에 대한 요구수준을 반영한 사회활동 지원사업들이 추가적으로 개발된다면, 청년들의 사회활동을 활성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사회활동에 필요한 공간 지원은 필수적이다. 주지하다시피, 많은 청년들은 카페에서 소규모 모임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은데 단체 회원이 많은 경우에는 별도의 공간을 대여해야 한다. 지역 내에 대여 가능한 활동 공간이 많다면 활동에 필요한 공간 확보가 가능하지만, 지역마다 유료로 이용할 수 있는 활동 공간에도 차이가 많은 것이 사실이다. 실제로, 본 연구에서 실시했던 청년 사회활동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청년들은 사회활동 활성화를 위해 가장 필요한 지원으로 활동비 지원(35.4%)과 공간 지원(32.3%)을 꼽았다. 면담조사에 참여한 사회활동 참여 청년들 역시 공간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다수 제안했다. 또한 청년들은 이용하고 싶은 공간(시설) 중 지역카페, 스터디룸, 지역도서관, 대학캠퍼스, 주민자치센터 등을 제안하기도 했다. 청년들의 사회활동 활성화를 위해, 그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지역 내 공간들을 마련하고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사회활동에 참여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면담조사 결과에서, 청년들은 청년 사회활동

담당인력이 청년 개인/단체와 지자체 청년정책 담당자를 연계할 수 있기를 희망했다. 청년 개인뿐만 아니라 청년단체도 조직화되어 있지 않은 집단이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실시하는 사업에 참여하거나, 청년 관련 정책을 제안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었다. 그리고 개별 청년단체가 지자체 청년정책 담당자와 활발하게 교류하고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는 것 역시 쉽지 않다. 특히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청년단체들은 지자체와 청년단체를 매개하는 가교자로서 청년 사회활동을 담당하는 인력 지원이 있기를 희망했다.

한편 청년 커뮤니티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청년들은 자신들의 활동이 제대로 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활동에 대한 정보나 가이드 역할을 제공해 줄 수 있는 멘토가 제공된다면, 사회활동을 활성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인식했다. 이를 토대로, 청년단체와 지자체 간 가교 역할을 담당하는 인력과 청년 사회활동에 대한 멘토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인력 지원이 이루어진다면, 청년 사회활동을 활성화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유형별 사회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청년들과의 면담조사 결과 분석에 따르면, 미조직 상태에 있을 가능성이 있는 청년단체들은 지자체의 지원사업 요건들을 까다로운 것으로 인식했다. 이들은 지원사업에 대한 아이디어와 실행 능력을 갖추고 있으나, 지원자격 대상 요건에서 지원이 불가능한 경우를 발견하고 좌절했던 경험들을 가지고 있었다. 특히 이러한 상황은 서울시를 제외한 지역에서 자주 목도되었다. 앞서 청년 사회활동 유형 중, [3] 유형인 지역사회기반 청년단체를 대상으로 한 면담조사에서 서울시 문화재단의 청년대상 지원사업과 강릉시 문화재단의 지원사업을 비교 분석한 바 있다. 물론, 지역의 경우 서울에 비해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지원사업이 전무하거나, 지원사업이 있다 하더라도 그 수가 매우 적다. 그런데 대부분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사업의 신청자격 대상으로 “사업자 등록증이나 고유번호증을 보유한 단체” 또는 “비영리단체”로 제한하는 경우가 많다. 물론 지속적으로 지자체의 지원사업에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리고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장기적인 활동을 계획하는 단체의 경우 단체 등록을 하는 것이 오히려 향후 사업 참여과정에서 도움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청년단체들이 대체로 규모가 크지 않고 활동 기간 역시 길지 않기 때문에 비영리단체로 등록할 수 있는 여지가 많지 않으며, 단체 운영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은 청년단체에게는 오히려 단체 등록이 부담이 될 수 있다. 실태조사 결과에서 제시했다시피, 청년들의 단체 규모는 ‘50명 미만’에 대한 응답이 66.4%를 차지할 정도로 소~중규모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를 고려하여 지원사업 요건을 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아울러, 청년들은

모든 지원사업의 지원, 선발, 결과 보고의 절차에 대해 까다롭고 복잡하다고 인식했다. 이러한 행정 절차를 간소화 방안이 청년들의 사회활동 활성화 지원방안에 포함되어야 한다.

2) 정책 방향

국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청년 사회활동 지원사업에는 청년 소규모 커뮤니티 지원사업(서울시의 경우 청년참 사업), 연구 및 사업 프로젝트 지원사업, 공간 지원사업 등이 있다. 따라서 지원사업을 다양하게 유형화하여, 개발한 후 청년들에게 제공하는 방식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여기에서는 청년 사회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일환으로, 기존 청년 사회활동 지원사업을 확대 재편한 ‘청년 사회활동 지원사업 2.0’을 제안하고자 한다.

또한 현재 서울시에서는 청년 사회활동 생태계 조성의 일환으로 청년활력공간인 무중력시대 2개소를 운영 중에 있으며, 향후 5개소를 신규 조성할 예정이다. 무중력시대 지역 내 청년을 위한 거점 공간으로서의 의미를 지닌다. 그러나 거점 공간을 조성하는 방안 외에 다양한 공간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1) 개방형 교류 공간과 (2) 목적지향적 활동 공간을 구분하여 지원 방안을 마련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한편 현재 서울시를 제외한 지자체에서는 중간지원조직을 제대로 갖추고 있지 않은 경우가 많고, 중간지원조직을 형식적으로 갖추고 있는 지자체라 하더라도 운영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곳이 많지 않다. 이는 지역별로 청년단체 유무 및 역량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중간지원 조직을 갖추기 힘든 지자체의 경우, 청년 사회활동 지원 인력인 (가칭) ‘청년 사회활동 코디네이터’를 채용할 경우 중간지원조직의 부재로 인해 발생하는 어려움을 상당 부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구체적으로, 이 인력이 지역 내 청년단체를 효과적으로 발굴하는 한편, 다른 한편으로 지역사회 청년들의 활동 욕구조사, 청년단체들에 대한 지원, 지역사회 청년들의 목소리를 지자체에 전달하는 역할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탈학교사회를 주장했던 이반 일리히(Illich, I.)(2009/1970)에 따르면, 학교가 폐지된 이후의 사회에서 학습자들에게 4가지 자원을 연결해 줄 경우 충분히 원활한 학습이 가능하다. 그는 이러한 사회를 학습망 사회(learning web society)로 명명한 바 있는데, 학교 폐지 이후에 실질적 학습을 위해 필요한 4가지 자원 중 인력지원에 관한 내용을 토대로, 청년 사회활동을 지원하는 멘토 연계가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청년단체들의 청년 사회활동 지원사업에 대한 참여 활성화를 위해 지자체에서

이루어지는 지원사업의 신청자격 요건을 완화하고,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다.

3) 세부과제

2-1. 프로그램 지원: 청년 사회활동 지원사업 2.0

청년 사회활동 지원사업 2.0은 기존 청년 사회활동 지원사업의 유형과 기간을 다양화하여 청년들의 사회활동에 대한 욕구에 부응하는 데 목적이 있다. 청년들은 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를 통해 개인과 사회에 대해 학습하고, 타인과 교류하고 협력하면서 시민의식을 제고하는 한편 성장할 수 있는 경험을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이를 반영한 청년 사회활동 지원사업 2.0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유형 1은 기존의 소규모 커뮤니티 지원사업을 확대하는 방안이다. 예를 들어, 서울시의 ‘청년참’ 사업을 확대하는 것이다. 서울시의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일부 지자체에서는 청년 커뮤니티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나, 서울시에 비해 그 규모나 재정 지원이 제한적이다. 지자체 청년정책 담당자들 중 일부는 청년 커뮤니티 지원사업을 ‘동아리 지원사업’과 유사한 것으로 인식하고, 이 사업의 의미를 평가절하는 경우도 있었다. 그러나 이는 현재 청년들이 처한 상황을 고려하지 못한 반응으로 볼 수 있다. 즉, 최근 청년들은 취업, 주거 등의 문제에 직면한 가운데,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는 데 부담을 느끼면서 사회적 고립 상태에 놓이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 때문에, 사회적 관계망 형성이 어려운 현 상황에서 소규모 커뮤니티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의미가 있다. 반드시 취업과 관련된 활동이나 지역사회 참여와 같은 가시적인 성과가 보장되는 활동만이 청년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다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청년 커뮤니티 지원사업이 운영되고 있지 않은 지자체에서는 우선적으로 이 사업을 적용하고 점차 확대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이 사업에 참여하는 청년들이 증가해야, 사회활동에 대한 욕구가 커지고 다양한 사회활동에 대한 관심도 생겨날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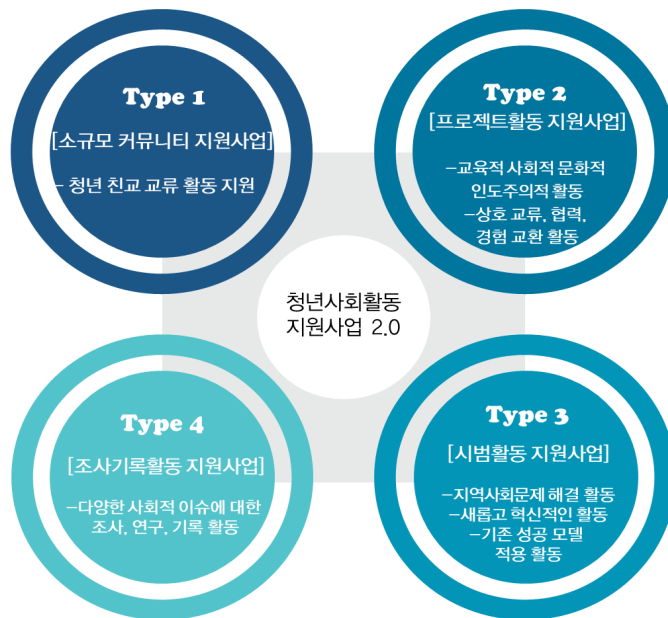
표 VI-7 청년 사회활동 지원사업 2.0의 내용

구분	사업명	내용	기간	예산
유형1	소규모 커뮤니티 지원사업 (기존)	• 최소 3인 이상의 청년(커뮤니티)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활동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50만원~10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 • 활동비 지원의 목적이 활동 종료 후, 특별한 성과물을 요구하는 데 있지 않고 청년들 간 교류와 친교 활성화 지원	6개월 이내	팀별 1백만 원
유형2	프로젝트활동 지원사업 (기존 내용 수정)	• 교육적, 사회적, 문화적, 인도주의적 활동들 • 지역의 청년들간 상호 교류와 협력, 경험 교환을 위한 활동들 • 활동 종료 후, 결과물에 대한 발표와 공유	최대 1년 (1회 연장 가능)	팀별 5백~1천만 원
유형3	시범활동 지원사업 (신규)	• 지역의 특별한 사회적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활동 • 지역주민(청년)에게 기대되는 효과를 구체적으로 제시 • 새롭고 혁신적인 활동 또는 기존 성공모델을 적용하는 활동	최대 3년 이내	팀별 연간 2천만 원
유형4	조사·기록 활동지원 사업(신규)	• 다양한 사회적 이슈에 대한 연구, 조사, 기록 관련 활동	최대 1년	팀별 5백~1천만 원

한편, 유형 2는 청년들이 다양한 주제의 사회활동을 일종의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교육적, 문화적, 사회적, 인도주의적 사회활동을 장기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프로젝트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 내 청년들이 상호교류하고 경험을 교환할 수 있도록 한다. 유형 3은 지역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특별한 사회적 과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청년을 포함한 지역주민에게 기여할 수 있는 구체적 실천 방안을 도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 사업은 청년들이 지닌 새롭고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지역사회를 개선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연계 지원하는 목적도 지니고 있다. 마지막으로 유형 4는 청년들이 자신들이 살아가고 있는 지역사회, 전체 사회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사회적 이슈에 대해 연구하고, 조사 기록하는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 유형이다. 청년들은 이 유형의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에 대한 관심을 증진시키는 동시에, 지역사회 문제에 대한 분석을 통해 대안을 도출하는 활동에 참여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유형 2~4에 이르는 활동들은 청년들이 지역사회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증진시킬 수 있는 계기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로 청년 사회활동 지원사업 2.0을 위해 필요한 예산은 서울시의 사례를 참고해 볼 수

있다. 서울시의 소규모 커뮤니티 지원사업에 해당하는 청년창업 사업은 팀당 100만원을 지원하고 200개 이상의 팀을 지원하고 있으며, 프로젝트 활동사업에 해당하는 청년활동 사업은 팀당 1,00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유형2 사업은 청년활동 사업을 적용하되 사업 성과를 토대로 1년 연장을 원하는 팀에게 추가 지원이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유형3은 장기 프로젝트 활동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팀별로 연간 2,0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며, 조사기록활동 지원사업은 한 팀당 500~1000만원 수준에서 지원내용을 고려해 볼 수 있다.



【그림 VI-3】 청년 사회활동지원사업 2.0 주요내용

2-2. 공간 지원: 개방형 교류공간 및 목적지향적 활동 공간 마련

청년들의 사회활동 참여 활성화를 위해 다음과 같은 공간 지원 방안을 마련해 볼 수 있다. 청년들이 원하는 사회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기 위해서는 공간 확보가 필수적이다. 사회활동을 하는 데 필요한 공간은 크게 2가지 유형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첫 번째는 불특정 다수의 청년들이 드나들 수 있는 개방형 교류공간이며, 두 번째는 활동의 성격이 보다 목적 지향성을 띠고 있을 때 그 활동들을 보장해 줄 수 있는 공간들이다. 여기에서는 두 가지 유형에 해당하는 사례를 통해 공간지원 방안을 제안한다.

1 개방형 교류공간

(i) 개방형 교류공간의 첫 번째 유형은 서울시의 청년활력공간인 ‘무중력지대’를 들 수 있다. 무중력지대는 청년 커뮤니티 활동 지원, 다양한 연구, 공동 프로젝트 등을 지원하는 공유 공간으로, 서울시의 경우 서울시를 몇 개의 구역(zone)으로 구분하고, 청년 활동을 위한 거점 공간(hub space)을 조성하고 있다. 서울시는 무중력지대를 조성한 후 공간 운영을 전담하는 청년단체에게 공간 운영 전반을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다. 그 외 광역시에서도 서울시의 사례를 참고하여, 구별로 청년활력공간을 조성하는 방안을 적용해 볼 수 있다⁷⁵⁾. 그러나 거점 공간 조성만으로는 청년들의 공간 활용 욕구를 충분히 만족시키기에 한계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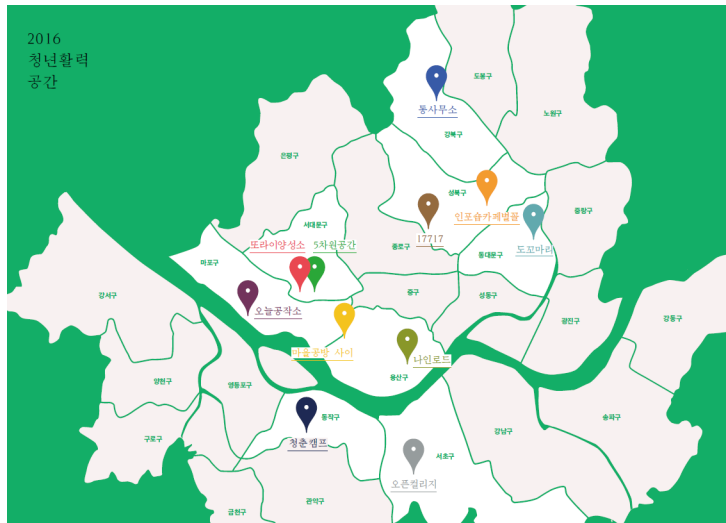
(ii) 이에 개방형 교류공간의 두 번째 유형을 소개해 볼 수 있다. 청년들의 거주지 인근에 이미 조성된 민간 공간에 대한 운영 지원을 통해 청년들이 지역 인근의 공간을 보다 쉽게 이용하도록 하는 것이다. 여기에 대표적인 사례가 서울특별시 청년허브에서 실시하고 있는 ‘우리동네 무중력 지대’ 지원사업이다. 이 사업은 지역 내 청년을 위한 민간 공간 제공 및 운영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민간 청년단체를 발굴하여 공간 운영비(전담인력 인건비)와 공간에 필요한 사업비 및 공간조성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2016년에 서울시에 조성된 ‘우리동네 무중력 지대’는 11개에 이른다.⁷⁶⁾

(iii) 개방형 교류 공간을 청년들에게 제공하는 세 번째 유형은 지역 내 기존 카페에 대한 재정 지원을 통해 청년들이 무료로 공간을 이용하도록 하는 방안이다. 지자체에서 청년 활동 공간 제공을 희망하는 카페를 모집하고, 해당 카페에 대한 지원금을 제공하는 대신, 청년들은 무료로 카페 이용이 가능하다. 또는 이들 카페들을 일종의 가맹점으로 연결하고 공간을 이용하는 청년들에게 멤버십(포인트 제공 등)을 제공하여 공간 활용을 확대해 나갈 수 있다.

이 외에도,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지역 대학과 초중고교, 주민자치센터 등의 유휴 공간을 확보하여 청년을 포함한 지역주민들에게 사회활동 공간으로 제공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75) 2017년 연말부터 2018년 초까지 서울시가 신규 조성하는 무중력지대 4곳과 청년교류공간은 자치구 예산 또는 서울시 자체 예산으로 조성될 예정이며, 조성액은 약 5억~8억, 조성 후 운영 위탁비는 3억 2천~5억 8천만 원이 소요될 예정이다(서울특별시 청년정책담당관, 2017. 9. 28.).

76) 서울시의 청년활력공간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선정된 〈2016년 우리동네 무중력지대〉의 지원예산은 총 5억 5천만원이었다. 지원내용은 한 공간당 최대 5천만 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2016년에는 11곳이 선정되었기 때문이다(출처: <https://youthhub.kr/hub/11594>에서 2017년 10월 16일 인출).



출처: 장혜영(2017). 「2016 청년활력 공간 자원사업 우리동네 무중력지대」, 서울: 청년허브.

② 목적지향적 활동 공간⁷⁷⁾

목적지향적 활동을 위한 공간은 문화예술 활동을 하는 청년, 스타트업 기업을 준비하는 청년 등 그 외 다양한 사회활동을 지향하는 청년들을 위해 조성될 필요가 있다. 여기에 해당하는 첫 번째 사례는 지역 내 유휴 공간을 지자체가 확보하여 공간을 조성한 후 청년들에게 저렴하게 또는 무료로 제공하는 것이다. 도시 내 공단이 이전한 경우나 학생수 감소로 인해 문을 닫은 폐교를 리모델링해 청년들의 사회활동 공간으로 지원하는 방안이다. 대표적인 사례는 영국 런던의 SFSA(Second floor studios & Arts)⁷⁸⁾를 들 수 있다. 영국 런던시가 문을 닫은 플라스틱 제조 공장을 예술가들을 위한 작업실로 개조한 사례이다. 지자체가 도시 내 유휴 공간을 매입하여 공간을 조성하고, 공간 운영은 사회적 기업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는 사례에 해당한다. 여기에서는 입주 희망 예술가들에게 년 15만원의 이용료를 저렴하게 부과하는 대신, 입주 조건으로 지역공동체에 기여하는 프로젝트를 의무적으로 수행하여 지역사회에 기여하도록 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코워킹 스페이스(co-working space)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지만, 지자체가 주도하여 공간을 조성하고 청년들의 활동 공간으로 제공한 사례는 흔하지 않다.

77) 이 부분은 최성우 조합원(협동조합 성북신나)이 작성한 원고를 김정숙 부연구위원이 수정 보완한 내용임.

78) SFSA 관련 기사(<http://futurechosun.com/archives/7665>에서 2017년 10월 22일 인출)를 토대로 SFSA 홈페이지 자료(<https://secondfloorstudiosarts.wordpress.com/2010/11/03/trinity-wharf-studios-%E2%80%93-update/>에서 2017년 10월 22일 인출)를 재구성.



출처: <https://secondfloorstudiosarts.wordpress.com/2010/11/03/trinity-wharf-studios-%E2%80%93-update/>에서 2017년 10월 22일 인출

두 번째 사례는 서울시에서 실험되고 있는 사회적 공간 조성 사례이다. 이 유형은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공간을 조성한 사례라기보다는 민간에서 도시 내 유휴 공간을 확보하여 사회적 공간을 조성한 것에 가깝다. 스페이스노아는 서울시청 인근 건물의 건물주가 코워킹 스페이스를 조성하고 사회적 기업 또는 소셜 벤처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청년들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공간을 제공하고 있는 사례이며, 은평 사회적경제 허브는 (구) 은평 소방서가 이전하면서 빈 공간을 리모델링하여, 지역의 시민사회 네트워크와 사회적 기업에 참여하고 있는 주체들에게 공간을 제공하고 있는 사례이다. 마지막은 관악구의 협동조합인 ‘어반 하이브리드’에서 조성한 ‘프로젝트 아지트 1호점’ 조성 사례이다. 프로젝트 아지트 1호점은 신림동의 옛 노인정 건물을 지역주민, 청년, 사회적 기업가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유공간으로 조성된 것이다.



스페이스노아(서울 북창동)

은평 사회적 경제 허브

프로젝트 아지트 1호점(관악구)

출처: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블로그 ‘세모’ <http://sehub.blog.me/150180203238>에서 2017년 10월 20일 인출.

상술한 사례들은 모두 민간 영역에서 공유 공간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도시 내 공간을 확보하여 지역주민과 청년들에게 공간을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한 경우이다. 향후 청년 사회활동 활성화를 위해 지자체가 주도하여 공간을 조성하고 저렴한 비용으로 활동 공간을 제공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2-3. 인력지원: 청년 사회활동 코디네이터(가칭) 채용 및 활동 멘토 연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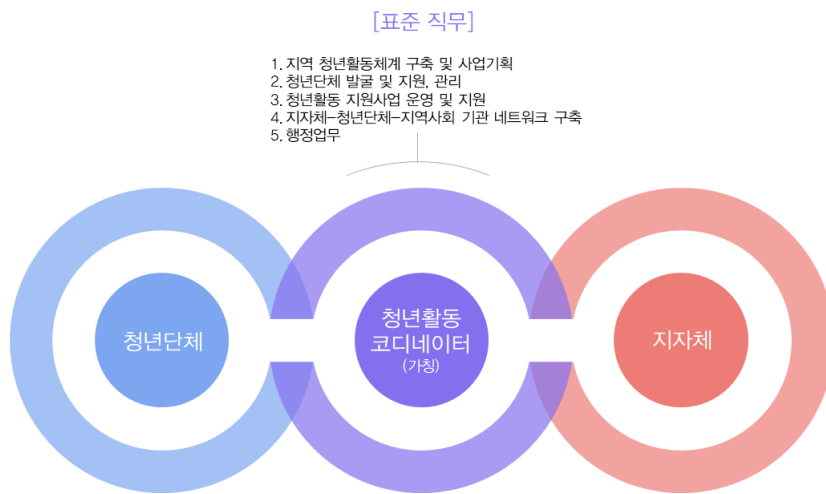
① 청년 사회활동 코디네이터(가칭) 채용: 청년단체 및 지자체 가교 역할 담당

지자체와 청년단체간 소통 및 원활한 정책 사업 추진을 위해 다음과 같이 ‘청년 사회활동 코디네이터’(가칭)를 채용하고, 직무를 부여할 수 있다. ‘청년 사회활동 코디네이터’는 지역사회 내 청년단체 활동을 하고 있는 청년들 중에서 채용할 수 있다. 이들이 수행할 직무는 지역사회 청년 사회활동체계를 구축하고 관련 사업을 기획하는 한편, 청년단체 발굴, 지원, 관리하는 역할을 맡는다. 동시에, 청년 사회활동 지원사업에 대한 운영과 지원을 맡고, 지자체-청년단체-지역사회 협력기관을 연계한 네트워크 구축 업무 및 기타 행정업무를 맡을 수 있다. 이들의 주된 직무는 청년단체와 지자체, 지역사회 협력기관을 연계하고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데 있다.

표 VI-8 ‘청년 사회활동 코디네이터(가칭)’ 근로 조건 및 직무

구분	내용	
근로 조건	• 대상: 청년 사회활동 경력 3년 이상인 자, 지자체 청년 지원사업 참여 경력이 있는 자 • 보수: 경력 인정을 통한 호봉 확정 • 근로시간: 1일 8시간, 주40시간	
직무	1. 지역 청년 사회활동체계 구축 및 사업 기획	- 지역사회 청년 특성 분석 - 사업기획 및 추진계획 수립 - 사업 현장 지원
	2. 청년단체 발굴 및 지원, 관리	- 청년단체 발굴, 특성 분석 - 청년단체 정보 수집, 분석, 지원 계획 수립
	3. 청년 사회활동 지원 사업 운영 및 지원	- 지원사업 운영 및 지원 - 모니터링, 컨설팅 지원 - 평가 지원

구분	내용
4. 지자체-청년단체-지역사회 협력기관 연계, 청년 사회활동 네트워크 구축	- 지역사회 자원 발굴 및 연계 - 지자체-청년단체-지역사회 협력기관(네트워크) 구축 및 공동사업 운영 - 협의회 구성 및 운영
5. 행정업무	- 사업 관련 정보 DB 구축 - 행정문서 처리 등



【그림 VI-4】 '청년 사회활동 코디네이터'(가칭)의 표준직무 및 역할

② 활동 멘토 연계

청년 커뮤니티 지원사업에 참여한 청년들은 자신들의 활동을 가이드해 주거나, 활동에 대한 자문 역할 등을 수행할 수 있는 멘토를 지자체에서 연계해 주기를 희망했다. 또한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사회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청년들 역시 지역사회 내 시민들이 다양한 역량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청년 사회활동에 대한 멘토 역할 참여에 동의하는 시민들에 한해 이들에 대한 인재풀을 만들고, 관련 DB 정보를 청년들에게 연계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을 제안한 바 있다. 이 방안이 도입될 경우, 청년들은 자신들이 참여하는 활동의 질을 높이고 동시에 활동에 대한 만족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동시에 지역 내 시민들에게도 재능기부의 형식으로 젊은 세대와 상호소통하고 교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Illich(2009/1970)는 학교가 폐지된 이후 학습망 사회에서 학습자들에게 4가지 자원을 전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4가지 자원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학습에 필요한 정보와 자료를 서비스하여 원하는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게 한다. 둘째, 기능보유 인명록(기능 보유자와의 접촉방법, 기능 제공에 필요한 조건 등에 대한 안내)을 비치하여 주민들 간 기능교환, 기능공유를 활성화한다. 누구든 원할 경우 자신이 보유한 기능을 다른 사람에게 제공할 수 있다. Illich는 현재의 교육현장에서 기능을 보유한 사람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공식적인 자격증을 갖고 있지 못할 경우 가르칠 수 없는 제도적인 한계에 대해 비판한 바 있다. 셋째, 본인이 원하는 활동에 대해 동일한 관심사를 가진 사람을 동료로 연결시켜준다. 넷째, 학습자가 원하는 활동을 하는 데 도움을 제공해 줄 수 있는 교육자에 관한 정보체계를 구축하여 제공한다(Illich, 2009/1970; 158~196). 이 중, 마지막에 해당하는 내용을 청년 사회활동 멘토에 관한 DB를 구축하는데 준용할 수 있다.

이미 각 시군구에 소재한 ‘평생학습관’ 또는 읍면동에 소재한 ‘평생학습센터’에서는 ‘강사은행제’ DB를 구축하여 학습자들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청년 사회활동에 참여하는 청년들에게 멘토를 연계할 경우, 기존 평생교육 강사은행제 DB를 활용하거나 또는 보다 많은 시민들에게 재능기부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신규 DB를 구축할 수 있다. ‘강사은행제’에서는 시 차원에서 강사에 대한 연수, 상담 및 자료 제공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지만, 여기에서 제안하는 청년 사회활동 멘토제는 일종의 재능기부의 일환으로 청년세대와의 상호교류에 좀 더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강사은행제의 운영 방식과는 차이를 둘 수 있다. 다만, 평생교육에서 이미 시행되고 있는 제도이므로 제도 도입 시, 참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2-4. 행정지원: 청년단체 지원사업 요건 완화 & 행정 절차 간소화

청년들의 사회활동 지원사업에 대한 참여를 제고하기 위해 지자체에서는 청년들이 지원사업 신청 시 한계점으로 인식하고 있는 지원자격 기준 완화 및 행정 절차 간소화 방안을 마련하여 청년 친화적 행정 지원 여건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지자체에서 청년단체를 대상으로 지원사업을 발주할 때, 신청자격 대상 선정 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을 참고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동법 제2조(정의)에서 정의하는 “비영리민간단체”의 요건은 미조직 상태에 있는 청년단체가 신청 가능한 용이한 요건들로 보기에 무리가 있다. 특히 4호에 해당하는 “상시 구성원수가 100인 이상일 것”에 해당하는 규정은 대다수 청년단체가 50명 미만의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한계점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또한 5호에 명시된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있을 것” 역시 활동 기간이 지속적이지 않거나 길지 않은 청년단체의 경우 지원사업 신청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동법의 제1조(목적)에는 이 법이 “비영리민간단체의 자발적인 활동을 보장하고 건전한 민간단체로의 성장을 지원함으로써 비영리민간단체의 공익활동증진과 민주사회발전에 기여함을 목적”(국가법령정보센터, 2017. 7. 26.)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법의 내용이 오히려 청년단체 지원에서 독소 조항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어 이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할 수 있다.

제2조(정의) 이 법에 있어서 "비영리민간단체"라 함은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6.5.29.>

1.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2. 구성원 상호간에 이익분배를 하지 아니할 것
3. 사실상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지원 또는 반대할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전파를 주된 목적으로 설립·운영되지 아니할 것
4. 상시 구성원수가 100인 이상일 것
5.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있을 것
6. 법인이 아닌 단체일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을 것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2017. 7. 26.).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청년단체에 대한 지원사업의 경우 동법에 근거하여 신청자격을 제한하기 보다는 보다 완화된 기준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또한 경우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이나 고유번호증이 없는 상태에서 사업신청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지원사업 선정 이후에는 고유번호증을 발급받도록 하는 사례들도 있다. 그런데 청년 커뮤니티 또는 소규모 청년단체의 존재 유무를 고유번호증 발급 여부로 판단하는 것은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청년들의 사회활동 참여 활성화를 위해, 지원사업에 대한 자격기준을 대폭 완화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지자체 지원사업에 대한 진입장벽을 제거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한편, 지원사업에 대한 행정절차도 간소화할 필요가 있다. 지원사업 신청을 위해서는 각종 서류를 제출하고, 여러 차례에 걸친 면접에 응해야 하는 경우들이 있다. 가급적 이러한 절차들을 간소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활동비에 부담감을 느끼는 청년들을 위해 활동비를 현금으로 선지급 하거나 지원사업에 선정된 단체에 한정해 클린카드를 지급하여 사업비를 원활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도 필요하다. 과도한 사전 규제 방식보다는 사업비 부담 집행 시 불이익을 주는 사후 책임 강화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III. 청년 사회활동 활성화 지원: 유형별 맞춤 지원 방안

1. 사회활동 비참여자 및 대학 비진학자를 위한 맞춤형 지원

1) 제언 배경

20대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사회활동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사회활동 비참여자들의 비참여 이유는 ‘필요성 못 느낌’(28.5%), ‘시간 부족’(24.7%), ‘관계형성 부담’(15.2%), ‘활동비 부담’(13.7%)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시간 부족’에 대한 응답을 제외한 나머지 3개 응답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난 집단은 비경제활동/구직자 집단이었다. 비참여자를 대상으로 한 면담조사에서도, 경제활동에 참여하지 않거나 구직 중인 청년들은 이미 취업한 동료나 타인을 만나는 것에 대한 부담감을 가지고 있었다. 이는 이들 스스로 미취업에 대한 심리적 압박감을 느끼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취업한 청년과 미취업 청년을 비교하고 이들을 달리 인식하고 대우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비경제활동 시기와 구직 활동 시기가 장기화될 경우 이들 청년들은 사회적으로 더 고립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사회활동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거나, 관계형성에 대한 부담감을 크게 느끼고 있는 청년들의 경우, 일본과 같이 은둔형외톨이가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이들을 위한 별도의 지원이 요구된다.

또한 여전히 많은 고졸자들이 대학에 진학하고 있지만, 대학에 진학하지 않는 청년들의 비율이 늘어나고 있고, 대학을 자퇴하는 청년들도 존재한다. 그러나 대학 비진학 청년들을 위한 사회활동 지원정책은 찾아보기 어렵다. 이에, 청년 집단 내부에 소외되거나 배제되었던 청년 집단을 발굴하여 이들의 활동 욕구를 조사하고, 그것을 토대로 활동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2) 정책 방향

사회활동 비참여자 집단은 다양한 이유로 사회활동에 참여하고 있지 못하는 만큼, 사회활동 참여에 걸림돌이 되는 요인들을 제거해 주는 방식으로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사업은 대학진학 청년집단에게 과도하게 집중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다. 대학을 진학하지 않은 청년인구가 상당한 만큼, 대학 비진학 청년을 위한 지원사업을 별도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

3) 세부 과제

사회활동 비참여자들을 위한 지원으로 이들이 사회활동에 참여하지 못하는 요인들을 제거하거나 완화하는 방안을 도입할 수 있다.

표 VI-9 사회활동 비참여자 지원방안

비참여 요인 주요 대상집단	시간 부족	활동비 부담	관계형성 부담	원하는 사회활동 찾을 수 없음	필요성 못 느낌	참여 정보 없음
비경활/구직자		(1)	(1)	(1)	(1)	
자영업/기타						
임시/일용직		(2)				
상용직	(1)					(1)
집단 구분	지원 내용					
비경활/구직자	• 비경활/구직자 청년에게 사회활동을 위한 활동비 우선 지원 • 비경활/구직 장기 집단 청년을 위한 전담인력 지원 – 일본 중앙정부에서 도입한 Youth advisor 양성 후 지원 또는 동경도 ‘청년 은둔 형외톨이 지원사업’에서와 같이 방문 상담 제공 – 서울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프로그램과 연계한 상담 및 지원서비스 제공 방안 가능					
임시/일용직	• 임시/일용직 청년에게 사회활동을 위한 활동비 우선 지원					
상용직	• 청년 사회활동 정보 제공					

주: 음영 부분은 해당 요인에 대한 응답비율이 가장 높은 집단 순위

한편 비진학 청년집단은 청년을 위한 별도 공간(시설) 설치 운영 시 가장 필요한 공간으로 ‘개방형 공간’(33.7%)과 ‘신체활동 공간’(23.8%)을 희망하였으며, 사회활동 참여가 필요한 이유로 ‘삶의 질 향상’(25.5%) 뿐만 아니라 ‘사회적 관계망 형성’(23.5%)을 꼽았다. 현재 많은 지자체에서 실시하고 있는 청년 사회활동 지원사업에서 지원대상을 진학/비진학으로 특정한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참여자들이 대학진학 청년인 만큼 비진학 청년들을 위한 별도의 지원사업 도입이 필요하다. 그들을 위한 실효성 있는 지원사업 도입을 위해서는 우선 비진학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사회활동 욕구 및 지원 희망분야 등을 조사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III. 청년 사회활동 활성화 지원: 유형별 맞춤 지원 방안

2. 공공기관 대외활동 내용 재편

1) 제언 배경

사회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청년들 중 대외활동 참여 경험이 있는 청년들은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민간기업에서 실시하고 있는 대외활동 유형들이 주로 기자단, 서포터즈를 운영하는 방식으로 유사하며, 그러한 대외활동이 청년들에게 해당기관에 대한 실무경험을 제공하지 않는 등 한계점이 많다고 지적했다. 청년들은 취업을 위한 스펙의 일환으로 대외활동에 참여하고 있었지만, 대외활동을 통해 실무를 제대로 경험할 수 있기를 또는 그러한 경험을 통해 성장할 수 있기를 기대했다. 이에 따라, 적어도 공공기관에서는 기관의 공공성을 고려하여, 다양한 청년들에게 실무경험 기회를 제공하는 데 초점을 두어 대외활동의 내용을 재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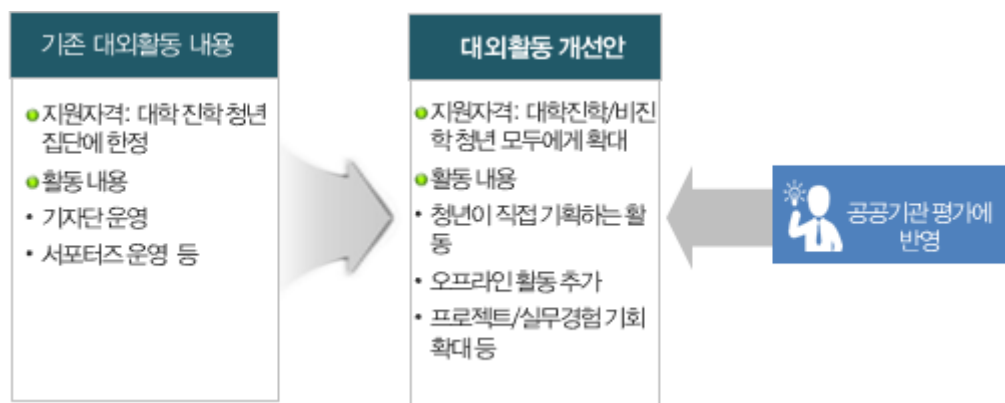
2) 정책 방향

많은 공공기관들 역시 대외활동 참여자들에게 기자단, 서포터즈라는 이름으로 대외활동 경력을 인정해주고 있다. 그런데 이들이 주로 하는 활동은 공공기관 공식 블로그에 기사를 작성하여 올리는 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그런데 공공기관마다 주기적으로 진행되는 행사가 일정한 만큼 기자단, 서포터즈가 작성해서 올리는 기사 역시 유사한 중복 기사들이 많다. 뿐만 아니라 공식 블로그를 직접 방문하지 않을 경우 해당 공공기관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알기 어려운 경우들이 종종 있다. 따라서 천편일률적으로 이루어지는 대외활동 방식을 새롭게 재편할 필요가 있다. 대외활동의 형식과 내용을 새롭게 구성하기 위해서는 대외활동을 전담하는 기관

내 인력을 배치하는 것이 필요하다. 공공기관은 공공기관으로서의 책무성과 공공성을 인식하여 대외활동에 참여하는 청년들에게 새롭고 유익한 경험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3) 세부 과제

우선 공공기관에서 실시하는 각종 대외활동 신청 자격기준은 대부분 대학생 또는 휴학생에 한정된 경우가 많다. 공공기관이 기관의 공공성을 고려한다면, 자격기준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비진학 청년들에게도 지원자격을 제공하여, 참여자 지원자격을 확대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단순 블로그에 기사를 작성하여 올리는 활동 외에, 오프라인 홍보 활동, 공공기관의 업무를 시민들을 대상으로 홍보하는 활동 등을 포함하는 등 변화를 줄 필요가 있다. 특히 이 과정에서 공공기관이 활동 내용과 형식을 지정하여 청년들에게 부과하는 방식이 아니라 청년들이 대외활동 내용을 직접 기획하여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등 청년을 중심에 놓고 대외활동을 재편할 필요가 있다. 공공기관이 청년들을 위한 대외활동 지원 사업을 내실 있게 운영하고 있는지 여부를 공공기관 평가에 반영하여,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대외활동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고 개선하는 데 관심을 기울이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그림 VI-5】 청년을 위한 공공기관 대외활동 개선안

III. 청년 사회활동 활성화 지원: 유형별 맞춤 지원 방안

3. 정책참여 활동 활성화 방안 마련

1) 제언 배경

청년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청년들의 참여 보장은 지자체별로 상이하다. 최근 행정에서는 시민들에게 정책수립 과정에 참여하는 기회를 확대하고 있는 추세이다. 서울시의 청년정책네트워크는 청년 정책참여에 있어 성공적인 민관 거버넌스 모델로 평가받고 있다. 그런데 서울시와 동일하게 청년정책네트워크를 운영하고 있는 타 지자체에서는 서울시만큼의 성과를 얻지 못하고 있다. 서울시가 타 지자체에 비해 청년정책에 있어 민관 거버넌스가 성공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것과 관련하여, 서복경(2016: 246)은 서울시가 보유한 풍부한 전문가 자원, 타 지자체에 비해 많은 청년 인구 집단 및 참여 욕구를 지닌 청년 당사자 조직 요인을 제시한 바 있다. 여타 지자체에서는 청년 단체가 많지 않고 정책참여 과정에 대한 이해와 학습이 부족한 경우도 많아 청년들의 정책참여 과정에 제약이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방정부는 지역의 청년들을 중심에 놓고 정책참여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2) 정책 방향

지방정부는 청년들의 정책참여 활동 활성화를 위해 다음의 사항들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우선 지역의 청년들이 어떤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교육적 여건에 놓여 있는지 고려해야 한다. 또한 청년정책을 위한 수평적 파트너십의 주체 집단은 어떤 과정과 경로를 통해 형성될 수 있는지 고민해야 한다. 또한 초동 주체들은 어떤 지원이 있을 때 정책수립 과정에 주체적,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지 고민이 필요하다(서복경, 2016: 247). 상술한 사항들을 고려하여, 청년들의 정책참여 활동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3) 세부 과제

① 지역청년들의 정책참여 활동 역량 제고 프로그램 마련

우리나라 청년 대다수는 중고등학교 시기 이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시민사회단체 등 자발적 결사체에 대한 참여 경험이 거의 없다. 이 때문에, 지역 내 많은 수의 청년들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이들이 참여 역량을 가지고 정책수립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가능성은 높지 않다. 이 때문에, 지방 정부들은 지역의 청년들에게 참여 역량을 제고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이들을 정책수요에 반응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앞서 청년 관련 법령 및 정책분야에서 거버넌스 모델을 강조했던 바와 같이, 이 과정에서 지방정부가 청년들을 수평적 파트너로서 인정하고 지원하는 대신 지방정부의 하위 파트너로 동원할 경우 청년들의 정책참여 활동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없게 되고, 지방정부에 대한 청년들의 신뢰는 하락하게 될 것이다(서복경, 2016: 214). 따라서 지역 내 청년들이 처한 사회문화적 조건과 지방정부가 어떤 지원을 했을 때 초동 주체로서의 역량을 갖추 수 있는지를 고려하여 적절한 지원을 병행하면서 정책참여 과정에 참여를 유도하고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② 청년-지자체 담당자간 소통 및 교류 기회 확대

지자체의 청년을 위한 지원사업이 증가하고 청년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청년단체와 지자체 간의 상호교류가 증가하면서 각 집단들은 기존의 업무 방식대로 상대 집단을 이해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지자체 담당자들은 청년단체가 행정 시스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행정에서 요구하는 언어와 업무처리 기술이 부족하다고 인식하는 반면, 청년단체들은 행정부서의 업무 처리 방식이 형식적이며 소모적이라고 인식한다. 이러한 인식의 차이와 간극은 예상가능한 결과로 볼 수 있다. 한 번도 행정시스템을 경험해보지 못한 청년단체로서는 형식과 양식에 맞추어 자신들의 요구사항을 표현해야 한다는 점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반면, 행정부서에서 일하는 담당자들로서는 자신들의 업무처리 방식이 외부자에게는 번거롭고 불필요한 절차로 인식될 수 있음을 알게 되었다. 각자의 방식을 고집할 경우에는 소통의 접점을 마련하기 어렵지만, 시간을 두고 양측이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간극을 줄여나가는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소통과 교류의 기회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자체 담당자들은 청년들의

특성과 입장을 이해하고, 그들이 정책참여 활동에 참여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행정적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함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청년단체들 역시 지자체 담당자들이 업무를 처리해왔던 기존의 방식에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하고, 민관 거버넌스가 효과적으로 작동될 수 있는 방안을 요구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지방정부 차원에서 공식적인 협의회를 구성하여, 청년단체와 지자체 담당자들 간의 지속적인 상호교류의 장을 마련하는 방안을 도입할 수 있다.

III. 청년 사회활동 활성화 지원: 유형별 맞춤 지원 방안

4. 청년 사회활동 지역격차 해소를 위한 지역 청년단체 지원사업 확대

1) 제언 배경

청년 사회활동에 있어서의 지역 간 격차는 활동비 지원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다. 면담조사 분석결과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지역에서의 청년 사회활동 여건은 여러 가지로 한계가 많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구체적으로,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한 공동체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청년들은 소셜 벤처에 참여하는 청년을 위한 지원사업이 부족하다고 인식했다. 취업과 창업에 대한 지원사업은 기존의 성공모델에 청년들이 참여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사업이 진행되는 반면, 마을만들기 또는 지역사회 개선 활동에 관심 있는 청년들은 새로운 모델을 발굴하고 인큐베이팅하는 데 관심이 있다. 그런데 이런 새로운 모델에 참여하고자 하는 청년들을 위한 지원사업이 많지 않다. 지역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지역에 남아 지역에서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청년들에게 지역에서 자립할 수 있는 다양한 실험활동에 대한 지원사업을 확대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2) 정책 방향

지금까지 지자체가 청년들을 위해 제공했던 지원사업은 사업성과 화제성에 기반하여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청년 사회활동에 있어서의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는 한편, 균형있는 지역발전을 위해서라도 지역에서 공동체적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청년들을 위한 지원사업을

늘려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중앙정부에서도 지역 청년들을 위한 지원사업을 확대하여, 청년 사회활동의 지역 간 격차를 감소시키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3) 세부 과제

우선 지방정부가 지역 청년들을 위한 지원에 관심을 기울이도록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지방정부에 대한 평가 요소에 지역에서 정착하고 공동체적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청년들을 위한 지원사업을 얼마나 제공하고 있는지를 포함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동시에, 지원사업의 양적 측면뿐만 아니라 사업의 질적인 측면을 평가함으로써 지역 청년의 특성을 고려하여 청년들의 욕구에 부합하는 지원사업을 얼마나 실효성 있게 진행했는가를 중요한 평가 요소로 반영하는 것이다. 즉, 청년 지원사업에서의 ‘지역성’을 중요하게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이는 지역의 균형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역 균형 발전’을 모토로 지역 청년을 위한 사회활동 지원사업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이 과정에서도 대학진학 청년집단 뿐만 아니라 대학비진학 청년을 위한 지원, 소외집단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사업도 발굴하여 제공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IV. 청년 사회활동 활성화 지원 시스템 구축

1. 청년 사회활동 활성화를 위한 사회적 시스템 구축

- 1-1. 민관 거버넌스 정례화: 「청년주간」에 ‘청년과의 대화’ 개최
- 1-2. 청년 사회활동에 대한 인식 개선 및 홍보

1) 제언 배경

지금까지 행정 분야가 청년 또는 시민들의 활동을 지원하는 방식은 주로 행정 내 시스템 재편을 통한 지원에 집중되어 있었다. 예를 들어, 인력을 지원하거나, 프로그램을 지원하거나, 재정적 지원을 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지원도 중요하지만, 청년 사회활동을 활성화하는 데 주요한 지원은 행정이 청년들의 사회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사회적 협력기구들을 연결하고

매개하는 촉진자(facilitator)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다. 이는 행정 내 시스템을 구축하는 비교적 손쉬운 방식이 아니라, 조정 또는 조율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어려운 작업일 수 있다. 그러나 한국사회의 행정이 한 단계 진보하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행정이 새로운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는 단계로 나아갈 필요가 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서의 청년정책 수립 과정이 그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2) 정책 방향

청년 사회활동 활성화를 위한 사회적 시스템 구축에는 청년들의 실질적 참여를 보장하는 공식적 채널과 장치를 마련하는 방안을 포함할 수 있다. 앞서 청년 관련 법령과 정책 분야에서는 청년들의 활동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거버넌스 모델’을 강조했다면, 여기에서는 실질적인 청년 참여를 보장하는 공식적인 채널을 확보하는 것과 사회활동의 의미와 중요성에 대한 인식개선 및 홍보를 전개해 나가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3) 세부 과제

1-1. 민관 거버넌스 정례화: 「청년주간」에 ‘청년과의 대화’ 개최

청년 사회활동 활성화를 위한 한 가지 방안으로, EU에서 실시하고 있는 ‘구조화된 대화(Structured Dialogue)’와 같은 형식의 활동 참여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구조화된 대화는 정책결정 과정에 청년들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청년들과 정책결정자들 사이의 상호소통 채널을 의미한다. EU 회원국의 청년정책 담당 장관과 청년단체들은 매년 청년 관련 주제를 설정하여 대화하고, 대화에서 합의한 내용들을 각국의 청년정책에 반영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에서도 청년들의 활동 참여를 보장하는 공식 채널로 「청년기본법안」에서 명시하고 있는 ‘청년주간’(Youth week) 기간 동안 ‘청년과의 대화’(Dialogue with Korean Youth)(가칭)를 마련하여 청년들의 의견이 청년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해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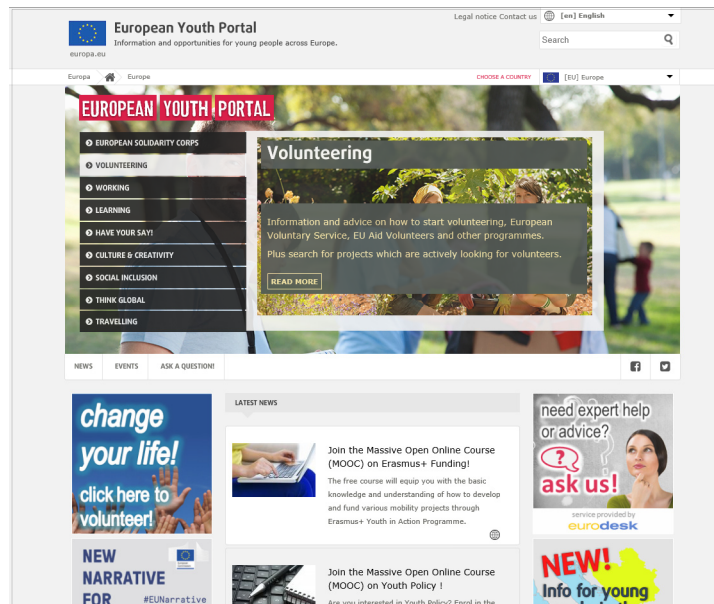
‘청년과의 대화’는 전국의 청년 개인 및 각 영역별 청년단체, 전국 청년정책에 참여하고 있는 민간단체인 ‘청년정책네트워크’ 등과 청년정책 관련 부처의 담당자, 시·도지사 등이 참석할

수 있다. ‘청년과의 대화’에서는 매년 대화에서 논의할 주제를 선정하고, 각 주제와 관련한 지자체 및 중앙정부의 청년정책에 대한 경과보고 및 평가가 이루어지며, 그것을 토대로 청년정책 관련 부처 장관, 시도지사 및 청년단체들이 그에 대한 토론을 실시하는 것으로 진행할 수 있다. ‘청년과의 대화’에서 합의된 내용들은 지자체 및 중앙정부에 권고사항으로 제출하고 실제 청년정책에 반영되도록 한다.

1-2. 청년 사회활동에 대한 인식 개선 및 홍보

우리나라에서는 청년을 위한 정책이 취업과 창업 등 고용과 일자리에 집중된 감이 없지 않다. 이 때문에, 지자체 담당자들 역시 일자리 중심의 정책과 지원사업을 마련하는 데에는 관심이 크지만, 청년들의 사회활동 지원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관심이 부족하다. 때문에, 우선 지자체 담당자들 스스로 청년들이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성장하는 데 있어서 사회활동이 의미와 가치는 지니는 일임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나아가 그것을 토대로, 대국민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 활동에도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청년정책의 대부분이 청년 일자리에 집중되어 왔기 때문에 기성세대들도 사회활동 참여가 취업을 위한 준비활동에 비해 중요하지 않거나, 부차적인 활동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 이 때문에 면담참여자 중에서도 부모들이 자신의 사회활동 참여를 달가워하지 않거나, 사회활동 참여보다는 취업준비에 적극적이기를 기대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가장 중요하고 효과적인 홍보는 사회활동 참여가 청년들에게 다양한 역량을 길러주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청년들의 취업준비에도 도움이 된다는 평가가 늘어나는 데 있다.

한편, 면담조사에 참여했던 청년들은 청년 사회활동 관련 정보에 대한 홍보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기를 희망했다. 사회활동 비참여자들 역시 사회활동에 참여하고 싶지만, 사회활동 정보를 어디서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에 대한 어려움을 토로했다. 추후 청년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청년기본법」이 제정된 이후, 청년 사회활동 지원을 위한 체계를 구축함에 있어 유럽 청년 포털(European Youth Portal)을 참고하여, 청년 사회활동 관련 정보를 정비하여 청년들에게 제공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청년 사회활동을 몇 가지 범주로 유형화하고, 관련 정보를 연계하는 방식으로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U의 경우, EU Youth Strategy에 해당하는 8개 분야와 관련된 활동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출처: https://europa.eu/youth/EU_en에서 2017년 10월 15일 인출

【그림 VI-6】 유럽 청년 포털(European Youth Portal) 홈페이지

IV. 청년 사회활동 활성화 지원 시스템 구축

2. 청년 사회활동 활성화를 위한 지원 프로그램 제공

- 2-1. 청년단체 활동가 지원: 교육 및 네트워킹 지원, 프로젝트 활동 지원
- 2-2. 지자체 청년센터 실무자 대상 연수 및 교류 기회 제공

1) 제언 배경

여기에서는 청년 사회활동 활성화를 위한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국회에 발의된 6건의 「청년기본법안」에는 청년단체를 위한 지원 내용을 대부분 명시하고 있다. 현재 많은 청년들이 청년활동가로서 전업 또는 비전업으로 활동하고 있다. 청년들의 사회활동이 청년 개인의 역량 제고뿐만 아니라, 전체 사회의 사회적 자본을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사회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청년들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이 중요하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청년단체 활동가뿐만 아니라 현재 여러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청년센터의

실무자들에게도 성장의 기회, 정보교류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향후 한국의 청년 사회활동을 발전시키는 데 토대가 될 수 있음을 강조하고자 한다.

2) 정책 방향

EU에서는 청년 활동에 참여하는 청년 개인 및 단체뿐만 아니라 청년지도자, 청년활동가의 역량을 제고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청년활동가, 청년지도자 등을 대상으로 청년 사회활동의 혁신 사례와 모범사례를 교류하고 네트워킹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3) 세부 과제

2-1. 청년단체 활동가 지원: 교육 및 네트워킹 지원, 프로젝트 활동 지원

현재 전국에서 운영되고 있는 청년단체들은 다양하겠지만, 몇 개의 전국적 조직을 제외하고는 매우 열악한 상황에서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다. 면담조사에서도 제시한 바와 같이, 전업 또는 비전업으로 활동하는 청년들은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의 상근 수당을 받고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현재까지는 청년단체에 대한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별도 지원이 없기 때문에 활동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문제에 항상 직면해 있다. 청년활동가들에게 본인들의 활동에 대한 비전을 수립할 수 있는 지원 장치가 있다면, 이들의 사회활동 참여로 인해 청년들의 삶이 개선되고, 지역사회가 변화하고 발전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들이 활동의 질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교육 및 네트워킹 활동비를 지원하거나, 이들이 활동하고 있는 분야에서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얻을 수 있도록 프로젝트 활동을 지원한다면, 청년 사회활동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

2-2. 지자체 청년센터 실무자 대상 연수 및 교류 기회 제공

또한 「청년기본법」이 제정된다면, 청년센터의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협력을 위한 세미나, 정보 교류, 네트워킹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실무자들간의 정기적인 교류는 청년 사회활동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모범사례와 혁신사례를 공유하고, 각 지자체에서 직면하고 있는 청년 지원활동의 한계점을 해결해 나가는 데에도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할 수 있다. 실무자들의 역량이 향상될 때, 전국 지자체의 청년 사회활동 지원사업들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고, 그것을 토대로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들을 대상으로 해외의 혁신사례를 학습하거나 탐방할 수 있는 연수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실무자들의 업무 역량을 향상시키는 방안도 필요하다.

Ⅳ. 청년 사회활동 활성화 지원 시스템 구축

3. 청소년 활동지원사업과의 연계 시스템 구축

1) 제언 배경

「청년기본법」이 제정될 경우, 「청소년활동진흥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청소년 활동에 대한 지원 내용과의 조정이 불가피하다. 「청년기본법」에서 청년 연령을 어떻게 규정하는가에 따라 「청소년활동진흥법」에서 다루고 있는 청소년 활동진흥 내용들에 대한 수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즉, 「청년기본법」에서 청년 연령의 시작 시점을 19세로 규정할 경우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반영된 19~24세 청소년을 위한 법안 내용들을 수정해야 한다. 그런데 현재 「청소년활동진흥법」에는 19~24세 청소년을 위한 별도의 활동 진흥 내용들을 명시하고 있지는 않다. 「청소년활동진흥법」에 제시된 활동시설, 수련활동, 교류활동, 문화활동, 수련거리, 수련시설 등에 관한 내용에서는 별도로 청소년 연령집단에 따른 구분(예컨대, 전기, 중기청소년 vs. 후기청소년 등)을 명시하고 있지 않고 있다. 즉, 연령별 청소년 집단에 따른 차별화된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지는 않다.

구체적인 법령 조정은 「청년기본법」 제정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이루어질 때 가능할 것이므로, 현재 시점에서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대한 개정 방향을 논의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청년 대상 면담조사 결과에서 도출된 내용 중, 청년 사회활동 활성화를 위해 청소년 시기에서부터 사회활동의 의미와 가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고 그에 따라 자연스럽게 사회활동에 대한 지원이 연계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을 반영한 세부과제를 제안하고자 한다.

2) 정책 방향

청년 사회활동 활성화를 위해서는 청소년 활동지원사업과 연계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현재 청소년 활동은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과 ‘시도 청소년활동진흥센터’를 통해 운영되고 있는데, 청소년 활동과 청년 사회활동 연계는 ‘지원사업 연계’ 방안을 통해 가능할 수 있을 것이다.

3) 세부 과제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에서는 청소년 활동정보를 통합, 체계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청소년활동정보서비스 e-청소년’⁷⁹⁾ 홈페이지에는 자유학기제 활동, 자원봉사 Dovol, 국제청소년성취포상제, 청소년자기도전포상제, 수련활동, 국제교류활동, 정책참여 활동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III장에서 분석한 바와 같이, 청소년 활동분야는 몇 개의 활동들로 범주화되어 있다.

그런데 본 연구의 V장에서 분석한 바와 같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청년 사회활동의 성격과 내용은 청소년 활동과는 약간 상이하다. 청소년 활동은 이미 규정된 범주에 따른 지원사업과 프로그램을 청소년에게 제공하고 청소년지도사가 청소년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가이드 하는 성격이 강하다. 반면, 청년 사회활동 지원사업은 청년들의 자발적, 주도적인 사회활동을 지원하는 성격이 더 강하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는 한편으로는 대부분의 청소년들이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신분으로 다양한 활동에 참여할 시간적 여유가 없기 때문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청소년 시기의 특성상 발달 단계에서 요구되는 역량이나 과업들을 겸비할 수 있도록 사회가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러나 청소년 활동지원 사업의 내용을 청년 사회활동 지원사업에서 운영하고 있는 내용과 유사하게, 지원사업의 형식과 내용을 개방하여 청소년들로 하여금 직접 활동의 형식과 내용을 기획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 볼 수 있다. 한편, 청소년 활동 지원사업은 여성가족부-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시도 청소년활동진흥센터라는 전달체계를 통해 운영되고 있다. 향후 「청년기본법」 제정을 통해, 청년정책을 담당하는 주무 부처가 결정되겠지만, 현재와 같이 지자체의 청년정책과에서 ‘청년 사회활동 지원사업’을 담당할 경우 청소년활동과 청년 사회활동 간 전달체계상의

79) <http://www.youth.go.kr/youth/eYouth/main/main.yf?curlMenuSn=undefined>에서 2017년 10월 22일 인출.

차이가 발생해, 청소년-청년 활동지원이 연계되는 데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청소년 시기부터 주도적, 자발적 사회활동 참여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때 청년들의 사회활동 역시 활성화 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청소년 활동과 청년 사회활동의 연계 지원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상술한 정책과제에 대해, 법령 제·개정 여부 및 예산 소요 규모 등 추진 전략과 관계 부처 등을 명시한 로드맵을 <표 VI-10>에 제시하였다.

표 VI-10 청년 사회활동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 추진전략(안)

영역	정책과제	법령 제·개정		예산(인력) 소요			관계 부처
		필요	불필요	대규모	중규모	소규모/없음	
① 청년 사회 활동 관련 법령 및 정책	1. 「청년기본법」 제정 및 청년 사회활동 관련 내용 추가						
	1-1. 청년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내용 추가	○				○	미확정
	1-2. 청년발전지원기금에 대한 내용 추가	○				○	미확정
	1-3. 청년 사회활동 참여 보장을 위한 거버넌스 내용 추가	○				○	미확정
	2. 지자체 청년기본조례 및 청년정책기본계획에 청년 사회활동 관련 내용 추가	○				○	지자체
② 청년 사회 활동 활성화 지원: 공동 지원 방안	1. 청년 개인에 대한 지원: 활동비 지원	○		○			중앙정부
	2. 사회활동 인프라 지원						
	2-1. 프로그램 지원: 청년 사회활동 지원사업 2.0		○			○	지자체
	2-2. 공간지원		○		○		지자체
	2-3. 인력지원				○		지자체
	2-4. 행정지원: 청년단체 지원사업 요건 완화 & 행정절차 간소화		○			○	지자체

영역	정책과제	법령 제·개정		예산(인력) 소요			관계 부처
		필요	불필요	대규모	중규모	소규모/ 없음	
③ 청년 사회 활동 활성화 지원: 유형별 맞춤 지원 방안	1. 사회활동 비참여자 및 대학 비진학자를 위한 맞춤형 지원		○		○		중앙정부 지자체
	2. 공공기관 대외활동 내용 재편		○			○	중앙정부
	3. 정책참여 활동 활성화 방안 마련		○			○	중앙정부 지자체
	4. 청년 사회활동 지역격차 해소를 위한 지역 청년단체 지원사업 확대		○		○		중앙정부 지자체
④ 청년 사회 활동 활성화 지원 시스템 구축	1. 청년 사회활동 활성화를 위한 사회적 시스템 구축						
	1-1. 민관 거버넌스 정례화	○				○	중앙정부 지자체
	1-2. 청년 사회활동에 대한 인식개선 및 홍보		○		○		중앙정부 지자체
	2. 청년 사회활동 활성화를 위한 지원 프로그램 제공						
	2-1. 청년단체 활동가 지원		○		○		중앙정부 지자체
	2-2. 지자체 청년센터 실무자 대상 연수 및 교류 기회 제공		○		○		지자체
	3. 청소년 활동지원사업과의 연계 시스템 구축	○			○		중앙정부 여성가족부 지자체

.....

참 고 문 헌

참 고 문 헌

[국내 참고자료]

강릉문화재단 홈페이지. 공지사항 456번 공지글(2017. 2. 3.).

<http://www.gncaf.or.kr/contents.asp?page=102&kind=2&IDX=5617>에서 2017년 10월 16일 인출.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2017). **경기도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 연구**.

경기도(2017. 7.). 경기도 청년정책 기본계획(안).

http://gnews.gg.go.kr/briefing/brief_gongbo_view.asp?BS_CODE=S017&number=34562에서 2017년 9월 10일 인출.

광주광역시(2016a). **광주청년 종합실태조사**.

광주광역시(2016b). 2017~2021 청년도시 광주 청년정책 기본계획.

https://www.gwangju.go.kr/BD_0000000468/boardView.do?seq=268764&menuId=gwangju0407010000&searchType=&searchText=&pageIndex=1&boardId=BD_0000000468에서 2017년 9월 10일 인출.

광주청년센터 the 숲 홍보 안내서 “다르게 살아도 괜찮아.”

광주청년센터 the 숲 홈페이지 the 숲사진첩.

<http://www.gjtheforest.kr/?sid=59> 2017년 10월 5일 인출

구혜정(2002). **사회적 자본을 형성하는 대안적 평생교육 탐색**. 박사학위 논문. 고려대학교.

김기현·하형석·신인철(2016). **청년 사회·경제 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 I**.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김정숙·김기현·황세영(2015). 동북아 청소년정책 국제비교 연구.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김지만(2012). **청년세대 정치참여로서의 반값등록금 집회문화에 관한 연구**. 광운대학교 신문방송학과 석사학위논문.

- 김윤나·정건희·진은설·오세비(2015). **청소년활동론**. 서울: 도서출판 신정.
- 김태준·박인영·이호경·오민아(2016).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 및 국제비교 연구 III: IEA ICCS 2016-사회참여역량 측정 및 분석연구**.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김형균·임호·강성권(2015). **인재집적도시를 위한 부산광역시 청년 종합정책 연구**. 부산발전연구원.
- 김홍중(2013). 사회로 변신한 신과 행위자의 가면을 쓴 메시아의 전투: 아렌트의 ‘사회적인 것’의 개념을 중심으로. **한국사회학**, 47(5), 1~33.
- 대구광역시(2016). **2016년 대구청년실태조사 결과**.
- 대구광역시(2017. 1. 16.). 「2020 청년희망 대구」 보도자료.
<http://info.daegu.go.kr/newshome/mtnmain.php?mtnkey=articleview&mkey=scatelist&mkey2=26&aid=229206&bpage=1&stext=에서> 2017년 9월 10일 인출.
- 대구광역시청년센터 홈페이지.
<http://www.dgyouth.kr/business/information.asp> 2017년 10월 5일 인출.
- 대구광역시청년센터 청년기자단 Hi-Five 블로그
<http://blog.naver.com/dyc1939/221092868763> 2017년 10월 5일 인출.
- 대하네일20대연구소(2016. 4. 26.). 20대 4명 중 1명, “새로운 인간관계 필요성 못 느껴.” 보도자료
<https://20slab.naeilshot.co.kr/archives/12976>에서 2017년 3월 13일 인출.
- 도승자(2012). 한국 대학생들의 지역사회 참여와 지역적 글로벌적 시민성: 예비적 분석.
글로벌청소년학연구, 2(1), 91-115.
- 류태건·차재권(2014). 어떤 자원결사체가 어떤 신뢰를 증진시키는가? : 사회자본론의 관점에서 실증연구. **東西研究**, 26(2), 169~198.
- 무중력시대 홈페이지. <http://youthzone.kr/>에서 2017년 9월 29일 인출
- 백병부·김정숙(2014). 학교 내 사회자본이 학업성취 격차에 미치는 영향. **교육학연구**, 52(1), 221~249.
- 서복경(2016). “지방정부 거버넌스의 제도와 과정: 청년정책 사례.” 이현우·노대명·서복경·이덕로·이정진·이지호·조영호·최연혁·황아란 편저. **좋은 정부의 제도와 과정: 이론적 탐색과 한국 사례**. 서울: 도서출판 오름.
- 서울시 홈페이지. <http://mediahub.seoul.go.kr/archives/955898>에서 2017년 3월 15일 인출.
- 서울시 홈페이지. http://youthhope.seoul.go.kr/?tr_code=theme#page7에서 2017년 3월 15일 인출.

서울문화재단 홈페이지. 공지사항 50번(2017. 7. 27.).

<http://www.sfac.or.kr/html/opensquare/notice.asp?perMenuSeq=6&MenuSeq=108&SearchCategory=&SearchKey=A&SearchValue=%EC%B2%AD%EB%85%84>에서 2017년 10월 16일 인출.

서울신문(2016. 9. 20.). “2030 2명 중 1명, 나홀로족!”.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60920500023>에서 2017년 6월 19일 인출.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2017. 1.). “전국 지자체 청년 자치법규 추진현황” 내부자료.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 홈페이지(2017. 2. 11.).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 3기 소개글.

<https://seoulyg.net/info/>에서 2017년 2월 11일 인출.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공식블로그 ‘세모.’

<http://sehub.blog.me/150180203238>에서 2017년 10월 20일 인출.

서울특별시 청년정책담당관(2017. 9. 28.). 2017년 서울시 청년공간 조성·운영사업 설명회 자료집.

서울특별시 청년허브(2016). **청년참 2015 디렉토리북: 서로 만나 지탱하는 힘.**

서울특별시 청년허브(2014). **2014 청년참 디렉토리북: 넘겨야 보이는 것들.**

서울특별시 청년허브 홈페이지. <https://youthhub.kr/hub/> 10월 5일 인출

서울특별시 청년허브 홈페이지 청년참 소개글.

<https://youthhub.kr/hub/2400>에서 2017년 2월 12 인출

서울특별시 청년허브 홈페이지 청년 커뮤니티 소개글.

<https://youthhub.kr/youth/directory?d=271>에서 2017년 2월 12일 인출

서울특별시의회(2016. 4. 25.). 서울특별시 청년활동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서울혁신기획관(2015. 11.). 2020 서울형 청년보장 추진계획.

[http://yesan.seoul.go.kr/upload/89990/\(1105\)2020%EC%B2%AD%EB%85%84%EC%A0%95%EC%B1%85%EA%B8%B0%EB%B3%B8%EA%B3%84%ED%9A%8D\(%EC%B5%9C%EC%A2%85\).pdf](http://yesan.seoul.go.kr/upload/89990/(1105)2020%EC%B2%AD%EB%85%84%EC%A0%95%EC%B1%85%EA%B8%B0%EB%B3%B8%EA%B3%84%ED%9A%8D(%EC%B5%9C%EC%A2%85).pdf)에서 2017년 9월 11일 인출.

성균관대학교 서베이리서치센터. 한국종합사회조사 데이터.

http://kgss.skku.edu/?page_id=39에서 2017년 3월 17일 인출.

세계가치관조사(World Values Survey). Wave 6(2010~2014년) data 중 한국설문지 참조.

<http://www.worldvaluessurvey.org/WVSDocumentationWV6.jsp>에서 2017년 4월 12일 인출

신윤정(2017). “새 정부 청년대책에 대한 몇 가지 제안.” 「문재인 정부에 바란다: 청년정책 토론회」. 7월 3일. 서울: 국회도서관 지하1층 소회의실.

신필균(2016. 5. 20.) 우리나라에는 ‘청년정책’이 없다.

http://www.huffingtonpost.kr/korean-agenda/story_b_10049414.html에서 2017년 2월 10일 인출.

이데일리(2017. 2. 14.). 청년 일자리대책만 10번...실업률은 더 올랐다.

<http://www.edaily.co.kr/news/NewsRead.edy?SCD=JA11&newsid=01367766615830520&DCD=A00101&OutLnkChk=Y>에서 2017년 2월 14일 인출.

이동수·이현휘·장명학·김윤철·유병래·정재원·채진원(2013). **시민은 누구인가**. 서울: 인간사랑.

이동원·정갑영·박준·채승병·한준(2010). **제3의 자본: 사회적 자본은 어떻게 증진되는가?** 서울: 삼성경제연구소.

이선미(2016). 시민성 관점에서 본 자원활동: 새로운 유형과 관점. **NGO연구**, 11(1), 57~93.

이소정·정경희·이윤경·유삼현(2007). **우리나라 노인의 사회참여 유형 분석 및 정책적 함의**. 서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유형근(2015). 청년 불안정노동자 이해대변 운동의 출현과 성장: 청년유니온과 알바노조. **아세아연구**, 58(2), 38~77.

장근영·성은모·이경상·진성희·최효선·김군희(2016).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 및 국제비교 연구 III: IEA ICCS 2016 총괄보고서**.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장미경(2001). 시민권(citizenship) 개념의 의미 확장과 변화: 자유주의적 시민권 개념을 넘어서. **한국사회학**, 35(6), 59~77.

장인협·최성재(1987). **노인복지학**.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장혜영(2017). **2016 청년활력 공간 지원사업 우리동네 무중력지대**. 서울: 청년허브.

청소년활동정보서비스 e-청소년 홈페이지.

<http://www.youth.go.kr/youth/eYouth/main/main.yt?curMenuSn=undefined>에서 2017년 10월 22일 인출

청소년활동정보서비스 홈페이지.

<http://www.youth.go.kr/youth/eYouth/main/main.yt#>에서 2017년 5월 20일 인출

청년참(2015. 11. 16.).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사업 유형과 사례(안). 내부자료.

최인재·모상현·강지현(2011).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지원방안 연구 I: 총괄보고서**.

-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통계청(2015). **2015년 사회조사보고서**.
<http://kostat.go.kr/wnsearch/search.jsp>에서 2017년 1월 31일 인출.
- 통계청(2017. 1.5.). 2015년 인구 총조사 (성, 연령 및 교육정도별 인구)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PM1501&conn_path=I3#
 에서 2017년 7월 20일 인출
- 통계청(2017. 1. 11.). “2016년 12월 및 연간 고용 동향” 보도자료.
http://kostat.go.kr/portal/korea/kor_nw/2/3/1/index.board?bmode=read&bSeq=&aSeq=358642&pageNo=1&rowNum=10&navCount=10&currPg=&sTarget=title&sTxt=에
 서 2017년 2월 11일 인출.
- 통계청 사회조사 각 년도(1999, 2003, 2006, 2009, 2011, 2013, 2015).
http://kosis.kr/statisticsList/statisticsList_01List.jsp?vwcd=MT_ZTITLE&parmTabId=M_01_01에서 인출.
- 한겨레신문(2015. 3. 3.). 젊은층 절반이 ‘5포 세대.’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680663.html에서 2017년 3월 13일 인출.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17. 3.).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KCYPs) 제1~7차 조사 코드북.
http://archive.nypi.re.kr/brdartcl/boardarticleView.do?menu_nix=qZc474Ak&brd_id=BDIDX_k9Fd9oFi29nooCcJ7kX1I4&srch_ctgry_idx=CTIDX00043에서 2017년 5월 12일 인출.
- 한도현·박영도·윤상철·이선미·이기홍(2007). **시민들의 사회참여와 시민공동체**. 서울: 백산서당.
- 행정자치부(2017. 4.). 지방자치단체 행정구역 및 인구현황(2016년 12월 31일 기준).
http://mois.go.kr/frt/bbs/type001/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55&nttId=58382에서 2017년 10월 13일 인출.
- 2016 우리동네 무중력시대.
<https://youthhub.kr/hub/11594>에서 2017년 10월 16일 인출.

[국내 법령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2016. 1. 7.). 서울특별시 청년기본조례.

<http://www.law.go.kr/ordinSc.do?menuId=2&query=%EC%84%9C%EC%9A%B8%EC%8B%9C%20%EC%B2%AD%EB%85%84%20%EC%A1%B0%EB%A1%80#AJAX>에서 2017년 5월 20일 인출.

국가법령정보센터(2017. 3. 21.). 청소년활동진흥법.

<http://www.law.go.kr/lsSc.do?menuId=0&subMenu=1&query=%EC%B2%AD%EC%86%8C%EB%85%84%EA%B8%B0%EB%B3%B8%EB%B2%95#undefined>에서 2017년 5월 20일 인출.

국가법령정보센터(2016. 12. 20.). 청소년기본법.

<http://www.law.go.kr/lsSc.do?menuId=0&subMenu=1&query=%EC%B2%AD%EC%86%8C%EB%85%84%EA%B8%B0%EB%B3%B8%EB%B2%95#undefined>에서 2017년 5월 20일 인출.

국가법령정보센터(2017. 7. 26.).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http://www.law.go.kr/lsSc.do?menuId=0&subMenu=1&query=%EB%B9%84%EC%98%81%EB%A6%AC%EB%8B%A8%EC%B2%B4%EC%A7%80%EC%9B%90%EB%B2%95#AJAX>에서 2017년 10월 20일 인출.

자치법규정보시스템 홈페이지. <http://www.elis.go.kr>에서 전국 지방자치단체 청년기본조례 제정 현황 검색 (2017년 10월 14일 인출)

자치법규정보시스템(2016. 01.01.). 경기도 청년기본조례.

http://www.elis.go.kr/newlaib/laibLaws/h1126/laws_list_new.jsp?lawsNum=41000042003016에서 2017년 5월 20일 인출

자치법규정보시스템(2016. 12.10.). 경상남도 청년발전기본조례.

http://www.elis.go.kr/newlaib/laibLaws/h1126/laws_list_new.jsp?lawsNum=48000004006017에서 2017년 5월 20일 인출

자치법규정보시스템 경상북도 청년기본조례.

자치법규정보시스템(2017. 07.01.). 광주광역시 청년정책기본조례.

http://www.elis.go.kr/newlaib/laibLaws/h1126/laws_list_new.jsp?lawsNum=2900000

- 6009020에서 2017년 5월 20일 인출
 자치법규정보시스템(2015. 12.30.). 대구광역시 청년기본조례.
http://www.elis.go.kr/newlaib/laibLaws/h1126/laws_list_new.jsp?lawsNum=2700002
 8010003에서 2017년 5월 20일 인출
 자치법규정보시스템(2017.07.07.). 대전광역시 청년기본조례.
http://www.elis.go.kr/newlaib/laibLaws/h1126/laws_list_new.jsp?lawsNum=3000000
 4014013에서 2017년 10월 14일 인출
 자치법규정보시스템(2017. 5. 31.). 부산광역시 청년기본조례.
http://www.elis.go.kr/newlaib/laibLaws/h1126/laws_list_new.jsp?lawsNum=2600001
 7004008에서 2017년 10월 14일 인출
 자치법규정보시스템(2016. 12.20.). 세종특별자치시 청년기본조례.
http://www.elis.go.kr/newlaib/laibLaws/h1126/laws_list_new.jsp?lawsNum=3611010
 6206043에서 2017년 5월 20일 인출
 자치법규정보시스템(2017. 09.30.). 울산광역시 청년기본조례.
http://www.elis.go.kr/newlaib/laibLaws/h1126/laws_list_new.jsp?lawsNum=3100000
 4001111에서 2017년 10월 14일 인출
 자치법규정보시스템(2016.12.30.0. 제주특별자치도 청년기본조례.
http://www.elis.go.kr/newlaib/laibLaws/h1126/laws_list_new.jsp?lawsNum=5000000
 6011019에서 2017년 5월 20일 인출
 자치법규정보시스템(2015. 07.23.). 전라남도 청년기본조례.
http://www.elis.go.kr/newlaib/laibLaws/h1126/laws_list_new.jsp?lawsNum=4600000
 5006051에서 2017년 5월 20일 인출
 자치법규정보시스템(2017. 04. 14.). 전라북도 청년기본조례.
http://www.elis.go.kr/newlaib/laibLaws/h1126/laws_list_new.jsp?lawsNum=4500003
 3001027에서 2017년 5월 20일 인출
 자치법규정보시스템(2017.02.28.). 충청남도 청년기본조례.
http://www.elis.go.kr/newlaib/laibLaws/h1126/laws_list_new.jsp?lawsNum=4400005
 5001003에서 2017년 5월 20일 인출

자치법규정보시스템(2016. 05.24.). 충청북도 청년기본조례.

http://www.elis.go.kr/newlaib/laibLaws/h1126/laws_list_new.jsp?lawsNum=43000005007003에서 2017년 5월 20일 인출

청년기본법안(2016. 5.30.). [신보라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000024호]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X1W6J0Q5G3Y0D1U4M2D3Z4H3A6J8A5에서 2017년 5월 30일 인출.

청년기본법안(2016. 8. 24.). [이원욱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001778호]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Y1J6E0D8T2Q4W1G4U5R0Y5M7J6C7V1에서 2017년 5월 30일 인출.

청년기본법안(2017. 4. 13.). [박주민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006739호]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L1H7S0K4Z1K3C1I1C4O2D5T7N8V3B5에서 2017년 5월 30일 인출.

청년정책기본법안(2016. 8. 17.). [박홍근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001620호]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G1O6C0B8G1A7H1B4L3L5M5L7U9F2R1에서 2017년 5월 30일 인출.

청년발전기본법안(2016. 12. 2.). [김해영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004070호]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Z1J6H1O2K0Z2E1G4X3H0C0D8H0B4Y1에서 2017년 5월 30일 인출.

청년발전지원기본법안(2017. 6. 30.). [강창일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007738호]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I1H7Z0I6C3Z0G1R8S0E5A5X0N2M4J3에서 2017년 10월 20일 인출.

[해외 참고자료]

독일연방 가족노인여성청년부 홈페이지.

<https://www.bmfsfj.de/bmfsfj/aktuelles/alle-meldungen/interessenbekundungs-verfahren---jetzt-noch-bewerben-/109478?view=DEFAULT>에서 2017년 5월 30일에 인출
독일 혁신기금 홈페이지.

<https://www.jugendgerecht.de/innovationsfonds/>에서 2017년 5월 29일에 인출
독일 혁신기금 지원 프로젝트 (정치) 투표를 하기엔 너무 이른 나이? 투표권에 대한 연령 문제
InnovationsfondsPolitischeBildung

http://www.allianz-fuer-jugend.de/downloads/Innovationsfonds_Politische_Bildung.pdf에서 2017년 5월 31일 인출

독일 혁신기금 지원 프로젝트 (문화) 언어 교환 파트너 자원봉사
Innovationsfonds_Kulturelle_Bildung.

http://www.allianz-fuer-jugend.de/downloads/Innovationsfonds_Kulturelle_Bildung.pdf에서 2017년 5월 31일 인출

독일 혁신기금 지원 프로젝트 (국제교류) 다문화 교육을 가시화 시키는 법
Innovationsfonds_Kulturelle_Bildung.

http://www.allianz-fuer-jugend.de/downloads/Innovationsfonds_Kulturelle_Bildung.pdf에서 2017년 5월 31일 인출

독일 혁신기금 지원 프로젝트 (청년활동)“PARTiX”, 민주주의를 촉진하는 아날로그 및 디지털 청년 참여 활동

Innovationsfonds_Jugendverbandsarbeit

http://www.allianz-fuer-jugend.de/downloads/Innovationsfonds_Jugendverbandsarbeit.pdf에서 2017년 5월 31일 인출

독일 혁신기금 지원 프로젝트 (사회) 길거리 아동과 함께하는 연극 프로젝트

Innovationsfonds_Jugendsozialarbeit

http://www.allianz-fuer-jugend.de/downloads/Innovationsfonds_Jugendsozialarbeit1.pdf에서 2017년 6월 8일 인출.

일본 국세청 2007년 직장인 1인당 평균 연수입 자료.

<http://datsu-ryman.com/item4.html>에서 2017년 8월 21일 인출.

일본 내각부의 청년의견모집사업.

<http://www.youth-cao.go.jp/index.html>에서 2017년 10월 7일 인출.

일본 동경도 청년은둔형외톨이 지원 사업.

<http://www.hikikomori-tokyo.jp/wakamono/>에서 2017년 5월 17일 인출.

동경도 은둔형외톨이청년지원 프로그램 개념도.

<https://www.hikikomori-tokyo.jp/wakamono/pdf/program.pdf>에서 2017년 8월 29일 인출.

일본 삿포로시(札幌市) 청년지원시설(Youth+).

<http://www.sapporo-youth.jp/> 2017년 8월 28일 인출.

일본 시즈오카시(静岡市)(2016). “지역 아동 및 청년의 생활실태” 자료.

<http://www.city.shizuoka.jp/000159765.pdf>에서 2017년 8월 21일 인출.

일본 이바라키현(茨城県)의 청년참여지원사업.

<https://www.pref.ibaraki.jp/bugai/josei/seishonen/documents/zissen-houkokusyo4.pdf>에서 2017년 5월 23일 인출.

일본 중앙정부 아동·청년지원지역협의회(子ども・若者支援地域協議会) 사업.

http://www8.cao.go.jp/youth/suisin/pdf/law_s1.pdf 에서 2017년 5월 23일 인출.

内閣府(2016). 平成27年版子ども・若者白書.

特定法人NPOビックイッシュ基金若者政策提案検討委員会(2015). 若者政策提案書.

小野晶子(2005). 有償ボランティアという働き方, 労働政策レポート3, 労働政策研究・研修機構.

北村安樹子(2007a). 若者の社会参加とNPO: NPOによる若者の社会的包摂の可能性. *LifeDesign Report*, 3-4, 4-15.

北村安樹子(2007b). NPOで働く若者の活動実態と生活意識. *LifeDesign Report*, 7-8, 16-23.

田中喜文・宮本大(2004). 日本におけるNPOと雇用一現状と課題, 家計経済研究, 61, 38-49.

羽田野(2014). 若者と地域活動: 福井市における大学生のまちづくり活動の事例から, 社会科学研究, 65, 97-116.

藤本隆史(2004). NPOにおけるキャリア展開, 就業形態の多様化と社会労働政策, 労働政策研究報告書 12, 労働政策研究・研修機構, 164-183.

電通(2013. 3. 5.).

<http://www.dentsu.co.jp/news/release/pdf-cms/2013021-0305.pdf>에서 2017년 8월 17일
인출.

Coleman, J. S.(1988). Social capital in the creation of human capital.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94, S95-S120.

Council of Europe(2017. 5. 9) “EYF grants awarded for international activities in 2017 as for May 2017.” <https://rm.coe.int/annual-table-ia-2017-rev09052017/168071052d>에서 2017년 5월 30일에 인출.

Council of Europe (2017. 5. 9) “EYF-supported annual work plans 2017 as for May 2017” <https://rm.coe.int/annual-work-plans-2017-rev09052017/168071052e>에서 2017년 5월 30일 인출

Council of Europe (2017. 5. 9) “STRUCTURAL GRANTS 2016-2017” <https://rm.coe.int/1680707cdd>에서 2017년 5월 30일 인출.

Council of Europe (2017. 5. 9) “Pilot activities supported by the EYF in 2017 (as at 29 March 2017)” <https://rm.coe.int/1680702ff7>에서 2017년 5월 30일 인출

Erasmus+: Youth in Action.

<http://erasmusplus.rs/erasmusplus-youth-in-action/>에서 5월 29일 인출.

Erasmus+: Structured Dialogue.

https://ec.europa.eu/programmes/erasmus-plus/opportunities-for-organisations/support-for-policy-reform/structured-dialogue_en에서 2017년 5월 29일 인출.

EU Youth strategy. https://ec.europa.eu/youth/policy/youth-strategy_en에서 2017년 5월 27일 인출.

European Youth Foundation

<https://www.coe.int/en/web/european-youth-foundation/international-activity>,

<https://www.coe.int/en/web/european-youth-foundation/annual-work-plan>,

<https://www.coe.int/en/web/european-youth-foundation/structural-grant>,

<https://www.coe.int/en/web/european-youth-foundation/pilot-activity>에서 2017년 5월 30일에 인출.

European Youth Foundation - Grants for international youth activities.

<https://eurodesk.eu/program/european-youth-foundation-grants-international-youth-activities>에서 2017년 5월 26일 인출.

European Commission(2012). *EU Youth report (Commission staff working document)*.

<http://eur-lex.europa.eu/legal-content/EN/TXT/PDF/?uri=CELEX:52012SC0257&from=EN>에서 2017년 2월 11일 인출.

European Foundation for Intercultural Learning 홈페이지

<http://efil.afs.org/2017/04/13/eu-structured-dialogue-5th-cycle/>에서 2017년 9월 29일 인출.

European Youth Forum(2014. 10.). *Structured Dialogue from A to Z*.

<http://www.youthforum.org/assets/2014/10/SD-from-A-to-Z-YEU.pdf>에서 2017년 5월 16일 인출.

European Youth Portal(유럽 청년 포탈) 홈페이지.

https://europa.eu/youth/EU_en에서 2017년 10월 15일 인출.

European Youth Week.

https://ec.europa.eu/youth/news/2017/dont-miss-european-youth-week-2017_it에서 2017년 5월 26일 인출.

Fukuyama, F.(1996). **트러스트**[*Trust: Social virtues and the creation of prosperity*]. 구승희 역. 서울: 한국경제신문사. (원전은 1995에 출판)

Gordon, C. W. and Babchuk, N.(1959). A typology of voluntary association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24(1), 22~29.

Hammersley, M. and Atkinson, P.(1995). *Ethnography: principles in practice*(2nd edition).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Hammersley, M.(1990). *Reading ethnographic research: A critical guide*. London: Longmans.

Illich, I.(2009). **학교없는 사회**[*Deschooling society*]. 박홍규 역. 서울: 생각의 나무. (원전은 1970년에 출판)

Marshall, T.H. & Bottomore, T.(2014). **시민권**[*Citizenship and social class*]. (조성은 역). 서울: 나눔의 집. (원전은 1992에 출판)

Mason, J.(1999). **질적연구방법론**[*Qualitative researching*]. (김두섭 역). 서울: 나남출판.

- (원전은 1996에 출판)
- Palmer, P. J.(2016). **비통한 자들을 위한 정치학: 왜 민주주의에서 마음이 중요한가**[*Healing the heart of democracy: The courage to create a politics worthy of the human spirit*]. 김찬호 역. 파주: 글항아리. (원전은 2011년에 출간)
- Putnam, R., Leonardi, R. and Nanetti, R.Y.(2000). **사회적 자본과 민주주의**[*Making democracy work: Civic traditions in modern Italy*]. 안청시, 장훈, 강원택, 김학노, 김하영, 유석진 외 역. 서울: 박영사. (원전은 1994년에 출간)
- Ritzer, G.(2006). **사회학 이론**[*Sociological Theory*]. 김왕배·김용학·김현미·김호기·박선웅·박찬웅·박해광·송유진·이영숙·임현진·장상철·조명우·조성남·최선헌·최유정. 서울: 한울출판사. (원전은 2000년 출판)
- Salamon, L. and Anheier, H. K.(1996). "The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nonprofit organization s: ICNOP-Revision 1, 1996." Working papers of the Johns Hopkins Comparative Nonprofit Sector Project, no. 19. Baltimore: The Johns Hopkins Institute for Policy Studies.
- SFSA(Second floor studios & Arts) 내용. 관련 기사(<http://futurechosun.com/archives/7665>에서 2017년 10월 22일 인출) 내용을 참고하여 SFSA 홈페이지(<https://secondfloorstudiosarts.wordpress.com/2010/11/03/trinity-wharf-studios-%E2%80%93update/>에서 2017년 10월 22일 인출) 자료 재구성
- Settersten, R. and Ray, B. E.(2012). **20대=독립은 끝났다!**[*Not quite adults*]. 이경남 역. 서울: 에코의서재. (원전은 2010년 출판)
- Silverman, D. and Marvasti, A.(2008). *Doing qualitative research: A comprehensive guide*. LA, London, New Delhi, Singapore: Sage Publications.
- SMBC 컨슈머파이낸스(コンシューマーファイナンス)(2015). 20代のオフの過ごし方に関する調査2016.
http://www.smbc-cf.com/news/news_20160802_883.html에서 2017년 10월 7일 인출.
- Structured Dialogue https://ec.europa.eu/youth/policy/implementation/dialogue_en에서 2017년 5월 27일 인출.
- Turner, B. S.(2010). **현대사회이론의 흐름**[*The blackwell companion to social theory: Second edition*]. 박형신·정현주·최원기·박선권·고호상·김민규·이택면·고형면·권오현·홍성태 역. 서울: 도서출판 한울. (원전은 2000년 출판)

Youth in action 2007-2013.

http://eacea.ec.europa.eu/youth/programme/about_youth_en.php#info에서 2017년 7월 25일 인출.

Youth in action 2007-2013에 대한 설명 중 Actions 내용

http://eacea.ec.europa.eu/youth/programme/about_youth_en.php 2017년 7월 12일 인출.

Youth in action programme: who can participate.

http://eacea.ec.europa.eu/youth/programme/who_participate_en.php에서 2017년 7월 12일 인출.

Youth in action programme.

https://ec.europa.eu/youth/success-stories/youth-in-action_en에서 2017년 7월 12일 인출.

Youth in action programme: project life cycle

http://eacea.ec.europa.eu/youth/programme/project_life_cycle_en.php에서 2017년 7월 12일 인출.

.....

부 록

부 록

20대 청년들의 사회활동 실태조사

안녕하십니까?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국무총리실 산하 국제연구기관으로, 「20대 청년들의 사회활동 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사는 청년층을 대상으로, 사회활동 참여 실태를 파악하고, 사회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적 도움이 무엇인지 파악하기 위한 조사입니다.

본 조사에 포함된 문항에는 옳고 그른 답이 없으므로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응답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응답한 내용은 통계법 33조에 의해 비밀이 보장되며, 연구 목적 이외에는 어떠한 다른 용도로도 사용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여러분의 성실한 응답은 우리나라 청년들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는 데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것입니다. 조사에 참여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2017. 7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조사연구기관

국무총리실 산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서울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D동
연구 담당자: 김정숙 부연구위원
전화: (044) 415-2104
이메일: jskim@npi.re.kr

조사수행기관

(주) 한국리서치
서울시 강남구 봉은사로 179 H-Tower
조사 담당자: 신성현 수석부장/박정석 과장
전화: (02) 3014-1017
이메일: jspark@hrc.co.kr

<연구참여 및 활용동의서>

■ 연구제목 : 20대 청년들의 사회활동 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

■ 연구책임자 : 김정숙 부연구위원(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귀하께서는 이번 조사의 목적과 내용을 이해하고, 설문 응답이 연구에 활용되는 데 동의하십니까?

1. 동의함

2. 동의하지 않음 ☒ 조사중단

선문1. 귀하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① 남성

② 여성

선문2. 귀하가 태어난 해는 언제입니까?

19()년 ()월

☒ 2017.1.1. 기준 만 19세 이상-만 29세 미만 조사 대상 / 그 외는 조사중단

선문3. 귀하가 거주하는 지역은 어디입니까?

① 서울

② 부산

③ 대구

④ 인천

⑤ 광주

⑥ 대전

⑦ 울산

⑧ 세종

⑨ 경기

⑩ 강원

⑪ 충북

⑫ 충남

⑬ 전북

⑭ 전남

⑮ 경북

⑯ 경남

⑰ 제주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1

선문4. 지난 주 귀하는 수입을 목적으로 1시간 이상 일하였습니까?

- ① 예 **☞ 선문4-2로 가십시오**
 ② 아니오 **☞ 선문4-1로 가십시오**

선문4-1. 지난주에 일을 하지는 않았지만 직장(일자리)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 ① 예 **☞ 선문4-2로 가십시오**
 ② 아니오 **☞ 선문4-5로 가십시오**

선문4-2. 지난 주 직장(일)에서의 지위는 무엇입니까?

※ 임금근로자

- ① 상용근로자
 ② 임시근로자(고용계약기간 1개월~1년 미만) **☞ 선문4-4로 가십시오**
 ③ 일용근로자(고용계약기간 1개월 미만/일일단위) **☞ 선문4-4로 가십시오**

※ 비임금근로자

- ④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 선문4-4로 가십시오**
 ⑤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 선문4-4로 가십시오**
 ⑥ 무급가족종사자 **☞ 선문4-4로 가십시오**
 ⑦ 기타종사자(보험설계사, 학습지도사, 배달기사, 방문판매원, 대리운전기사 등) **☞ 선문4-4로 가십시오**

선문4-3. 귀하는 현재 직장(일자리)에서 고용형태는 다음 중 어떤 형태입니까?

- ① 정규직
 ② 정규직 아닌

선문4-4. 귀하는 현재 직장(일자리)에서 주당 평균 40시간 이상 근무하십니까?

- ① 예 **☞ 선문5로 가십시오**
 ② 아니오 **☞ 선문5로 가십시오**

선문4-5. 귀하께서는 지난 1개월 내에 구직활동을 하셨습니까?

☑ 다음에 해당 되는 활동을 구직활동으로 함

- | | |
|--------------------------------|--------------------|
| • 공·사립 직업소개소에 등록 | • 견습 또는 직장훈련(투보수) |
| • 사업주와 면담 또는 전화상담 | • 노동관련 기관에 알선 의뢰 |
| • 광고계재, 광고에 응모 또는 구인광고란을 찾아 봄 | • 친구, 친지에게 부탁 |
| • 일자리를 찾아 사업장, 농장, 건설공사장 등을 방문 | • 원서 접수 또는 취직시험 응시 |

- ① 예 **☞ 선문5로 가십시오**
 ② 아니오

선문4-6. 지난 주 귀하는 주로 무엇을 하였습니까?

- ① 육아 ② 가사 ③ 정규교육기관 통학 ④ 일시학원 통학
 ⑤ 취업유위환학원·기관통학(고시학원, 직업훈련기관등) ⑥ 취업준비
 ⑦ 진학준비 ⑧ 심신장애 ⑨ 군입대복무대기/군복무해제대기
 ⑩ 그냥 쉬었음 ⑪ 기타()

선문5. 다음 중 귀하가 해당하는 경우를 선택해 주십시오.

- ① 고등학교 졸업(학력취득) 후 대학에 진학하지 않았다
 ② 고등학교 졸업(학력취득) 후 대학에 진학했다

▶ 다음은 사회활동 경험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 다음은 귀하의 사회활동에 대한 질문입니다.

☞ 사회활동은 2~3인 이상의 청년들이 소모임/커뮤니티를 형성하여 정기적,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활동 일체를 의미합니다.

문1-1. 6개월 전부터 현재까지 귀하가 참여하고 있는 사회활동 유형을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

- | |
|--|
| 1) 취미활동(각종 동호회, 팬클럽, 소모임 등) |
| 2) 친목친교활동(게모임) |
| 3) 종교활동 |
| 4) 봉사활동 |
| 5) 진로 및 자기계발(그룹 스터디) 활동 |
| 6) 학생회 활동 |
| 7) 학술연구 활동 |
| 8) 대외활동(서포터즈, 홍보대사, 기자단 등) |
| 9) 시민사회활동(NGO, NPO 등 시민사회단체 활동 등) |
| 10) 온라인 게시판 중심 커뮤니티(다음 아고라, DC인사이드, 오늘의 유머, MLB파크, 인벤 등) |
| 11) 정당 활동 |
| 12) 지자체 및 중앙정부 정책참여 활동 |
| 13) 노동조합 활동 |
| 14) 기타 (구체적으로 기입: _____) |
| 15) 비참여 ➡ 문 17로 가십시오 |

문1-2. 문 1-1에서 응답한 사회활동 유형 중, 귀하가 가장 많은 시간을 투자하거나 활동을 많이 하는 사회활동 유형을 선택해 주십시오.

※ 다음은 귀하가 주로 활동하는 모임의 규모와 특성에 관한 것입니다. 귀하가 주로 활동하는 1순위 사회활동을 중심으로 응답하여 주십시오.

문2. 귀하가 해당 모임[문1-2 응답]에 참여하게(만들게) 된 주요 계기는 무엇입니까?

- ① 스스로 관심이 있어서 정보를 찾다가
- ② 지인의 권유로
- ③ 부모님의 권유로
- ④ 해당 모임의 홍보문(안내문) 등을 보고 관심이 생겨서
- ⑤ 기타 (구체적으로 기입:)

문3. 귀하는 해당 모임[문1-2 응답]의 활동을 언제 처음 시작했습니까?

- ① 중학교 이전 ② 중학교 시기 ③ 고등학교 시기
- ④ 고등학교 졸업 후 또는 대학교 재학 시기 ⑤ 대학 졸업 후

문4. 귀하의 해당 모임[문1-2 응답]의 활동 참여 기간은 얼마나 됩니까?

- ① 6개월 미만 ② 6개월 이상-1년 미만 ③ 1년 이상-2년 미만 ④ 2년 이상

문5. 해당 모임[문1-2 응답]의 규모는 어떠한가? (※ 전국 규모의 연합모임이라 하더라도, 본인이 현재 정기적으로 활동하는 모임에 참여하는 인원들 기준으로 응답해 주십시오)

- ① 10명 미만
- ② 10명 이상-50명 미만
- ③ 50명 이상-100명 미만
- ④ 100명 이상

문6. 해당 모임[문1-2 응답]은 처음에 어떻게 만들어졌습니까?

- ① 다른 개인이 만들
- ② 다른 단체/집단(회사, 정당, 학교 등에서 만든 모임 포함)이 만들
- ③ 내가 혼자 직접 만들
- ④ 나와 다른 지인들이 함께 만들
- ⑤ 기타 (구체적으로 기입:)

※ 다음은 해당 모임의 회원구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문7-1. 해당 모임[문1-2 응답]의 회원들의 연령대는 어떻게 됩니까?

- ① 10대-20대로만 구성
- ② 20대로만 구성
- ③ 20-30대로만 구성
- ④ 20세 이상 모든 연령대
- ⑤ 모든 연령대(연령의 제한이 없음)
- ⑥ 기타 (구체적으로 기입:)

문7-2. 해당 모임[문1-2 응답]의 회원들의 성비는 어떻게 됩니까?

- ① 남성 회원이 다수
- ② 여성 회원이 다수

- ③ 남녀 회원 비율이 거의 비슷함
④ 잘 모름

문8. 해당 모임[문1-2 응답]의 오프라인 활동은 얼마나 자주 이루어집니까?

- ① 오프라인 활동 없음 ② 1년에 1회 ③ 반기별 1회 ④ 분기별 1회
⑤ 한 달에 1회 ⑥ 한 달에 2회 이상 ⑦ 비정기적으로 자주
⑧ 기타 (구체적으로 기입: _____)

문9. 귀하는 해당 모임[문1-2 응답]의 활동비로 월 평균 얼마를 지출하십니까? (정기 회비와 개인적으로 사용한 모든 비용 포함)

월 평균 활동비로 원을 지출

예: 월 평균 50,000원을 지출하는 경우 5 0 0 0 원으로 기입

문10. 해당 모임이 정기적으로 이루어지는 활동장소(모임 장소)는 있습니까?

- ① 예 ☐ 문10-1로 가십시오
② 아니오 ☐ 문11로 가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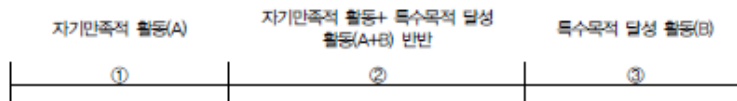
문10-1. 해당 모임[문1-2 응답]의 주요 활동장소(모임 장소)는 어디입니까?

- ① 모임만을 위한 별도의 사무실(공간)
② 카페/술집(저녁술, 호프집 등)
③ 공공기관 내 공간(시설)
④ 스타디움, 행사장, 컨벤션 홀, 체육관 등 공간대여
⑤ (학)교내 공간
⑥ (회)사내 공간
⑦ 회원 개인의 집
⑧ 기타 (구체적으로 기입: _____)

문10-2. 활동장소를 이용하기 위해 해당 모임[문1-2 응답]이 비용을 직접 부담하고 있습니까?

- ① 예 ② 아니오

문11. 귀하는 해당 모임[문1-2 응답]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이 어떤 성격에 더 가깝다고 생각하십니까? 해당되는 번호에 표시해 주십시오.



문12. 귀하가 해당 모임[문1-2 응답]의 활동을 하는 주된 목적이 무엇인지 순서대로 2가지만 선택해 주십시오.

1순위		2순위	
-----	--	-----	--

- ① 활동 내용에 대한 관심 또는 흥미
 ② 사회적 관계망 형성
 ③ 활동비 지원 등 금전적 혜택
 ④ 취업에 직접적 도움
 ⑤ 개인역량 강화
 ⑥ 사회문제에 대한 관심과 참여
 ⑦ 기타 (구체적으로 기입:)

문13. 귀하는 해당 모임[문1-2 응답]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습니까?

-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그렇다 ④ 매우 그렇다

문14. 귀하는 해당 모임[문1-2 응답] 활동에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 ①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② 만족하지 않는다 ③ 만족한다 ④ 매우 만족한다

문15. 다음은 귀하가 주되게 참여하고 있는 사회활동[문1-2 응답]의 효과에 대한 질문입니다. 각 항목을 잘 읽고 해당되는 번호에 표시해 주십시오.

사회활동은 나에게...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적성과 흥미를 찾고 발전시키는 기회가 된다	①	②	③	④
2) 자신감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	①	②	③	④
3) 소속감을 갖게 한다	①	②	③	④
4) 주변 사람의 인정과 지지를 얻게 만든다	①	②	③	④
5) 타인과 협력하는 능력과 태도를 형성시킨다	①	②	③	④
6) 변화에 적응하는 능력을 향상시킨다	①	②	③	④
7) 문제해결 능력을 향상시킨다	①	②	③	④
8) 스스로 배우는 능력을 향상시킨다	①	②	③	④

문16. 귀하가 주로 참여하는 해당 모임[문1-2 응답]의 활동은 향후 귀하의 진로(일자리)와 관련이 있습니까?

- ① 예 **☞ 문16-1로 가십시오**
 ② 아니오 **☞ 문19로 가십시오**

문16-1. 귀하는 해당 모임[문1-2 응답]의 활동을 통해 창업 또는 창직(創職: Job Creation)을 생각하거나 실행해 본 적이 있습니까?

- ① 전혀 생각해 본 적이 없다
 ② 생각해 본 적은 있지만 구체적 실행은 하지 않았다
 ③ 관심을 가지고 관련 정보를 찾아 본 적이 있다
 ④ 창업·창직을 계획하고 준비하고 있다

⑤ 창업·창고를 실행 중이다

☞ **응답 후 문 19로 이동**

▶ 다음은 사회활동 비참여와 관련된 질문입니다.

문17. 귀하가 사회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시간이 부족해서
- ② 활동비가 부담스러워서
- ③ 관계형성에 대한 부담 때문에
- ④ 내가 원하는 사회활동을 찾을 수 없어서
- ⑤ 사회활동의 필요성을 못 느껴서
- ⑥ 사회활동 참여에 대한 정보가 없어서
- ⑦ 기타 (구체적으로 기입 : _____)

문18. 만약 여건이 된다면, 귀하는 사회활동에 참여하고 싶은 의향이 어느 정도 있으십니까?

- ① 전혀 의향이 없다 ☞ **문 19로 가십시오**
- ② 의향이 없다 ☞ **문 19로 가십시오**
- ③ 의향이 있다 ☞ **문 18-1로 가십시오**
- ④ 매우 의향이 있다 ☞ **문 18-1로 가십시오**

문18-1. 귀하가 참여하고 싶은 사회활동을 보기에서 찾아 순서대로 2가지만 선택해 주십시오.

1순위		2순위	
-----	--	-----	--

1) 취미활동(각종 동호회, 팬클럽, 소모임 등)
2) 친목친교활동(계모임)
3) 종교활동
4) 봉사활동
5) 진로 및 자기계발(그룹 스터디) 활동
6) 학생회 활동
7) 학술연구 활동
8) 대외활동(서포터즈, 홍보대사, 기자단 등)
9) 시민사회활동(NGO, NPO 등 시민사회단체 활동 등)
10) 온라인 게시판 중심 커뮤니티(다음 아고라, DC인사이드, 오늘의 유머, MLB파크, 인벤 등)
11) 정당 활동
12) 지자체 및 중앙정부 정책참여 활동
13) 노동조합 활동
14) 기타 (구체적으로 기입: _____)

문18-2. 귀하가 선택한 사회활동 참여를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사회활동 참여를 위한 시간
- ② 사회활동 참여에 필요한 활동비
- ③ 사회활동에 대한 정보
- ④ 해당 모임 활동에 대한 사전 경험 기회
- ⑤ 해당 모임 활동을 같이해 줄 친구 또는 지인
- ⑥ 기타 (구체적으로 기입 : _____)

▶ 다음은 청년의 사회활동 참여 전반에 관한 인식 및 정책지원 관련 질문입니다.

문19. 귀하는 청년들의 경제적 자립 및 결혼·출산이 지연되고 있는 요즈음, 청년들의 사회활동 참여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 문 20로 가십시오**
 ② 동의하지 않는다 **☞ 문 20로 가십시오**
 ③ 동의한다 **☞ 문 19-1로 가십시오**
 ④ 매우 동의한다 **☞ 문 19-1로 가십시오**

문19-1. (문19에서 3, 4번 응답자만) 청년들의 사회활동 참여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동의한다면,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다음 보기에서 찾아 순서대로 2가지만 선택해 주십시오.

1순위		2순위	
-----	--	-----	--

- ① 사회 활동 참여를 통해 청년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으므로
 ② 사회적 관계망을 형성할 수 있으므로
 ③ 활동비 지급을 통한 금전적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④ 향후 취업에 도움이 되므로
 ⑤ 개인 역량을 키울 수 있으므로
 ⑥ 사회문제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높일 수 있으므로
 ⑦ 기타(구체적으로 기입:)

※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해 주십시오.

☞ 서울시는 2013년부터 현재까지 청년참 사업을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청년참 사업은 “분야에 관계없이 최소 3인 이상의 청년(커뮤니티)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활동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문20. 귀하는 귀하가 거주하고 있는 지자체에서 서울시의 ‘청년참’ 또는 그와 유사한 사업을 실시한다면, 참여할 의향이 있습니까?

- ① 있다 **☞ 문 20-1로 가십시오**
 ② 없다 **☞ 문 21로 가십시오**

문20-1. 귀하가 ‘청년참’ (또는 유사) 사업에 참여하고 싶은 가장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지역사회 개선 및 사회발전에 참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아서
 ② 원하는 활동을 하면서 활동비(금전적 혜택)도 제공받을 수 있어서
 ③ 공통의 관심사를 가진 청년들과 함께 활동하는 것 자체가 즐거운 것 같아서
 ④ 다양한 활동을 통해 내 적성과 흥미를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아서
 ⑤ 청년활동 경력이 취업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⑥ 기타 (구체적으로 기입:)

문21. 귀하는 최근 지방자치단체(광역 및 기초 단체 포함)들이 청년기본조례를 제정한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 청년기본조례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자립기반 형성을 통해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 ① 안다 ② 모른다

문22. 귀하는 귀하가 살고 있는 지방자치단체(광역 및 기초 단체 포함)에서 청년 사회활동을 위한 지원을 충분히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그렇다 ④ 매우 그렇다

문23. 지방자치단체(광역 및 기초 단체 포함)에서 제정한 청년기본조례에는 청년들의 참여와 자유로운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내용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만약 귀하가 거주하는 지방자치단체(광역 및 기초 단체 포함)에서 청년을 위한 공간(시설)을 별도로 설치운영한다면, 어떤 공간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학습공간
 ② 예채형 공간(모일 전용 룸, 회의실 등)
 ③ 개방형 공간(교류 등)
 ④ 특강 및 공연 공간
 ⑤ 신체활동 공간(체육시설, 체험시설 등)
 ⑥ 기타 (구체적으로 기입 :)

문24. 귀하는 우리나라 청년들의 개인적, 사회적 성장과 발달을 위해 중앙정부/지자체의 청년 사회활동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 ①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 문 25로 가십시오
 ② 동의하지 않는다 ➡ 문 25로 가십시오
 ③ 동의한다 ➡ 문 24-1로 가십시오
 ④ 매우 동의한다 ➡ 문 24-1로 가십시오

문24-1. (문24에서 3, 4번 응답자만) 향후 청년 사회활동 활성화를 위해 가장 필요한 지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선순위로 2가지만 선택해 주십시오.

1순위		2순위	
-----	--	-----	--

- ① 인건비(전담인력 임금) 지원
 ② 활동비(회의비, 교통비, 사무용품 구입비 등) 지원
 ③ 사업비(외부전문가 활용비, 사업아이템 개발비, 외부용역수탁비 등) 지원
 ④ 공간(시설) 지원
 ⑤ 연구 지원
 ⑥ 홍보 지원
 ⑦ 기타(구체적으로 기입 :)

문25. 만약 지자체에서 청년을 위한 공간(시설)을 무료제공 또는 할인 지원할 경우, 귀하께서 실제 이용하고 싶은 공간(시설)을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

문29. 귀하가 생각하는 부분과 일치하는 칸에 표시해 주십시오.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그룹활동을 할 때 지인의 장점이나 능력을 적극적으로 알려준다	①	②	③	④
2) 나는 그룹활동을 할 때 활용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제시한다	①	②	③	④
3) 나는 그룹활동을 할 때 지인이 다양한 관점에서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①	②	③	④
4) 나는 그룹활동을 할 때 나의 역할에 최선을 다한다	①	②	③	④
5) 나는 내가 속한 그룹에서 가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 능력을 최대한 발휘한다	①	②	③	④
6) 나는 그룹의 문제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내용을 지인들과 공유한다	①	②	③	④
7) 나는 그룹에서 발생한 문제를 지인들과 자주 이야기한다	①	②	③	④
8) 나는 그룹활동을 할 때 중요한 사항이나 문제점이 생기면 지인들과 함께 해결한다	①	②	③	④

문30. 귀하가 생각하는 부분과 일치하는 칸에 표시해 주십시오.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법이 불공정하다면 사람들은 정치적 항의를 할 수 있어야 한다	①	②	③	④
2) 사람들은 언제나 정부를 공개적으로 비판할 자유를 가져야 한다	①	②	③	④
3) 모든 사람들은 항상 그들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져야 한다	①	②	③	④
4) 중요한 문제를 결정할 때는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물어보는 것 보다는 한두 사람이 빠르게 처리하는 것이 좋다	①	②	③	④
5) 어떻게 해서든 잘 살 수 있도록 해주면 되었지 민주주의를 꼭 해야 한다는 법은 없다	①	②	③	④
6) 정치적 이슈 및 문제를 토론할 때, 나는 항상 토론에 참여한다	①	②	③	④
7) 나는 정치에 참여할 것이다	①	②	③	④
8) 나는 우리나라가 당면하고 있는 정치이슈들을 잘 이해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문31. 귀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을 신뢰할 수 있습니까?

- ① 전혀 신뢰할 수 없다 ② 신뢰할 수 없다 ③ 신뢰할 수 있다 ④ 매우 신뢰할 수 있다

문32. 귀하가 생각하는 부분과 일치하는 칸에 표시해 주십시오.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주변에 어려움에 처해 있는 이웃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도울 수 있다	①	②	③	④
2) 공휴일에 쉬지 못하더라도 자원봉사활동을 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3) 어려운 이웃/국가를 돕기 위해 기부금을 낼 수 있다	①	②	③	④

〈배경문항〉

배문1. (선문5에서 2번 응답자만)귀하가 진학한 대학(원)에 관한 질문입니다. 해당하는 것을 선택해 주십시오.

※ 대학 졸업자는 최종학력을 기준으로 응답하여 주시고, 대학 재학 중인 경우는 2017년 1학기를 기준으로 응답하여 주십시오.

학 제	①2년제 전문대학	②3년제 전문대학	③4년제 대학교	④대학원
설립유형	①국·공립	②사립		
대학소재지	①서울	②경기·인천	③서울·경기·인천을 제외한 여타 지역	
재학상태 (2017년 1학기 기준으로 응답)	①재학 중	②휴학 중	③졸업유예 중	
	④졸업	▶ 배문2으로 가십시오		
학 년 (2017년 1학기 기준으로 응답)	①1학년	②2학년	③3학년	④4학년
	⑤기타	▶ 배문2으로 가십시오		

배문2. 귀하가 다닌 고등학교(또는 학력취득)는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합니까?

- ①검정고시를 통한 고등학교 학력취득
- ②일반고(인문계고/종합고)
- ③특목고(외국어고·국제고/ 과학고/ 예술체육고/ 마이스터고)
- ④특성화고(공업고/정보고/상업고/농생명산업고/해양수산고/대안교육 특성화고 등)
- ⑤자율고(자율형사립고/ 자율형공립고)
- ⑥기타 ()

배문3. 귀하의 결혼을 하셨습니까?

- ① 미혼 ▶ 배문5으로 가십시오
- ② 기혼
- ③ 이혼/사별

배문4. 귀하의 자녀가 있으십니까?

- ① 예
- ② 아니오

배문5. 귀하의 월평균 소득 수준에 해당하는 보기를 선택해 주십시오. 배우자가 있는 경우 부부합산으로 응답하여 주십시오.

- ① 100만원 미만
- ② 100만원 이상~200만원 미만
- ③ 20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
- ④ 300만원 이상~400만원 미만
- ⑤ 400만원 이상~500만원 미만
- ⑥ 500만원 이상~600만원 미만
- ⑦ 600만원 이상~700만원 미만
- ⑧ 700만원 이상~1천만원 미만
- ⑨ 1천만원 이상~1천 5백만원 미만
- ⑩ 1천 5백만원 이상

배문6. 귀하는 현재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습니까?

- ① 예 ② 아니오

배문7. 귀하의 부모님의 최종학력은 무엇입니까?

※ 학교를 완전히 마치신(졸업하신) 학교를 표시해 주십시오.

※ 중간에 학교를 그만 둔 경우는 '졸업' 이 아닙니다.

※ 예 : 대학교를 다니다가 졸업하지 않고 중간에 그만둔 경우 고등학교 졸업에 표시합니다.

	안 계실	고등학교 졸업 이하	2~3년제 대학 졸업	4년제 대학 졸업	대학원졸업 (석사·박사)	잘 모르겠음
1. 부	0	1	2	3	4	5
2. 모	0	1	2	3	4	5

배문8. 귀하의 부모님의 월평균 소득 수준(부+모 소득 합산)에 해당하는 보기를 선택해 주십시오.

- ① 100만원 미만
 ② 100만원 이상-200만원 미만
 ③ 20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
 ④ 300만원 이상-400만원 미만
 ⑤ 400만원 이상-500만원 미만
 ⑥ 500만원 이상-600만원 미만
 ⑦ 600만원 이상-700만원 미만
 ⑧ 700만원 이상-1천만원 미만
 ⑨ 1천만원 이상-1천 5백만원 미만
 ⑩ 1천 5백만원 이상
 ⑪ 부모님 안계실
 ⑫ 잘 모르겠음

배문9. 현재 귀하는 귀하 명의로 된 부채(학자금 대출, 생활자금 대출 등)가 있습니까? 있다면 어느 정도입니까?

- ① 부채가 없다 ② 300만원 미만
 ③ 300만원 이상-500만원 미만 ④ 500만원 이상-1천만원 미만
 ⑤ 1천만원 이상-2천만원 미만 ⑥ 2천만원 이상

끝까지 응답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Abstract

Study on the status of social activity by youth in their 20s and support methods

This study focuses on the problem that youth policies to date have focused on jobs, in terms of seeking employment or entrepreneurship, identifies the present state of social activities by youth by focusing on changing sociocultural environments and resulting changes to such activities, and strives to extract policy methods to vitalize social activities by youth.

To achieve these research purposes, this study has analyzed the laws and policies relating to social activities of youth, and has reviewed foreign policy cases. Moreover, this study has identified the present state of social activities for youth in their 20s. Then, this study has classified youth groups participating in social activities, analyzing their experience of social activities in an in-depth manner, followed by FGIs with officials in charge of youth policies in regional governments on the present state of support projects for youth social activities, their opinions on supporting youth social activities and future improvements for vitalizing social activities. The results of the surveys, interviews and FGIs analyses indicated that while the youth have had strong desires to participate in the society but perceived the support from the central and regional governments to be insufficient, and the policy desires in the form of social participation were different between youth. The relevant officials emphasized the need to enact “Basic Act on Youth” at the central government level to vitalize the social participation by youth. Based on such study results, this study has set 4 dimensions for policy strategies for vitalizing youth participation in the society, and presented detailed tasks. First, policy tasks relating to the laws and policies relating to youth included ‘Enactment of the Basic Act on Youth and addition of content relating to youth participation in the society’,

and 'Addition of contents relating to youth participation in the society in Basic Ordinance on Youth for regional governments and Basic Plan for Youth Policy'. Second, as an overarching support mechanism for vitalizing youth participation in the society, this study has proposed supports for programs, space, human resources and administration relating to youth social activities infrastructure, named 'Financial Support for Individual Youth for Social Activity'. Third, this study proposed customized support mechanisms by type, including 'Customized support for non-participants and youth not attending post-secondary education', 'Reform of external activities for public institutions', 'Methods for vitalizing policy participation activity', and 'Increased support programs for regional youth organizations to reduce the regional gap in youth social activity. Fourth, this study has proposed the 'construction of a social system for vitalizing youth activity in the society', 'constructing a support system for vitalizing youth activity in the society', and 'constructing a connection system with youth activity support projects' as policy tasks relating to the building of support systems for youth participation in society.

Key words: Youth, social activity, youth community activity, external activities, policy participation activity, youth policy network

2017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간행물 안내

기관고유과제

- 17-R01 청소년의 지역사회 참여 모형개발 연구 / 황여정
- 17-R02 청소년보호정책 현황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 김지연·정소연
- 17-R02-1 청소년보호정책 현황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 기초분석보고서 / 김지연·정소연
- 17-R03 아동·청소년을 위한 기업의 사회공헌활동 활성화 방안 연구 : 기업-아동·청소년 NPO-정부의 파트너십 구축 / 임지연·김한별
- 17-R04 20대 청년들의 사회활동 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 / 김정숙·강영배
- 17-R05 세계시민의식 함양을 위한 청소년활동 활성화 방안 / 황세영·최정원
- 17-R06 청소년 사이버일탈 유형별 대책 연구 / 배상률·박남수·백강희
- 17-R07 청소년수련시설의 공공성 제고를 통한 운영 활성화 지원방안 연구 / 김형주·김정주·김혁진
- 17-R08 아동·청소년·가족 보호 통합게이트웨이 구축·운영 모형 개발 연구 / 서정아
- 17-R09 청년 사회·경제 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Ⅱ / 김기현·이윤주·유설희
- 17-R09-1 청년 사회·경제 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Ⅱ - 기초분석 보고서 - / 김기현·이윤주·유설희
- 17-R10 청소년활동 참여 실태조사 연구Ⅳ / 임희진·문호영·조남익
- 17-R10-1 청소년활동 참여 실태조사 연구Ⅳ - 기초분석 보고서 / 임희진·문호영
- 17-R11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조사 및 조성사업 연구Ⅴ / 오해섭·최인재·염유식·김세광
- 17-R12 다문화 청소년 종단조사 및 정책방안 연구Ⅴ - 총괄보고서 - / 양계민·강경균
- 17-R12-1 다문화 청소년 종단조사 및 정책방안 연구Ⅴ - 다문화·청소년의 발달 추이 분석 - / 연보라
- 17-R12-2 다문화 청소년 종단조사 및 정책방안 연구Ⅴ - 정책제언 - / 양계민
- 17-R13 미래인재 개발 전략으로서 재외동포 청소년 지원방안 연구Ⅲ / 김경준·정은주
- 17-R14 학교 밖 청소년 이행경로에 따른 맞춤형 대책 연구Ⅱ / 윤철경·성윤숙·최홍일·유성렬·김강호
- 17-R15 아동·청소년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이행 연구 - 한국아동·청소년인권실태 2017 : 총괄보고서 / 김영지·김희진·이민희·김진호
- 17-R15-1 아동·청소년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이행 연구 - 한국아동·청소년인권실태 2017 : 심화분석보고서 - 아동과 청소년의 인권관련 정보접근성과 인권의식 / 김진석
- 17-R15-2 아동·청소년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이행 연구 - 한국아동·청소년인권실태 2017 통계 / 김영지·김희진
- 17-R16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Ⅷ : 사업보고서 / 하형석·최용환·정은진·정윤미·한지형
- 17-R16-1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Ⅷ : 연구성과분석보고서 / 최용환·박상현·한지형
- 17-R16-2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Ⅷ : 데이터분석보고서 - 청소년 수면시간의 긍정적 효과 - / 정은진·하형석·고강혁·정윤미
- 17-R16-3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Ⅷ : 한국청소년패널조사 2018 기초연구 / 하형석·정은진·최승주

협동연구과제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7-39-01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 및 국제비교 연구Ⅳ : IEA ICCS 2016
- 총괄보고서 - / 장근영·성은모·이경상·진성희·최효선·김균희 (자체번호 17-R17)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7-39-02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 및 국제비교 연구Ⅳ : IEA ICCS 2016
- 초·중·고등학생용 기초통계보고서 - / 장근영·성은모·이경상·진성희·최효선·김균희 (자체번호 17-R17-1)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7-39-03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 및 국제비교 연구Ⅳ : IEA ICCS 2016
- 대학생용 기초통계보고서 - / 장근영·성은모·이경상·진성희·최효선·김균희 (자체번호 17-R17-2)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7-39-04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 및 국제비교 연구Ⅳ : IEA ICCS 2016
- 사회참여역량 분석 - / 김태준·홍영란·김홍민 (자체번호 17-R17-3)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7-39-05 IEA ICCS 2016 조사틀(Assessment framework) / Schulz, W·Ainley, J·Losito, B·Agrustii, G (자체번호 17-R17-4)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7-40-01 아시아 청소년 진로체험활동 국제비교 연구Ⅱ / 김현철·백혜정·이지연 (자체번호 17-R18)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7-40-01 아시아 청소년 진로체험활동 국제비교 연구Ⅱ - 한국과 일본의 청소년 진로체험활동 운영사례집 / 김현철·백혜정 (자체번호 17-R18-1)

연구개발적립금

- 17-R19 청소년의 노동기본권 보장방안연구(2018년 4월 발간) / 황진구·유민상
- 17-R20 인구절벽 현상과 청소년정책의 과제(2018년 4월 발간) / 이유진·김영한·윤옥경

수 시 과 제

- 17-R21 고등학생들의 정치참여욕구 및 실태 연구 / 이창호
- 17-R22 지방자치단체 청년참여기구 실태 및 체계 연구 / 조진우·이윤주
- 17-R23 인터넷사회의 부모와 자녀관계에 관한 한·중·일 비교 : 한국사례분석 / 이창호·김기현
- 17-R24 현장적용 제고를 위한 자유학기제 학교-청소년시설의 협업지침 분석 / 임지연
- 17-R25 지역별 청소년운영위원회 운영 특성 연구 / 이윤주
- 17-R26 청소년 분야 SDGs 이행을 위한 국내 네트워크 구축 및 협력 방안 연구 / 황세영·김기현
- 17-R27 청소년동반자 활성화 방안 연구 / 장근영·진은설
- 17-R28 청소년지도사 배치지원사업 실태조사 연구 / 황진구

수 탁 과 제

- 17-R29 2017년 4개국(한일중미) 청소년 의식조사 / 김기현
- 17-R30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운영계획 수립연구 / 장근영·황진구
- 17-R31 2016 학교 내 대안교실 우수사례집 / 학업중단예방 및 대안교육지원센터
- 17-R32 2016년도 청소년인터넷게임 건전이용제도 관련 평가 / 배상률·김동일·유홍식
- 17-R33 화랑마을 운영관리 실행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 김영한·서정아·임지연·좌동훈·한상철·신상구·박시현
- 17-R34 다문화 교육 종합 발전방안 / 양계민
- 17-R35 SDGs 시대 청소년 역량 증진을 위한 환경교육 활동 개발 및 활용 방안 / 황세영·이윤주·조성화
- 17-R35-1 SDGs 시대 청소년 역량 증진을 위한 환경교육 활동 개발 및 활용 방안 - 세미나 자료집 / 황세영·이윤주·조성화
- 17-R35-2 SDGs 시대 청소년 역량 증진을 위한 환경교육 활동 개발 및 활용 방안 - 국내외 사례요약집 / 황세영·이윤주·조성화
- 17-R35-3 SDGs 시대 청소년 역량 증진을 위한 환경교육 활동 개발 및 활용 방안 - 정책리포트 / 황세영·이윤주·조성화
- 17-R36 지식협력단지 초·중학생 기업가정신 교육 모듈 교재 개발 / 강경균
- 17-R36-1 (초등학생) 기업가처럼 생각하기(학생용 워크북) / 강경균
- 17-R36-2 (초등학생) 기업가처럼 생각하기(교사용 매뉴얼) / 강경균
- 17-R36-3 (중학생) 기업가처럼 생각하기(학생용 워크북) / 강경균
- 17-R36-4 (중학생) 기업가처럼 생각하기(교사용 매뉴얼) / 강경균
- 17-R37 청소년의 디지털 역기능 예방 교육 프로그램 효과성 연구-초·중·고등학생과 학교밖 청소년을 중심으로 / 성윤숙·김경준·최정원
- 17-R37-1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매뉴얼 / 정제영·김성기·선미숙
- 17-R37-2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매뉴얼 개발 연구 / 정제영·김성기·선미숙
- 17-R37-3 국내외 청소년 사이버 범죄 실태와 예방 대책 연구 / 안동근·박병식·김영욱
- 17-R38 청년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청년 정책 방향과 과제 : 2017년 청년정책모럼 / 김기현·한지형
- 17-R39 청년정책 추진체계 발전방안 연구 / 이윤주·김기현·하형석
- 17-R40 2017년 청소년종합실태조사 / 백혜정·임희진·김현철·유성렬
- 17-R41 2017년 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 / 김경준·최인재·정은주·김영지
- 17-R42 청소년자립지원관 운영 모형 개발 연구 / 김지연·백혜정
- 17-R43 제5·6차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상황 연구 / 김영지·이윤주·유설희
- 17-R44 시립청소년시설 적정 위탁운영비 배분을 위한 모형개발 연구 / 최용환·이재완·박정배
- 17-R45 지역아동센터 아동패널조사2017 / 김희진·정윤미
- 17-R46 중국인 유학생의 한국사회·문화적응 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 / 배상률·이경상·이창호
- 17-R47 청소년 국제교류사업 성과측정 체계연구 / 황세영·강경균
- 17-R48 청소년용 안전교육 프로그램 개발 연구 / 성은모·이성혜
- 17-R49 자립지원전담기관 운영매뉴얼 개발 연구 / 김지연·유민상·이상정
- 17-R49-1 자립지원전담기관 운영매뉴얼 개발 연구 - 자립지원전담기관 운영매뉴얼 - / 김지연·유민상·이상정
- 17-R49-2 자립지원전담기관 운영매뉴얼 개발 연구 - 기초분석보고서 / 김지연·유민상·이상정

- 17-R50 2017 청소년활동 실태 및 요구조사 / 이윤주·하형석·한지형
- 17-R51 국립강진청소년문화예술센터 건립을 위한 기본계획 / 김영한·이유진·정은진·강동영
- 17-R52 2017년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연구사업 / 서정아·연보라
- 17-R53 청소년 자기주도형 봉사활동 시범사업 운영/ 장근영
- 17-R54 시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 기능강화를 위한 평가체계 개편 연구 / 김형주·김정주
- 17-R55 2017년 학업중단 숙려제 운영기관 모니터링 결과보고서 / 학업중단예방 및 대안교육지원센터
- 17-R55-1 학업중단 숙려제 특화 프로그램집 / 학업중단예방 및 대안교육지원센터
- 17-R56 2017년 학업중단 예방을 위한 학교 컨설팅 결과보고서 / 학업중단예방 및 대안교육지원센터

세미나 및 워크숍 자료집

- 17-S01 선거연령 만 18세 하향의 의미 및 과제 (2/9)
- 17-S02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디지털 역기능 예방 프로그램 교육 심화 워크숍 (2/13~14)
- 17-S03 제7차 청년정책포럼 (2/23)
- 17-S04 제8차 청년정책포럼 (4/20)
- 17-S05 유엔아동권리협약 5·6차 국가보고서 공청회 (3/7)
- 17-S06 2016년도 고유과제 연구성과발표회 (3/31)
- 17-S07 2017년 학업중단예방을 위한 학교담당자 연수 : 제1권역 (4/4)
- 17-S08 2017년 학업중단예방을 위한 학교담당자 연수 : 제2권역 (4/7)
- 17-S09 2017년 학업중단예방을 위한 학교담당자 연수 : 제3권역 (4/11)
- 17-S10 2017년 학업중단예방을 위한 학교담당자 연수 : 제4권역 (4/12)
- 17-S11 2017년 학업중단예방을 위한 학교관리자 연수 : 제1권역 (4/14)
- 17-S12 2017년 학업중단예방을 위한 학교관리자 연수 : 제2권역 (4/18)
- 17-S13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디지털 역기능 예방 프로그램 교육 2차 심화 워크숍 (3/31)
- 17-S14 2017년 학업중단 예방을 위한 학교 컨설팅 위원 워크숍 (4/21)
- 17-S15 2017년 학교 내 대안교실 (4/13)
- 17-S16 2017년 학교 내 대안교실 담당자 기초 연수(1권역) (4/20)
- 17-S17 2017년 학교 내 대안교실 담당자 기초 연수(2권역) (4/28)
- 17-S18 2017년 제1회 대안학교장 협의회 (5/12)
- 17-S19 2017 NYPI & ARACD INTERNATIONAL CONFERENCE – Career Education and VET(Vocational Education & Training) for Youth in Asia : 청소년 진로교육 국제학술회의 아시아 청소년 진로교육과 직업교육 및 직업훈련 (5/17)
- 17-S20 2017 NYPI & ARACD INTERNATIONAL CONFERENCE – Career Education and VET(Vocational Education & Training) for Youth in Asia : Special Roundtable for Comparing career education between Korea and Japan (5/18)

- 17-S21 2017년 학교 내 대안교실 관리자 연수 - 1권역 (5/22)
- 17-S22 2017년 학교 내 대안교실 관리자 연수 - 2권역 (5/24)
- 17-S23 2017년 학교 내 대안교실 관리자 연수 - 3권역 (5/29)
- 17-S24 2017년 학교 내 대안교실 관리자 연수 - 4권역 (5/30)
- 17-S25 제4차 산업혁명과 미래의 청소년정책 (5/31)
- 17-S26 세계시민교육 사례 공유를 통한 청소년 활동 활성화 방안 논의 (5/26)
- 17-S27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조사 및 조성사업 연구Ⅴ 콜로키움 (6/22)
- 17-S28 SDGs 청소년 역량 환경교육 (6/26)
- 17-S29 2017 13th citizED International Conference Global citizenship and youth work: educational meanings, possibilities and practices (6.29~7.1)
- 17-S30 다문화 청소년의 효율적 지원 방안(통합과 선별) (9.22)
- 17-S31 청소년활동 중심 행복마을 운영 모형 및 지원방안 (7.28)
- 17-S32 2017년 한·러 차세대 전문가 세미나 - 한국과 러시아의 성인기 이행 : 청년 자립 '결혼 출산 현황 및 정책'(7.27)
- 17-S33 2017년 학업중단 숙려제 운영기관 모니터링 위원 워크숍 (8.18)
- 17-S34 청소년정치참여확대 및 활성화 방안 (8.28)
- 17-S35 2017년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담당자 연수 (8.29)
- 17-S36 2017년 「대안학교(각종학교 및 특성화중·고교) 담당교원 협의회」(9.1)
- 17-S37 한국 아동·청소년 패널 학술대회 (9.14)
- 17-S38 다문화청소년패널 학술대회 (9.15)
- 17-S39 지역별 청소년운영위원회 토론회 세미나 (9.9, 9.16)
- 17-S40 4차 산업혁명 및 인구절벽 현상과 청소년역량증진의 방향 (9.13)
- 17-S41 국제심포지엄 2017 [무업청소년(NEET) : 국제적 동향과 대응] (9.25)
- 17-S42 한-중 국제세미나 (10/31)
- 17-S43 청소년의 디지털 역기능(사이버범죄) 예방과 대책수립을 위한 전문가 포럼 (11.3)
- 17-S44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 연계기관 성과발표 및 우수사례발표 워크숍 (11.17)
- 17-S45 청소년의 노동권 관련 법제 현황과 주요 입법 과제 (11.28)

학 술 지

- 「한국청소년연구」 제28권 제1호(통권 제84호)
- 「한국청소년연구」 제28권 제2호(통권 제85호)
- 「한국청소년연구」 제28권 제3호(통권 제86호)
- 「한국청소년연구」 제28권 제4호(통권 제87호)

기타 발간물

-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77호 : 청소년정책평가제도 체계화 방안
-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78호 : 청소년의 세대통합역량 증진을 위한 지원 방안 연구
-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79호 : 미래인재 개발 전략으로서 재외동포청소년 지원 방안 연구 II
-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80호 : 청소년의 기업가정신 함양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실행 방안 연구
-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81호 : 지방자치단체 청년참여기구 실태 및 체계 연구
-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82호 :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개발 및 조성사업 연구(2013-2016)’의 성과와 향후 연구방향
-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83호 : 고등학생들의 정치참여욕구 및 정치참여 활성화방안
-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84호 : 중도입국 청소년의 실태 및 자립지원 방안 연구
-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85호 : 탈북청소년 지원 체계화 방안 연구
-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86호 : 다문화청소년 종단조사 및 정책방안 연구V
-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87호 : 청소년 분야 SDGs 이행을 위한 국내 네트워크 구축 및 협력 방안 연구
-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88호 : 청소년 동반자 활동 효율화 방안연구
-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89호 : 지역별 청소년운영위원회 활동 운영 특성 연구
-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90호 : 인터넷사회의 부모와 자녀관계에 관한 한·중·일 비교: 한국사례 분석
-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91호 : 아동·청소년을 위한 기업의 사회공헌활동 실태와 과제
-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92호 : 학교 밖 청소년 이행경로에 따른 맞춤형 대책연구 I
-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93호 :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KCYPS) 연구성과분석
-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94호 : 자유학기제 등 학교-청소년시설의 협업지침 활용방안
-
- NYPI Bluenote 통계 33호 : 청소년 차별 실태 연구
- NYPI Bluenote 통계 34호 : 2016년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
- NYPI Bluenote 통계 35호 : 청소년활동 참여 실태
- NYPI Bluenote 통계 36호 : 청소년 수면과 비만의 종단적 변화
- NYPI Bluenote 통계 37호 : 한국아동·청소년패널자료로 살펴본 청소년 관련 국정과제
- NYPI Bluenote 통계 38호 : 청소년의 학습습관 통제능력, 성적 만족도, 삶에 대한 만족도의 종단적 변화 -KCYPs 초 4패널-

연구에 도움을 주신 분들

◆ 집필진 ◆

조 소 연 (한국외국어대·강사)

최 성 우 (협동조합 성북신나·조합원)

◆ 자문·협력진 ◆

구 종 원 (서울특별시·청년정책담당관)

김 도 휘 (대구광역시청년센터·매니저)

김 희 성 (서울특별시 청년 명예시장)

박 동 광 (협동조합 성북신나·이사)

송 혜 윤 (대학내일20대연구소·책임연구원)

신 윤 정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정책지원단장)

안 현 중 (전 대통령직속 청년위원회·대외협력팀장)

양 호 경 (서울특별시·청년활동지원팀장)

엄 성 진 (서울특별시 청년허브·공유지지팀 매니저)

원 대 로 (서울특별시 청년허브·기획실 실장)

한 승 석 (광주청년센터 the 숲·청년창안팀장)

연구보고 17-R04

20대 청년들의 사회활동 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

인 쇄 2017년 12월 22일

발 행 2017년 12월 29일

발행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발행인 송 병 국

등 록 1993. 10. 23 제 21-500호

인쇄처 경성문화사 (044) 868-3537

사전 승인없이 보고서 내용의 무단전재·복제를 금함.

구독문의 : (044) 415-2125(학술정보관)

ISBN 979-11-5654-154-7 93330

연구보고 17-R04

20대 청년들의 사회활동 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사회정책동(D동)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6/7층
Social Policy Building, Sejong National Research Complex,
370, Sicheong-daero, Sejong-si, 30147, Korea
Tel. 82-44-415-2114 Fax. 82-44-415-2369 www.nypi.re.kr

